"이것을 국왕께 가져다드리거라."

"이건..."

"나로서는 최고로 귀한 선물을 내어주는 것이지만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겉보기에도 대단해 보이는 물건이니 성의 없다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물건인 줄 알고 있었기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았다.

"아비 팔 떨어지겠구나. 어서 받도록 해라."

"잘 전할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주신 함을 받아 들며 대답했다.

"정 힘들면 돌아와도 좋다. 네 뒤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래. 믿으마."

아버지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지 믿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염려를 놓지 않는 눈빛이셨다. 나로서는 불안이 없지 않았는데 그 눈빛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더 계시다가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아버지의 부관인 마르티스 경이 재촉했다. 그 소리에 내 어깨를 한 번 꽉 잡아주신 아버지가 그래도 미련이 남으신 듯 톡톡 몇 번 더 어깨를 두드리셨다.

"잘 가거라. 다음에 볼 때는 사위와 손주도 데리고 와야 한다."

힘주어 하시는 말씀에 부끄러워 울상을 지으니 그제야 웃음을 터뜨리셨다.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에 새기듯 가만히 눈에 담았다.

인사를 드리고 마차에 올라 창문 밖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얼른 가라는 듯 손을 젓고 계셨다. 우리의 거리가 멀어져 시야에서 서로가 벗어날 때까지. 그 손짓에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숙이니 앞에 앉아 있던 마리아 부인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리벤티아 아가씨. 그동안 제 가르침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고 싶으시면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이제 궁에 도착하시면 그때부터 아가씨는 절대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의 부군이 되실 왕세자 저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궁이라는 곳은 비밀스러운 눈과 귀가 많은 곳이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약점을 잡힐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궁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가씨의 감정을 쏟아낼 곳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는 왕궁에서 보내준 사람이었다. 내가 궁에 들어가기 전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는데 나를 좋게 봐주었는지 생각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그녀의 위로가 오히려 의지를 다지게 했다. 내 눈물이 아버지와 나의 약점이 된다면 지금 당장부터 절대 울지 않으리라.

"끝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정을 정리한 후 담담한 어조로 대답하니 부인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할 말이 없는 듯 부인이 가방에서 책을 꺼내 펼쳐 들었다.

그런 부인을 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차는 도심지를 빠져나와 이미 영지의 외곽을 달리는 중이었다.

웅장한 루베르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보였다. 이웃 왕국인 마레인과의 국경을 이루는 산맥이면서 우리 레스토 왕국 최대 철광석과 구리 산지이기도 한 곳. 그렇기에 마레인과 레스토 사이 오랜 전쟁의 주원인이 된 곳.

산맥이 사람들의 삶에 끼친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영지의 이름도 따로 짓지 않고 루베르라 부를 정도였다. 산맥에 둘러싸인 영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었다. 풍부한 자원과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양 왕국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왕국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이 땅을 차지하고 잃는 동안 루베르의 사람들은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점령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달은 왕국들은 이 땅을 차지할 때마다 혈안이 되어 가능한 한 많은 광물을 캐내려 했다.

그 과정에서 전의 왕국에서 역을 졌던 루베르 인들을 부역자라는 핑계 논리로 죽이기도 했다. 어차피 자신들의 영원한 백성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그저 함부로 대하기만 했다. 루베르 인들은 양 왕국 인들에게 광물을 캐내기 위한 인부로서의 용도 외에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흘린 피가 산맥에 넘쳐흘러 저 땅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전설도 남았다. 광활하게 펼쳐진 붉은 대지와 또한 같은 색의 산맥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오래전 유모에게 들었던 전설의 내용이 떠올랐다.

전설 속에서 루베르는 원래 이 세상에 하나 남은 드래곤의 땅이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붉다'라는 뜻의 '루베르'가 아니라 '거대하다'라는 뜻의 '잉겐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땅은 그 드래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드래곤은 땅과 함께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까지 깊이 사랑했다.

그래서 드래곤들이 모종의 이유로 이 세상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동안에도 고집을 부려 그 드래곤만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뿐인 드래곤이 이 세상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한 드래곤 로드가 그에게 제약을 걸어 더는 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는 꿋꿋이 이곳에 남았다.

유일한 드래곤이 머무르던 땅은 그 영향인지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하게 많은 광물을 품게 되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간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툭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만큼 루베르 인들은 죽어 나갔다. 드래곤은 급기야 지켜보기만 할 수 없어 허락되지 않은 힘을 쓰기에 이르렀다.

안타깝게도 드래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도리어 힘을 쓴 반작용만 받았다. 벌로 그나마 남아 있던 능력마저 다 잃어버린 드래곤은 하찮은 존재가 되어 결국 세상에서 사라졌다.

드래곤마저 사라지자 루베르 인들을 학살에서 지켜 줄 것은 없었다. 그들의 피가 넘쳐흘러 그렇지 않아도 붉던 땅이 이제 검붉은 색으로 진해져 버렸다. 드래곤이 머물러 잉겐스라 불렸던 땅의 이름마저 루베르로 변했다.

전설의 신빙성은 없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루베르의 사람들에게 한때 구원과 같았다.

실은 드래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땅 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언젠가 다시 깨어난 드래곤이 그들을 구해주러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루베르 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는 응답에 지친 사람들은 자포자기해 버렸고 점령국들에 이리저리 휩쓸려 고통받으면서 전설은 어느새 멀리 내팽개쳐졌다.

드래곤도 끝내주지 못한 고통의 세월을 끝낸 것은 의외로 그들과 같은 인간이었다. 바로 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60여 년 전 루베르에서 태어났다. 당시에는 루베르가 마레인 왕국 소속이었는데 고아였던 아버지는 다른 루베르 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강제로 광산 노동자가 되었다.

루베르에서 가장 위험한 광구로 배속된 아버지는 어느 날 특이한 돌을 발견했다.

흙벽에서 캐내자마자 겉의 흙이 떨어지면서 매끄럽고 둥근 공 모양이 드러난 돌은 심상치 않아 보였다.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긴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돌을 관리자에게 바치지 않고 숨겼다.

왕국에서 파견한 관리자들은 광부들이 광물을 빼돌릴까 늘 엄하게 감시했다. 그런데 그날은 일이 되려고 했는지 다른 곳에 사고가 터지면서 감시가 좀 느슨해졌다. 그 틈에 돌을 항문에 넣어 숨긴 아버지는 일이 끝난 후 받은 신체 수색도 무사히 통과하여 숙소로 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돌은 빛깔도 참 특이했다. 무지갯빛이 영롱하게 도는 것이 한참을 바라봐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눈길을 잡아끌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당신만 아는 비밀 장소에 그것을 묻어 두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원래 아버지는 남들보다 힘이 더 세고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을 뿐 특출 난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주변이 별로 없어 묵묵히 일만 하다 숙소로 돌아와 잠만 자던 외톨이였다.

그러던 이가 어느새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돌을 파묻고 돌아오던 길에 큰 바위가 사람을 덮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버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달렸다.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왔을 때서야 당신이 바위를 번쩍 들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들 수 없는 바위를 들어 사람을 구해 낸 아버지의 이름이 퍼져나 갔다.

구해 낸 사람은 주변에서 인망을 얻어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관리자들 몰래 사람들을 모아 영지의 독립을 준비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

노인의 사위가 된 아버지는 그의 지지를 업고 자연스레 그 무리에 스며들었다. 정신 차려 보니 아버지는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고 하는 일은 신기할 정도로 승승장구였다.

몇 년의 전투 끝에 영지가 마레인으로부터 독립에 성공했을 때 아버지와 루베르 인들은 많이 고민했다. 그대로 공국 선언을 하고 독립국의 길을 걷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길게 봤을 때는 풍부한 자원과 넓은 땅이 있기에 독립국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었다. 갓 독립을 하고 나니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그때 레스토 왕국에서 달콤한 제안을 해왔다.

마레인 치하에 있던 시절부터 물밑으로 루베르에 손을 써 왔던 레스토에서는 독립운동 시기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자력으로 독립운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루베르에서는 그들을 경계하면서도 도움을 받았다.

아마 레스토는 루베르가 독립한 후 자연스레 그들을 합병할 수 있을 거라 계산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기력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해 낸 루베르 인들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다.

루베르의 군대는 마레인과 싸울수록 전투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기사단에 못지않을 정도로 강해져 있었다.

당장은 가난하지만, 미래 발전 가능성이 확실한 곳.

레스토는 그런 루베르를 섣불리 자극해서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루베르가 레스토 소속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루베르를 자치령으로 남겨 간섭은 최소화할 것이라 제안했다. 그 대가로 영지의 자리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다른 영지보다 세금을 더 걷겠지만 그것도 과도한 부담이 될 만큼은 아니리라 약속했다.

고민하던 루베르 인들의 다수는 그 제안을 환영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함을 애통해하고 앞날을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현실적 어려움은 인정했다.

몇 날 며칠의 토론 끝에 루베르는 레스토 왕국 소속령이면서 자치령의 지위를 갖는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그게 3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루베르 자치령의 초대 영주가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긴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고 한다. 그제야 묻어 두었던 돌이 생각난 아버지는 돌을 찾아 파내었고 무사히 아버지 손으로 돌아온 돌을 보면서 생각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돌이 아니었을까.

독립운동하는 내내, 마치 다른 의지가 개입해서 아버지의 뒤를 떠미는 것 같았다고 한다.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전투에서도 신기하게 승리를 거머쥐었고 당신의 그릇에 비해 과도한 인심이 모였다고 한다.

비로소 영주까지 되었을 때 과연 이게 당신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강한 의문이 들었고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건 신의 의지가 깃든 행운의 돌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귀한 재료를 써 보석함을 만들었고 그 함에 돌을 담아 정성껏 보관했다. 역시 돌의 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지는 그 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자치령이 된 지 10년 만에 루베르 영지는 성도보다 더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빼앗기던 자원을 영지의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되니 남부러울 것 없었다. 산맥의 광물은 여전히 풍부하게 남아 있었고 강한 군대는 더 잘 먹고 잘 훈련받아 위명이 자자한 기사단이 되어 있었다.

그 무렵 성도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한창이었다. 고만고만한 왕족들 간의 다툼 속에서 지루한 내전이 이어지려던 찰나 한 왕족이 아버지에게 연락해 왔다. 왕위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이 새어나간 것인지 그를 이어 다른 왕족들도 다투듯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버지는 처음 연락한 왕족을 선택했다. 그동안 그의 행적이 나쁘지 않았고 결정적인 이유로 그 왕족이 자신이 왕이 되면 그의 아들과 아버지의 딸인 나를 결혼시키겠다 약조해 왔기 때문이었다.

비록 아버지가 레스토의 귀족 위를 하사받고 잘 나가는 영지의 영주가 되었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귀족들의 무시를 받아 왔다. 재력과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태생적 한계가 점차 우리를 주눅 들게 했다.

인제 와서 다 뒤엎고 독립해 버리기에 우리는 짧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 한편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결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내가 왕자와 결혼해 후에 왕비가 된다면 비로소 우리 영지의 위상도 제대로 높아질 것이다. 또 내가 낳은 아이가 왕이 된다면 우리는 왕족과 혈연관계가 될 것이니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테다.

그렇게 생각한 우리는 이미 루베르 인의 기상을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당시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다만 내가 왕자의 유일한 배우자가 될 것이라는 약조를 꾹 믿고 앞날에 대한 기대로 설렘만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왕궁에 도착하다

내가 성년인 18세가 되면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던 약조에 따라 17세부터 왕실에 맞는 신부 교육을 받기 시작한 후 반년이 지났다. 남은 반년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왕궁의 예법을 배우기로 했기에 오늘 길을 떠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단순한 성정을 지니신 아버지는 장밋빛 미래에 부풀어 계셨다. 그런데 마리아 부인의 교육 시간에 들러서 내가 듣는 수업 내용을 잠깐씩 같이 듣다 가실 때가 있었다. 자치령 밖의 사정에는 어두운 편이라 왕실이나 수도 귀족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부분이 많았는데 마리아 부인은 그런 우리에게 유용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다.

그때 아버지는 새삼스레 깨닫는 게 많은 눈치셨다. 아버지는 내가 떠날 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심해지셨다. 며칠 전부터는 잠을 설치시는지 매일 눈이 벌게져 있으시더니 오늘 준비를 끝낸 나를 따로 부르셨다.

일찍 어머니를 여읜 내가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아버지는 나를 토닥이시며 돌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다. 이야기의 끝은 늘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눈을 찡긋하시며 가벼운 듯 말씀하셨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그 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나도 좋았다. 어렸을 때는 영롱한 빛깔에 매끄러운 표면이 특별해 보여 좋았고 자랄수록 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기분까지 들어 나에게도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래서 돌이 든 함을 건네셨을 때 속으로 많이 놀랐다. 그리고 서글펐다. 이렇게 귀한 물건까지 내어 주면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야 하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 속이 상했다.

보석함이 든 가방을 쓰다듬어 보았다. 함을 건네주실 때 웃음 짓고 계시던 게 생각났다. 그리고 마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던 모습도 떠올랐다. 분명 다시 올 수 있을 텐데 어쩐지 그 장면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빠르게 달리는 마차가 좀 더 천천히 갔으면 했다.

아버지의 곁에서, 루베르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 무겁게 다가왔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부터 궁정으로 들어온 것은 알았는데 한참 기다리게 하더니 이제야 내리라는 신호였다.

성도에 들어오고부터는 마리아 부인이 권유한 대로 창에 커튼을 내렸다.

가문의 문장을 달고 있는 마차를 타고 왔기에 마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흥밋거리가 될 수 있었다. 자칫 잘못해 마차 안에서 흐트러진 모습이라도 보였다가는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도 있었다.

커튼에 빛이 가려져 마차 안은 어두웠다. 그런 어둠 속에서 내내 기다리는 것은 몸보다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마리아 부인도 이전에 자신이 얘기해 준 절차와 다른 것에 잠깐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초장부터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겠지.

한참 만에 들린 노크 소리에 마리아 부인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왕실 기사단 제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자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리니 그 뒤로 대기하고 선 한 무리의 기사단과 시녀들이 보였다.

그제야 남자와 다른 기사들의 차림새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도감에서 봤던 왕실 기사단 제복은 흰 바탕에 허리와 어깨 부분이 푸른 줄무늬로 장식된 것이었다. 다른 기사들은 책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내게 손을 내민 남자는 그 위에 상의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푸른 선이 하나 더 있었다.

명예 기사단장의 차림이 그랬다는 것이 떠올랐다. 왕실 기사단에는 실질적인 기사단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장이 있고 명예직으로 단장에 이름을 올려놓은 자가 있었다.

대대로 왕세자가 명예 단장의 직위에 올랐다가 왕위에 즉위하면 임시로 비워두고 다시 왕세자를 세우면 그를 단장에 임명하는 식이었다. 그러니 나의 예비 신랑이 직접 나온 것이었다.

뒤따라 내린 마리아 부인이 우리를 소개했다.

"저하, 오랜만에 뵙습니다. 리벤티아 데수르고 아가씨를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수고했네. 데수르고 영애를 만나게 되어 기쁘오.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왕세자에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다.

"데수르고의 리벤티아가 저하를 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원래 백작 이상의 가문 출신들은 성을 먼저 말하고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귀족 예법이다. 그만큼 자신의 성이 자랑스럽다는 의미였다.

"고개를 드시오. 우리 사이에 과례는 필요 없지. 내 아내 될 사람이 궁금해 나와봤으니 가벼운 남자라 흉하지 마시길 바라오."

"아닙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봤으니 됐소. 마리아 부인도 돌아왔으니 어서 집에 가봐야지. 나도 할 일이 많으니 다음에 또 봅시다."

대답도 하기 전에 몸을 돌려 가버리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원래 시중인이 나올 줄 예상했는데 그가 나온 것을 보면 대접해준 것 같으면서도 저렇게 가버리는 모습은 예의가 없는 것이기에 판단하기 모호했다.

"아가씨, 이 사람이 아가씨를 궁까지 모셔 드릴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허락받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세자가 기사단을 이끌고 간 후 남은 무리 중에서 마리아 부인이 한 여자를 가리켰다. 그녀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이자 함께 있던 다른 이들도 함께 고개 숙였다.

"고개를 들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엔리케 이브스입니다. 왕세자빈 궁인 릴리 궁의 시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같은 곳에서 일할 시녀들이니 이따가 모두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실 테니 우선 릴리 궁으로 모시겠습니다."

"알겠네. 아까 인사하는 것을 들었을 테니 내 소개는 생략하지. 마리아 부인, 여기까지 고마웠소. 부인도 어서 돌아가 보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궁까지 모시고 싶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부디 다음에 뵐 때까지 보중 하시길 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몸을 돌렸다.

마리아 부인과 벌써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다. 그새 정이 들었는지 낯선 곳에서 그녀의 존재가 의지가 되고 있었나 보다. 왜 그녀가 왕세자궁까지 들어오도록 허락받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나를 이끄는 시녀 무리에, 생각이 흩어졌다.

아직 결혼 전이라 세자빈 궁에 들어가는 것에 귀족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 또한 그런데도 왕실에서 밀어붙였다고 들었다. 6개월이나 미리 입궁하는 대신 나는 왕세자빈에 준하는 자격으로 온 것이다.

불안정한 자격으로 왕궁에서 오래 있는 것에 걱정하신 아버지가 국왕 전하와 협상한 결과였다. 의외로 왕실에서 선선히 내 자격을 인정해 주어 아버지가 놀라실 정도였다.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 외에는 모두 왕세자빈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기로 했기에 예정보다 빨라진 입궁에도 더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내가 바로 왕세자빈 궁으로 올 수 있었던 것에는 귀족들의 입을 다물게 할 만한 논리도 있었다.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궁을 꾸밀 바에는 어차피 쓰게 될 곳에 미리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왕실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시녀들이 안내한 궁으로 가니 입구부터 진한 향기가 났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기에 관심을 두니 눈치 빠르게 한 시녀가 설명했다.

"왕비 전하께서 아가씨를 위해 새롭게 꾸미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상심하셨을 텐데 이것으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군. 뵙게 되면 따로 인사드려야겠네."

"그러시다면 전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왕비께서 마음 써 주시는 게 감사했다.

릴리 궁 안으로 들어가 보니 궁의 입구에서 느낀 감상과 다르지 않았다. 아름다우면서 포근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궁 내부도 왕비 전하께서 주관하시어 단장에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가구를 새로 들이는 것부터 장식물까지 손수 고르시고 가끔 살펴보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그렇습니다. 예비 왕자비를 맞이하시는 것이면서 사사롭게는 며느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망하시지 않게 해 드려야 할 텐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왕비 전하야말로 아가씨가 이 궁에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괜한 심려를 끼쳐드렸군. 마음에 쏙 드는 곳이네."

"다행입니다."

궁문에 도착해서 받은 대우나 왕세자를 보고 느낀 불쾌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왕비 전하께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데 도착해서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답답했다. 반면 이브스와 대화를 나누며 둘러본 궁은 참으로 마음에 들었다.

왕실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시녀를 대동하고 오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오는 동안 간간이 마리아 부인의 시중을 받았을 뿐이었다. 허나 그녀도 정식 시중인이라기보다 스승에 더 가까운 이였다.

세세한 시중을 맡기기에는 미안한 사람이었고 손길이 부족하기도 했다. 며칠 마차를 타고 오느라 구김이 간 드레스가 많았다.

당장 입을 드레스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참에 시녀가 보여 준 옷장에는 새 드레스가 한가득하였다. 루베르 영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성도와 거리가 떨어진 탓에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신경 쓰고 있었는데 마침 마련되어 있는 드레스들이 다 훌륭했다. 그것도 모두 왕비 전하가 신경 써 주신 것이라 들었다. 세간에 왕비께서 인품이 좋으시다는 소문이 있고 마리아 부인도 '자상하고 검소한 분'이라 왕비 전하에 관해 설명한 적이 있다. 겪어 보니 들은 대로인 것 같아서 안심했다.

도착한 당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긴장했던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피로가 몰려왔던 터라 저녁도 마다하고 잠에 빠졌다.

덕분에 다음 날은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확인하니 초가을 특유의 약간은 건조하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달콤한 꽃향기가 섞여 들어와 기분 좋게 창가에 기대어 있으려니 문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데수르고 아가씨, 기침하셨습니까?"

"이브스 영애, 들어오게."

엔리케 이브스였다. 어제 이 궁을 소개한 후 그녀는 여러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중에는 릴리 궁의 시녀 목록도 있어서 그녀가 궁정 귀족인 이브스 자작의 딸임을 알 수 있었다.

"헬리오스 궁에서 전언이 왔습니다. 왕실 가족분들과 함께 점심을 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엔리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알겠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와 식후 다과를 하실 여유는 있습니다."

"그럼 식사는 되었고 간단히 마실 수 있는 것으로 가져다주게. 그 전에 씻을 준비부터 해 주고."

"네"

루베르에서는 침실마다 수도 시설이 갖춰진 방이 마련되어 있어 씻기 편했는데 이곳은 아니었다. 시녀들이 일일이 세면 기구와 씻을 물을 준비해서 방으로 옮겨 왔다.

전날에도 생각한 것이지만 시중인이 없다면 쉽게 씻지 못한다. 마리아 부인에게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아주 번거로웠다.

더구나 얼굴 닦는 건 직접 해도 될 텐데 왕실 예법은 그것마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어쩌면 왕실 예산 부족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중인들을 낭비해서 그런 건 아닐까.

당장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릴리 궁에 수도 시설 정도는 마련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웃어른들이 계신 궁을 빼놓고 내 궁만 손댔다가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른다. 그리고 벌써부터 튀는 행동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헬리오스 궁은 국왕 전하의 궁으로 왕궁에서 제일 큰 곳이다. 대부분의 궁정 귀족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한데 릴리 궁과는 꽤 거리가 멀다고 들었다. 따라서 걷기 편한 구두를 주문했다.

그것 말고는 따로 내가 입을 뗄 필요가 없었다. 시녀들이 생각보다 더 유능했다. 그들이 추천한 대로 차분한 푸른색 계열의 드레스를 입고 연하게 혈색만 돌 정도로 화장을 하고 보니 흡족했다.

늦지 않게 헬리오스 궁에 도착하니 다른 분들은 이미 식당에 자리를 잡고 계셨다. 바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국왕 내외분이 분명한 두 분과 왕세자,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미모의 중년 여성 한 분이 보였다.

"데수르고의 리벤티아가 국왕 전하와 왕비 전하를 뵙습니다. 이러한 광명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왕세자 저하를 뵙습니다."

"네가 데수르고의 딸이로구나. 부친을 하나도 닮지 않았군. 다행이야, 하하하."

마리아 부인이 가르쳐주신 것이나 읽었던 왕실 도감에서는 세 분에 대한 언급밖에 없었다. 과거 왕위 경쟁 후 즉위 과정에서 현재의 국왕께서 다른 왕족들을 모조리 숙청해 버리셔서 그렇다. 여성분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 주실 테니 일단 세 분에게 먼저 인사드렸다.

그러자 국왕 전하께서 호탕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시긴 했다. 우리 부녀를 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처음 봤을 때 저런 말을 한다. 아버지를 안 닮아 다행이라고.

"잘 왔네.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잘 쉬었나 모르겠군"

"마마께서 궁을 잘 꾸며 주신 덕분에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되었네."

왕비 전하는 왕세자와 많이 닮으셨는데 신기하게도 인상은 정반대였다. 사나워 보이는 그와 달리 전하는 아주 온화해 보이셨다. 눈빛과 어투가 참 따뜻했다.

왕비께서는 금발에 청안을 지니셨고, 왕세자는 금발에다 적안이었다. 머리도 눈동자도 온통 붉은색인 국왕 전하의 인상도 괜찮아 보였으니 단지 눈동자 색의 차이만으로 그렇게 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듯싶었다.

왕세자는 특유의 거칠고 신경질적인 기질이 있어 보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그에게 마주 인사했다. 어쩔까 하다가 혹시 몰라 그 옆에 앉아 있던 여성분에게는 살짝 무릎을 굽혔다.

"반가워요. 나는 페르도의 일레체예요. 백작 부인이고요."

그게 다였다. 어떤 관계인지 의아했지만, 그 자리에서 물어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였다.

"데수르고의 리벤티아가 페르도 부인을 뵙습니다."

"리벤티아라고 불러도 되겠지?

부인에게 인사를 끝내자 국왕께서 여쭈셨다.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황공합니다. 전하께서 편하신 대로 불러주십시오."

"그럼 나도 리벤티아라 부르도록 하겠네."

왕비께서 말씀하셔서 기쁘게 긍정해 드렸다.

"자, 인사는 그쯤하고 앉아도 된다. 시종들은 음식을 들이라."

"네, 전하."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국왕께서는 소탈한 느낌이 드는 분이었다. 오래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을 때도 저 모습이 믿을 만해 보였다고 한다.

식사 자리에서는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왕궁 예법이라 조용히 식사를 끝냈다. 그런 후 다 같이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다.

페르도 부인에 대한 언급이 간단하게라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은 그저 함께할 뿐이었다. 식당에서는 널찍이 떨어져 앉았어도 응접실에서는 모여 앉을 수 있었다.

"리벤티아, 네 시녀가 들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구나."

분위기를 보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국왕께서 먼저 물어 오셨다.

"제 아버지가 국왕 전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린다 했습니다."

"오! 무엇일지 기대되는구나. 이리로."

국왕께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손을 내미셨다. 곁에 있던 시종이 함째로 국왕께 바쳤다. 이미 다른 시중인들이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다 확인한 후였다.

"함부터 보통이 아닌 게 얼마나 대단한 게 들어있으려나."

기대 어린 얼굴로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신 국왕 전하의 표정이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셨다.

"이건... 내가 모르는 보석인 것 같구나."

"저희도 볼 수 있겠습니까?"

왕세자가 궁금하다는 듯 요청했다. 시종일관 따뜻하게 웃어 주시던 왕비 전하와 표정 없이 앉아 있던 페르도 부인도 궁금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 보여주도록 하라."

시종이 국왕께 건네받아 장갑 낀 손으로 돌을 꺼내 들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오묘해졌다. 왕세자는 인상을 쓰며 나를 보고 물었다.

"내 보기에는 그냥 돌 같은데?"

"따지면 돌이 맞겠지만 일반 돌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냥 시커먼 돌인데?

"시커멓다고요?

"그렇소. 영애의 눈에는 다르게라도 보이는가 보오?"

"그게..."

이상했다. 시커멓다는 왕세자의 말에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지금도 영롱한 무지개색으로 보인다. 바른대로 말하려다 그만뒀다. 왠지 그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호호호. 참 특이한 선물이군요."

갑자기 페르도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는 어조라 불쾌했다. 그러나 함부로 내색할 수 없으니 그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눈썹을 꿈틀거린 그녀가 돌을 받아서 잡고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설마 누군가 데수르고 후작께 사기 친 것이 아닐까요? 귀한 물건이라 하고 큰 값을 치르게 했다면 후작께서도 착각하실 수 있으셨겠죠."

이 여자가?

"사람이 깎았다고 보기에는 완벽할 정도로 둥근 모양이군요. 혹시 전설 속 종족의 손길이라도 닿은 것이 아닐까요?

왕비께서 편들어 주시기에 짧게 설명했다. 아버지가 돌을 습득한 과정과 돌을 지니는 동안 느꼈던 신비로운 느낌, 그리고 아버지가 이 돌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다.

"데수르고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맞겠군."

국왕의 말씀에 왕세자와 페르도 부인이 떨떠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왕비 전하는 묘한 표정이셨다.

"영애, 궁금한 게 있소. 그렇게 관리가 철저한 광산에서 이런 특이한 광석을 어떻게 빼낼 수 있으셨다오?"

왕세자가 시비를 걸듯 물었다.

"뒤로 넣어 숨겨 나오셨다고 합니다."

"뒤? 뒷주머니?"

"아니오. 큰일을 보는 곳 말입니다."

"아..."

"흠..."

"저런..."

왕실 어른 세 분이 동시에 신음을 흘리셨다. 그때까지 돌을 잡고 있던 페르도 부인이 얼른 시종에게 넘겼다.

"그러고 보니 색깔도 그런 게 그것이 떠오르는군."

뭘 말하는지 알아들었다. 왕세자의 말에 페르도 부인이 순간 얼굴을 팍 찌푸렸다. 그러더니 손수건을 꺼내 슬그머니 손가락을 문지르는 게 아닌가.

"이건 잘 보관하도록 하지. 나중에 데수르고 후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다오."

"네."

국왕께서도 굳이 직접 인사하겠다는 말씀 대신 나에게 전하라고 하시니 알 수 있었다. '별로구나.'

아버지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벌써 한참 전이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 깨끗이 하셨는지도 나는 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니 찝찝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그건 그거고. 속으로는 되돌려 달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이미 줘버린 걸 후회해도 늦었으니. 아깝게 되었다.

"전하, 외람되지만 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왕비가 내게? 말해보시오."

"귀한 선물인 줄은 알지만 제가 그것을 가져도 될까요?"

"뭐, 왕비가 잘 보관해 준다면 후작도 서운타 하지 않겠지. 리벤티아, 네 생각은 어떠냐?"

"뜻대로 하십시오."

왕비께서 내게 웃어주시며 당신의 시녀가 돌을 챙기도록 하셨다. 아쉬움을 티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종종 이렇게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를 갖자꾸나. 한 사람이 더 늘었을 뿐인데 생각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분위기야."

"그래요. 당신 말씀이 맞아요. 리벤티아, 라벤더 궁에도 자주 놀러 오게."

"네, 두 분 전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뜨시는 두 분께 인사드렸다. 고개를 들고 보니 왕세자와 페르도 부인이 휭하니 나가고 있었다.

아침에 상쾌했던 기분이 반나절을 넘기지 못하게 생겼다.

식구가 될 이들과 첫 만남부터 꼬이는 기분이었다. 선물이 그렇게까지 홀대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황했다. 그래도 다들 우리 마음 같지는 않을 테니 그럴 수 있다. 어쩌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지 못한 나의 불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해주는 이 없이 그대로 만남은 끝이 났다. 저만큼 나를 아랫사람 보듯 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

모르는 건 많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덜 어리숙하게 지내려면 소식통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왕비께서 머무르시는 라벤더 궁이 릴리 궁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들었다. 서둘러 그분을 찾아뵐 수밖에.

다음 날 라벤더 궁으로 방문 요청을 하자 왕비 전하는 바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찾아간 나를 환대해 주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즈음 조심스레 여쭈었다. 페르도 백작 부인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왕실 가족 식사 자리에 끼어 있었는지를.

"그 사람은 국왕 전하의 여인이네."

바로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이었다.

"하지만 국왕 전하께서는 후궁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하는 지금도 정식 후궁은 없으시지."

"그렇긴 합니다만."

말장난 같은 이야기였다.

"예전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까지 그대 부친의 도움도 컸지만 내 부친의 공로도 적지 않았지. 그 과정에서 우리 가문이 멸문할 정도였으니까."

그랬다. 그 일을 들었을 때 타인인 나까지 마음이 아플 정도였으니 전하께서는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그렇지만 이제 와 말씀하시는 어조는 담담했다.

"전하는 그 일을 줄곧 미안해하셨네. 즉위하자마자 이번 대에서 후궁은 없노라고 공포까지 하실 정도로. 그러나 정식으로 다른 여인에게 첩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 다른 여인을 마음에 들이지 않겠다는 소리는 아니지 않나."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내 생각은 그렇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국왕 전하의 수족이 되어 싸우던 중 왕비 전하의 부친과 세 오라버니, 조카들이 모조리 암살당한 건 유명한 얘기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몇몇 귀족들이 국왕 전하의 곁에서 떠났고 그때 전하께서 루베르로 아버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다지.

결국 즉위에 성공하신 국왕께서는 뒷배가 남지 않은 왕비 전하의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절대 왕비를 바꾸는 일도, 후궁을 들이는 일도 없을 거라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다.

국왕 전하의 어심이 확고했고 민심이 왕비 전하께 워낙 호의적이었다. 그랬기에 새로운 왕실에서 여인들로 세력 다툼을 하려던 귀족들도 더는 어쩌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뒷이야기는 뭐란 말인가. 속마음을 내색하지는 못하고 듣고만 있었다.

"전하의 다른 여인에 관한 얘기는 원래 이런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게 맞겠지. 그런데도 굳이 그대에게 말하는 이유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이네. 그 사람이 그동안 나와는 크게 부딪칠 일이 없었는데 최근 그대를 들이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일들을 벌이더군."

"그게 무엇입니까?"

"원래 그대의 교육 기간 1년 중 마지막 한 달만 궁에서 보내기로 하지 않았나."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갑자기 6개월이나 궁에 와 있으라고 바뀐 계획을 보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지. 나도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기에 당황했었네. 문제는 그것에 페르도 백작 부인이 연관된 것 같네."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기에?

"그녀는 지금 마리아 부인이 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어. 그리고 릴리 궁에 내가 배치해 둔 시중인들도 자기 사람들로 바꾸려고 시도했지. 그건 미리 알아서 막을 수 있었지만, 마리아에 관한 건 그러지 못했다네."

"왜 그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

"일단은 마리아에 대한 질투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네.

마리아의 부친은 선대왕의 측근으로 유명한 러스타 포르체 백작이었지. 페르도, 처녀 적 성은 '포토'라네, 포토 백작 영애 시절부터 그녀는 마리아를 고깝게 여기며 시비를 걸곤 했다네."

어쩐지 알 것 같아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친들끼리도 경쟁 구도라 사이가 나빴는데 두 사람도 성향이 맞지 않았거든. 마리아가 무시로 일관하는 통에 싸움이 되지는 않았지. 그러나 작은 포토 영애가 늘 포르체 영애에게 이를 갈고 다닌다는 소문은 돌았어.

마리아는 외동딸로 부친 사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자 스스로 미혼 선언을 하고 부친의 작위와 직위까지 물려받고자 선대왕께 주청했네. 원래 미혼 여성이라면 작위까지는 상속받을 수 있지만, 직위는 안 됐지. 그러나 그녀는 백작 위와 함께 궁정 관리직까지 물려받을 수 있었어. 선대왕께서 그 부녀를 워낙 아끼시기도 했고 마리아 그녀의 능력도 훌륭했기에 가능했다네."

마리아 부인에 관해 말씀하시며 전하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떠올랐다. 교육 당시 왕비 전하에 대해 수업을 할 때 마리아 부인의 태도도 그렇고, 두 분은 서로 사이가 좋으신 듯했다.

"일레체는 '페르도 부인'이 되어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나갔다 몇 년 전 홀몸이 됐다더군. 1년 전쯤 그녀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국왕 전하께서 그녀에게 빠져 버리셨지."

왕비 전하는 목이 마르신 듯 차를 한 잔 더 드셨다.

"마리아는 예법에 밝고 사리에 정평하기로 소문난 이일세. 한때 남자 귀족들을 제치고 왕세자 윤리 교육을 맡았을 만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교육 평가 보고서에서 그녀는 그대를 많이 칭찬했다네. 왕세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대를 못마땅해하던 귀족 중 그 보고 내용을 듣고 태도를 바꾼 이도 있다고 하네."

왕세자 말씀을 하실 때 씁쓸했던 표정이 잠깐 어리고 지나갔다. 그러다 나를 보며 다시 염려스러운 얼굴을 하셨다.

"그러니 마리아가 미래의 왕비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까 경계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는 정도일세. 페르도 부인은 어렸을 때도 귀족 영애답지 않게 욕심 많고 천박한 구석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 다시 보니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야."

"알겠습니다. 혹시 페르도 부인 쪽의 사람들로 의심되는 자들이 접근한다면 더 주의하겠습니다."

내 시녀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된 것도 그녀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마침 전하도 그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다.

"루베르에서 그대를 수발할 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지. 논리는 굳이 자치령의 사람들을 왕실로 들이느니 궁내 인재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것도 페르도 부인이 의심스럽네.

그녀를 향한 전하의 어심이 급속히 깊어지다 보니 궁내 많은 인심도 그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게 보이네. 더구나 그녀의 언니인 타밀라 레푸스는 귀족파의 우두머리인 크리멘 레푸스 공작의 아내이지.

레푸스의 두 공녀가 최근 몇 년 사이 마레인과 화해 분위기가 도는 틈에 그곳 왕족들과 혼인하게 되었네. 힘 있는 왕족들이고 남편들과 사이도 좋다니 레푸스로서는 맹수에게 날개가 달린 격이야. 레푸스 공작부인과 페르도 부인은 우애 좋기로 소문난 자매일세. 페르도 부인의 뒤에 전하 외에 든든한 친정까지 있으니 그녀가 왕실에서 자신의 입지를 튼튼히 하려는 것일 수 있겠지.

남은 반년 교육 담당자가 마리아 부인이 아닌 다른 이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네. 최소한 페르도 부인의 사람은 아니길 바라지만 어렵겠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녀에게 그대를 대신해 왕세자빈에 앉힐 만한 영애들은 없다는 걸세. 그녀는 자식이 없고 조카 둘도 다 기혼이니. 그대에게 해를 가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뜻이야."

루베르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궁중 암투로구나. 느슨해지기도 전에 마음이 팽팽하게 당기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식은 차를 시녀가 새로 데우는 동안 잠시 침묵이 찾아왔었다. 전하의 목소리에 짧은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어제 상심하지 않았나 모르겠군. 데수르고 후작이 기껏 보낸 성의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네."

"아닙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겁니다."

"데수르고 후작이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지. 어쩐지 나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다네. 보자마자 마음이 일렁이는 기분이었어. 잠시 스쳐 가고 말았지만 그런 느낌은 특별한 것이었네.

이제 내 것이니 내 재량으로 왕실 최고 보석들을 보관 겸 전시하는 소궁에 두기로 했네. 왕족들만 열람 가능한 곳인데 그대도 이제 우리 식구이니 그곳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두겠네."

"아!"

생각지도 못한 배려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렸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많이 닿아 있고 제게도 애틋한 물건입니다. 저희에게는 소중한 것이니 그만큼은 아니라도 왕실에서 귀히 여겨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배려까지 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그대 혼자 외로울 일도 많을 걸세. 그때마다 친정이 생각날 것이고. 나도 그랬으니까. 그대는 나와 달리 부친이 계시지만 가까이에서 뵙기에는 힘들지 않나. 그러니 그것을 보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네. 그러면 된 걸세."

"전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큰일을 한 것이라고 보답씩이나 받겠나. 그냥 라벤더 궁으로 자주 놀러나 오게."

"알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오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다가 얼른 표정을 단정히 바로잡았다. 잘 참고 있었는데 너무 반가운 이야기에 한순간 실수해버렸다. 하나, 예법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전하께서는 귀여운 것을 보는 눈으로 미소 짓고 넘어가주셨다.

그 외에 감사하게도 앞으로 왕궁에서 생활하며 조심할 것들이나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다. 그중에는 마리아 부인에게 미처 듣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어 주의 깊게 들었다.

특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귀족 영애들을 모아 내 주관 아래 다과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 마리아 부인에게 듣기로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한다.

두 달 반 정도 후에는 해가 바뀌면서 왕실에서 신년 연회를 연다. 그 자리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선을 보이게 되는데 그 전에 미리 귀족 영애들과 안면을 익혀 친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졌다. 그러나 이 정도로 한탄해서는 안 되겠지. 닥친 일이니 잘 해내야 한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내게 귀족 여자 친구가 생길지도 모르니. 아버지의 봉신 중에서는 내 또래의 영애를 자녀로 둔 이들이 없었다. 더구나 평민 아이들은 나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쉬움이 컸다.

당겨진 일정만큼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더 빨라졌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일을 맞이해 부담스러워하기보다 기대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을 터였다. 그렇게 자신을 다졌다.

아쉬움을 표해주시는 전하께 또 오겠다 말씀드리고 릴리 궁으로 돌아왔다. 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전할 서신을 적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이 서신이 중간에 뜯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궁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선물을 왕실 어른들이 잘 받아주셨다는 것 정도로 소식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하마터면 돌이 깨지는 줄 알았다고.

예전에 돌이 깨질 것 같을 때마다 영지에 일이 생기곤 했었다. 진짜 금이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매끄러운 표면에 가느다란 실선 무늬가 나타나곤 했었다.

그걸 우리는 돌이 깨지려고 한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일 중 하나라 생각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영지에서 큰불이 난다거나 광산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소소하게는 내가 몸살에 걸려도 그 전에 실선이 나타났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와 나는 새로운 무늬가 나타나는지 매번 확인했다. 그렇게 미리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던 적이 많았다.

그래서 가슴 철렁한 일을 겪을 뻔할 때마다 우리는 '하마터면 돌이 깨지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안심하곤 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알아들으실 거다. 내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왕실에서 아무도 내 사람을 데려오지 못하게 해서 마리아 부인만이라도 믿고 왔더니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다.

"자, 허리를 좀 더 꼿꼿하게 세우시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

"옳지!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타고나셨는데요? 훌륭합니다!"

새로 온 교육자는 예상했던 대로 페르도 부인의 인선이라고 했다. 그녀의 친정 쪽 먼 친척이라던가. 개인 가정교사를 주로 하면서 수도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자라고 릴리 궁의 시녀들이 말해주었다.

자신을 막심 브래드 남작이라고 밝힌 그는 자기 말로, 가르치던 영애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피곤할 정도라 이제는 유부녀들만 가르칠 예정이라고 했다.

영애들과는 자꾸 스캔들이 터져서 임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나 뭐라나 내가 굳이 대꾸할 필요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혼자 한참 얘기하더니 내게서 별 반응이 없자 주제를 바꿨다. 마리아 부인의 교육 내용을 묻더니 그럼 왕실 승마술을 배워야 한단다. 그러고선 아침부터 다짜고짜 승마장으로 나를 끌고 왔다. 와서는 말을 달리지도 못하게 하고 왕실에서는 말을 타는 자세가 따로 있다면서 자세 교정만 하게 했다. 유일하게 제대로 가르쳐 준 것이 낙법 하나였다.

내가 이래 봬도 루베르에서는 말만 탔다 하면 날아다녔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막 날았다. 승마장에 만들어 놓은 장애물은 물론이고 목장 펜스도 넘고 개울도 뛰어 건너고. 마장마술까지 배운 몸이다.

이미 고급 기술까지 다 아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기초 승마술을 배우느라 시간을 잔뜩 허비하고 있었다. 다 할 줄 안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그래도 무조건 더 배워야 한다더니 다른 말 없이 아까처럼 칭찬만 늘어놓았다. 자꾸만 말을 움직여 위험하게 옆으로 붙이면서.

향수를 얼마나 지독하게 뿌렸는지 냄새에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거리를 띄우면 다시 옆으로 붙어온다. 말이 냄새에 예민하진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자기 머리는 또 얼마나 쓸어 넘기는지 모르겠다. 백금색의 장발이 꽤 찰랑거리기는 했다. 그렇다고 멋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대놓고 자기를 봐달라는 기색이었다.

그렇게 여러모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자였는데 그중에서도 최고는 자세를 봐준답시고 채찍 손잡이로 자꾸 엉덩이골과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놀라서 쳐다보면 느끼한 웃음을 지으면서 슬쩍슬쩍 채찍을 든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몸을 훑고 갔다.

채찍으로 그러는 것은 무슨 의도이며 말 위에서 굳이 옆으로 몸을 기울여 가면서까지 건드리는 건 뭘까.

몸을 쓰는 기술을 배울 때에는 교사와 학생의 몸이 닿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까지 하나.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마리아 부인에게 수업을 들을 때보다 몸을 더 사린 감도 있었다.

"자, 등을 펴세요. 아주 완벽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은근슬쩍 채찍으로 왼쪽 가슴을 찔러 왔다.

이렇게 딱 붙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를 가만히 두고 있으면 누군가 멀리서라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일 것인가. 어쩜 가까이 붙어서 다정히 스킨십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닐까 퍼뜩 생각이 스쳤다. 나도 모르게 오른손에 든 채찍으로 그자의 팔을 탁, 쳐버렸다.

"악!"

왕실에서 붙여준 교사인데 함부로 사고를 친 건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얼굴도 떠올랐다.

순식간에 오만 생각이 다 났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기껏 이런 남자의 저급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궁으로 온 것이 아니다. 더는 이 자를 참고 싶지 않았다.

"어머나, 미안하오, 브래드 경. 괜찮소?"

"으..."

많이 아픈지 대답도 못 하고 말 등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말이 놀랄까 걱정했는데 군마 교육도 함께 받는다더니 사람의 비명에도 꼼짝 않고 순하게 서 있었다.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낯선 사람이 몸을 만지는 걸 못 견딘다오. 아까부터 억지로 잘 참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어쩌지? 훈련은 그만하는 게 어떻겠소?"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내 뜻을 그가 알아차려야 할 텐데. 나는 비폭력주의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이를 때리고 싶지 않다.

그가 채찍에 맞은 팔을 움켜쥐고 고개를 들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말했다.

"아가씨께서는 채찍 기술도 아주 대단하십니다. 하핫,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왜 저자는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는 걸까.

무한 반복으로 억지 연습을 시킬 때는 괴롭히는 것 같다가 유혹하는 듯 굴기도 하고 남의 몸을 집적거리면서 말투는 얼마나 자상한지 사랑에 빠진 자 같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칭찬도 넘칠 정도로 과하다.

그렇지 않아도 조심하고 있는데 신경을 더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았다.

"저, 제가 팔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제 말고삐를 잡고 대신 끌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말 위에 올라타서 남의 말고삐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수업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나도 안다는 것이다. 원래는 그가 이런 걸 요청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일단 부탁을 들어주었다.

고삐를 잡느라 말이 다시 바짝 붙자 슬그머니 내 쪽으로 몸을 누이는 낌새가 들었다. 얼른 그자의 고삐를 놓고 내가 탄 말의 배를 찼다. 앞으로 빠지는 동시에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어어? 아가씨? 으악!!"

말에서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난다. 정말 위험한 일이다. 함부로 말에서 떨어져서도, 남을 떨어뜨려도 안 된다.

그가 말에서 떨어질 것을 예견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조금 전 그가 보여준 낙법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실수로 말에서 떨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멋지게 떨어졌는데 그때 그는 다른 재수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간 멋져 보일 정도로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갖추고 있었다.

그를 믿었다. 다행스럽게 그는 내 믿음에 보답해 주었다.

아까보다 조금 삐끗하기는 했지만 완벽에 가까운 모양으로 떨어지는 그를 보며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칠 뻔했다.

"브래드 경, 내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나 보오.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 실수를 해버렸군. 그러게 이제 훈련 그만하자고 말하지 않았소? 괜히 애꿎은 그대만 다쳤구려."

"흐윽..."

"경, 우는 것이오? 저런. 경을 도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리다. 아까부터 왜 여기에 아무도 없는 건지. 번거롭기는 하지만 내가 얼른 다녀오겠소."

호흡 소리를 들어보니 나쁘지 않았다. 혹시 실수로 갈비뼈가 부러져 폐라도 찔렀을까 걱정했다. 다리나 허리를 다치지 않았을까도 걱정했는데 낙법 할 때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이었다.

다만 우는 소리에 마음이 좀 안돼서 최대한 빠르게 말을 달려 지나가던 시종을 불러 잡았다. 시종이 사람을 불러 그를 부축해 나가는 것까지 보고서 릴리 궁으로 돌아왔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는 발목에 붕대를 매 감은 채 다시 찾아왔다. 오늘은 실내 수업을 하자며 해맑은 얼굴로 응접실에서 책을 펴는 그에게 조금 무서움을 느꼈다.

혹시 왕실이나 수도에서는 승마술을 가르칠 때 다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엔리케에게 어제 일에 대해서 말하며 확인해 봤다. 그러자 그녀가 정색하며 그런 수업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업 중이니 다른 시녀들은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그의 말에도 차 시중들 시녀와 양쪽에서 책장을 넘겨줄 시녀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시녀들을 내보내지 않고 있었다.

"괜찮냐고 안 물어보십니까?"

뜬금없었다. 발목이 불편하다는 듯 계속 꼼지락거리는 걸 모르는 체하고 있었더니 자기가 먼저 물어온다.

"괜찮소?"

"예! 이쯤이야 거뜬합니다. 사내대장부라면 이런 일쯤 별거 아닌 겁니다. 혹시 걱정해 주신 겁니까?

"..."

"후훗, 어제 처음 뵀는데 저에게 정이 많이 드셨나 보군요."

그때 엔리케가 우리 앞으로 찻잔을 놓았다. 나는 뜨거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편이라 엔리케는 보통 내게 미적지근한 차를 가져다준다.

다른 곳에서는 차가 식기를 기다렸다 마시지만 내 궁에서는 평소대로 찻잔을 보자마자 집어 들었다. 내가 그래서였는지 브래드 남작도 생각 없이 찻잔을 들어 마시더니 왈칵 찻물을 뱉어냈다.

"엇뜨뜨!"

벌떡 일어나더니 입으로 손부채를 부치는 모양새가 호들갑스러웠다.

"아가씨, 혹시 손수건 없으십니까?"

부주의하게 외간 남자에게 내 손수건을 넘겼다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함부로 주겠나.

어릴 때 읽었던 소설 중에 손수건 때문에 낭패 보는 여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질투한 남편의 부하가 계략을 써서 아내와 남편을 이간질하는 바람에 아내가 남편에게 목 졸려 죽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악당이 쓴 방법이 아내의 손수건을 훔쳐내 그녀에게 직접 받은 것처럼 연기해서 남편이 그녀를 의심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생각난다면 내가 과민해서일까. 어쨌든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시녀들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자 머쓱한 듯 그가 상의 주머니에 장식용으로 꽂혀 있던 손수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으로 입을 쓱 닦더니 민망한 표정으로 엔리케에게 차가운 물을 부탁했다.

엔리케가 밖에 있는 시녀를 불러 시키자 그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어쩐지 그의 진심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을 좀 크게 떠버렸다. 얼른 표정을 고쳤지만, 어느새 그걸 봤는지 그가 다시 싱글벙글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비추면 안 되는 건데 실수였다.

다른 건 얼추 따라갔는데 표정을 감추는 법은 실수가 잦아서 마리아 부인과 특훈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수하곤 한다. 처음부터 이자에게 배웠더라면 귀족의 표정만은 완벽하게 훈련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자는 마리아 부인보다 나를 더 엄격하게 단련시키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그는 이 일로 혀가 심하게 데어서 한동안 수업 곤란하다고 연락해 왔다. 대체 교사도 오지 않아서 며칠 수업은 쉬기로 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보내신 답이 도착했다.

저녁 식사 후 시녀들을 모두 물리고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이른 시간이라 예전에 마리아 부인이 정리해서 건네준 왕실 전범 요약집을 펼쳤다.

부인이 함께 있을 때는 모르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물어보기 쉬웠다. 궁으로 들어와서도 계속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인이 없으니 빈자리가 컸다.

다행히 그녀가 세심한 덕분에 혼자서라도 공부할 수 있는 게 어디겠나. 정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따로 적어두었다. 물어볼 만한 곳이 한 군데쯤 있겠지. 사실 왕비 전하를 찜해 두었다는 것은 나만 아는 비밀이다.

나중에 여쭤볼 것을 적다 보니 종이가 글씨로 빽빽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타박하실 분은 아닐 테지.

집중해 있는데 누군가 똑똑 유리창을 두드렸다. 명백한 노크 소리였다. 왜 방문이 아닌 창문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의아했다.

확인해 보려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다. 창으로 걸어가 커튼을 걷어 보니 창틈에 쪽지가 끼어 있었다.

루베르에 있을 때 즐겨 읽던 추리 소설에서는 이런 걸 미끼로 써서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만든 후 암살자가 목을 쓱싹!

에이, 설마 하며 걸쇠를 풀어 창을 연 후 쪽지를 갖고 들어왔다.

사랑하는 티아, 아비다.

이따 어떤 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는 내가 보낸 자이니 안심하고 맞아주어라.

언제나 너를 생각한단다.

루베르에서 아비가

그리운 글씨체였다. 이런 식으로 답장을 보내실 줄은 생각도 못했다. 편지를 읽는 시간에 딱 맞추어 다시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야에 낯선 이를 침실에 들인 적은 처음이었다. 어색한 느낌에 심호흡을 한 후 창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데수르고 아가씨."

"네, 안녕하신가?"

창을 열자마자 바특하게 붙어서 있는 거리에 깜짝 놀랐다. 이상하게 말해 버렸다.

"네. 마마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아스트룸'의 단장인 싱케루스 유바르라고 합니다."

까맣고 덥수룩한 머리 사이로 보이는, 씨익 웃는 그 검은 눈빛이 참 맑아서 인상적이었다. 차림새까지 온통 까만데 어떻게 저렇게 밝은 느낌이 날까.

"데수르고 아가씨, 침실로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따뜻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테라스가 너무 춥습니다."

"들어오시오. 이쪽으로 따라오시오."

침실에 있던 촛불을 들고 응접실로 난 문을 열어 그를 불렀다. 시녀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 벽난로에 불을 붙이려는 데 잘 안 됐다. 루베르에서는 종종 했던 일인데 그새 손이 무뎌진 건지 자꾸 불이 붙으려다 말았다.

"잠시만요. 제가 해 보겠습니다."

불쏘시개로 뒤적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그가 다가왔다. 얼른 불쏘시개를 가져가는가 싶더니 이내 난롯불이 타올랐다.

"아버지가 보내신 쪽지를 둔 게 그대였소?"

"네, 데수르고 영주 님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무작정 찾아뵈면 아가씨께서 많이 놀라실 테니 미리 그 쪽지를 보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랬군. 고맙소."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조용히 웃음이 나왔다. 다시 한번 더 쪽지를 펼쳐 보았다. 그분의 손길이 종이에 닿아 있을까 가만히 종이 위에 손을 대 보았다.

"아까 '아스트룸'의 단장이라고 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저희 아스트룸은 정보 단체입니다. 데수르고 영주님께서 특급으로 의뢰를 넣으셔서 단장인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까부터 아버지를 영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루베르 영지민이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래 수도에서 활동했습니다. 본거지는 수도에 있고 최근 루베르에 지점을 내면서 영주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군. 이렇게 빨리 소식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소. 아버지께서 내게 전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소?"

"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차라리 편지로 쓰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건 필요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제 입으로 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하신 것 같아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돌이 깨지는 줄 알았다'라는 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여쭈라고 하셨습니다."

"왕궁에 와 보니 내가 고립된 느낌이오. 마리아 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페르도 백작 부인이 막고 있다오.

다행히 왕비 전하께서 챙겨 주시고 릴리 궁의 시녀들도 믿을 만한 이들인 것 같소.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믿기에 만난 시간도 짧고 내가 편한 대로 부릴 만한 이들은 아니지 않소.

내 수족이 되어 눈과 귀가 되어 줄 만한 이가 필요하오."

"그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왕궁에 남몰래 들어오는 것이 쉬운 일이오? 그리고 나는 여성 쪽이 편하오."

"지금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다른 여성을 들여보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버지의 판단과는 별개로 나 스스로 확신이 필요했다.

진중한 목소리와 눈길이 바른 사람이었다. 가만히 미소 짓는 입매를 보면서 문득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다.

짧은 판단을 마쳤다.

"그렇다면 알겠소. 그대는 수도에서나 왕실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듣지 못했소?"

"싱케루스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상한 일이라면 이곳에서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가씨께 필요할 만한 정보라면 우선 최근 왕세자 저하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랄까요."

"그분께 내가 알아야 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소?"

"그 전에 무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괴롭더라도 진실을 아는 것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꽃밭에서 사시는 것 중에서 아가씨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싱케루스 경, 나는 진실을 택하겠소. 거짓된 평화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오."

"'경'은 붙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소식이 아가씨께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가 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페르도 부인이 국왕 전하의 정부가 된 후 왕세자와도 가까워지기 위해 그에게 끊임없이 여자들을 대어주었다.

그러다 몇 달 전부터 페르도 부인이 왕세자에게 자신이 알던 화가를 소개했다. 왕세자는 그녀와 깊은 관계가 되었고 교체 주기가 짧았던 다른 여자들과 달리 그녀와는 꽤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귀족들의 대리 화가로 출발해서 그들의 후원으로 지금은 수도 미술계에서 꽤 유명한 화가로 성장했다. 기행을 일삼기로도 유명해서 평소에도 주변이 떠들썩한 이였다.

그런 그녀가 평민인 자신이 왕세자의 여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해서 주변인들에게 뽐내고 다녔다.'

거기까지 말한 그는 잠시 검지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다.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더 있소? 다 말해주시오."

"잠깐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참, 깜빡했구려. 조금만 기다리시오."

길게 말하느라 목이 탔을 텐데. 마침 자리끼 용으로 시녀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께서 움직이시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참을성이 부족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무심했소. 미안하오."

가져온 김에 나도 한 잔 마셨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건조했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모이카입니다.

그녀가 최근 크게 화가 났습니다. 왕세자 저하와 내밀한 사이라는 자신의 말을 귀족들은 쉽게 믿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의 평민들이 믿기는커녕 그녀를 조롱하고 모욕했나 봅니다.

그러자 그녀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곧 있을 전시회에서 자신이 그린 왕세자 저하의 나체화와 둘의 야릇한 자세가 담긴 그림을 공개하겠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떠벌린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귀족들의 개인 살롱을 넘어 사교계 전체로 퍼지고 있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저희도 황당했지만 다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대관하기로 예약한 전시장에 이미 그 그림을 걸어두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직원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체! 왕실에서는 모르오? 막아야 하지 않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국왕 전하께서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하께는 별 영향이 없으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에게 그 정도는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왕족인 걸요. 푸른 피 중에서도 가장 푸른 피입니다. 고귀한 피는 쉽게 더럽혀질 수 없다는 게 왕족이나 귀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왕실에서는 굳이 간섭하여 이 일이 왕세자의 치부라는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잘못 건드렸다가 세간의 관심을 더 끌 바에야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화가만 신났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공개하겠다 선언한 후부터 그녀의 그림 판매량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화젯거리가 생겨날수록 그림값은 더 뛸 테니까요.

제일 큰 문제는 아가씨입니다."

"왜 그러오?"

"그녀의 급이 너무 낮습니다.

이건 좋게 표현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왕세자께서 너무 저질인 여자와 놀아나셨습니다. 벌써 아가씨와 그녀를 동일 선상에 놓고 아가씨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놀아난 것은 왕세자인데 여자와 동급 취급받는 것은 내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평민 출신에서 작위를 받은 우리 가문을 낮잡아 보는 무리가 많았거늘. 언제든 타오를 준비를 하는 곳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구나.

"어째서 페르도 부인은 그런 여자를 저하께 소개한 것이오?"

"그게..."

"지금까지 다 말해 놓고 인제 와서 무얼 망설이시오. 괜찮으니 말해 보시오."

"그녀가 줄곧 저하께 소개한 여자들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여성이지만 그동안은 대놓고 창기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위가 천하고 밤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 외모적으로는 모두 창백한 피부에 키 크고 마른 여성이었습니다."

"왕세자 저하의 취향에 맞춰주었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아마 저하의 취향을 알고서 환심을 사고자 벌인 짓 같습니다."

"그녀는 이미 국왕 전하의 마음을 충분히 가졌잖소?"

"차기 왕이 될 자의 마음도 미리 잡아두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그녀에게 아낌없이 많은 재물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좋은 건 오래도록 누리고 싶은 법입니다.

이미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수고비 조로 그녀에게 꽤 많은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그들이 말하는 고귀한 피는 이런 것에 불과했나.

추잡하다. 환멸이 일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또?"

"최근 1년 사이 레푸스 공작가에서 왕궁을 방문한 횟수가 지난 10년간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정식 출입자 명단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 몰랐는데 이번에 페르도 부인의 뒤를 캐면서 공작가까지 확인하다 보니 걸려들었습니다.

드나들 때마다 왕궁 뒷문으로 비밀리에 다녔더군요. 국왕 전하의 재가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소?"

"급하게 확인하느라 아직 자세한 정황은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영주님의 의뢰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아스트룸이 수도에서 뿌리내린 지 벌써 30년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저희 눈을 벗어난 정보는 없었다고 자부했는데 이런 일을 감쪽같이 몰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더 놓친 것은 없는지 지난 10년의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왕세자의 환심을 사려는 페르도 백작부인. 싱케루스는 그녀를 '포주'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가 공작부인으로 있는 레푸스 가. 페르도 부인의 형부인 크리멘 레푸스 공작은 능력 있고 교활한 자라 들었다. 수도에서 피튀기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현 국왕 전하와 반대편에 있던 이 중 살아남은 유일한 귀족이었다.

그리고 그들과 무언가 일을 꾸미는 듯한 왕실.

뭔가 연결되는 듯한 이야기에 아슬아슬 생각을 이어갔지만, 끝까지 닿는 게 없었다.

"영주님께서 얼른 아가씨를 만나 뵈라고 재촉하셔서 부족한 정보나마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알아 올 수 있습니다."

"수고 많았소. 하는 김에 부탁 하나 더 해도 되겠소?"

"무엇입니까?"

"마리아 부인에게 편지를 좀 전해주시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가 기다려주는 동안 마리아 부인에게 보낼 글을 급히 썼다.

후일을 기약하고 그를 보냈다. 침대로 돌아와 주저앉아 있노라니 기분으로는 며칠 왕궁 생활보다 조금 전 이야기 듣는 시간이 더 길었다.

잠깐 사이에 지친 느낌이었다. 이제 겨우 얼마나 지났다고. 남은 반년을 내가 잘 견뎌 낼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견뎌야 한다. 루베르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가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해낼 테다. 부단한 결심으로 마음을 굳게 가지느라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릴리 궁이 분주한 느낌이다. 이곳 시녀들은 조용한 편이지만 오늘은 날이 날이다 보니 그렇게 체감됐다.

오후에 여러 손님이 들이닥칠 예정이었다. 릴리 궁에서 내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다과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다.

내놓을 차는 이미 며칠 전에 보낸 초대장에 공지했다. 카모마일 차를 기본으로 하고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인기가 좋은 홍차를 부가적으로 준비할 것이니 둘 다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알려달라고도 했다.

그리고 함께 먹을 과자류도 미리 선정해 놓았지만 정작 만드는 것은 오늘이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으라고 주방에 신신당부해 두었다.

그밖에 식기류의 배치나 테이블의 장식까지 일일이 다 손을 댔더니 몸을 쉴 새가 없었다.

대강의 준비를 마쳐 놓고 겨우 쉴 틈이 났나 했더니 드레스룸에서 치장 받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의자에 꼼짝 못 하고 앉아 여러 시녀의 시중을 받았다.

똑똑.

평소보다 빠르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들이게"

문 근처에 있던 시녀가 열어주자 엔리케가 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아가씨, 주방장이 쓰러졌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배를 잡고 쓰러지더니 지금 의식을 잃고 있답니다. 부주방장은 연륜이 짧아서 주방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기에 무리입니다."

"일단 의원에게는 보였는가?"

"지금 의원을 부르러 갔습니다. 주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감했다.

20여 년 비어 있던 릴리 궁을 새로 단장하면서 시중인들도 같이 들어왔다. 왕비 전하께서 실력 있는 주방장을 배치해 주셨는데 그가 릴리 궁으로 옮기면서 데려온 보조들은 아직 신입들이 많았다.

"간단한 빵이나 과자류인데 그들끼리 가능하지 않을까?"

"시험 삼아 시켜보니 아직 어수선했습니다. 다른 궁에 요청해서라도 주방을 제대로 이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서 라벤더 궁으로 사람을 보내게. 전하께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급히 나가는 엔리케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주방장이 괜찮을지 걱정이었고 이것으로 릴리 궁의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었다.

"아가씨, 머리치장을 마저 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내리고 있던 것을 손님을 맞느라 올림머리로 꾸미려니 아주 수고스러웠다. 밖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꾸밈이나 받고 있자니 답답했다.

"아가씨는 머릿결이 좋으셔서 풀고 계시면 더 아름다우신데 안타까워요. 풍성한 갈색 머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면 엄청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나를 진정시켜 주려는 것인지 한 시녀가 좋은 말로 달래주었다. 스텔라 미니 자작 영애였다. 처음 릴리 궁에 올 때 눈치 빠르게 말을 걸어주었던 시녀였다.

궁의 시녀들이 모두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길 요청했는데 엔리케 다음으로 그것을 청한 사람이기도 했다. 싹싹하고 영특한 모습을 눈에 담아두었다.

"고맙네. 내가 자네들을 불안하게 했군.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 주게."

"알겠습니다. 머리를 올려 고정한 후 장식하는 핀으로는 호박이 들어간 것으로 꽂겠습니다."

"알아서 해주게. 자네들의 실력이 뛰어난 걸 잘 알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조금이나마 분위기가 풀렸다.

라벤더 궁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오늘 다과회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짐작 가지 않았다. 부주방장과 보조들이 있으니 억지로 하자면 할 수야 있겠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그들만으로 꾸려본 적이 없으니 성공할지 못할지 알 수 없는 도박과 같은 일이다.

머리를 만지고 드레스를 다 입을 때까지도 아무 연락 없었다.

문 쪽으로 신경이 가는 것을 겨우 참고 있으려니 마침내 엔리케가 돌아왔다.

"아가씨, 라벤더 궁에서 부주방장이 도착했습니다. 하필 그곳의 주방장이 어제부터 휴가를 냈답니다. 왕비 전하께서 릴리 궁의 사람보다는 나을 거라고 부주방장이라도 데려다 쓰라시며 보내주셨습니다."

"전하께는 감사할 일만 생기는군."

"그가 아가씨께 인사 여쭙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쁜 날에 번거롭게 그럴 필요 있나. 내가 주방으로 가는 것도 방해만 될 테니 모임이 끝난 후 따로 보자고 전해주게. 내 감사 인사도 그때 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도박에서 이길 확률이 더 올라갔다. 왕비 전하께서 계셔 주셔서 내게 이렇게 큰 힘이 되어주실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런데 또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나간 엔리케인가? 이번엔 무슨 일이지?

"아가씨,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들어온 시녀는 다른 사람이었다. 웨르미노 테레도 남작 영애였는데 주방 쪽에서 차를 담당하는 시녀였다.

"오늘 내기로 한 카모마일 차에서 벌레가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확인했을 때까지 괜찮지 않았나!"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니 벌레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잠깐 사이에 그 많은 벌레가 차통을 뚫고 들어갔을 리도 없을 텐데. 절로 얼굴이 찡그려질 뻔한 걸 참았다. 일단 수습이 먼저였다.

"저, 아가씨."

잠시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니 웨르미노가 주저하며 말했다.

"그냥 벌레를 다 골라내고 원래대로 차를 내면 안 될까요?"

"뭐?!"

깜짝 놀랐다. 내 시녀가 너무 당황해서 판단 능력이 어떻게 돼버렸나?

"계속 주의하고 있어서 벌레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차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테니 그냥 벌레만 빼내면 감쪽같을 겁니다."

"웨르미노,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지만 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을 다른 궁에서 데려왔습니다. 여기에다 재료까지 다른 곳에서 빌리고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가면 모임을 주최하는 아가씨의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궁에 카모마일 차를 비치해 두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아가씨께서 수도 귀족계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랬다가는 사교계에서 쉽게 배척당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해주는 말인 듯한데 교묘하게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내 자격지심일까.

"알겠으니 일단 주방으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게."

그녀는 살짝 불만스러운 기색을 비쳤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스텔라, 내 침실에 연결된 테라스로 나가보면 검은 종이 상자가 하나 있을 걸세. 그걸 당장 가져다주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반드시 자네가 직접 가져오게."

"명 받들겠습니다."

서둘러 다녀온 그녀가 내민 것은 내가 루베르에서 가져온 상자였다. 뚜껑을 열어 확인하니 가져온 그대로 잘 들어 있었다.

최근 루베르에서는 카모마일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원래 카모마일이 가진 지력 상승 기능을 좀 더 발전시켜 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다 새롭게 탄생한 게 바로 이것이었다.

기존의 카모마일을 '저먼'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로먼'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력 상승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것을 말려 마시면 저먼보다 상큼한 향이 강했다. 그래서 시험 음용을 해본 이들에게 기존 카모마일 차보다 더 후한 평가를 받았었다

아버지의 부관인 마르티스 경이 일부러 챙겨줬다. 잘 보관하느라 서늘한 테라스에 둔다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다.

잘 말린 로먼 카모마일 꽃을 확인한 시녀들이 탄성을 냈다.

"다행입니다. 마침 갖고 계셨군요."

누군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스텔라에게 일렀다.

"지금부터 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자네가 감독을 맡도록 하게."

벌써 이런 식이라면 모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장담할 수 없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 숙이는 그녀를 보며 한숨을 삼켰다.

일련의 사건들로 시녀들의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다 보면 일이야 생길 수 있지만 내심 찜찜했다. 그래도 너무 긴장하면 될 일도 안 될 테니 한숨을 가다듬으며 진정했다.

루베르 밖에서 귀족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이 오랜만이었다. 정좌한 채 차분히 기다리고 있으려니 문뜩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린 충격에 방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다. 몸도 건강한 편이 아니라 더 그랬다.

다행히 누군가 추천해 준 승마를 배우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비로소 천천히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내가 얼마만큼 회복했다 싶으니 아버지가 무척 기뻐하셨다. 어디든 나를 데려 다니고 싶어 하실 만큼이나 좋아하셨다.

그날은 근방 귀족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아버지만 종종 참석하던 자리에 내가 처음으로 따라갔다.

그곳에서 만난 어른들은 겉으로나마 아버지에게 굽실대고 존중해 주었다. 그리고 자식들과 내가 어울리길 유도했다.

또래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래도 친구가 생길 거라는 말에 기대를 했다. 아이들끼리 따로 놀게 하자는 말에 우리끼리 정원에 남았을 때 새로운 세상에 온 듯 설렜다.

누군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아이들이 찬성했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숨바꼭질하자는 말과 함께 한 아이가 술래를 자청했다.

그런 놀이는 처음 해 봐서 굉장히 들떴던 것 같다. 다른 아이들을 따라서 나도 근처 수풀 속에 숨었다. 들킬까 봐 혼자 콩닥콩닥 가슴을 누르면서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었던 것도 같다.

술래가 아이들을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환호하고 감탄하고 아쉬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이를 시작한 아이들이 모두 일곱. 다섯 명을 잡은 소리가 들렸으니 내가 마지막까지 남았다.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도 슬슬 지루해지고 있던 참이었다. 들키고 싶지 않던 마음이 술래가 얼른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오래 한 곳에 앉아 있다 보니 불편하기도 해서 자세를 바꾸었다. 그러다 그만 드레스 치맛자락이 덤불 밖으로 삐져나가고 말았다.

마침 술래가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드디어 들켰구나 싶어서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술래를 기다렸다.

덤불 바로 앞에 와서 잠깐 섰던 술래는 그러나 나를 찾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다. 내 치맛자락을 꾹 눌러 비벼 밟은 발자국만 남긴 채.

설마 알고서 그랬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더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기다리다 못해 다시 원래 있던 테이블을 찾아갔다. 여섯 명의 아이들은 조잘조잘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떠들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기다렸다. 그렇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내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다. 내가 말을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은 보란 듯이 더 떠들어댔다. 어느덧 나는 떠들썩한 틈에서 혼자 침묵하고 있었다.

밝은 태양 아래에서 검은 먼지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어땠냐고 물어오셨을 때 소리를 내지 못했다.

드레스에 남은 발자국을 보는데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말이 되어 나오지 못하고 속에서 비명으로만 턱턱 막혔다.

그 이후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방법을 그곳, 귀족들의 정원에서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많이 애쓰셨다. 자다 깰 때면 가끔 옆에서 흐느끼시는 소리를 들었다.

말도 못 하면서 영주님이 심하게 애지중지하는 아이.

평민 아이들은 귀족 아이들처럼 못되게 굴지는 않았지만 역시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나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에는 나도 서툴렀다.

그럴 때 내 유일한 친구는 작은 갈색 말이었다. '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녀석 덕에 그나마 내 어린 시절은 완전한 암흑이 아닐 수 있었다.

뒤늦게 돌에 가느다란 선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후 아버지는 돌을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많이 바쁘실 때면 나를 시켜서라도 점검하게 하셨다.

그 일이 우리가 왕세자와의 정략혼에 더 목을 맨 계기였던 건 분명하다. 아버지도 그때부터 이 결혼에 더 매달리셨으니까.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이제는 담담하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게 흉터로 남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잔인했던 놀이가 이곳에서 반복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설마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영애들이 그러지는 않으리라.

아직 사교계에 정식으로 등장하지 않은 나를 위해 왕실에서 특별히 고심해서 초대할 인원을 선정했다고 한다. 내가 편할 수 있도록 일부러 미혼의 영애들만 골라주기도 했다.

초대장을 쓰면서 보니 에첸 트로 후작 영애, 인디페 렌스라 후작 영애, 리타 파밀리아 백작 영애, 아르델 리오 백작 영애 등 주로 국왕 파나 중립 파의 귀족 영애들이었다. 칼리스 노벨이라는 자작 영애는 나나 시녀들이나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다른 이들은 듣기로 사교계에서 점잖은 편에 속하는 이들이라고 했다.

괜찮을 거다, 다 잘 될 거다, 속으로 외우고 있으려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가씨."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녀들이 드레스 자락을 정돈해 주었다.

시작이었다.

모임 장소가 마련된 정원에는 이미 여러 영애가 도착해 있었다. 다과회 주최자가 입구에서부터 손님맞이를 하는 것이 예의지만 왕실은 예외였다.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는 일은 시녀들이 대신했다. 테이블 위에 나무로 조각한 이름표를 놓아두어 영애들이 자리대로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영애들에게 다가가자 나를 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상석에 앉은 에첸 트로 후작 영애부터 인디페 렌스라 후작 영애, 칼리스 노벨 자작 영애, 리타 파밀리아 백작 영애, 아르델 리오 백작 영애의 차례대로 자리가 배정되어 있었다. 동시에 인사를 한 그들은 각자 자신을 소개했다. 자리에 앉은 후에는 정원이 매우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나 역시 궁의 다른 무엇보다 특히 이곳에 매료되었다. 왕비께서 관리토록 하신 꽃 중에는 향기 좋은 것들이 많았다. 덕분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절로 기분을 풀어주는 곳이었다.

은은한 향기 사이로 배치된 테이블 위로는 옅은 색조의 테이블보와 티 냅킨, 은장식이 들어간 접시와 찻잔, 스푼류까지 가지런하게 놓여있었다. 그 중간에 정원에서 딴 보랏빛 꽃을 배치해 두었다.

"초대에 응해 주어 고맙소. 모두 오느라 수고하시었소."

"저희가 아가씨의 초대를 가장 먼저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타 파밀리아 영애가 쌩긋 웃었다. 연둣빛 눈동자와 머리칼만큼이나 싱그러워 보이는 미소였다.

"이 꽃의 향기가 참 좋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첸 트로 영애가 테이블 가운데 놓아둔 꽃에 관심을 보였다.

"'헬리오트로프'라고 한다오. 왕비 전하께서 다른 나라의 사신에게 특별히 선물로 받은 것이라 하오."

"정말 좋은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달콤한 향이 나는 꽃은 처음입니다."

"마음에 든다면 돌아가는 길에 가져갈 수 있도록 화분으로 만들어 주겠소."

"어머,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트로 영애는 활달한 사람 같았다. 처음 봤지만 익숙한 사람을 만난 듯했다. 부친은 대표적인 친왕 파 귀족이지만 본인은 파벌에 상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가리지 않아 보였다.

"저도 주십시오!"

아르델 리오 백작 영애였다.

"그렇게 하리다. 다른 영애들도 괜찮다면 귀가할 때 하나씩 선물로 주도록 하겠소."

"저희는 환영입니다."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칼리스 노벨 영애만은 침묵을 지켰다. 저 영애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시녀들이 테이블 위로, 마실 차와 스콘이나 타르트, 시폰 케이크 같은 간단한 과자류를 내놓는 동안 기다린 후 입을 열었다.

"노벨 영애, 실례지만 영애의 부친 함자를 알려 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네블로'라는 함자를 쓰십니다."

네블로? 어디에서 들어 본 듯한 이름인데.

긴가민가하여 다시 물었다.

"영애는 수도 사람이 아니라고 들었소. 영애의 출신지는 어디요?"

"푸르스입니다."

뭐?!

푸르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잊고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그걸 본 노벨의 표정이 의기양양했다.

푸르스는 루베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지였다. 그제야 가끔 '빌어먹을 노벨!'이라고 이를 가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구나! 숨바꼭질의 그 술래.

잊기 위해 애쓰다 보니 정말 저 얼굴과 이름을 잊어버렸었다.

그런데 너는 뭐가 그리 당당한 것이냐. 나를 보며 삐뚜름히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이해되지 않았다.

"데수르고 아가씨께서 많이 놀라신 듯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저희는 알 수 없겠습니까?"

리오 영애의 말에 퍼뜩 정신 차렸다.

"우리 영지와 데수르고 아가씨의 고향이신 루베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뵌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났습니다. 두 지역이 가깝게 있었죠. 그럼 어릴 때 친하게 지내셨겠습니다."

"별로요. 아가씨께서 왜 그러셨는지 영지 바깥으로 잘 안 나오시더군요. 마침 근방의 중소 귀족 영애, 영식들끼리 모임도 있었는데 아가씨는 한 번 오신 후 다신 안 오셨습니다."

리오 영애와 천연덕스레 대화를 나누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분을 삼켰다.

"데수르고 아가씨, 그때 이후 다시 뵙길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셔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비록 저희는 세가 약한 지방 귀족 자제들이었지만 아가씨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요. 아가씨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던 거겠죠."

교묘했다. 내가 저들을 무시해서 가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씁쓸한 듯한 말을 하면서 표정은 피식거렸다. 한소리 하고 싶었지만 내 위치를 생각해야 했다.

"노벨 영애, 영애가 오해하신 거겠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이상하게 들립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자 인디페 렌스라 영애가 지적하고 나섰다. 노벨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런가요? 별말씀 안 드렸는데. 음, 이 스콘은 좀 덜 익은 것 아닌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맛있어요. 저희 주방장보다 솜씨가 좋은걸요?"

다른 영애들이 애써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노벨의 어깃장이 이어졌다.

"릴리 궁의 주방장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사람을 데려왔다더니 주방에서 손발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리오 영애가 갸웃하며 말하자 노벨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오는 길에 시녀들끼리 수군대는 말을 들었어요."

"아침에 주방장이 갑자기 배탈이 났었소. 그래서 라벤더 궁에서 부주방장을 보내 주셨고."

그러자 영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라벤더 궁이라면 헬리오스 궁 다음으로 솜씨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곳 부주방장이라면 궁에서 일한 지 오래되어 여느 귀족가 주방장보다 훨씬 뛰어난 자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쩐지 오늘 스콘이 특히 맛있다고 생각했더니 그래서였나 봅니다."

"네, 아가씨 덕분에 저희가 라벤더 궁인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콘에 잼과 크림을 발라 맛있게 먹는 영애들을 보며 노벨의 입매가 굳었다.

"왕비 전하께서 생각보다 아가씨를 아주 많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궁인들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전하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잘 대해 주시는 것은 맞소. 아주 자상하신 분이오."

"부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노벨이 어쩌고 앉아있든 말든 영애들이 흐뭇한 얼굴로 다과를 들었다.

"이 클로티드 크림도 참 맛있습니다. 저희 주방장은 이런 맛을 내지 못하던데 혹시 이따가 좀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리타 영애의 다정한 말투에 가소롭다는 표정을 하던 노벨이 갑자기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잡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은 채 신음했다.

"아..."

"왜 그러세요, 노벨 영애?"

리오 영애가 관심을 보이자 그녀가 울상을 지으며 차를 가리켰다.

"차를 마셨더니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응? 우리는 아무 이상 없는데요?"

어리둥절해 하는 영애들을 보며 노벨이 입을 떼려 했다.

그때 마침 웨르미노 영애가 냅킨을 들고 급히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다. 차 담당을 미니 영애로 바꾸어 저 사람은 주방에 계속 있을 터였는데 굳이 테이블 위에 넉넉히 마련되어 있는 냅킨을 들고 왔다.

그러고는 노벨의 뒤로 가서 냅킨을 한 장 얼른 건넸다.

"영애, 구토감이 있다면 이걸로 입을 가리는 데 쓰십시오."

살짝 냅킨을 살펴본 노벨이 얼굴을 더 찌푸리더니 그걸 받아 입에 대며 일어났다.

"데수르고 아가씨, 여러 영애들.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일어나려고 합니다. 데수르고 아가씨, 부디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결례였지만 그렇다고 아프다는 이를 억지로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데수르고 아가씨께서만 괜찮으시다면 나는 괜찮아요."

"우리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벨이 나를 쳐다봤다.

"나도 상관없소. 다른 영애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잠시 노벨 영애를 배웅하고 와도 되겠소?"

"그러십시오."

영애들이 동의하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까운 거리라 굳이 시녀들을 대동하지 않고 노벨과 둘이서 나왔다. 입구로 나오는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인사말을 주절거리는 듯하더니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고 나직이 말했다.

"저를 바로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놀랐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힐 만한 기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는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 거요?"

"아니꼬우시면 아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노라고요. 막상 그런 말은 수치스러워서 하지도 못했으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녀를 보니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렇듯 예의 없이 구는 이유가 뭔가? 어릴 땐 철이 없어 그랬다 치지만 지금은 어른이 다 되지 않았나."

"아이고, 아가씨. 순진도 하셔라. 우리가 어려서 그런 줄 아셨습니까? "

노벨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목소리를 더 낮춰가며 속삭였다.

"어려도 귀한 피랑 천한 피 정도는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기껏 그래 봤자 평민 출신 아비를 둔 주제에 잘난 척은. 광석이 넘치는 땅에 말 잘 듣는 인부들 끼고 있는 덕분에 떵떵거리고 사는 주제에, 흥!"

"이 모욕을 내가 잊을 거라 보느냐? 내 아버지는 너 따위가 감히 쳐다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왕비가 될 몸. 그때가 되면 내게도 귀족 처단권이 생긴다. 그게 뭔지 모르지 않을 텐데?"

같은 귀족이나 왕족끼리는 반역을 일으킨 자를 토벌한다는 핑계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서로를 해하기 어렵다. 왕위 쟁탈전에서 죽고 죽였던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지만 그래도 명분이 필요했다.

하지만 왕과 왕비는 귀족 처단권이란 것을 가진다고 왕국 전범에 법제화되어 있다.

귀족이 왕이나 왕비를 모욕했을 시 따로 증거 필요 없이 왕이나 왕비가 주장하면 그 말을 인정해 평생에 단 한 번 그들이 지목한 귀족을 몇 년간 감옥살이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로 국왕께서는 즉위 직후 권리를 사용하셨고, 왕비께서는 한 번도 쓰지 않으셨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수도로 진출하실 정도로 성공하셨다고요. 우리는 아가씨가 함부로 좌지우지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비록 공작과 같은 최고위 귀족에게는 쓰기 어려운 권리이지만 너 같은 조무래기에게 그 정도 못 쓰겠느냐. 내 한 번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너에게 쓴다면 어떨까."

조금 전 그녀가 말한 것은 증거가 없다. 애통하지만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그러나 왕비가 됐을 때는 상관없다.

"예비 왕세자빈이랍시고 '아가씨'라고 불리니 진짜라도 된 듯이 구시는데 너무 이르신 것 아닙니까? 아직 '왕세자빈 저하'도 아니잖습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혼인도 식장에 끝까지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모이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천한 여자가 높이 올라올 일은 없겠지만 또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엔 더 높은 곳에서 새로운 모이카가 나타날지도. 왕세자 저하께서 릴리 궁으로 발걸음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밖에서는 파다한데 상황 파악이 느리시네요."

그렇게 말하며 멀리 테이블 쪽에 있는 영애들을 의식한 듯 무릎을 굽혀 인사하고는 뒤돌아 가버렸다.

뭔가 머리를 치고 간 듯 멍했다.

돌아왔을 때 영애들이 나를 보며 근심스러운 얼굴들을 했다. 내 몫을 해야 했기에 시끄러운 속을 갈무리하고 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 뒤 그럭저럭 분위기는 괜찮았다. 남은 영애들과 서로 이름을 부르기로 할 정도였다.

에첸 영애는 별난 구석은 있었지만 모나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 같았다. 인디페 영애는 중립파 거두인 부친의 명성답게 사교계 동향 같은 걸 이야기할 때에도 치우침 없이 대화에 참여했다. 아르델 영애도 심성이 나쁜 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노벨이 마음에 남아 모임의 끝까지 순전히 좋은 기분만으로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또래의 괜찮은 영애들과 만난 즐거움이 분한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 주었다.

무엇보다 리타 영애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 다정하면서도 시원스러운 성격인 듯한 그녀와 조금은 내성적인 내가 의외로 꽤 잘 맞는다는 것을 둘 다 깨달았다. 그래서 다른 영애들이 돌아간 후 맨 마지막에 남은 그녀와 조금 더 대화를 나눈 후 훗날 다시 만나기로 기약을 나누었다.

모임을 파하고 나서 릴리 궁 시녀들을 치하한 후 라벤더 궁 부주방장까지 불러 고마운 마음과 선물을 전했다. 왕비께도 직접 인사드리러 갈 뜻을 전하면서 당장 감사 인사를 보냈다.

하루를 마무리한 후 가만히 침실에 앉아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왕세자는 이 결혼을 깰 생각인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루베르는 마레인에서 독립한 후에도 군대를 유지했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군에 복역하고,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지만 때를 정하여 합동 훈련을 한다. 남녀 가리지 않고 성인들은 모두 군사 교육을 받는다.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루베르 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성도 다음으로 큰 도시가 루베르이다. 그런 루베르가 강력한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데수르고와 레스토, 서로 간의 맹약도 있지만 루베르의 힘만 봤을 때도 왕실은 함부로 우리를 쳐내지 못한다.

분명 그럴 텐데. 이렇게 뒤통수를 아프게 하는 느낌은 무엇일까. 왕세자의 추한 행동이 혼인 후에도 이어질 것이 명백해 보이기도 하거니와 뭔가 속을 더 울렁거리게 만드는 게 있었다. 노벨의 그 자신감.

내일, 싱케루스가 비밀리에 들를 예정이다. 그를 믿기로 했으니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누르기 힘들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친 것일까. 차곡차곡 준비해온 시간이 헛되이 되진 않을까. 혼자 있는 밤은 불안을 더할 뿐이었다.

더구나 행동에 제약은 얼마나 많은지. 궁이라는 곳은 이다지도 갑갑한 곳임을. 각오하고 왔으면서도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다.

일어나자마자 소궁에 들렀다. 혹시나 다른 무늬가 있나 확인했지만 돌은 변함없었다. 다름없는 돌이지만 루베르에서 볼 때와 이곳에서 보는 느낌이 달랐다. 어쩐지 생각이 많아져서 한참 그 앞에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시녀를 시켜 왕세자 궁인 루나 궁으로 사람을 보냈다. 왕세자와의 면담 요청을 넣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루나 궁에서는 내 방문을 거절했다.

곰곰이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라벤더 궁 앞이었다. 마침 전하께서는 산책 중이셨다. 전하의 권유에 따라 함께 정원에 난 길을 걸었다.

전하께 모이카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었다. 그러나 차마 그러지 못했다. 다만, 왕세자에 대해 여쭸을 때 전하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자식이라고 다 부모 마음대로 크지는 않더군. 비록 내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나는 가네오가 어렵게 느껴진다네. 클 때부터 그랬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더 그러하네."

그렇게 한탄하신 전하는, 모이카에 대한 것은 아는 체하지 않으셨지만, 왕세자가 나에게 소홀히 대하는 건 알고 계신 눈치였다.

"가네오에 대해선 나도 그대에게 도와줄 것이 없네. 그저 그대가 그 아이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미안하네."

힘들면 돌아와도 좋다고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겨우 이걸로 뭘 엄살이야, 그러다가도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날은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나마 싱케루스가 곧 들를 거라는 사실이 어딘가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그 역시 낯선 사람인 건 마찬가지인데.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오기 전 미리 저녁나절부터 시녀들을 시켜 응접실을 따뜻하게 데워놓았다. 저번의 실수를 떠올려 그가 마실 만한 차도 가져다 놓고. 그러고선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싶으니 내일 아침까지 물러가 있으라 해놓았다.

똑똑.

약속 시각에 맞춰 응접실로 난 테라스 창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며칠 만에 뵙습니다."

"잘 왔소. 이리로 앉으시오."

"네."

그를 들인 후 자리에 앉자 그가 몇 장의 서류를 탁자에 내려두었다.

"다과회를 여셨단 소식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먼저 봐주십시오."

칼리스 노벨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녀가 왜 레푸스 공작 저에 드나드는 것이오?

"그 부친인 네블로 노벨 자작이 이번에 크리멘 레푸스 공작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수도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 레푸스 저택에는 공작부인이 머물고 있습니다. 노벨 영애가 공작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곳을 드나드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모임에서 그녀는 아주 건방졌다오. 아니, 단순히 건방졌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 굉장히 무례하면서 자신이 내 위에 있다고 과시하는 느낌이었소.

노벨이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던 게 단순히 레푸스의 뒷배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근거가 부족해 보이오. 예감이 이상하니 그녀를 더 살펴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은 모이카에 관해서였다.

"이 여자의 전시회가 얼마 안 남았군. 첫날 입장표가 매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왕세자를 그린 그림과 관련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웃돈을 줘도 못 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그림들을 우리 쪽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오?

"저희도 차라리 전시장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거나 몰래 빼내 오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열기가 과열되는 바람에 모이카 측에서 그림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혹시 왕세자 저하가 그런 것까지 두둔해 주시는 것이오?."

"그녀의 출발이 대리 화가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 있지요. 그때 인연을 맺었던 귀족들이 그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세베루스 후작가가 뒷배로 있다는 소문도 있지만 후작가에서 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니 그건 헛소문인 듯합니다.

아무튼 여러 귀족의 후원을 받는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왕세자와 연을 맺은 게 페르도 부인의 덕이지 않습니까. 페르도를 만나게 된 계기가 귀족들이 그녀를 후원하기 위한 파티에서였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나라 귀족들은 단순히 그림 감상이나 소비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직접 그리는 데 도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귀족이 취미로 하던 걸 다른 사람도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어느새 수도 귀족계에는 그림 광풍이 불게 되었다.

그림 그리기가 귀족의 교양과 품격이 되는 시대. 하지만 어디에서나 그렇듯 누구나 다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는 법이다. 바깥에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만한 실력은 없는 귀족들.

그들은 방법을 찾다 묘안을 짜냈다. 바로 실력 좋은 화가들을 고용하는 방법이었다.

직접 그림 그리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알 게 뭔가. 대리 화가가 그린 그림을 귀족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대신 뒤에서는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화가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그렇게 그린 그림은 가짜라고 무시하는 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너무 많은 귀족이 그런 방법을 쓴다. 귀족 세계의 암묵적인 동의. 대놓고 드러나면 창피를 당하겠지만 보통은 서로 적당히 눈감아주고 그러려니 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귀족보다 못 그리는 귀족들이 다수였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얼마나 괜찮은 화가를 섭외해서 고용하고 있는가가 능력의 척도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

그중 대놓고 유일하게 그런 현상을 못마땅해하는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세베루스 후작가였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기로 유명했다. 지금의 세태는 진정한 예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망치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귀족을 찔끔하게 했던 사람이 세베루스 가의 현 가주이자 후작 본인이었다.

국왕에게도 따질 것은 따지는 등 그가 강직한 성품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그가 대리 화가를 썼겠나. 그러니 그들이 모이카의 뒤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낸 싱케루스는 내가 어느 서류를 집어 들자 조용해졌다.

"이것도 읽으면 되오?"

"네. 그것까지 알려드릴 필요 있을까 싶었지만 일단 보고서에 올려 두었습니다."

"흠."

서류를 읽어내리면서 절로 신음이 나왔다. 그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모이카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과 어울리는 치도 마찬가지지만요."

왕세자가 측근에게 털어놓았다는 내용내가 천한 출신의 여자라기에 호기심이 동해 일부러 첫날 마중까지 나갔는데 외모가 너무 별로였다고. 몸매도 자기 취향과는 거리가 멀고 혈색이 너무 돌아 촌 여자인 티가 많이 났다고 하는을 모이카가 들은 후 주위에 퍼뜨리고 다니면서, 필시 결혼 후에도 내가 소박맞을 것이 분명하다며 험담한다는 얘기였다.

"왕세자의 말은 그자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니 괘념치 마십시오. 그자의 취향이 괴상한 것은 아가씨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시체 같은 여자만 찾는 놈입니다."

진지한 얼굴로 왕세자를 변태로 모는 그의 위로에 가볍게 웃음이 터졌다. 이제 한숨도 나오지 않았다. 긴장한 표정의 그에게 다시 정색하며 말했다.

"내가 이것을 왜 알아야 한다 판단했소?"

"데수르고 후작가에서 직접 맞상대해서 항의하기에 그녀는 적절치 않은 상대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가씨께서 왕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녀를 막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소. 어른들께 청해 보리다."

왕세자가 그 모양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국왕과 왕비께서는 들어주실 것 같지만 과연 이것을 내 입으로 꺼내는 것이 내 명예와 자존심에 도움이 될까. 자신 없었다.

그 밖의 다른 자료들은 소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곤한 이야기를 듣느라 지친 몸을 소파에 누이고 싶었지만, 아직 싱케루스가 앞에 있었다.

그런 나를 걱정스러운 듯 물끄러미 보더니 싱케루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최근 갑자기 왕궁 경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다음번 약속 시각에 제가 오지 못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터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겠소. 이렇게 몰래 오는 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소? 궁에는 벽에도 귀가 달려 있다고 들었소."

"안 그래도 릴리 궁에도 숨어서 살펴보는 자가 있더군요. 괜히 손댔다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자가 할 일을 게을리하는 것인지 아직 릴리 궁에 대한 감시가 그다지 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히 다니시오."

자연스레 염려하는 말투가 나왔다. 그가 활짝 웃었다.

"네. 데수르고 영주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아가씨 말씀이 진리라고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와 마주 보며 피식 웃는 것으로 그날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떠나는 그를 배웅하고 침실로 돌아와 손에 든 것을 펼쳤다. 싱케루스가 마지막에 전해주고 간 것이었다. 연락책 노릇을 하며 받아온 마리아 부인의 답장이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궁내로 소식 전할 방법이 없어 염려하던 중 다행히 저를 찾아 들어온 이가 있어 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걱정을 많이 하셨다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괜찮습니다.

현재 자택에 연금당한 상태이지만 실상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일 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한 가지, 궁으로 출입하는 것만은 절대 금지인 덕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어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가씨께서 여쭈신 페르도에 관한 것은 죄송하지만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뭐라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좋은 조건으로 교수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대우라서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따라서 궁정 관리직은 자동으로 사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가씨가 염려됩니다.

왕비 전하께서 계시니 안심이지만 낯선 곳에서 혹여 마음 다칠 일은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언제나 언행을 신중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카데미로 떠나기 전에 뵙고 싶지만 어렵겠지요.

왕비 전하께도 인사드리지 못하고 떠날 것이 아쉽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고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궁정 백 마리아 포르체 올림

아카데미 교수직을 맡을 거라는 부인의 결정이 의외였다. 내가 봤던 부인은 궁정 관리라는 본인의 직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진심을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그녀의 결정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페르도가 마리아 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곳에서 영향력이 대단하다면. 그녀와 추잡하게 결탁한 왕세자이니만큼 그와 결혼을 앞둔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동안 루베르에서 너무 평화롭게만 지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섣불리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모든 인간이 지키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서.

며칠 잠잠한 나날을 보냈다. 브래드 남작은 내 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해 왔고 왕실 업무를 맡는 궁내청에서는 후임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알려왔다.

새로 교사가 올 때까지 자습이었다. 마리아 부인만큼은 아니지만, 엔리케가 큰 도움이 됐다. 궁정 귀족을 부친으로 둔 덕분에 그녀도 왕실 예법에 익숙한 것이 많았다.

왕비 전하도 많이 도와주셨다. 모르는 것을 여쭤볼 때마다 늘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전하께서는 왕세자빈 시절을 겪지 않으셨기에 그 부분만 온전히 자습으로 채웠다.

여전히 왕세자 쪽에서는 연락도 없고, 내가 루나 궁에 방문 요청하는 것도 거절하고 있었다. 그래도 결혼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가 들었다. 그리고 만약 혼인 후에도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어쩌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솔직히 왕세자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와 데면데면 지내도 되지 않을까.

공부하고 왕비 전하를 뵙고 릴리 궁의 시녀들과 어울리면서 나름대로 궁에 적응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을 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왠지 얼마 전부터 왕궁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면서 사람이 드나드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다과회에서 만난 영애들의 초대를 받고도 나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그녀들과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그리고 루베인과 주고받는 편지는 딱히 꼬집어 지적할 수 없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느낌이었다. 봉투에 누가 손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싱케루스가 용케도 한 번씩 찾아올 수 있었기에 진실한 이야기는 그를 통했다. 아버지와 편지를 전하는 것도 그가 대신해주었다.

하루는 리타의 편지를 읽으면서였다. 다과회에서 제일 죽이 잘 맞았던 우리는 곧바로 다시 보자고 약속했었다. 비록 당장 얼굴은 못 봐도 이렇게 나누는 편지에서 더욱더 친해진 것 같아서 기쁘게 읽고 있을 때였다.

리타 말로는 요즘 성도에 활기가 넘친다고 했다. 서늘한 긴장이 감도는 왕궁의 상황과는 반대였다. 그러며 그녀가 살짝 전하는 소식은 나를 긴장하게 했다.

지나는 말로, 마레인에서 새롭게 폭탄을 발명했는데 그 위력이 그동안 쓰던 것과는 천지 차이라 했다. 그래서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파밀리아 백작리타의 부친이 근심하더라는 말이었다.

여전히 루베르를 곱게 보고 있지 않을 그들의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다.

이럴 땐 우리가 독립국이 아닌 레스토의 일부인 것에 안도했다. 마레인과 싸우게 될 일이 생겨도 우리 뒤에는 레스토가 있을 거니까.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모르신다면 얼른 전해드려 마레인을 대비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리타는 어서 만나기를 고대하는 말로 끝을 맺었다.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읽은 것과는 별개로 마음 한구석이 따듯하게 풀어졌다.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경험은 생소하면서도 설렜다. 이런 게 또래 친구와 나누는 사교라는 것이구나. 소중한 인연이 생긴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잠잠했던 나날도 곧 끝이 났다.

달마다 돌아오는 게 터져서 몸이 좋지 않은 날이었다. 그동안 수월하게 넘기던 일이었는데 궁에서 좀 힘들었나 보다. 유독 이번에는 통증이 심해 앉아 있기도 힘들어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여 대답했더니 엔리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아가씨, 밖에 병사들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니 갑자기 우르르 떼 지어 몰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벌컥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무례요! 이분이 뉘신지 잘 알잖소!"

"국왕 전하께서 하달하신 일이오. 어서 데수르고를 체포해라!"

놀라서 받아 든 종이는 내 이름이 적힌 체포 명령서였다.

"어서 끌어내라!"

침대에서 잡아끌려 내려왔다.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팔을 이끌려 나갔다.

"아가씨!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이오!"

이미 많은 시녀가 밖으로 나와 떨고 있었다. 엔리케가 비명을 지르며 막아서자 한 병사가 그녀를 밀쳐버렸다.

"너무 하지 않나! 내 알아서 따라갈 테니 시녀들에게는 손대지 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나를 잡아당길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걸음을 빨리했다.

스텔라가 서둘러 라벤더 궁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더는 고개 돌리지 못하도록 병사들이 강제로 나를 이끌었다.

왕실 감옥에 갇혀 있으려니 어처구니없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창살 앞에 지키고 선 이에게 물었다.

"이보게, 나는 무슨 죄목으로 이곳에 온 것인가?"

간수는 내 말을 못 들은 척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제발 말 좀 해주게. 자네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나. 나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다네."

그는 고개 돌리지 않고 혼잣말하듯 얼버무렸다.

"데수르고 후작님이 반역을 저지르려다 들켰답니다. 저도 더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 그만 재촉하십시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네! 말도 안 되는...!"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절부절못하며 서 있었다. 그 와중에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심해서 추운 감옥 안에 있기 더 힘들었다.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문을 통해 누군가 들어왔다. 라벤더 궁의 시녀장이었다.

간수에게 무언가 넘겨주고 그를 밖으로 내보낸 그녀는 황급히 창살 근처로 다가왔다.

"아가씨, 잠깐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마마께서 말씀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데수르고 후작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가씨는 이 길로 궁을 나가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반역죄로 몰리신 것이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간다면 왕비 전하와 자네는!"

감옥 문을 열던 그녀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국왕 전하께서 마마께 귀족 처단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마가 쓰실 기회를 데수르고 후작 각하께 쓰도록 말입니다. 말씀은 요구였지만 강요와 같았습니다. 진짜 반역자라면 애초에 그런 건 필요 없었을 테지요.

마마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뜻에 거역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마마께서는 폐쇄된 왕비 궁에 갇히실 겁니다. 저도 아가씨와 함께 궁을 나갈 것입니다."

"이러면 전하께서는 괜찮으시오?"

"마마도 상심이 크십니다. 그래도 설마 국왕 전하께서 왕비 전하의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설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마께서는 각오하셨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싶었다. 왜 왕비 전하께서 목숨까지 거셔야 하나. 그런데 거절할 수 없었다. 원망스러운 내 이기심은 아버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시녀장이 간수에게 묵직한 주머니를 더 내어주자 그가 냉큼 받아 들고 도망가버렸다. 감옥을 지키던 자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국왕 전하께서는 어째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오?"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개를 내젓는 그녀를 따르며 물었다.

"왕비 전하께서는 어째서 국왕 전하의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이오? 그리고 어째서 그대는 여기에 와있소?"

바쁘게 걷는 중에도 그녀는 먼 곳을 응시하듯 잠시 딴 곳을 바라보다 답했다.

"전하께서는 데수르고 아가씨를 진심으로 아끼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전하를 모시는 사람이지요."

"이보게, 하나만 더 말해주오. 루베르의 다른 소식은 없소?"

"네. 궁내에 머무는 저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자세한 소식을 알겠습니까마는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고맙소."

나를 힐끗 쳐다본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마마의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서둘러 걷는 그녀는 어디에 경비병이 배치된 것인지 아는 듯 요리조리 피해 나갔다.

그 순간 저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불이야! 불이야! 라벤더 궁에 불이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그녀가 우뚝 걸음을 멈췄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저는 더 함께 가지 못하겠습니다. 출입구로 나가시면 문지기를 매수해두었으니 내보내 줄 겁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녀는 뛰어갔다. 나도 그쪽으로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가야 할 방향이 달랐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챘다. 자지러질 듯 놀라는 반응에 진정시키려는 말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접니다. 싱케루스입니다."

고개를 돌려 보니 그가 서 있었다.

"다행입니다. 감옥에 갇히셨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왕비 전하께서 도와주셨소."

내가 걸음을 떼자 그가 만류했다. 그쪽이 아닙니다, 아가씨.

출입문은 다 봉쇄되어 있고 왕실 근위대에서 나누어 지키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시녀장과 함께 그리로 갔으면 그대로 잡힐 뻔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따르며 물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오? 아는 대로 사정을 말해주오."

뛰다시피 걸었다. 내 걸음이 그에게 따르지 못하자 그가 몸을 낮추었다.

"우선 저한테 업히십시오. 그편이 빠를 겁니다."

고민할 틈이 없었다. 얼른 그의 목에 팔을 걸고 등에 업혔다.

그는 나를 업은 채로 아까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다. 그대로 달리면서 아까 내가 물은 것을 답해주었다.

"영주님께서 저를 아가씨께 보내셨습니다. 어서 아가씨를 모시고 오라고요.

알고 보니 국왕이 모든 일을 꾸민 자였습니다.

아가씨께서 노벨 영애를 살펴보라고 하셔서 그녀를 감시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레인에 가 있던 레푸스 공작의 작은딸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답니다. 칼리스 노벨이 시중드는 것은 공작부인이 아닌 공녀였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을 꼭꼭 숨긴 연유가 무엇일지 궁금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실에서 그들에게 왕세자빈 자리를 약속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칼리스가 입이 가벼운 덕에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페르도 부인도 눈속임이었습니다.

그녀가 왕세자에게 여자를 대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왕이나 왕세자가 그녀에게 선물로 줬던 상당수는 현금화되어 레푸스 공작가로 흘러들어, 군비로 쓰였습니다. 왕실 군대가 공작가 병사들과 함께 레푸스 영지에 몰래 집결해 있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그들의 군대가 루베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향하고 있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싸웠소?"

"군대를 내보내 싸우려 했습니다만 그들이 협박했습니다."

"무슨 협박을? 아, 나 때문이었군! 내가 궁에 있으니... 내가 인질이었던 거야."

탄식이 흘러나왔다.

내게서 마리아 부인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서 나를 떼어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다. 명망 높은 그녀를 이 일에 휘말려 다치게 했다가는 수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데수르고와 루베르는 정말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나.

"네블로 노벨이 자기 영지민들을 비밀리에 소개한 후 비어 있는 땅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싱케루스의 한숨이 그의 등을 통해 전해졌다.

"마레인에서 엄청난 걸 만들어냈더군요. 마레인 왕족인, 레푸스 공작의 맏사위가 폭탄 개발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걸 노벨 자작이 푸르스와 루베르의 경계 지역에 몰래 파묻어놨었습니다.

그들이 영지 경계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루베르 군을 남겨두고 뒤로 멀찍이 물러났을 때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설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지요. 폭탄이 터지면서 수많은 루베르 영지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아..."

눈물이 쏟아졌다. 이까짓 궁이 뭐라고, 왕세자빈 자리가 뭐라고.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여기에서는 울지 않을 거다. 울어도 루베르에서이다.

"아버지는 어쩌고 계셨소?"

"상대와 대치 중이신 걸 보고 왔습니다. 레푸스 공작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고 내려와선 항복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주님은 콧방귀를 뀌셨고요. 아가씨가 돌아가시면 그나마 마음 편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려주시오. 이제 나도 달릴 수 있겠소."

괜찮은 척 가다듬은 목소리로 말한다고 그의 숨이 가빠진 걸 내가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맞닿은 그의 등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했다.

"전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더 말을 시켜봐야 그에게 방해만 될 뿐이었다. 잠자코 그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걸음이 멈추었다.

"어서 찾아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근처에서 목청이 터지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궁 뒤에서 싱케루스가 나를 내려주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고개를 숙여 귓가에 소곤거렸다.

"아가씨, 우선 이 칼부터 챙기십시오. 만약 일이 생긴다면 단숨에, 한 번에 찔러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셋을 세면 바로 왼쪽 길을 따라 달리십시오. 아스트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도착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아이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럼 그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아가씨가 계시면 제게 방해입니다."

시원스레 웃어주는 눈빛이 더없이 다정해서, 그 목소리가 너무나 포근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슨 짓을 벌일지 알면서도.

그가 작게 속삭였다. 하나, 둘, 셋!

내가 왼쪽으로 뛰는 동시에 그가 궁을 돌아나갔다.

"저기다! 침입자다!"

아스라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무조건 달렸다. 울먹임을 멈추려 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다. 배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고 뛰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나, 입술을 깨물면서도 결국 하나만 보고 달렸다. 루베르로 돌아가는 것. 그곳으로 가자.

헉헉.

숨이 막혀 더는 갈 수 없었다. 잠시 멈출 수밖에 없어 근처에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마침 소궁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때 돌이 떠올랐다. 그래, 저걸 가져가야 해.

여기에 둘 수 없는 물건이었다. 애초에 그들에게 저걸 넘기면 안 됐던 거다.

나도 모르게 궁으로 들어가 돌을 훔쳐 나왔다. 그런데 돌이 미끄러워 땀에 젖은 손으로 잡기에는 자꾸만 빠질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 생각나는 곳에 집어넣었다. 돌이 작은 달걀만 해서 충분히 들어갔다.

소궁을 벗어나 싱케루스가 가리킨 쪽으로 다시 달렸다. 희한하게 이쪽으로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였다. 텅 빈 길을 홀로 한참 뛰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왕세자가 빙긋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곁에는 말라붙은 지 한참은 돼 보이는 핏자국들이 널려있었다.

"왜 이제 와. 오래 기다렸잖아."

히죽거리는 그를 보며 팔을 늘어뜨렸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어제 이 개구멍을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놓칠 뻔했네?"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아니 우리 덕분에 당신 아버지는 왕이 됐잖아!"

"쯧쯧. 너희는 그게 문제야. 천한 것들이 아바마마를 도와 큰일을 했으면 영광으로 알고 죽어지내지는 못할망정 쓸데없는 자부심이나 품고 있고... 우리가 정말 너희 같은 것들과 결혼으로 엮일 리 없잖아."

"그래서 평민 출신 귀족보다는 차라리 결혼 경험 있는 공녀가 낫다는 것이냐? 은혜도 모르고, 맹세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왕족의 자격이 있느냐! 너희는 그냥 쓰레기다!"

"저런 건방진 것이! 세자 저하, 더 말 섞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얼른 사격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옆에 있던 노 기사가 분한 듯 나섰다. 왕세자가 손을 저었다.

"됐어, 이미 늙은 데수르고도 죽고 없는 마당에 어린것이 종알대는 게 뭐 대수라고."

"하지만 국왕 전하께서 빨리 처리하고 돌아오라고..."

"자네는 평생 아버지만 모실 건가?"

"아닙니다."

그가 하고 지나간 말 중에 믿지 못할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돼...?

"리벤티아, 불쌍해서 더 들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더 늦으면 잔소리가 시끄럽겠어.

자, 경들, 모두 활을 들어. 저년의 심장을 정확하게 맞추는 이에게 저것이 몸에 지닌 보석을 모두 포상으로 줄 테니."

분노한 심장이 그들을 두렵지 않게 했다. 칼자루를 꼭 쥐었다. 왕세자를 향해 달렸다.

"뭐해? 저거 얼른 쏘지 않고."

왕세자에게 가 닿기도 전에 화살이 먼저 내게 닿았다. 그것을 신호로 무수히 많은 살이 날아와 가슴에 배에 계속해서 박혔다. 피가 울컥 솟아 나왔다. 무릎이 구부러졌다.

그때였다. 가슴 한중간을 때리는 화살이 있었다. 딱!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피를 흘리는 채로 고개를 숙였다. 가슴 사이에서 돌이 깨져 있었다.

손을 땅에 짚는 것과 동시에 돌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온 세상을 밝힐 듯 환한 빛이 활짝!

그 순간 땅에 머리가 떨어졌다. 눈이 부신지 한껏 얼굴을 찌푸린 와중에도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진 왕세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눈앞에 암흑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 가라앉았던 감각이 팍, 켜졌다.

어느새 눈이 뜨였다. 멍하니 천장이 보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루베르의 내 방 천장이었다. 결국 죽어서 이곳으로 돌아왔구나.

이럴 때가 아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 아버지도 여기에 계실 테지... 아버지를 떠올리자 그때부터 참을 수 없었다. 꺽꺽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티아! 돌이 깨졌... 아니, 지금 우는 거냐?"

"아버지!"

황급히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돌아오지 않았다. 다리가 풀려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디가 아픈 거냐? 아니면 안 좋은 꿈이라도 꾼 게야?"

곁으로 다가오신 아버지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만 했다.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응? 그만 울어라. 이렇게 울면 지쳐서 안 돼."

그 말씀에, 마주 안아 등을 토닥여주시는 손길에 더 크게 터져버렸다.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다른 이들이 놀라서 찾아오는 걸 아버지가 모두 물리시는 소리를 듣고서야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었다.

그래도 흐느낌은 사라지지 않아서 울먹거리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씀하셨다.

"돌이 깨진 걸 보고 놀라서 너에게 왔더니 이렇게 울고 있을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랑 저승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흐흐흑."

다시 울음이 터지려고 하자 아버지가 다급히 말리셨다.

"아니야, 꿈을 꿨나 보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비를 죽었다고 하면 어쩌느냐?"

"왕세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래도 제가 그렇게 화살을 많이 맞았는데 살아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분명... 흐으윽."

"아이고, 우리 딸을 어쩜 좋을까. 여기는 루베르에 있는 우리 저택이란다. 저승 같은 곳이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배가 많이 아픈데요."

화살을 너무 맞아서 아직도 배가 아팠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죽어도 이렇게 아픈 건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침대를 돌아보는데 흰 침대보에 붉은 얼룩이 보였다.

응? 저승에서도 저런 걸 하나? 그러고 보니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참으로 현실감 있었다.

일단 얼른 이불을 덮어 침대보를 가리고 아버지에게서 조금 떨어졌다. 어리둥절한 와중에도 옷을 갈아입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시녀에게 이불보를 바꾸란 지시를 내리는 것도, 침실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대화를 나눌 생각도 못 했다.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꽤액꽤액!"

"응? 이게 무슨 소리냐?"

"꽤액!!"

등 뒤에서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이불속에서 나는 것 같구나."

아버지 말씀에 덮었던 이불을 슬쩍 조심히 옆으로 걷었다.

"어이쿠, 이게 웬 도마뱀이야!"

"꽥!"

"아버지, 그런데 도마뱀이 '꽥' 거리면서 울어요?"

그냥 몰라서 물었을 뿐이다. 내 말에 아버지도, 도마뱀도 동시에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도마뱀이 다른 소리를 냈다.

"딱딱!"

"으잉?"

"...?"

"아무래도 이거 마물이나 요물인 것 같구나! 무슨 도마뱀이 저런 이상한 소리를 낸단 말이냐."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침대 근처에서 떨어지려니 도마뱀이 버럭 했다.

"마물이라니! 요물이라니! 영물이라는 소릴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 참. 도마뱀들은 그렇게 우는 거 맞거든?!"

"아버지, 우리 죽은 거 맞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도마뱀이 말을 해요..."

"야! 화살받이 된 걸 기껏 다시 살려줬더니 내내 울기만 하고. 겨우 그치나 싶더니 숨 막히게 이불로 눌러놓고!

도마뱀 꼴이 된 것도 서러운데.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 일부러 진짜 도마뱀인 체하려고 했더니, 도마뱀이 말하는 게 어때서!"

고개가 번쩍 들렸다.

"지금 뭐라고...?"

"왜?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시간을 되돌렸다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봉인이 깨지면서 이전에 저장돼 있던 힘이 그렇게 만든 거지만."

"도마뱀 님께서 해주신 거라고요? 그럼 전 죽지 않은 건가요?"

"커억, 도마뱀이라니! 위대하신 이 몸에게..."

짧은 앞다리로 뒷덜미를 잡으려는 도마뱀을 보며 생각했다. 도마뱀인 척하려고 하셨다면서.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지?

"저, 신 님?"

"에헴. 신은 아니고. 나는 위대한 종족인 드래곤, 그중에서도 제일 멋진 화이트 드래곤이시다. '잉겐스' 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잉겐스요?"

아버지와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잉겐스라면 우리 루베르의 옛 이름인데요."

내가 떠오른 생각을 말하자 잉겐스 님이 으스대셨다.

"그렇지! 아직 기억하는 이들이 있구나. 아가야, 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이 땅을 지키는 동시에 이 땅의 이름이기도 했던, 전설 속의 존재란다."

"흠, 역시. 혹시 돌이 깨진 것과 관련 있는 겁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말씀을 꺼내셨다. 의외로 진지한 목소리였다.

돌은 내가 가지고 갔다가 깨졌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잉겐스 님이 머리를 끄덕거리셨다.

"그렇지. 돌은 저 아기가 궁으로 가져가서 깨져버렸으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그 덕에 현재로 돌아올 수 있었기에 현재에도 깨져있는 게 순리에 맞는 이야기다."

"잉겐스 님, 그럼 제가 정말 돌아온 시간 속에 있는 건가요?"

"어휴, 걱정도 많구나. 내가 들어있던 돌을 가져다 네 가슴, 흠흠, 아무튼 그 사이에 넣어 나오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화살을 맞고 죽기 직전 돌이 깨졌지. 그 때문에 내가 옛날 쓰려고 했다 묶였던 힘이 발휘된 것 같아.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제 괜찮다. 안심하거라."

"그럴 수가..."

"티아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를 봤다. 다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이번엔 기쁨에 겨워 외치는 소리였다.

"저, 돌아왔어요! 아버지랑 저랑 죽은 게 아니래요! 우리가 살아 있대요!"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 되었구나."

"참,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죠?

"오늘은 레스토 력 961년 9월 1일이지. 그럼 이제부터 아비도 알아듣게 말해주겠느냐?"

그제야 아버지를 놓았다. 그리고 루베르를 떠나 궁에 들어가서 겪은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말을 듣는다는 듯 믿지 않으시던 아버지도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심각해지셨다. 옆에서 잉겐스 님이 적절하게 추임새도 넣어주셨기에 급기야 몰입까지 하셨다.

마지막에 왕세자 일행에게 화살을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의 분노는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다.

"이런 쳐 죽일 놈들! 뒤에서 그런 협잡질이나 꾸미고 있었다니! 안 되겠다. 지금 당장 군대를 소집해야겠구나."

"잠시만요, 아버지. 진정해 보세요."

"허! 그런 얘기를 듣고 아비로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 더구나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게 얼만데. 데펙토르 그놈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내가 눈이 삐었었구나."

국왕의 이름을 부르며 분노를 표하시던 아버지는 이내 그런 이들에게 나를 보냈던 것을 자책하셨다. 감정 기복이 널을 뛰시는 아버지를 달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부터 들었다.

내가 계속해서 말리자 일단 이야기를 더 듣기로 하신 아버지가 잉겐스 님께 확인했다.

"전설에서는 잉겐스 님께서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실은 돌 속에 갇혀 계셨던 거군요?"

"설명하려면 긴 얘기지. 너희들이 전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는 이곳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큰 힘을 쓰려고 했다. 그런데 로드 할아버지가 내 몸에 무슨 수를 써놨는지 오히려 봉인을 당해버렸지 뭐야.

정신을 차려보니 시커먼 광산에 파묻혀 있었더란 말이지. 오랜 세월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만 의존하면서 잠들었다 깨었다 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그러다 네가 나를 꺼내 주었어.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 비록 가진 힘은 별로 없었지만 네 놈을 위해서라면 남은 힘을 다 쓰리라 다짐했지.

그런데 네 놈은! 흐..."

아버지는 잉겐스 님이 왜 말씀을 하다 말고 자괴감에 빠져 계신지 모르시는 눈치셨다. 하지만 나는 알겠다.

얼마 전 궁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떠올랐다. 잉겐스 님이 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계셨다면 아버지가 숨겨 나오는 과정에서 몹쓸 짓을 당한 게 맞다.

"저, 위대하신 잉겐스 님. 그럼 무늬를 바꾸어 저희에게 위험 신호를 주셨던 것도 잉겐스 님의 뜻이었습니까?"

서둘러 그의 관심을 돌렸다. 자꾸 기억하면 우리도 죄송하지만 드래곤 님도 괴로우실 거다.

"하하, 알아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얼마나 힘을 짜냈는지..."

그 말을 듣고 나서였다. 아버지와 나는 짜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함께 바닥에 엎드렸다.

"잉겐스 님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것도 모자라 제 딸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가호해 주시는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진짜였어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셔서 가장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위대하신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분이다.

그런 우리를 보며 잉겐스 님이 흐뭇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같이 영혼이 맑은 아이들이 좋거든. 그리고 나도 고마우니까 그랬다. 그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지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난 원래 다른 드래곤들과는 다르게 인간들과 가깝게 지냈거든. 너희 곁에서 나도 즐거웠지, 뭐."

"그런데 몸은 괜찮으신 건가요? 화살에 맞았을 때 돌이 조각난 것을 봤었는데..."

"아, 그건 내 몸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던 껍질이자 결계였으니까. 그 왕잔지 뭔지 하는 놈이나 왕 놈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궁에 가서 봉인이 깨진 것, 오직 그거 하나는 잘 되었다."

"혹시 전설 속에 나오는 드래곤 로드께서 만드신 봉인이라면 어떻게 고작 인간이 쏜 화살에 맞아 깨질 수 있었던 겁니까?

궁금한 점을 여쭈니 잉겐스 님이 심통 난 표정이 되셨다. 도마뱀의 얼굴에서 그런 게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자연스레 그렇게 보였다.

"글쎄. 할아버지 마음이야 나는 모르지. 막상 가둬놓게 만드시고 내가 불쌍해서 마지막에 힘을 조절하셨는지도. 아니면 인간의 도움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결계 속에서 막상 그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갇혀있다가, 결국 내가 인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르겠군."

"용생에서 몇백 년은 사실 찰나에 불과해. 그렇지만 너무 좁은 곳에 갇혀서 정신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으니 미칠 것 같더군. 난 원래 인내심이 부족하기도 했고.

드래곤 로드께서 뭘 의도하셨든 간에 나에게 충분한 벌이 된 것은 확실하다."

잉겐스 님의 말씀은 씁쓸하게도, 쓸쓸하게도 들렸다.

생각해 보니 잉겐스 님은 동족들이 다 떠난 후에도 이 세상에 남아, 그것도 갑갑한 돌 속에 갇혀 계셨다. 그 마음을 내가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어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꼈다.

"우리 밥부터 먹으면 안 될까요? 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일부러 더 밝게 얘기했다.

"그러고 보면 잉겐스 님도 그동안 아무것도 못 드신 거잖아요?"

잉겐스 님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많이 허기지는구나."

"그런데 잉겐스 님은 뭘 드시는 겁니까? 보통 도마뱀들은 벌레나 풀잎 같은 걸 먹던데요. 드래곤은 다른 걸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요?"

아버지가 여쭈자 안 그래도 크고 동그란 잉겐스 님의 눈이 한껏 벌어졌다. 하얀 몸체에 검은 눈자위와 흰 눈동자가 유독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 더 도드라져 보였다.

"그렇군. 그 생각을 못 했어. 이 내가, 도마뱀식 식사를 할 순 없지. 잠깐만 기다려라. 너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꿀 테니."

그러더니 잉겐스 님의 외양이 순식간에 변했다.

"귀여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아까부터 옆에서 내내 잉겐스 님을, 위대한 존재를 보는 눈빛으로 뜨겁게 바라보시던 아버지도 멍하니 풀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정말 귀엽구나..."

아까부터 아버지가 열렬한 존경의 눈길을 보낼 때 잉겐스 님은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셨다. 아닌 척하셨지만, 자꾸 도마뱀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입매가 씰룩거렸었다.

그러던 것이 우리의 귀엽다는 말에는 눈살을 꽉 찌푸리셨다.

"귀엽다니! 너희들은 무슨, 그렇게 사람 볼 줄도 모르느냐!"

"하지만 너무 귀여우신 걸요."

"귀엽기는 네가 귀여운 거고! 나는 이 늠름하고 우람한 가슴이랑 팔뚝만 봐도...!"

나를 가리키신 후 당신의 몸을 내밀고 팔을 들어 보이시던 잉겐스 님이 우뚝 멈춰버리셨다.

"아니, 이거 왜 이래? 내 팔이 왜 이렇게 짧고 통통한 거야?! 다리는 또 뭔데 이렇게 짧지? 내 근육! 내 힘줄! 다 어디 간 거야!!"

루베르의 전설 속 이야기나, 흔히 말하는 드래곤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어른이실 줄 알았다. 잉겐스 님의 반응을 봐서도 원래 아이는 아니셨을 거다.

문제는 지금 잉겐스 님이 네댓 살 먹은 어린애 모습이란 거다.

도마뱀이실 때도 목소리가 유난히 앳되긴 했다. 그냥 조그마해서 잘 어울린다고만 생각했지. 그래도 저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

드래곤의 아이는 보통 '해츨링'이라는 표현도 따로 있지 않던가. 잉겐스 님은 애초에 당신을 말씀하실 때 해츨링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잉겐스 님, 무슨 문제입니까?"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가 여쭤보자 잉겐스 님이 오동통하고 조막만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셨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빌어먹을 로드 영감! 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었기로서니! 드래곤에서 도마뱀이 된 것도 서러운데 이게 뭐야!!"

보는 우리는 귀여웠지만,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는 잉겐스 님은 격분하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지! 내 기필코, 꼭, 다시 힘을 찾고야 말겠다. 로드 영감! 듣고 있나? 힘을 회복하기만 하면, 나도 그쪽 세상으로 건너가고 만다. 가서 꼭 당신 멱살을 잡고 만다!"

단말이라도 연결된 걸까. 그렇게 외치신 잉겐스 님은 한동안 짧은 팔로 주먹 쥔 손을 들어 계속 허공을 향해 휘두르셨다.

그래 봐야 앙증맞게 귀엽기만 했다. 그런 감상을 내뱉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잠자코 있었다. 아버지가 눈치를 보다 잉겐스 님을 달래셨다.

"잉겐스 님,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드시고 싶은 걸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씨. 이 마당에 먹는 게 넘어가면 내가 드래곤이 아니라 진짜 도마뱀이다!!"

"우물우물.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건 셀러리를 먹인 달팽이를 버터와 마늘, 허브 가루를 곁들어 구운 요리입니다. 입맛에 맞으십니까?"

" 내가 살던 시절엔 없던 조리법이군. 그동안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생각할수록 서럽네. 우물 쩝쩝"

잉겐스 님께서 변덕이 좀 있으신 것 같지만 차라리 이게 좋아 보였다. 슬픔은 금방 잊어버리는 게 낫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신 건지 잉겐스 님이 다른 걸 떠올리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시중들고 계셨다.

어쩌면 아버지는 사심을 채우고 계신지도 몰랐다. 볼이 가득 부풀어 오를 정도로 입안에 먹을 것을 잔뜩 넣어 씹고 있는 모습이 보고만 있어도 배불렀다.

아버지는 또래보다 나를 늦게 낳으셨다. 그 탓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손주를 봤는데 당신만 없다고 가끔 우울해하셨다. 아마 지금 아버지는 분명히 손주에게 밥을 먹이는 심정이시리라. 보기에 눈빛이 딱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든지 간에 잉겐스 님의 신경은 오로지 식탁 위로만 집중되어 있었다.

달팽이 요리 외에도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와 가재 찜 요리까지 족히 10인분은 드신 것 같다. 작은 몸 어디에 그만큼 들어갈 데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더해 후식으로 나온 치즈 케이크에다 사과를 갈아 만든 아이스크림까지 몇 그릇째 드셨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르신 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드신 잉겐스 님은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셨다. 아버지와 내가 너무 열심히 보고 있었나 보다.

"잉겐스 님, 식사가 끝나셨다면 응접실로 옮기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우리 셋은 자리를 이동했다.

가는 동안에도 잉겐스 님이 뽈록한 배를 내밀고 걷는 모양이 꼭 안아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지만 우리 둘은 감히 표현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먼저 그런 티를 냈다가 잉겐스 님의 눈에 쌍심지가 켜졌기 때문이다.

응접실 상석에 파묻힌 몸의 다리가 달랑댔다. 잠시 당신의 다리를 불만스러운 눈으로 보신 잉겐스 님은 이내 조금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래, 너희는 이제 어쩔 작정이냐?"

"어쩌긴요. 당장 성도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도 모르는 것들은 길게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티아가 왕궁으로 떠나기로 한 날짜가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길 자신은 있고?"

"루베르 군은 충분히 강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푸르스와 레푸스 그리고 왕실까지 다 한편이에요. 마레인도 개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스토의 다른 귀족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 군대가 영지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먼저 여기를 벗어나 다른 영지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순순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흠... 어차피 전쟁이다. 영지 민의 희생이 클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렇다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제가 궁으로 들어갈게요. 그곳에서 그들이 저를 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그 틈을 노려주세요."

"말도 안 된다! 그런 마굴 같은 곳으로 너를 어찌 보내라고!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 난 이상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시다 분노가 다시 올라오셨는지 부릅뜬 눈에 핏발이 선 채 입을 부들거리셨다. 아버지를 더는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못난 딸이라 죄송했다.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그게 최선일 것 같았다.

"루베르에도 충분한 전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기에 얼마간 나태해져 있는 것도 맞잖아요."

아버지는 비통한 표정으로 무언의 긍정을 나타내셨다.

"적당한 대응을 넘어서서 완벽하게 이기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만 하면 제대로 이길 수 있는 걸 서두르다 망칠 수 없어요. 제가 궁으로 가면 그 시간을 벌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아뇨, 희생이 아니에요. 저는 무사히 돌아올 거예요."

"그냥 병에 걸렸다 하고 안 가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네가 급사해버렸다고 할까? 그래서 결혼 얘기도 없었던 일이 되도록."

"그럼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마리아 부인이 주기적으로 점검했어요. 갑자기 병이 났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들통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부인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도 않을 테고요."

"그래도..."

"제가 그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간절히 바라보자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씀 못 하셨다. 그러고 나서 작게 한숨을 내쉬신 후 마지못한 듯 물어보셨다.

"도대체 너를 궁으로 보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혹시 말씀드리기에 앞서 잉겐스 님의 고견을 들어도 될까요?"

"내 의견이라고 해봤자... 예전 너희가 마레인 왕국과 싸울 땐 일의 줄기를 살짝씩 트는 게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쩐지 그게 안 될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드는구나. 그러니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슬쩍 고개를 떨구셨다. 기대하셨나 보다.

"그럼 잉겐스 님의 힘은 다 사라진 겁니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기다려 보아라."

잠깐 잉겐스 님의 눈동자에 반짝거림이 스쳐 간 것 같았다. 그러더니 바로 고개를 가로저으셨다.

"안 되는구나. 밖에 지나가는 이들의 의지에 개입해서 일을 바꾸어보려고 실험했지만 통하지 않아. 돌 속에 있을 땐 그곳에 묶여 있던 힘을 극소량이나마 가져다 쓸 수 있었는데..."

시무룩한 모습이 애처로웠다.

"잉겐스 님, 괜찮아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도 넘칠 만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다 이런 모습으로 계시게 된 분께 더 바라면 욕심이지. 위로가 통한 걸까.

"아니야, 잠깐 더 있어 보려무나."

아니었다. 잉겐스 님은 아예 동작을 멈춘 채 눈을 감으셨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드래곤이 생겨나 있었다.

"티아!"

아버지가 허겁지겁 나를 끌어안고 잉겐스 님을 보호하려 하셨다. 화들짝 놀라시는 걸 보니 나만 보이는 게 아니구나.

"됐다, 됐어!"

잉겐스 님이 주먹을 한 번 불끈 쥐신 후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앞에 있던 드래곤이 사라졌다.

"헉. 이건 뭡니까?"

아버지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잉겐스 님을 돌아봤다.

"환상을 다루는 마법이야. 내가 즐기던 것이지. 이걸로 장난칠 때면 로드께서도 깜빡 속으셨지. 큭큭."

무슨 상상인지 키득거리시는 잉겐스 님을 보니 드래곤 로드께서 속깨나 썩으셨겠다.

"그건 쓰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건 내가 제일 먼저 배웠던 마법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이다."

"그걸로 적군을 놀라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당연한 소릴. 뭐든 다 부탁해 보려무나. 다 들어주마!"

그래도 무리하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었다.

"잉겐스 님. 정말 이렇게 마법을 쓰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점점 올라가고 있던 그 어깨가 조금씩 내려왔다.

"이건 괜찮아. 나한텐 숨쉬기만큼 쉽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이거랑 이 모습으로 변하는 것밖에 안 돼. 다른 건 하나도 안 돼."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러워 괜한 말을 했다 싶었다.

"그 환상 마법은 마음껏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암, 그렇고말고. 이건 펑펑 써도 괜찮다."

"잉겐스 님, 혹시 사람이나 물건을 대체해서 원래의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으실까요?"

"그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티아야, 좋은 생각이 있는 것이냐?"

전생에서 성도로 떠났던 날까지 이제 겨우 20일 남았다. 더 빨리 돌아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지나친 욕심이다. 그러니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아버지와 잉겐스 님께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폭탄 처리가 시급해요. 예전에... 그냥 '전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전생에서 영지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는 폭탄의 존재를 아니까 전생처럼 터지는 곳 근처에 머물다 당하지는 않겠지만요."

"폭탄이 루베르와 푸르스의 경계에 묻혔다고 했었지?"

"싱케루스의 말로는 그랬어요."

"그 근처의 수색과 감시를 강화해야겠구나."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셨다. 그 손을 잡아서 힘을 풀어드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정확히 폭탄을 묻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맘때겠죠. 리타가 편지에서 말하길 최근 개발되어 파밀리아 백작을 근심케 한다고 했어요.

아직 묻지 않았을 수도, 이미 묻었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찾아내야 해요. 매설된 폭탄을 발견하게 되면 영지민들 접근을 차단하고 즉시 처리해야 하고요.

전 그 폭탄을 찾아냈을 때 잉겐스 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잉겐스 님이 당신에 관한 말이 나오자 몸을 바짝 앞으로 당기셨다.

"그들이 우리를 안심시켜놓고 뒤를 쳤듯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면으로 승부를 보기에는 우리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이긴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니 폭탄을 찾아내 제거하더라도 그들은 그걸 몰라야 해요. 잉겐스 님의 마법으로 계속해서 폭탄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폭탄은 이제 없지만, 환상으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말이지? 내가 완벽하게 그들을 속여주마. 로드 영감도 툭하면 속였는데 그깟 인간들쯤이야, 뭐."

네댓 살 어린애가 뻐기는 표정을 지어봤자 귀엽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이, 어쩌면 잉겐스 님이 봉인 당하셨던 건... 아니야, 우리의 은인께 무슨 무례한 생각이란 말인가.

얼핏 떠오르려는 생각을 얼른 막았다.

"잉겐스 님은 예전부터 그러셨지만 역시 늘 든든하십니다."

아버지가 엄지를 척, 하고 세워 보이자 잉겐스 님께서 신나 하시며 또 다른 의견을 내셨다.

"폭탄을 다 꺼내서 그냥 없애버리는 건 아까우니까 그놈들 성이랑 저택에 뿌려주는 게 어때?"

"오, 좋은 생각입니다! 역시 잉겐스 님! 머리까지 좋으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내 머리가 좋은데 왜 네가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만 내가 원래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느니라."

두 분이 화기애애하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나는 사건을 시간대로 정리해서 기록했다.

"티아야, 그건 무엇이냐?"

"전생에 궁에서 겪었거나 들었던 일들을 적어봤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하나 적어야겠다."

아버지가 뭘 적으실지 몰라서 지켜봤더니 크게 '살생부'라고 적으시고는 데펙토르 레스토, 가네오 레스토, 크리멘 레푸스, 네블로 노벨, 칼리스 노벨, 일레체 페르도, 모이카 순으로 써 내려가셨다.

"우리 데수르고를 우습게 본 대가는 철저히 되갚아 주어야지."

그런데 잉겐스 님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셨다.

"너희들은 왜 그런 웃기지도 않는 성을 자랑스럽게 쓰는 거냐?"

"네? 데수르고가 어때섭니까?"

"네가 지은 거냐?"

한심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아래위로 쳐다보시는 잉겐스 님께 아버지가 처음으로 불퉁한 얼굴을 하셨다.

"루베르가 마레인 왕국에서 독립하면서 레스토 왕국으로 소속을 바꿨죠. 그때 제가 자치령의 영주가 되면서 당시 레스토 국왕으로부터 후작 위를 하사받을 때 성도 함께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잇던 아버지가 눈을 번뜩이셨다.

"잠깐만요. 설마 데펙토르 그놈 말고 선왕도 이상한 걸 성으로 지어준 겁니까?"

"쯧. 왕족이나 고위 귀족들은 고어를 다 배우는데 너는 공부를 안 했구나."

아버지가 그런 건 필요 없다셔서 나도 고어 안 배웠는데. 둘이서 멀뚱한 얼굴로 잉겐스 님을 바라봤다.

"영혼이 순수한 아이들인 줄 알았더니 머리 쪽이었나? 너희들은 정말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뿌듯한 듯 말씀하시더니 설명을 해주셨다.

"'데수르고'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주로 쓰이는 것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같은 뜻이지만 뒤 뜻으로 '화장실에 가다'라는 게 하나 더 있지. 너희는 앞의 뜻만 알고서 좋은 말인 줄 알았나 보네."

"레스토 놈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곱게 죽지 못하게 만들 테다!"

결연한 표정으로 의지를 다지시는 아버지와 그 옆에서 '그렇지, 마땅히 그래야지.'라며 맞장구를 치시는 잉겐스 님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치밀어 오르던 배신감이 잉겐스 님의 말씀으로 정점에 치달은 느낌이었다.

레스토.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농락했구나.

피가 고귀하고 천한 게 무엇이기에 자신들이 가른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우습게 아는 건가. 나를 비웃던 칼리스 노벨의 얼굴이 떠올랐다. 천한 피 운운하던 왕세자도 생각났다.

좋다. 나와 아버지, 루베르 인들을 지키기 위한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더랬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겠다. 그 천한 생각 자체를 깨부숴주겠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허영과 과장에만 물든 게 귀족이라면 나는 그런 귀족, 그만하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태생부터 바꿔주마.

갑자기 떠오르는 게 더 있었다.

"모이카의 그림에도 손을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이냐?"

"그림을 바꿔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그림을 거는 거죠. 잉겐스 님의 마법으로 원래 그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다가 전시회 당일 마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바꿔 거는 그림은 최대한 희화화시켜서 왕세자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한창 그림 자랑을 했을 모이카도, 그걸 내버려 둔 왕세자도 톡톡히 망신당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 그걸 보겠다고 몰려들었을 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림을 함께 봤는데 왕세자의 심기가 편하지 않겠죠. 뒤에서야 왕세자를 비웃을지 몰라도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한동안 왕실의 눈치를 보느라 편치 못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럼 새로 거는 그림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잉겐스 님. 왕세자의 거시기를 새끼손가락만 하게 그려 놓는 겁니다.

그러다 짠, 하고 마법을 풀어버리면! 왕자 놈이 제 몸매에 자신 있어서 그림을 그냥 뒀나 본데 그 자신감 확실하게 깨 주도록 하죠."

"이야! 재미있겠는데? 그런데 너는 쪼잔하게 새끼손가락이 뭐냐? 이왕이면 콩알 하나만 달아놓도록 하자."

악당이라도 된 듯 비열한 표정을 지어 보이시는 아버지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는 듯 눈을 빛내시는 잉겐스 님. 이 조합 괜찮을지 모르겠다.

"아, 그리고 아스트룸이 지금 루베르에 지점을 냈나요?"

"그래. 얼마 전부터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어서 싱케루스를 찾아가야겠어요."

내 말에 아버지가 잠시 멈칫하셨다.

"꼭 그놈을 찾아야겠느냐? 전생에서는 도와줄 만한 사람이 제대로 없으니 그놈에게 의뢰를 맡겼겠지.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미리 알고서 준비도 하고, 잉겐스 님도 바로 곁에 계시는데."

"그 사람이 별로세요?"

"아니, 별로는 아니고... 괜찮은 놈인 건 아는데 어쩐지 꺼려진다고 할까..."

"이상하네요. 저는 본능적인 믿음이 느껴졌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게요.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걸어주었어요.

아스트룸 사람들도 많이 희생됐고요. 의뢰로 만난 사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자꾸 놈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나를 지그시 쳐다보셨다.

"왜 그러세요?"

"그놈을 얼마나 봤다고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나, 네가 그럴수록 나는 왜 그놈에게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지 모르겠구나. 분명 좋은 놈이 맞는데 왜 그러지...?"

생각이 막히시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아이, 참. 무슨 이상한 말씀이세요? 다른 이유 없으시면 아스트룸으로 사람을 보내주세요."

"알겠다."

못마땅한 얼굴로 마지못해 대답하시는 게 역력했지만 모른 척했다.

전생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화살을 맞기 전까지 살아있었더라면 좋겠다.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오기 전에 그가 먼저 최후를 맞았다면 너무 미안할 테다.

그를 생각하자 마음이 저렸다. 계약 관계였을 뿐인데 그와도 정이 많이 들었던가 보다.

루베르 근처에 묻힌 폭탄을 발견했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찾으면 손대지 말고 바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병사들이 착실히 따라주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급히 폭탄 제거 전문가와 함께 아버지와 잉겐스 님이 나가셨다.

나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가봤자 방해만 될 거라는 말씀에 기다렸다. 혹시 다치시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참 서성거렸던 것 같다.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돌아오신 두 분을 맞았다.

아버지의 입술이 터져있었다. 깜짝 놀라 다가갔더니 잉겐스 님이 옆에서 사정을 들려주셨다.

"너무 화를 내서 그래. 입술을 세게도 깨물더라니.

폭탄이 얼마나 많이 묻혀있던지 아예 루베르를 날리려는 심보 같았다. 내가 인간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너무 잔인해. 탐욕도 지나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잉겐스 님의 말씀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영지를 빙 둘러서 가득 묻어두었더구나. 네 얘기만 전해 듣고는 그 규모를 알 수 없었는데 오늘 보니 꼴이 참 가관이었다.

그네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야. 자신들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분노를 안으로 깊이 갈무리하신 것처럼 나직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생하셨을 아버지와 잉겐스 님을 조용히 식당으로 모셨다.

잉겐스 님은 영지가 너무 넓어 둘레를 모두 환상 마법으로 처리하려면 하루는 부족하다고 하셨다. 가시기 전에는 식은 수프 먹기라고 하시더니 좀 피곤하셨나 보다.

내일도 같은 일을 하려면 힘이 더 필요하시다며 오늘 저녁은 20인분에 가깝게 드셨다.

아버지께서 미리 저택의 시중인들에게 잉겐스 님을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해 놓으셨다. 나도 같이 일러두었기 때문에 시중인들은 잉겐스 님을 대단한 귀족 가문의 자제쯤으로 아는 눈치였다.

잉겐스 님이 드시고 싶다는 대로 정성껏 준비하는 주방장부터 시작해 잉겐스 님에게 맞는 식탁 의자까지 주문한 시종장에, 잉겐스 님의 부른 배를 살살 문질러 풀어주는 시종까지.

저택의 시중인들에게 잉겐스 님도 한껏 만족하신 듯했다. 가끔 시녀들에게 자잘한 환상 마법을 보여주시며 웃겨주시기도 했다.

하필 여자들에게만 마법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좀 의아했지만 깊은 뜻이 있으셨겠지. 그런 점은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싱케루스를 만나러 가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렀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보며 불만스레 투덜대셨다.

"꼭 티아 네가 갈 필요는 없잖느냐. 그놈더러 오라고 해. 아니면 그냥 내일 나랑 같이 가든가."

"원래 의뢰인이 찾아가는 게 맞는다면서요? 그리고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쪽에서 연락 왔으면 오늘 가야죠. 아버지는 다른 하실 일도 많잖아요."

잉겐스 님과 폭탄 제거 작업 현장에 가기로 하셔 놓고 자꾸 내 쪽에서 서성대신다. 보다 못한 잉겐스 님이 한소리 하셨다.

"야, 너는 이리로 와야지, 왜 거기에서 자꾸 얼쩡대냐! 우리도 빨리 나가야 해. 얼른 와라?"

말씀에 따르면서도 뭉그적거리는 움직임이 나까지 보기 답답했다. 잉겐스 님께 다가가신 아버지는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신 듯 나를 향해 말씀하셨다.

"혼자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구먼. 쟤한테는 신경 그만 쓰고 좀 나가자! 아가야, 이따 보자!"

잉겐스 님이 늦을세라 얼른 앞장서셨다. 폭탄 제거 후 그 자리에 환상을 심는 것이 너무 재미있으시단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그 뒤를 따라 나가셨다.

"잉겐스 님은 당신이 아기신데 자꾸 아가씨께 아기라고 하십니다, 허허."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몰라요. 저희한테도 가끔 '아가야' 그러시는데 그 오물오물한 입으로 무심한 듯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깨물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뒤에서 시종장과 시녀의 대화가 들렸다. 아무 생각 없이 뒤돌아봤다. 그랬을 뿐인데 그들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섰다.

그냥 잉겐스 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건데. 나도 모르게 시무룩해졌다. 나중에 잉겐스 님께 볼을 조심하시라고 알려드려야 하나.

아스트룸의 루베르 지점에 도착하니 마차 앞에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왼쪽 허리춤에 레이피어를 찬 채로 고동색 긴 머리를 높게 올려 묶고 있었다. 밖에서 흔히 보이는 여성들의 차림이 아닌 딱 붙는 가죽바지에 헐렁한 셔츠와 조끼를 걸친 모습이었다.

"저희 아스트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데수르고 후작 영애. 저는 단장실까지 안내를 맡은 아길리스라고 합니다.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환영 인사는 듣는 사람을 절로 기분 좋게 해 주었다. 약간 치켜 올라간 주황색 눈꼬리가 미소 지을 때 접히는 모양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여성의 옷차림으로는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했다. 저렇게 입으면 정말 편하겠구나, 감탄도 들었다. 그래도 그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눈치를 채게 했다.

"바다 건너 먼 대륙에서 유행하는 차림새입니다. 활동하기 참 편해서 즐겨 입고 있습니다만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아닐세. 멋있어 보이는군. 내가 쳐다본 것이 무례였지. 언짢게 한 것을 사과하네."

내 말에 아길리스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가 다시 수긍하는 얼굴로 바뀌었다.

"역시 아가씨는 이런 분이셨죠."

"나를 아는가?"

그러자 그녀는 참았던 것을 터뜨리듯 신이 난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쯤이었습니다. 단장이랑 제가 루베르에 지점을 내기 위해 살펴볼 겸 해서 미리 이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 거주지역부터 들렀습니다. 저희는 평민 중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골라내 단원으로 키우기도 하니까요. 혹시 괜찮은 인재들이 있나 둘러보던 참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상을 당했나 보더군요. 이곳은 다른 영지에 비해서 일자리가 풍족하고 세금은 낮아서 영지민들도 다른 곳에 비해 넉넉한 형편입니다만 그 집은 불행히도 굶어 죽은 자가 있었습니다. 부친이 죽고 홀로 남은 아이가 하도 구슬프게 울기에 저절로 저희도 그쪽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아가씨를 뵀습니다. 간편한 차림새로 시종 둘만 데리고 오셔서는 우는 아이의 콧물을 손수건으로 손수 닦아주시더군요.

그런 귀족은 처음 봤기에 저나 단장이나 한참 어안이 벙벙한 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금방 자리를 뜨셨지만 시종이 하나 남아서 아이가 끝까지 상을 치르도록 돕고, 아이의 거처를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단장이 바로 그 아이를 채용해 저희 조직으로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똘똘한 구석이 있어서 사무원으로 키우면 충분히 제 몫을 해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습으로 심부름을 하는 정도입니다만."

긴 이야기였다. 그런데 나는 기억나지 않았다.

"모르는 이야기일세. 내가 그런 적이 있다고?"

아길리스는 매우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못 가진 자들은 남을 돕기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없는 자들을 돕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특히 귀족들이 평민들을 돕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우월감이나 알량한 동정심으로, 도움을 받는 이를 모멸감에 빠트리고 가기도 합니다. 절실한 사람에게 그런 도움은,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는 도와주는 것으로 생색내면서 도움받은 사람들을 자랑거리 삼아 자신의 훈장이나 전시물쯤으로 여기는 귀족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도움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셨군요. 애초에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요구하실 마음도 없으셨겠죠. 저는 그런 아가씨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봅니다."

"타인을 돕는 사람 중 방법에서 틀렸을지는 몰라도 의도가 왜곡되어 전해진 마음도 있을 수 있네. 그렇다고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닐세.

그러고 보니 이제 기억이 나는군. 우리 영지에서 배곯는 이들은 없도록 하자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기도 하네. 한데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기에 내가 들러보았지. 후속처리가 잘 되었다고 해서 잊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는가?"

"네, 아가씨가 오늘 오신다는 소리를 어딘가에서 들었는지 자기가 마중 나오겠다고 떼쓰는 걸 말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가 죽어있는 듯하더니 지금은 사무실에서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다행이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나를 추켜세우는 말에 부끄럽기도 했다. 하여 걸음을 서둘렀다.

복도를 가로질러 들어가니 의외로 커다란 공간이 나타났다. 우리가 들어가니 북적이던 곳에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러다 한 사람이 외쳤다.

"어이, 일인자! 네가 직접 손님을 맞으러 움직이다니 별일이네!"

"야야, 조용히 해. 데수르고 아가씨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순간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신경 끄고 네놈들 볼일이나 봐라."

아길리스가 일갈하자 다시 자기들끼리 소곤대는 사람들을 보며 물었다.

"왜 그대를 '일인자'라고 부르는 건가?"

"제가 실력으로 이곳에서 일인자니까요."

자랑스레 대답하는 말에 되물었다.

"보통은 단장이 조직의 일인자가 아닌가?"

"아, 그런 뜻으로 여쭈신 거군요. 실력은 제가 일인자이고, 조직 장악이나 운영 면에서는 단장이 일인자가 맞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순전히 저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고, 단장은 세습이죠, 세습.

단장은 주로 단장실에서 꼼짝 않고, 저는 외부활동을 자주 하면서 저들과 마주칠 일이 많으니 저를 '일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상하다. 전생에서 왕궁으로 와준 것은 싱케루스였다. 이렇게 강한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보냈을 터인데. 내가 여성을 요청했을 때 그는 왜 다른 여성을 보내기 어렵다고 했을까.

"혹여 지금부터 한동안 다른 임무를 맡을 예정이 있는가?"

전생에서 아길리스가 이맘때 많이 바빴던 걸까.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일이 빨리 끝나서 한동안 아무 일정도 없습니다만. 저한테 임무를 의뢰하실 겁니까?"

그녀의 말에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심하게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그냥 한번 물어보았네."

실망하는 표정이었지만 어쩐지 여기에서 그녀에게 의뢰를 맡기면 아쉬워질 것 같았다.

"단장! 데수르고 아가씨를 모셔왔어!"

문을 벌컥 여는 아길리스의 행동에 생각은 끊어졌다. 그리고 싱케루스를 다시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거렸다.

정면으로 맞부딪힌 눈길에 마치. 그와 나의 가슴 사이를 잇는 길이 생겨나 그 길로 강물이 흘러오는 듯했다.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 흐름이 내 마음으로 와 닿는 느낌.

아!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깨달음이 들이쳤다.

"아가씨, 어서 들어가십시오."

나를 부르는 소리에 아길리스를 돌아보았다. 영문을 모르는 그녀는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나를 일깨워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로 다가갈수록 가슴이 거칠게 뛰었다. 내 심장 박동 소리를 다른 이가 들을까 두려웠다.

"데수르고 아가씨, 처음 뵙습니다. 아스트룸의 단장인 싱케루스 유바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러나 기쁨을 한가득 드러낸 얼굴을 하는 그를 보며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가.

전생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다. 테라스 창문에 바짝 붙어 있던 모습, 그래서 창을 열자마자 바특한 거리에 깜짝 놀랐었지.

그때 보았던 그의 눈빛이 기억난다. 그의 목소리, 말투, 표정, 하나하나 생생하게 떠올랐다. 뒤늦게 떠올려보니 그때도 그는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놀란 마음에 그의 표정까지 샅샅이 살피진 못했다.

어쩌면 나는 이 마음을 전생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걸까. 다행이다. 그때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면 불륜을 저지르는 마음에 괴롭기만 했겠지. 또 다행이다. 그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의 마음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게 와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이 남자를 꼭 붙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시 한번 잉겐스 님께 감사드렸다.

"그럼 두 분 말씀 나누십시오. 아가씨, 다음에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한테 의뢰를 맡기시고요."

싱케루스와 내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자 아길리스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인사를 주고 나갔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는 책상을 빙 둘러 나와서 소파의 상석으로 나를 안내했다. 함께 착석한 후 그가 말을 건넸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길리스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오. 필요한 말만 들었소. 유쾌한 사람 덕분에 아스트룸을 방문한 첫인상이 아주 좋았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특급 의뢰라는 말씀만 들었지 구체적인 사정은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그전에 물 한 잔만 주겠소?"

말을 해놓고 보니 예전에는 그가 했던 말이었다.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미리 준비해놓아야 했는데."

허둥지둥하면서도 나를 향해 계속해서 웃어주는 그를 보며 괜찮으니 천천히 달라고 말했다. 궁에서 봤을 때는 의젓하기만 했는데 이곳에서는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됐다.

차를 끓여주겠다는 걸 거절하고 물을 마신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게 나의 회귀 사실을 말할 단계는 아니었다. 그래서 왕궁의 음모를 알아챘다는 식으로만 정리해서 들려주었다.

진지하게 듣고 있던 그가 나를 응시하며 물었다.

"그럼 아가씨와 데수르고 영주님은 이 결혼을 깨실 작정이십니까?"

"그렇소.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소."

그는 내 말에 안심하며 눈에 띄게 들뜬 기색을 보였다.

"그렇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영주님께서 고집이 상당하시던데 쉽게 허락하셨나 봅니다."

글쎄. 우리는 죽어서 돌아왔으니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에게 그런 말을 다 할 수는 없었다.

그저 빙긋 웃기만 했다. 그래도 다 이해한다는 듯 그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렇게 오셨으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네오 레스토 왕세자가 쓰레기인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곳까지 수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 데수르고 영주님은 모르시는 눈치라, 얼마나 속앓이를 했던지요.

알려드리자니 왕가와의 결합을 강하게 원하시는 듯한 영주님께 상처가 될 테고, 이미 아가씨는 떠날 준비를 마치셨다는 소식은 실시간으로 들려오고. 하루하루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시고 제대로 결정하시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안도하는 얼굴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를 보고 있자니 입술이 떨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어려웠다.

"싱, 아니 유바르 단장. 실례지만..."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싱케루스', 아니, 그냥 '싱'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례, 얼마든지 하십시오."

가지런한 이를 활짝 드러내며 웃는 그를 보며 나도 웃음이 나왔다.

"정말 '싱'이라 불러도 되오? 실례해도 되고?"

"그럼요. 아가씨께서 원하시면 뭔들 안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가슴께가 간질간질했다. 그렇지만 확인할 것은 확인해봐야지.

"싱,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하나만 묻겠소. 그대는 정인이 있소?"

"네? 정인이라면 사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아내든 연인이든."

"큰일 날 말씀을. 저는 깨끗한 총각입니다. 손잡아본 여인도 없습니다."

펄쩍 뛰던 그는 목이 마른 듯 급히 물을 마셨다.

"여인과 맞닿은 적도 없습니다. 전에 술 취한 여인이 업어달라고 해도 절대 업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여인에게만 손을 잡고 닿을 거라고, 어릴 적부터 굳게 다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져도 꼭 지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오?"

"네? 아하, 그렇군요. 아가씨께서 저를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네."

열심히 변명하더니 내 말에 고개가 쳐졌다. 임자가 없다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지금부터 내가 그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싶소. 그래도 괜찮겠소?"

"네?"

어리둥절해 하다가 곧 오묘한 표정으로 바뀌는 걸 보며 긴장했다.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어놓고서 그의 반응이 무서웠다. 그의 침묵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얼마든지요. 감히 바라도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바라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 말하려던 때 그가 더없이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씨익 웃는 얼굴을 하는 그를 보며 안심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반응이었다.

싱케루스와는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다. 따지고 보면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된 사이라 너무 빠른 건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한 번 죽어보니 알겠다. 소중한 마음은 늦기 전에 표현해야 하고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면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미적거리거나 놓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행복한 길을 걷겠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일 아닌가.

단지 아버지께만은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왠지 길길이 날뛰실 것 같아서였다.

일단 싱케루스가 모이카의 전시회장을 알아봐 주기로 했다. 그리고 레푸스 공작과 노벨 자작의 움직임을 아스트룸에서 감시해주기로 했다.

지금껏 잘만 얘기해놓고 막상 연인 관계가 되자 우리 둘 다 몹시 어색해졌다. 눈도 어렵게 맞추다 다음에 얘기를 잇기로 하고 헤어졌다.

마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구름을 타고 날아오는 것 같았다. 기분이 둥실둥실 떠올라 내 것이 아닌 듯했다.

"아가! 내 말 좀 들어봐라. 글쎄 네 아비가 오늘 얼마나 수다스러웠는지 내가 일하는 데 정신이... 어,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간 거냐? 혼자서 맛있는 거 몰래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지?"

나를 보신 잉겐스 님이 쪼르르 달려오시며 크게 소리치셨다. 그러다 나를 보시고는 세모꼴이 된 눈을 하셨다.

"네? 우리 티아 얼굴이 빨개요? 티아야, 어디가 아픈 거냐, 응?"

그 말씀에 아버지도 서둘러 달려오셨다. 현관을 들어서기 무섭게 두 분을 뵙게 되었다.

"일찍 돌아오셨네요."

어색하게 웃으며 슬쩍 거리를 벌렸다. 가까이 있다가 내 마음이 들켜버리면 어떡하나.

"너, 수상하다?"

잉겐스 님이 눈을 가늘게 뜨시며 뒷짐을 지셨다. 아버지도 걱정스레 살펴보시던 것을 우뚝 멈추셨다.

"아스트룸에 다녀와서 이러는 걸 보니 싱케루스가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어두운 얼굴을 하셨다. 목소리가 무시무시했다. 속으로 찔렸지만 짐짓 모르는 체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마차를 타고 나갔더니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두 분은 왜 이렇게 일찍 다녀오신 건가요?"

"우리 일찍 온 것 아닌데? 어제도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말을 돌리려는데 잉겐스 님이 뚫어져라 나를 쳐다보셨다. 꿰뚫어 보시는 듯한 눈빛에 속이 뜨끔했다.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 내리깔았다. 살짝 다시 시선을 올려 살피니 잉겐스 님이 한쪽 눈썹을 움직이셨다. 그러고는 다 알겠다는 듯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좋을 때다!"

"네? 좋을 때가 어느 땝니까?"

아버지가 잉겐스 님께 달라붙었다.

"야! 떨어져, 떨어져. 늙고 덩치 큰 놈이 들러붙으면 내가 얼마나 버겁겠냐! 너는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거냐? 아까도 마법을 펼치는데 옆에서 계속 쫑알거리며 방해하더니 너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려주셔야죠! 사람 속을 이렇게 애타게 만드시고... 자꾸 그러시면 오늘 저녁은..."

두 분이 아웅다웅하시는 사이에 얼른 2층 내 방으로 올라왔다.

문을 닫고 벽에 몸을 기댔다. 자꾸만 입가로 웃음이 비집고 나오려 했다. 가슴 위에 손을 올려보니 아직도 두근거렸다.

아버지께 들킬 뻔해서인지, 싱케루스의 자상한 미소가 떠올라서였는지, 어느 쪽인지는 나만의 비밀이다. 그 순간에는 내일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빠질까 하다가 더 의심하실까 봐 참석했다. 그러나 고민했던 일이 무색하게 아버지는 잉겐스 님과 다른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왕세자와의 파혼에 대한 이야기였다.

전생에서 국왕 일파가 일을 터뜨린 날이 10월 20일, 오늘이 9월 3일이니 한 달하고 보름가량 더 남았다.

아버지는 내 전생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당장 루베르 기사단과 군대에 대한 비밀 점검에 들어가셨다. 전생과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에 대비해 미리 군 비상소집 명령도 내리기로 하셨다. 루베르에서는 정기적으로 군 합동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비상 훈련도 종종 하고 있으니 그들의 의심을 사지 않을 명분은 충분했다.

군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는데 막상 혼인 문제가 어중간했다.

어제 아버지가 왕실에 파혼장을 보내셨다. 추문이 돌고 있는 왕세자의 행실을 염려하며, 그와 나의 혼인 맹약을 깨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왕실로부터 답이 오려면 더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잉겐스 님은 놈들이 나를 쉽게 놔주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예견하셨다. 내 생각도 그랬다.

나를 인질로 잡기 위해 준 왕세자빈 예우를 바라는 아버지의 요청까지 순순히 들어주었던 그들이다. 추문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소문일 뿐이었다. 왕세자가 모이카를 정식으로 비로 맞이하지 않는 이상 우리 맹약을 어겼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근심이 크셨다. 더는 그런 곳에 나를 보낼 수 없다고 화를 내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 셋 다 알고 있었다.

지금 루베르와 레스토가 맞붙어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우세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 가능한 한 루베르 인들의 희생이 적은 방법으로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자니 방법의 가짓수가 한정되었다.

시간을 더 벌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 루베르가 그동안 훈련해 온 것은 한 나라와 싸울 것을 대비한 형태였지, 레스토와 마레인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할 것을 예정하지는 못했다.

내가 다시 궁으로 들어가 그들을 안심시키는 동안 아버지는 이곳에서 그들을 칠 수 있도록 더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 지금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 같았다.

잉겐스 님은 당신이 계시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치셨다. 만약 내가 왕궁에 가게 되더라도 당신이 따라가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란다.

듣기만 해도 든든한 말씀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대비책은 될 수 없기에 나도 근심스럽다. 내 한 몸 빠져나올 방책을 세우고 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고민했다. 내일 싱케루스를 만나면 의논해봐야겠다.

다음날이 밝았다.

아버지가 기사단 훈련장에 시찰을 나가신 틈에 얼른 외출하기 위해 서둘렀다. 재빨리 마차를 타려는데 누가 뒤에서 치마를 잡아당겼다.

뒤를 돌아보자 잉겐스 님이 내 치맛자락을 잡고 계셨다.

"어디를 가는데 그렇게 급하냐?"

나는 네가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 표정이시면서 말씀은 능청스러우셨다. 곤란해졌다. 잉겐스 님 눈치가 빠르신 것 같던데 결국 걸려버렸나.

"아스트룸에 볼일이 있어서요. 아버지와 함께 나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셨나요?"

"땀 냄새 나는 데 내가 뭐하러 가냐. 오늘은 너를 따라가야겠다."

잉겐스 님은 시종의 도움을 받아 나보다 먼저 마차에 올라타셨다. 곤란한 표정으로 이도 저도 못 하고 서 있자 마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아버지가 어제 '좋을 때'가 무슨 말인지 나한테 계속 묻던데..."

냉큼 잉겐스 님의 앞자리로 올라갔다.

"사실을 알면 그 녀석이 기함하겠구나, 흐흐."

음흉하게 웃으시는 잉겐스 님을 보니 앞날이 캄캄했다. 만약 잉겐스 님이 아버지께 싱케루스와 내 사이를 말씀하신다면...

이분을 온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스트룸에 도착하기까지 싱케루스를 만날 기쁨보다 그 걱정이 앞섰다.

걱정만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나를 보며 의미 가득한 미소를 지으시는 잉겐스 님께 슬쩍 여쭤봤다. 공감대를 형성해 부탁드리는 방법을 써볼까 해서였다.

"잉겐스 님은 연애를 많이 해보셨겠죠?"

"... 그, 그렇지. 나처럼 성격 좋고 머리 좋고 멋있는 드래곤이 연애도 한 번 못 해봤겠느냐, 으하하!"

응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 순간 밖에서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잉겐스 님이 기다리셨다는 듯 얼른 마차 문을 열라고 손짓하셨다.

더 여쭤보고 싶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접고 밖으로 허락을 내렸다. 곧 문이 열리자 오늘도 마중 나온 아길리스가 보였다.

"아가씨, 환영합니다."

마차에서 내리는 걸 그녀가 손을 잡고 도와주었다.

"고맙네, 아길리스."

내 말에 밝게 웃던 아길리스의 눈이 화등잔만 하게 커졌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가니 내 뒤쪽이었다. 돌아본 곳에는 잉겐스 님이 조그마한 손으로 마차 입구를 잡으시곤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계셨다.

당연히 나만 올 줄 알고 마차 안에 남은 이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신경 쓰지 못했나 보다. 시종을 시켜 내려드리도록 하려는 순간이었다.

"누나, 잉겐스는 언제 내려?"

"...?"

뜬금없이 웬 누나? 잉겐스 님이 왜 저러시지? 절로 놀란 입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길리스가 재빨리 잉겐스 님을 안아 드는 게 아닌가.

"와! 아가씨께 언제 이렇게 귀여운 동생님이 계셨나요? 우리 도련님, 성함이 잉겐스시라고요?"

잉겐스 님이 볼을 발갛게 물들이신 채 아길리스를 향해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상황 파악이 안 되어 그대로 있기만 하자 잉겐스 님이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고 말씀하셨다.

"누나, 싱케루스 형아 만난다며? 빨리 들어가자!"

목 뒤가 당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 줄 알겠다. 아길리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잉겐스 님을 보니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다.

계속 입구에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자리를 이동했다.

어제 왔던 길을 다시 따라가는 동안 아길리스는 잉겐스 님을 꼭 안고 갔다. 연신 도련님이 너무 귀엽다는 말을 반복하는 그녀와 그런 그녀에게 안겨 몸을 배배 꼬며 눈을 깜빡이시는 잉겐스 님을 보며 걷는, 잠깐의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인생, 그리고 용생은 무엇인가. 남녀 간의 정이란 무엇인가.

시녀들에게 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혹시 잉겐스 님은 아길리스에게 첫눈에 반하신 건가. 그러자 다른 생각도 들었다. 타인에게는 나 역시 잉겐스 님처럼 쉽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어린 시절 읽었던 소설 '로미옹과 주리앤'의 주인공들보다는 싱케루스와의 교제에 훨씬 신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듯 아버지가 사실을 아셨을 때의 충격이 내 짐작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아찔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만의 세상에 빠진 듯한 둘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꼈다. 짧은 순간 절대 고독을 체험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어서 싱케루스가 보고 싶었다.

어제와는 달리 아길리스가 단장실 문을 얌전히 두드린 후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던 듯 싱케루스가 서둘러 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치 세상에 한 사람만 존재하는 듯 오롯이 나만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를 만나니 조금 전 둘을 보며 느꼈던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있겠나. 나에게는 싱케루스가 있는걸.

그렇게 나도 싱케루스에게만 시선을 집중했다. 옆에서 쪽쪽 거리며 잉겐스 님의 볼에 아길리스가 입 맞추고, 꺄르륵 넘어가는 그분의 앳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절대 돌아보지 않았다.

싱케루스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아길리스가 잉겐스 님께 사무실 견학을 시켜드리겠다고 하자 잉겐스 님이 몰래 나에게 눈을 부라리셨다. 내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하자 언제 그러셨냐는 듯 아길리스의 품으로 파고드는 잉겐스 님을 보면서 조용히 싱케루스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스트룸이 입주한 건물을 빠져나와 둘이서 한참 걷기만 했다. 문득 우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무작정 걷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싱케루스를 보며 입을 열려는데 이 남자의 얼굴이 이상했다.

볼이 온통 시뻘게져서 얼굴에 활활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싱, 왜 그러오? 어디 아프오?"

"손이..."

응? 그가 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하는 말에 손을 내려다봤다. 내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아! 아까 서둘러 나오느라 그대의 손을 허락도 없이 잡고 왔소. 놀랐다면 미안하오."

전생의 마지막 날, 왕궁에서 도망칠 때 그가 먼저 내 손을 잡고, 나를 업어주었던 것이 떠올랐다. 그걸 말해주었다가는 이 남자 얼굴이 터져버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사과하실 일이 아니라... 너무 떨려서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잡겠소."

얼른 그 손을 다시 붙들자 싱케루스가 마주 힘을 주어 잡았다.

실은 나도 너무 떨리는데 무슨 용기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마 싱케루스도 느끼고 있을 거다. 내 손바닥에 심장이 붙어있는 것처럼 맥박이 쿵쾅거리고 있었으니까.

옆을 살펴보니 그의 목덜미까지 붉어져 있었다. 덩달아 나도 뜨겁게 열이 오르는 기분이었다.

"싱, 우리 잠시 쉬었다 갈 만한 곳이 있소?"

"네. 마침 괜찮은 곳을 압니다.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싱이 데려간 곳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숲속의 작은 찻집이었다.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자리하여 밖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조라 더 마음에 들었다. 둘이서 함께 다니는 모습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불안하던 차였다.

손님이 우리 둘뿐이라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맞은편에 앉을 줄 알았던 싱케루스가 내 옆으로 왔다.

"아가씨와 나란히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오. 나는 환영이라오."

어쩐지 어색하게 말이 나왔지만 진심이었다. 그의 체온이 곁에서 느껴지는 게 좋았다. 자리에 앉은 후 다시 떨리는 손을 맞잡았다.

나와 손을 잡고 있느라 싱케루스가 왼손으로 찻잔을 드는 것을 보았다. 오른손잡이인 그를 알고 있었기에 슬며시 손을 놓아주었다. 분명히 그러려고 했는데 싱케루스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아예 손깍지를 껴왔다.

아까는 손바닥에서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면 이번에는 마주 닿은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다 제각기 심장이 놀라 뛰고 있는 느낌이었다. 자극이 너무 과했다.

"싱, 의논할 게 있소."

뭔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보니 어젯밤 내내 고민하던 문제였다.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손으로 가는 관심을 돌리고자 열심히 설명했다. 왕실에서 파혼을 거절한다면 내가 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것이 그들의 의심을 피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대항을 준비할 수 있는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다고. 어느새 싱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주었다.

탁자 위의 찻잔이 식고 창 바깥에서는 해의 그림자가 길이를 달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정신없이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건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일까. 또는 같이 있는 사람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우리의 두 손은 한참이나 마주 닿은 채였다.

싱케루스는 내가 왕궁으로 들어간다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다. 잉겐스 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아버지 외에도 나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이들이 있구나. 싱케루스와 잡고 있는 손이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왕비 전하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그분을 떠올리자 가슴께가 싸르라니 아파왔다. 지금쯤 잘 계시겠지. 궁에는 가고 싶지 않지만 전하는 꼭 다시 뵙고 싶었다.

분명 왕실에서 아무도 대동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하자 싱케루스가 새 의견을 하나 내놓았다. 파혼이 성사되지 못하면 대신 우리 쪽에서 조건을 걸어보자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궁으로 가야 한다면 내 안전을 더 보장하면서 그곳에서도 손을 쓸 수 있도록 수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싱케루스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파혼 거절서가 도착하면 아버지가 다시 왕실로 서신을 보낸다. 왕세자의 소문을 듣고 내 마음이 많이 상했음을 알리면서도 못 이기는 척 혼인 맹약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안 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으니 달래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라도 정든 시녀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덧붙여 싱케루스는 시녀와 함께 가는 것이 허용되면 진짜 시녀가 아닌 아스트룸의 단원들을 보내자고 했다. 거기에 자신이 여장해서 함께 가겠다고 했다.

이 사람은 180cm가 넘는 키에 어깨도 딱 벌어졌다. 손은 크고 뼈마디가 굵다. 내 보기에는 누가 봐도 남자로 볼 것 같은데. 피부가 뽀얗고 눈매가 순해서 자기는 화장하면 여자로 보인다며 따라가겠다고 우기는데 진심인지 헷갈렸다.

"싱, 피부나 눈매가 여성의 특징을 구분 지을 수는 없소. 싱이 분장을 한다 한들... 더구나 싱의 체격으로 시녀인 척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요. 귀족가의 시녀들은 보통 싱만큼 체격이 크거나 손이 거칠지 않소."

내 말에 실망하는 눈치를 보니 여장을 하겠다는 건 진심이었나 보다.

싱의 손등을 살살 문질러서 달래주었다. 낙심한 듯 고개를 숙인 그를 위로하려 그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는 쪽으로 몸을 더 틀었다. 얼굴을 숙여 그의 얼굴로 가까이 가져다 댔는데.

맹세코 나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뭔가 재빨리 콧등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가씨 얼굴이 바로 앞에 있으니 저도 모르게 그만... 허락 없이 입을 맞춰서 죄송합니다."

겨우 그런 걸로... 더구나 시뻘건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싱케루스를 보니 나도...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나갑시다. 여기 말고 아예 인적이 없는 곳으로."

찻집 주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일단 다른 곳을 찾기로 했다. 찻값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빠르게 나왔다.

싱케루스가 이끄는 대로 숲속을 더 들어갔다. 나무가 우거져 낮인데도 어두운 곳이 있었다.

나무에 등을 댄 채 싱케루스를 기다리려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숲의 자잘한 소음들도 모두 멈춘 듯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로 내려앉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처음에는 살짝 닿기만 했다. 떨어지기에 끝났는가 싶었더니 이내 이전보다 더 강한 세기로 눌러왔다. 그리고 그가 내 허리를 잡아끄는 바람에 놀란 입술이 벌어졌을 때 입안으로 몰캉한 것이 들어올 뻔했다.

나도 모르게 놀란 신음을 흘렸다.

그때였다. 입술에서 느껴지던 움직임이 멎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떴다. 싱케루스가 민망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아가씨가 아직 어리신 것을 제가 염두에 뒀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깊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더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이 꽤 단단했다. 실망스러운 한숨이 삐져나왔다.

"아가씨께도, 영주님께도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해해주실 수 없으신지요?"

단호하면서도 내가 서운할까 봐 마음을 졸이는 듯한 그를 보며 더 조를 수 없었다. 그래. 6개월만 더 기다리자. 어차피 복수에 신경 쓰다 보면 그 시간도 금방 갈 것이다.

"미안하오. 내가 먼저 그대를 꼬드겨서... 앞으로는 조심하겠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이만 돌아갑시다. 잉겐스 님이 잘 계시는가 모르겠소."

서둘러 발걸음을 뗐다. 싱케루스가 좇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옆으로 다가온 그를 곁눈으로, 그 발만 보고 걸었다.

둘 다 붉어진 얼굴이 식었을 때쯤 아스트룸의 정문에 도착했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앞에서 힐끔힐끔 서로를 살피다 눈이 마주쳐 웃고 말았다.

"이제 좀 편해지셨습니까?"

"그대야말로 괜찮소? 아까는 정말 미안했소."

"자꾸 저한테 사과하시면 다시는 입...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정색해버렸다.

"그건 안 될 소리요."

내 말에 빵 터져버린 싱케루스가 웃어버리자, 겸연쩍어졌지만 뭐 어떤가. 내 남자랑 입만 맞추겠다는데.

복도에 들어가서는 둘이 다시 손을 잡았다. 싱케루스의 사무실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다. 아직 아길리스와 돌아다니고 계신 것 같았다.

"아까 그분을 아길리스는 리벤티아 님의 동생이라고 하고, 부르실 때 들으니 잉겐스 님이라고 존칭을 쓰시던데 어떤 분이신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직접 밝히시기 전까지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오. 그대에게 말해주지 못해 유감이오."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냥 귀한 분으로 알고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면 고맙겠소. 그리고 말인데..."

"네, 말씀하십시오."

연인 사이에 누구는 말을 높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래서 둘 다 통일해서 말하자고 얘기하려 했는데. 말문이 막혔다.

나를 쳐다보는 싱케루스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했다. 이 사람 눈이 꼭 사슴 같아서. 나도 모르게 얼른 볼에 입을 맞추고 떨어졌다.

"하하, 이건 반칙입니다."

"그래서 싫소?"

"아닙니다. 더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봐 빠르게 다시 입술을 부딪치고 떨어졌다. 몇 번 반복할수록 점점 그 뺨에 입술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할수록 기분이 더 좋은 게 중독될 것 같았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단장! 언제 돌아온 거야?"

아길리스가 잉겐스 님을 안고 들어왔다.

여러 번의 입맞춤을 끝내고 싱케루스와 떨어져 앉아 할 말을 고르던 참이었다. 들키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하는데 잉겐스 님이 코웃음을 치셨다.

"내 귀가 밝은 것을 잊어버렸나 보네?"

그랬지, 참. 광산에 묻힌 돌 속에 갇혀 계시면서도 정신이 들 때마다 멀리서 나는 소리를 가끔 들으셨다고 했다. 더구나 왕궁에서도 소궁에 보관되어 계시면서 들리는 소리가 많았다고 하셨다.

낭패였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두 사람을 빼놓고 잉겐스 님과 둘이서만 눈싸움을 했다. 그러나 내가 잉겐스 님을 이길 수는 없었다.

꼬리를 말고 고개를 숙이자 잉겐스 님이 히히, 웃으셨다.

"집에 돌아가면서 얘기해, 누나."

"잉겐스 님, 맛있는 것 사드릴게요..."

"어? 아가씨, 왜 잉겐스 님께 존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잉겐스 님께 사정해보려는데 옆에서 아길리스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간 잉겐스 님이 몸을 움찔하셨다.

"그게 말이지... 그러게 누나는 왜 나한테 자꾸 말을 높이는 거야? 나도 전부터 궁금했다고."

잉겐스 님이 지레 찔리셨는지 선수를 치셨다. 어떻게 해야 하나 눈치를 살피니 맞장구를 쳐 드릴 수밖에 없었다.

"미안, 잉겐스. 누나는 네가 그런 말을 좋아하는 줄 알고. 우리 잉겐스가 너무 귀여워서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단다. 앞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말하도록 할게."

떨떠름한 표정이 잉겐스 님의 얼굴에서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에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아길리스에게 어린 척 내숭까지 보이시는 걸 보면 당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으신 거다.

돌아가는 길에 잉겐스 님과 나눌 말이 많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기 전에 잉겐스 님과 말을 끝내 놓아야 했다.

마차를 타고서 최대한 버텼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말하는 법. 여기에서는 아쉬운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원래라면 이런 식의 경쟁에서 내가 잉겐스 님을 이길 리 만무했지만. 기다리다 못한 잉겐스 님이 눈을 흘기며 말씀을 꺼내셨다.

조금 주저하시며 잉겐스 님이 꺼내신 말씀은 짐작하던 대로였다. 당신의 정체를 아길리스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내 모습을 성인으로 바꿀 수도 없고, 여기에서 기껏 변해봤자 도마뱀인데 아길리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도 드래곤 님이라는 것 정도는 밝혀도... 처음에 도마뱀인 척하려고 하신 것처럼 사실을 밝히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때는 창피하니까 그랬지. 위대한 존재가 고작 도마뱀이 됐는데 너라면 알리겠냐?"

"뭐 어떤가요. 잉겐스 님의 가치나 위대함은 외모 같은 것으로 감히 재단할 수 없어요."

"너, 뭐 이렇게 말을 잘하냐? 감동할 뻔했다."

감동하신 것 같은데. 굳이 아니라고 하시니 넘어갔다.

"잉겐스 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저야 따라야죠."

그리고 나도 싱케루스와의 관계를 아버지께 숨겨달라고 부탁드렸다. 어떻게 설득 드려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저절로 해결되어버렸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 협상은 그보다 더 쉬울 수 없었다. 동지애를 나누는 눈빛을 주고받은 뒤 마차 안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다. 내친김에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마저 여쭤보았다.

"잉겐스 님, 왜 저한테 누나라고 하셨어요? 그냥 저택에서처럼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요."

"아길리스한테 내 귀여움을 부각해야 하지 않았겠냐. 여자들은 연하를 좋아한다며? 연하가 누나라고 불러주면 그렇게 설렌다던데."

"누가 그래요?"

"책에서."

잉겐스 님은 알고 보니 연애를 한 번도... 아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것 같았는데.

"설령 그렇다 한들 겉모습이 네댓 살짜리인 어린애가 누나라고 불러봤자..."

"아니야? 레드 드래곤 놈이 유용할 거라며 가져다준 건데. 이 자식이 나를 속인 건가!"

한숨이 나왔다.

"잉겐스 님, 아길리스를 이성으로 좋아하시는 게 맞죠?"

"응, 그래."

수줍어하시며 양손을 조몰락거리시는 모습에 뭐라 말씀드리기 송구했다. 그래도 잉겐스 님을 돕고 싶었다.

"잉겐스 님,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요. 성인이 어린아이한테 남녀 간의 애정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가시다 잉겐스 님의 감정과 아길리스의 마음이 아주 다른 방향으로 엇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아길리스를 만나실 거라면 끝까지 속일 수는 없어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지도 몰라요.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언젠가는 꼭 진실을 알려주셔야 해요."

내 말에 시무룩한 얼굴이 되신 게 안됐다.

"달리 방법이 없잖느냐... 망할 로드 영감! 나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얼마나 잘 드시고 잘 사시는지 두고 봅시다!"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러워 보이려는 찰나, 말씀하시다 말고 잉겐스 님이 허공을 향해 짧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셨다. 그 모양이 불안해 보여서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어, 그렇게 드래곤 로드 님을 욕하셔도 듣지 못하시는 거죠?"

"아니, 저쪽 세상에서 다 듣고 있을걸? 내가 말 안 했더냐? 로드 영감은 자유롭게 이쪽저쪽 세상의 경계를 넘어 공간이동이 가능하고, 말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단지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곳에서 엉덩이를 깔고 안 움직이는 것뿐이지. 내 말도 듣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을 게 분명해."

"그럼 이러시면 안 되죠! 차라리 로드 님께 부탁해보는 게 어떠세요? 지금 당장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실지 모르잖아요."

애가 탔다. 그런데 잉겐스 님은 되레 시큰둥한 반응이셨다.

"그 까다롭고 속 좁은 영감이 어지간히 내 부탁을 잘 들어주겠다. 됐다! 나이 들어서 볼기짝 맞는 것도 질리고, 내 힘으로 다시 예전 영광을 찾을 거다."

볼기짝? 도대체 얼마나 사고를 치셨기에...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잉겐스 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주신 고마운 분이다.

"잉겐스 님, 힘을 찾으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응,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마법이 느는 게 말이지..."

설명을 들어보니 잉겐스 님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였다.

"잉겐스 님은 꼭 성공하실 거예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흐흐, 좋다! 내가 사람을 잘 봤단 말이지. 연애에 성공한 네가 도와준다면 이미 경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면에서 아길리스도 너무 멋있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이 몽롱해지시는 걸 보니 잉겐스 님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다. 나라고 연애에 대단한 고수도 아니고 이제 겨우 초보 수준인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나 혼자 심각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위기감을 느끼건 말건 잉겐스 님은 취하신 듯 집으로 오는 내내 아길리스를 찬양하며 즐거워하셨다.

며칠 후 기다리던 왕실 답변서가 도달했다.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파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놈들! 속을 뻔히 알고서 보니 정말로 몹쓸 놈들입니다. 우리 귀한 아이를 인질로 잡으려 이딴 수를 쓰는 걸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헛짓거리한 걸 생각하면, 크윽!"

아버지는 가슴을 치셨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 아니냐. 그만 속상해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게 낫다. 아기가 들려준 것처럼 싱케루스의 의견대로 따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그래요, 아버지. 예전에는 모르고 당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러다 아버지가 쓰러지실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잉겐스 님. 괜찮다, 티아야."

우리를 보며 힘없이 웃으시는 아버지에게 잉겐스 님이 등을 팡팡 치셨다.

"너는 나를 찾아낸 인간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지. 그러니 힘을 내라. 아기도 내가 꼭 지켜주도록 하마."

아버지가 주룩 눈물을 흘리셨다.

"아버지?"

"아이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잉겐스 님. 크흡.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아버지가 뒤돌아 훌쩍거리시는 모습을 잉겐스 님이 인자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셨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세우셨다.

잉겐스 님의 눈짓에 조용히 아버지를 두고 응접실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나에게 지시를 내리셨다.

"왕실에 네 부친 명의로 다시 서신을 보내거라. 아예 시녀단을 꾸려서 가겠다고.

그래 봤자 그들이 허용하는 수는 한두 명이 고작이겠지만 협상할 땐 일단 크게 부르는 법이다. 그렇게 그들이 수를 줄여 허락하면 그걸 빌미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마리아 부인이라고 했지? 그녀가 왕궁 출입을 금지당하리라는 것을 아직은 네가 모르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건 이번 협상 조건에 넣어선 안 된다."

말씀대로 시종장을 시켜 아버지의 명의로 빠르게 다시 협상 요청서를 보냈다. 내가 못 가겠다고 떼를 쓰고 있으니 어서 당근을 내놓으라고. 철없는 떼쟁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제 개의치 않았다.

이틀 후, 이번에는 그들도 바로 대답해왔다. 시녀를 한 명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차 받은 답변에 아버지와 잉겐스 님과 함께 모였다.

"시녀 한 사람은 아스트룸의 아길리스로 정하도록 하자꾸나. 그녀의 실력이 웬만한 기사단의 단장급이라고 하니 안성맞춤의 인재니라."

말씀에 사심이 들어간 것 같았지만 잉겐스 님께 동의했다.

"싱케루스가 여장을 해서 따라간다면 왕궁의 다른 인물로 대체해서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좋은 방법 같지 않구나.

싱케루스는 차라리 이곳과 왕궁을 오가며 정보를 전달하고 만약의 사태에 너를 빼낼 대비책으로 따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저도 잉겐스 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티아가 고생할 것이 마음이 아파 그렇지요."

"정말 잘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잉겐스 님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마법이 늘어났으니까 더 안심이에요."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후 잉겐스 님은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열심히 마법을 수련하셨다. 드래곤 로드 님께 복수하는 길도 될 테니 일거양득이라고 하셨다.

다 할 수 있던 것을 기초부터 다시 연습하려니 열불이 터지신다면서도 꾸준히 노력하시더니 결국 결실을 보셨다. 발현 가능한 마법을 추가하신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거나 기존의 것을 대체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환상 마법에 더해 새롭게 추가하신 마법은 3가지나 됐다. 당신의 몸을 감추는 마법과 소리를 내지 않고 뜻을 전달하는 마법, 그리고 향기를 내는 마법이었다.

향기를 내는 마법은 어디에 쓰일지 궁금했는데 아길리스를 생각하며 연습하시다 보니 나왔단다. 그녀에게 좋은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었노라 말씀하시며 바로 아스트룸으로 가자고 해주신 덕분에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싱케루스도 만났다.

잉겐스 님이 작은 병에 담아 건네준 향기에 아길리스는 감탄했다. 잉겐스 님의 마법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부자 도련님이 어딘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마법 물품을 사 온 정도로만 여기는 듯했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랑하실 수 없음에도 잉겐스 님은 만족하셨다.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으시단다.

향기 마법이 아길리스를 위한 것이었다면 몸을 숨기고 전언을 보내는 마법은 잉겐스 님을 위한 마법이었다.

투명화 마법을 실현하시면 도마뱀의 형태이든 아이의 모습이든 잉겐스 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이 사라졌다. 왕궁에 함께 가셨을 때 어떻게 숨어 지내시게 할지 걱정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다행이었다.

전언 마법은 잉겐스 님이 머릿속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상대방에게도 마법을 걸면 잉겐스 님과 소리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궁에서 정말 필요한 마법임이 틀림없었다.

궁에 갈 것에 대비해 열심히 노력하신 잉겐스 님을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몰래 시녀를 시켜 잉겐스 님이 궁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왔다. 나중에 보시고 좋아해 주시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숨겨두었다.

며칠 후 왕궁으로 갈 준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싱케루스와 아길리스가 저택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에게 정식으로 의뢰를 맡기면서 아길리스도 시녀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아예 저택에 상주하면서 나와 합을 맞춰볼 일이 많았다. 잉겐스 님의 입꼬리가 온종일 올라가 있었던 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다.

싱케루스도 저택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눈총을 받아야 했다. 가끔 아스트룸에 다녀오는 시늉을 하면서 떠나는 척하곤 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보이는 모습에 아버지는 혀를 내두르셨다. 그러면서도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저택에서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했다.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틈틈이 둘이서 몰래 눈을 마주치는 게 다였다. 그래도 좋았다. 그 말 말고 표현할 말이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좋았다.

싱케루스와 나누는 눈빛 사이사이 아버지의 시선을 받기도 했다. 고개를 갸웃하시면서도 나와 마주치는 눈길에 그때마다 흐뭇한 얼굴이 되셨다. 찔리면서도 행복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나날은 이렇게나 마음을 충만하게 했다. 예전에도 그런 진리를 미처 모르지 않았거늘. 놓쳐 본 이들이라 그런가. 마주 보는 한순간의 눈빛에도 애틋하고 따사로워서.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움도 더해갔다.

그럴 때마다 종종 잉겐스 님은 발로 내 다리를 톡톡 건드리셨다. 새침한 표정을 하셨지만 그게 위로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기다리지 않았건만. 짧은 추억을 뒤로하고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다. 드디어 왕궁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잉겐스 님은 잠깐의 작별을 위한 인사를 나누신 후 도마뱀으로 변신하셨다. 그대로 들고 내 어깨 위에 올리자 투명화 마법을 전개하셨다.

"아가야, 무겁지 않으냐?"

"전혀요. 어깨에 손수건 한 장 올린 정도의 무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도 마법인가요?"

"투명화 마법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일 뿐이다. 두코, 우리는 가볼 테니 그만 울어라."

지난 생에서 내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염없이 한 곳에서 배웅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잊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곳에서 배웅을 끝내고 싶었다.

마지못해 내 말씀을 들어주시면서도 이제는 국왕의 음모를 다 아시기에 이전보다 아버지는 더 못 견디셨다. 계속해서 눈물을 쏟으시는 아버지를 볼수록 여기에서 헤어지기로 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했다.

길 한복판에 아버지를 휑뎅그러니 두고 가고 싶지 않았다. 따뜻한 실내에서 헤어짐을 맞고 싶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딸이에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전생에서는 바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대신 잉겐스 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제 능력을 믿어주세요."

장난스레 건네는 말씀에도 아버지는 울음을 그치지 못하셨다. 눈물을 닦아드리고 볼에 입 맞춘 후 꼭 안아드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꼭 다시 보고 말 테다.

속으로 기도도 드렸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머니.

닫힌 문으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정문까지 나왔을 때 비로소 나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다시 닦았다. 마차 앞에 마리아 부인과 아길리스, 싱케루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 부인에게 아길리스를 저택의 시녀로 진작에 소개해놓았다. 싱케루스는 마차꾼으로 말을 몰아 왕궁으로 가는 길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아가씨, 결혼식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례를 붙이며 마르티스 부관은 넉넉한 웃음을 지었다.

"마르티스 경, 아버지를 잘 부탁하오. 특히 끼니를 거르시거나 몸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잘 돌봐주시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영주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여 남아있는 시중인들에게도 인사를 전했다. 전생에서 이 사람들도 안 좋은 일을 겪었을지 모른다. 우리 영지민이고 아버지와 나를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무사히 다시 만나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전생에서는 궁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내가 울려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 부인이 충고를 남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태도가 바뀌었고 아길리스도 함께 타고 가게 되었다.

"출발하기 직전에 왕궁으로부터 급보를 전해 받았습니다. 궁에 도착하면 저는 리벤티아 아가씨를 모실 시중인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까지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알려줘도 내가 동요하지 않겠다고 짐작했기 때문일까. 마리아 부인은 전생과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부인은 그 지시가 내려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 지시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루베르로 내려온 후 국왕 전하의 총애를 얻게 된 페르도 백작 부인이, 부인을 시기하여 궁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성도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손을 쓴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 부인은 내 말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잠시 생각에 잠기기만 했다.

"그렇다면 지시를 철회해주실 것을 국왕 전하께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시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전하의 어심이 그렇게 기울었는데 말입니다."

"부인은 부당한 일을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음, 뼈아픈 말이군요. 그렇지만 페르도를 어릴 때부터 겪어온 저로서는 그녀의 성격을 익히 알기에 가능하면 부딪치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부인은 그랬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아카데미로 가는 길을 선택했지.

"부인,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 국왕 전하께서 나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부인을 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그러한 명을 내리신 거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얼마나 아가씨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하셨는지 저는 잘 압니다."

"양보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정말 나를 고립시킬 목적이시라면 부인은 부인의 학생을 버리시겠습니까?"

늘 침착함을 유지하던 부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어긋났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제 학생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국왕 전하께 청원을 드릴 겁니다. 안 되면 다른 귀족들의 여론을 모아서라도 학생의 곁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전생에서 부인이 순순히 물러났던 건 우리들이 착각했듯 자신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았기 때문일까. 이번에는 운을 띄워놓았으니 같은 일이 생긴다면 부인의 추측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것이다.

부인이 말한 대로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 부인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내 사람으로 믿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 전생에서 부인이 보여주었던 고결함을 믿고 기대고 싶다.

우리의 이야기가 지루했던지 아길리스가 부인의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 부인이 책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쳤다.

예전과 같이 창밖으로 펼쳐진 너른 벌판과 끝이 없는 듯한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루베르의 과거를 생각하며 갔었는데. 이번에는 전생의 내 과거를 떠올리며 간다. 수없이 되새김질하여 그들에게 똑같이 당하지는 않기 위하여.

궁에 도착하자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왕세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릴리 궁 시녀들을 만난 후 마리아 부인이 이별을 고했다.

"부인, 아까 나눈 이야기를 잊지 말아 주길 바라오."

"알겠습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고맙소. 조만간 다시 봅시다."

부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부인이라면 내가 이 정도만 강조해도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을 거다.

릴리 궁으로 와서 다음 날 눈을 뜰 때까지, 그리고 왕실 식사 자리에 참석할 때까지도 일어나는 일은 전생과 똑같았다.

내가 달라져 있고, 잉겐스 님이 몰래 나와 함께 하시며, 아길리스가 틈틈이 릴리 궁의 시녀들과 보조를 맞추었을 뿐 다른 것은 다름없었다.

식사 자리에 갔을 때 맨 먼저 왕비 전하부터 눈에 들어왔다.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한 호흡 쉰 후 인사를 올렸다. 데펙토르 국왕, 왕비 전하, 가네오 왕세자 순이었다.

그리고 페르도가 내게 과거와 같이 인사했다.

"반가워요. 나는 페르도의 일레체예요. 백작 부인이고요."

"반갑소.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앞의 인사를 통해 들었을 테니 내 소개는 생략하겠소."

전생에서는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나는 틀리게 인사했었다. 그녀에게 극존칭을 썼던 것이다.

마리아 부인에게도 스승과 제자의 예에 따라 높임말을 쓰다 궁으로 들어온 즉시 왕세자빈에 준하는 신분과 신하의 지위에 맞는 말투로 바꾸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예법에 맞는 인사를 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나에게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끼어들었단 말인가. 가소로웠다.

이전처럼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응접실로 모였다. 그 사이에 국왕과 페르도가 잠시 자리를 뜨더니 페르도가 못 보던 목걸이를 끼고 있었다. 삐친 마음을 달래주었나 보다.

내 행동이 달라지니 이들은 내가 돌아온 것을 모름에도 전생과 다른 행동을 한다. 마리아 부인과 마차 안에서 이미 겪었던 일이었으므로 당황하지 않았다.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투명화 마법을 건 채 내 어깨에 올라타서 함께 오신 잉겐스 님께서 나를 격려해주셨다. 이렇게 든든한 분과 함께 있다.

"리벤티아, 네 시녀가 들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래,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맞다. 이전과 달라진 게 또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가져온 물건.

"제 아버지가 국왕 전하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전보다 훨씬 큰 보석함을 국왕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가 뚜껑을 열었을 때, 휘황찬란한 빛이 터져 나왔다.

"오! 이것은... 정말 대단하구나!"

"바다 건너 대륙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가장 융성했던 제국을 다스렸던 여왕이 아꼈던 물건이라 합니다."

"저희도 볼 수 있겠습니까?"

연신 감탄하는 국왕을 보면서 궁금증이 인 왕세자가 애가 달아 물었다. 그리고 시종이 그들에게 보석함째로 건넸을 때 국왕과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동시에 탄성을 터뜨렸다.

"이렇게 멋진 왕관은 처음 봅니다."

"아바마마께 진정 어울리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데수르고 후작이 제법 물건을 고르는 재주가 있군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껴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페르도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녀가 국왕에게 괜찮은 보석은 다 받고 있지만, 그중 많은 수가 군비로 바뀌어 레푸스 공작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보석이 다 그렇게 그녀의 손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싱케루스가 조사한 결과, 가끔 아주 희귀한 물건은 그녀도 제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 정도는 국왕도 용인해 준다고 했다. 그녀의 그런 기준에 부합할 만한 물건을 골라서 일부러 오늘 가져왔는데 그녀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리벤티아, 괜찮겠느냐?"

"뜻대로 하십시오."

싫어하는 기색 하나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더니 페르도가 의외라는 듯 웃음을 흘렸다. 그러고는 시종에게서 왕관을 받아 제 머리에 올렸다.

그래, 마음껏 껴보아라. 그것, 우리 잉겐스 님이 진짜 똥을 굳혀서 왕관처럼 보이도록 환상 마법을 걸어둔 물건이니까. 향기 마법을 걸어두었으니 왕관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실험을 통해 알고 있다.

착용자에게는 결국 구린내가 배어버려 며칠 동안 별짓을 다 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페르도 너의 혼부터 빼놓고 시작하겠다.

"어때요? 예뻐요?"

번쩍거리는 보석이 박힌것처럼 보이는 왕관을 머리에 쓰고 페르도는 한껏 요염한 자태를 흉내 냈다.

그래 봤자다. 옆에서 잉겐스 님이 큭큭거리시는 걸 혼자만 들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왕관이 마치 부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군요."

왕세자가 입에 발린 말을 하자 페르도의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줄 알았다.

"그렇군. 당신에게 맞춘 듯 어울려. 어떠냐, 리벤티아. 내 이것을 일레체에게 하사하고 싶구나."

"이미 전하께 바친 물건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국왕 부자와 페르도, 셋이서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같잖지도 않았다.

응접실에서의 자리 배치도 식당에서와 같았다. 국왕이 상석에 앉고 그의 좌우로 왕세자와 페르도가 나란히 오른쪽에, 나와 왕비 전하가 왼쪽에 함께 앉는 식이었다.

그래서 왕비 전하는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조용히 차를 드셨다. 나도 세 사람이 떠드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 운을 뗐다.

"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괜찮으니 무엇이든 물어보려무나."

뇌물(처럼 보이는 똥)을 바친 보람이 있었는지 국왕의 표정이 전생과는 달리 아주 너그럽고 호의적이었다.

"전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편하게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왕실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궁에서 보내주신 '왕실 도감'이나 마리아 부인의 가르침에서도 분명 왕실에는 식구가 세 분뿐이라고 배웠습니다. 한데 페르도 백작 부인이 함께하니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할머님이나 고모님이라도 되십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한 얼굴을 하고 기다렸다. 다들 멈칫하는 가운데 페르도만 인상을 썼다.

"일레체는 말이지... 짐과 가까운 사람이다."

"전하의 전속 시녀장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페르도의 눈치를 힐끗 살핀 국왕이 그녀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자 명확한 단어로 표현해주었다.

"이 사람은 짐의 연인이다."

그제야 페르도의 얼굴이 펴졌다. 왕비 전하와 왕세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가운데 내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외쳤다.

"세상에! 전하, 전하께서는 왕비 전하 외의 다른 여인은 들이지 않겠노라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걸로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리 정식 첩지를 받은 후궁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가족 모임에 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면 이건 대놓고 후궁이란 소리지요! 전하께서 잠시 저이에게 미혹되어 정신이 흐려지셨더라도 저 여자가 알아서 처신을 조심해야 하거늘. 채신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지 않습니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열성을 다해 말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지만 무슨 상관이랴. 어차피 그들과 잘 지낼 것도 아닌데. 맞는 말이기도 했다.

"리벤티아, 말이 지나치잖소?"

왕세자의 말에 모른 척 눈을 동그랗게 떠 보였다.

"하지만 저하, 전하의 그 선언을 전해 듣고 저는 너무 감동했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바깥의 백성들 또한 전하의 일편단심을 얼마나 칭송한다고요!

그런 전하의 아드님이시니 저는 저하와의 혼인도 더 기대하고 있었지요. 물론 이제는 아닌 걸 알지만요.

이 일이 궐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그만 돌아가 보겠어요!"

째지는 목소리가 울렸다. 내 말을 더 듣고 있지 못하고 페르도가 중간에 가르고 나섰다. 팩하니 일어서고는 국왕에게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얼굴이 표독스러웠다.

내 쪽을 향해 있을 때라 국왕이나 왕세자는 못 본 듯했다. 그러면서도 왕관은 끝까지 쓰고 나가는 게, 머리 위의 물건을 쓴 채로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았다. 왕관을 잡은 손이 차마 그걸 던져버리지는 못하고 되레 꼭 쥐고 있었다.

국왕 역시 나에게 뭐라 말하지는 못하고 불편한 얼굴을 했다. 처진 볼만 씰룩거리다 그냥 나가버렸다. 뭐라 말하겠는가. 철없는 어린 아이와 싸우기에는 소재가 비루하고 지저분했으니. 제 꼴만 우스워질 터였다.

"이것 참, 리벤티아. 그대는 그렇게 분위기 파악도 못 하고 함부로 떠들면 어떡하오?"

그냥 갈 것이지, 왕세자가 이마를 찌푸린 채 시비를 걸어왔다.

"제가 무엇을 말입니까?"

"하! 됐소. 말이 통해야 말이지."

휭하니 나가버리는 그를 굳이 잡는 체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는 말이 통했던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이 나간 문을 보고 있었다.

"리벤티아, 내일 라벤더 궁으로 들러줄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왕비 전하. 기쁜 마음으로 들르겠습니다."

오늘의 웃기지도 않는 촌극 속에서 왕비 전하만은 시종일관 아무 말씀 없으셨다. 한쪽에 조용히 비켜서 계시다 둘만 남았을 때 비로소 내게 말을 거셨다. 힘없이 웃어 보이시며 응접실을 나가시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못 볼 꼴을 보여드린 걸까.

왕비 전하를 생각하면 전생처럼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지. 전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몸을 사려 지내는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았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 국왕 부자와 페르도를 불편하게 만들고 끝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에서, 왕비 전하께서 언짢으신 점이 있다면 나중에 따로 갚아드릴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흐흐흐, 봤느냐? 그게 뭐가 좋다고 끝까지 쓰고 나가는 걸. 어지간히도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러게요. 이왕이면 오래 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념에 잠겨 있으려니 잉겐스 님께서 말을 거셨다.

"어디 보자, 지금 어슴푸레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들리는데... 국왕 놈이랑 같이 있구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 모양이다. 네 욕을 아무리 해도 분이 풀리겠느냐. 국왕 놈도 복장이 많이 뒤집혔겠지. 둘이 사이좋게 씩씩대고 있는 꼴이란.

그 와중에 국왕 놈이 왕관을 탐내는 듯하니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만은 자기 몫이라고 으름장을 놓는구나. 그걸 계속 쓰고 있겠단다, 푸하하."

잉겐스 님께서 배를 잡고 넘어가시는 걸 들으면서 릴리 궁으로 돌아왔다.

이 나라에는 마법사가 희귀하기에 왕궁에도 서너 명만 상주한다. 그마저 잉겐스 님의 마법을 인식하거나 깰 수준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정도라니. 앞으로가 기대된다.

다음 날 잉겐스 님이 전해주셨다. 굳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쑥덕거리는 소리가 궁 전체에서 여기저기 들려온다고.

"냄새가 말도 못 할 지경인 것은 차치하고, 페르도의 온몸에 똥독이 올랐단다. 특히 얼굴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부분 탈모까지 왔다니 그것참, 대단하구나."

그 정도로 영향이 컸나 싶어 내가 더 놀랐다.

"탈모는 아마 왕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심적인 고통이 엄청났겠지. 국왕 놈이 찾아왔다가 도망가버리고 페르도는 울고불고 난리구나."

국왕이 그녀에게 아예 궁까지 하사해 아네모네 궁에 지내고 있었다. 마침 그곳이 릴리 궁과 꽤 가까웠다. 그 덕분에 잉겐스 님이 말소리 잡는 데에도 수월해하셨다.

실시간으로 전해 들은 상황은 페르도의 급박함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수습할 수 없는 사고에 그녀는 소리만 질러댔다고 한다. 그러다 제 화를 제가 못 이겨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길 수차례 반복한 끝에 치료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을 시작했단다. 제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그렇게 생각했겠지.

처음에는 아네모네 궁의 시중인들을 의심했다나. 평소 제 사람들로만 채워놓았으면서도 그들을 믿지 못하고 아픈 몸으로 채찍까지 들었단다. 하지만 아무리 추궁하고 조사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페르도의 왕관을 집어 말했단다.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이니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말에 솔깃한 페르도는 궁정 마법사들을 다 부르게 했다.

그럼 뭐하나. 그들이 아무리 살펴봤자 우리 잉겐스 님 마법을 알아챌 리 만무했다.

그들은 알려지기로 레스토와 마레인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마법사였다. 그들이 밝혀내지 못한 것을 누가 더 의심하겠나. 페르도는 쓸데없이 제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고 맨 처음 왕관을 의심했던 자를 매질하게 했다.

원인도, 치료법도 찾을 수 없으니 그저 우짖기만 한참. 그러다 지금은 다 쉬어버린 목으로 끙끙 앓고만 있단다.

전생에서 국왕이 그녀의 뒤에 숨어 우리 눈을 속이는 동안 페르도는 무엇을 했던가. 그녀 또한 제 형부인 레푸스 공작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국왕을 도왔다. 그러니 이것이 심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 천재님이 아무리 힘이 떨어졌다고 해도 위대한 드래곤이 펼친 마법이다. 갈수록 마법의 맥이 끊어지고 있는 마당에 내 재주를 알아챌 자가 어디 있겠어."

여전히 속은 풀리지 않았어도 잉겐스 님이 뻐기는 듯 하시는 말씀에 조금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더는 듣지 않아도 되었다. 잉겐스 님도 더이상 그들의 이야기는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시며 가볍게 몸을 펴셨다.

루베르에서보다 궁에서 기운이 더 펄펄 나시는 듯한 잉겐스 님은 의기양양이셨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 위대한 능력자께 속으로 수긍하며 누우신 자리 끝을 툭툭 털어드렸다.

잉겐스 님의 자리는 푹신한 침실 의자 위에 내가 선물해드린 방석 위였다. 마음에 드셨는지 그 위에서 내려오실 줄 몰랐다.

투명화 마법을 쓰고 계실 때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의자 위에 방석이 하나만 놓여 있는 꼴이었다. 하여 청소할 때 시녀들이 실수할까 봐 미리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두었다. 나보다 어른들은 이곳을 찾지 않으시고, 아랫사람들은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내 침실 의자를 사용할 수 없으니 괜찮았다.

잉겐스 님의 목소리가 옆에서 계속 들리니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다. 전생에는 궁에 와서 쓸쓸했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느낌을 계속 가질 수 있으니 어찌 안 좋을까.

한 가지, 잉겐스 님 때문에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다. 릴리 궁의 식자재가 너무 빨리 동나버린 것이다. 침실에서 식사를 받겠다고 하고 나 혼자 방 안에서 먹는 것으로 해놓았다. 그러고 실제로는 잉겐스 님과 함께 먹었으니 그 양이 엄청났다.

끼니마다 인간의, 특히 여자의 식사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양의 음식이 매번 들어왔다. 그리고 깨끗이 비워진 채 나갔다. 다른 시녀들은 차마 묻지 못한 걸 아길리스가 놀란 얼굴로 헐레벌떡 달려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놀라며 묻는 이에게. 잉겐스 님의 뜻에 따라 사실을 밝힐 수 없는 나는 애매하게 웃어넘겼다. 회충 걱정을 하며 슬며시 약을 건네주는 아길리스에게 고맙다는 말만 겨우 했다.

내가 식비를 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여기에서 살 것도 아니니 평판 따위 신경 쓰지도 않는다. 다만 아길리스가 싱케루스에게 이걸 전한다면...

그는 내가 잘 먹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혹시 아길리스와 같은 생각을 하진 않을 테지. 조금 불안했지만, 그가 별다른 말이 없는 걸 보아 안심했다.

릴리 궁의 늘어난 식비에 대해 다른 걱정은 없다. 궁내청이나 다른 곳에서 떠들어봤자 지금은 나를 이곳에 붙잡아두려고 혈안이 된 국왕이다. 이런 일로 입을 떼봤자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도 잘 알 거다. 그러니 절대 아무 말 못 한다는 데에, 왕세자의 손가락을 걸겠다.

라벤더 궁에 도착해 왕비께서 가꾸신 정원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저녁 석양이 지는 배경으로 서 있는 궁은 돌아오기 전보다 더 고즈넉한 느낌이었다.

전생의 마지막 날 나를 구해주러 왔던 시녀장도 만났다. 피델라 마이어스라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몇 번 스쳐봤던 이일뿐인데 이렇게 보니 오랜 지인을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물론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그녀의 안내를 받아 왕비 전하의 응접실로 들어섰다.

아!

방에 들어섰을 때 소파에 앉아계신 전하를 보고 걸음을 멈춰버렸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면 이런 느낌일까.

천천히 왕비께 다가갔을 때, 저도 모르게 한쪽 무릎을 굽혀 전하의 앞에 꿇어앉았다. 그러고 나서 기사들이 하듯 예를 다해 왕비님의 손등에 입 맞췄다.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는 동안 전하는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받아주셨다. 고개를 들자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고 계셨다.

고맙습니다, 전하. 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하께 빙그레 웃어 보였다. 몸을 일으켜 예를 갖춰 다시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자 비로소 말문을 여셨다.

"나에게 과례는 필요 없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닙니다. 전하의 소문을 듣고 평소 흠모해 왔던지라 저도 모르게 그만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실례는 아니었네. 다만 레이디들은 잘 하지 않는 인사라 그대에게 다른 사정이 있나 했다네."

당황하셨을 텐데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는 왕비님은 예전과 똑같으셨다. 어제 국왕 부자와 페르도를 대면하면서 새삼 치밀어올랐던 분노를 밤새 다스리느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 오늘 왕비 전하를 따로 뵈니 그 마음이 치유받는 기분이었다.

"전하, 어제 저에게 들르라, 따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연유에서입니까?"

"이렇게 다시 보니 그대는 내가 걱정해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는 왜 그랬던 건가?"

"페르도 부인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그녀는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 사람인데... 그대가 무모했던 것 같아서 염려되네."

국왕이 더 무섭고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왕비께서는 아실까.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셨을 때는 그것을 깨달으셨기에 그랬던 걸까.

되돌아가 여쭤볼 수 없는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생각해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왕비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전생처럼 페르도의 심사가 나쁜 것이나 그녀에 대해 조심할 것 등을 당부하셨다.

전하와의 대화를 끝내고 릴리 궁으로 돌아오는 길, 복수의 길에서 왕비께서 받으실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왕비는 그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야. 네가 그녀의 앞날을 모두 안배해놓을 수는 없다."

"잉겐스 님이 갇혀계시던 돌은 왜 저희 부녀에게만 예쁜 빛깔로 보였을까요?"

"그야 내가 너희들을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너희를 선택한 이상 다른 자들에게 예쁘게 보여서 뭣하겠느냐."

"왕비님은 돌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죠?"

"그도 그만큼 순수한 사람이란 뜻이지. 내가 일부러 끌어당기지도 않았는데 느낄 정도였다면..."

잉겐스 님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있었다. 우리가 왕실을 무너뜨리면 왕비께서도 필연적으로 휘말리실 테니 마음이 안 좋으신 거다.

"이번에도 브래드란 놈이 교사로 오는 거냐? 나는 그놈이 너랑 수업할 때마다 잠들어 있는 바람에 모르지만 네 말만 들어도 아주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오히려 대하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결국 쉽게 포기하고 제 옆에서 떠났으니까요."

"네게 들은 말로 봤을 때 그놈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지.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구나 "

"네. 전생에선 얼떨결에 대응한 것이 컸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상대해야 할 텐데 잘 해내야죠."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밤 싱케루스가 왔다. 내가 침실에 있을 때라 창문의 불을 보고 그쪽으로 찾아왔다. 그래 놓고 침대를 보더니 혼자 무슨 상상을 했는지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는 모르지만, 잉겐스 님이 침실에 투명화 마법을 거신 채 함께 계셨다. 속으로 잉겐스 님이 혀를 차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를 응접실로 이끌었다.

가만히 손을 잡힌 채 따라오더니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를 품에 안았다. 며칠 못 보긴 했지. 나도 그가 많이 보고 싶었기에 한참을 둘이 가만히 끌어안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어버려서 옆방에서 잉겐스 님이 한소리 하셨을 때야 비로소 겨우 떨어질 수 있었다.

"곤란해, 곤란해. 내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이게 무슨 짓인지..."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없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없고 잉겐스 님을 먼 곳에 모셔다 놓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바람에 잉겐스 님을 잠시 잊었다.

"리벤티아, 보고 싶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그래요. 나도 싱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싱이 눈을 크게 떴다. 많이 놀랐나 보다.

"당신이 내게 말을 높이는데 나만 하대해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 저도 당신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요. 이왕이면 애칭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더 편하게 해도 되고요."

"저는 지금처럼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 애칭이요?"

애칭이란 말에 너무 좋아한다. 진작 말을 꺼낼 걸 그랬나 보다.

"아버지는 저를 '티아'라고 부르세요. 싱도 그렇게 불러도 되고 아니면 맘에 드는 대로 불러줘요."

"그럼 저는 '리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주님과는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좋아요! 싱이 불러준다면 어떤 이름이든 마음에 들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 애칭을 생각해 낸 싱이 귀여워서 웃으며 그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으려니 심장이 마구 뛰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내 심장에서 나는 거 아니겠지?

그를 올려다보자 그가 이마에 입 맞추려 하는 걸 잉겐스 님을 생각해서 얼른 막았다. 아쉬워하는 그를 다시 끌어안고 물었다.

"루베르는 어때요? 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리리, 흠흠, 당신이 떠난 후 영주님께서 크게 실망하신 눈치였지만 곧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따님을 험지에 보내 놓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무사히 데려오려면 쉴 틈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외부에 파견되어 있던 기사들도 비밀리에 다 불러 모으고 계신 중이랍니다."

"아버지를 잘 지켜봐 주세요. 싱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그들에게 당하지 않으셔야 해요. 당신도 무사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목소리로 말하고서 이윽고 응접실 문 옆에 세워두었던 그림 두 점을 가리켰다.

"당신의 말씀대로 모이카라는 화가가 예약한 전시회장을 찾아 실제로 걸린 그림을 확인했습니다. 그림을 바꿔 걸고 원본은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염려한 것과 달리 경비는 그리 삼엄하지 않아서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제 일인 것을요.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아쉬움을 대신하는 듯 머리에 올려둔 손을 떼지 않았다. 그게 꽤 기분이 좋았기에 나도 그의 손길에 가만히 머리를 대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손가락을 우리 둘 다 모른 체했다.

"신기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는 걸 당신이 알고 계신 것이나... 그림 내용도 어떻게 아셨는지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이제 알음알음 소문이 퍼지고 있는 시기라 저희 아스트룸에서도 입수한 지 얼마 안 된 정보였는데 당신에게는 따로 비밀 조직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그려 주신 그림이 그녀의 그림과 똑같은 것이라 너무 놀라웠습니다."

"영업 비밀이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많이 미안해하자 그가 특유의 씩 웃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내 볼을 가볍게 꼬집었다.

"당신의 뜻이 그러시다면... 비밀이 있는 당신마저 사랑스럽습니다. 괜찮으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전생에서 당신이 알려줬다거나 내게 잉겐스 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를 계속 속이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다. 전생의 이야기는 기회를 봐서 들려주고 싶지만 잉겐스 님에 관한 건 빼놓아야 한다.

싱이 몇 번이나 모이카의 전시회장을 살피러 다니는 동안 잉겐스 님이 당신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어 싱을 따라갔다는 말도, 거기에서 모이카의 그림을 보고 와서 내 그림에 똑같이 환상 마법을 거셨다는 것도 비밀이다.

그리고 잉겐스 님이 드디어 당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투명화 마법을 걸 수 있게 되셨다. 동시에 소리 차단 마법까지 해내는 데 성공하셨다. 그래서 전시회 당일 나도 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세한 사정은 밝힐 수 없어요. 대신 전시회 날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요."

"더 궁금하군요. 그럼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싱케루스와 헤어지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쉬웠다. 그도 같은 마음이라는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만들 좀 해라! 원, 늙은 홀아비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애인 없는 드래곤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렇지만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걸. 지금 가면 내일 올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데. 아주 오랫동안 가슴을 맞닿은 채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꼈다. 아쉬움에 쉽게 떨어지지 못했다.

몸이 떨어진 후에도 서운한 얼굴로 웃고 있는 걸 보니 그냥 보내지 말고 여장을 시켜서라도 궁에 남겨둬야 할까 싶었다. 안 되면 잉겐스 님께 투명화 마법 전개 좀 부탁드리고.

생각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잉겐스 님이 당신의 존재를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 싱케루스에게도 못 할 짓이고.

그를 어렵게 떠나보내고 난 뒤 잉겐스 님에게 잔소리를 잔뜩 들어야 했다. 아길리스가 함께 오긴 했지만 그 옆에서 종일 붙어 계실 수 없으니 심통이 나셨던 것 같다.

"그럼 몸을 숨기고 아길리스 옆에 가 계시면 되잖아요."

"안 돼. 그건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어른이 아이인 척하시는 것도 그다지..."

"뭐라고?"

"아뇨. 그런데 제 침실에서 저랑 같이 계시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게 어때서?"

"저는 결국 성인 남자와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이거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난 또 뭐라고. 어쨌든 지금은 도마뱀이지 않으냐."

뭔가 뻔뻔한 논리인 것 같은데 잉겐스 님의 말씀이니 감히 반박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싱이 알면 싫어할 것 같은데..."

"흥!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아야지. 아니라면 헤어져야 하는 거야. 그렇게 속 좁은 남자랑 사귀는 거 아니다."

뭔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설마 잉겐스 님이 내 연애를 훼방 놓으려 이러시는 건 아닐 거다.

"그것 때문에 싱의 마음이 변하면 어떡해요?"

"아 참, 걱정도 많다. 그놈이 너를 업고 달릴 때부터 내 다 알고 있었느니라. 걘 절대 못 그래. 그때도 네가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놈이 지금은 더욱이 너랑 사귀는 데 성공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쉽게 변할 마음이 아니야. "

"싱은 괜찮더라도 만약, 혹시, 설마, 잉겐스 님과 아길리스의 관계에 진전이 있어서 사귀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아길리스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무슨 기분 나쁜 수식어가 그렇게 많이 붙는 것이냐. 음... 네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하다. 아길리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니. 알겠다. 내 자리를 응접실이나 드레스 룸으로 옮겨 놓거라."

싱 걱정을 할 때는 괜찮다고 하시더니 아길리스 이야기에는 안 그런 척하시면서 허둥지둥 자리를 바꿔 달라고 하셨다.

얄밉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잉겐스 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 해주셨던 게 생각났다.

아길리스에게 당신의 존재를 밝히셨다가 그녀가 실망할 게 너무 두렵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마음을 그녀에게 들켰을 때 그녀가 거절할까 봐 겁이 나기도 하신다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다. 나도 내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 없어 급하게 고백하고 말았지만, 만약 싱케루스가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그를 편하게 보지 못했을 것 같다. 불편하기만 했겠나. 아예 못 봤을 수도 있겠지.

아길리스에게 슬쩍 운을 띄워볼까 했지만 잉겐스 님께서 거절하셨다. 타인의 연애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도 옳지 않기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잉겐스 님께 나까지 심통을 부릴 수는 없었다. 시중인을 부르지 않고 손수 의자를 응접실로 옮겼다. 꽤 무거웠지만 열심히 나르는 나에게 잉겐스 님께서 칭찬해주셨다.

칭찬에 신이 나서 간식까지 넉넉하게 챙겨다 드렸다. 맛있는 간식을 잔뜩 드시고 부른 배를 두드리시며 소리 차단 마법을 실행하신 채 태평가를 부르시는 도마뱀 잉겐스 님은 걱정, 고민이 없어 보이셨다.

그렇다고 그 마음이 편하시기만 할까. 잉겐스 님이 성인인 모습이라도 안다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홍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다.

당신이 엄청난 미남이라고 하셨으니 분명 반할 만한 모습일 텐데. 어린아이인 지금 외모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잉겐스 님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으시니 성인으로 변하시면 인기가 폭발하지 않을까.

이미 루베르에서는 어린 잉겐스 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시중인들이 모두 시무룩해 있다고 한다. 내가 수도로 오면서 잉겐스 님도 댁으로 떠나오신 것으로 했는데 다들 인사도 없이 가셨다고 실망한 눈치란다. 그 말을 전한 싱케루스도 잉겐스 님의 안부를 물어왔다.

아길리스는 아길리스대로 궁에서 잉겐스 님을 뵐 수 없다고 투덜대고. 그걸 듣고 잉겐스 님은 몹시 기뻐하셨지만 끝내 용기를 내진 못하셨다.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은 전하지 못하시는 잉겐스 님. 이렇게 여린 분이 그동안 홀로 어둡고 좁은 곳에 갇혀 계셨다니. 짠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시는 잉겐스 님께 박자를 맞추어 의자를 두드려 드렸다.

감히 박치 주제에 당신의 노래를 방해한다고 한껏 구박을 받았지만. 이것도 잉겐스 님과 좋은 추억 아니겠나. 답답한 왕궁에서 복수를 생각하느라 날카로워진 마음이 조금은 쉴 수 있는 밤이었다.

'쟤는 또 저러고 있구나.'

헤드젤이 못 말린다는 눈으로 친우를 향해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사비아나의 부탁을 받고 잉겐스의 레어에 들렀지만 그는 오늘도 연습에 빠져 누가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드래곤이라는 종족은 수명도 길고 지혜로운 만큼 이미 세상의 진리에 대해 통달한 이들이었다.

해츨링이 어른들보다 아직 그런 면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웬만한 마법은 쉽게 배웠다. 어떤 것은 본능적으로 펼치는 것도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자라면서 자연스레 다 익히게 될 것이니 굳이 쟤처럼 저렇게 마법 연습을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다.

그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차원 이동 마법을 연습한다더니 이틀째 식사도 거르고 레어에만 머물러 있었다.

"야."

전에 잘못 불렀다 그의 실험을 한 번 망쳤었다. 그때 며칠 삐져서 말도 안 하는 바람에 사비아나의 눈총을 잔뜩 받았었다. 그게 생각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소심하게, 아주 살짝 소리 내어 불렀다.

순간, 좀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던 잉겐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헉. 내가 불러서 얘가 어디 잘못된 데로 빠진 건가!

서둘러 어른들을 불러오려던 찰나 다시 그가 나타났다.

"흐흐흐, 성공이다."

누구는 저를 걱정하느라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는 홀로 실없이 웃으며 좋아하고 있다. 약이 슬 오르려는 걸 참고 다시 불렀다.

"야!"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조절이 잘 안 됐나 보다. 야야야야야아. 거대한 동굴에 울림이 퍼져나갔다.

"엄마야!"

머쓱해져 있으려니 잉겐스가 많이 놀랐는지 눈이 왕방울만 해져선 소리쳤다.

"뭐하냐?"

헤드젤이 묻는 말에도 다리를 푸들거리고 있던 그가 휙 고개를 돌려 도끼눈을 했다.

"넌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놀랐잖아!"

"아까부터 계속 불렀거든? 네가 없어졌다 나타난 것도 다 봤다. 대답을 안 한 건 저면서!"

"그렇냐? 미안하다, 흐흐흐. 그렇담 너, 내가 성공한 걸 봤다는 거네? 이야, 어디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증인이 알아서 대령해 있었다니. 오늘은 운수 대박이다!"

자꾸 혼잣말하는 걸 보니 내내 혼자 공부만 하다 저런 습관이 든 것 같았다. 인간들의 말마따나 점점 '방구석 '폐인'이 되어 가는 걸까.

친구가 좀 제 잘난 맛에 살고 이렇게 한 군데 빠지면 정신 못 차릴 만큼 깊이 빠져 옆 드래곤들 걱정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애는 좋은 앤데.

저 봐라. 방금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서는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나.

블랙 드래곤 멘도사 놈은 절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 맨날 잘못한 게 걸리면 '실수였다'라거나 '장난이었는데 그런 거로 쪼잔하게 화를 내냐?' 또는 '네가 오해한 거야.' 따위의 말이나 내뱉었다.

그런 놈에 비하면 잉겐스는 훨씬 착한 애다. 전에 헤드젤이 멘도사와 싸울 때 편을 들어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쟤가 자주 혼자 박혀 있어서 그렇지 막상 다른 이들과 만나면 저보다 어린 해츨링들과 잘 놀아줬음 놀아줬지 절대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법이 없다.

참고로 헤드젤은 잉겐스보다 약하다. 슬프지만 사비아나보다도 약하다. 더 슬픈 건 그가 해츨링 중 제일 약하다는 것이었다.

문득 현실 자각 시간을 가져버린 어린 용이 다시 잉겐스에게 물었다.

"차원 이동 연습한다더니 결국 해낸 거냐?"

"응! 옆 차원까지 다녀왔다. 좌표 구성 저장까지 다 완벽하게 성공했지."

기쁨에 겨운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어휴, 사비아나가 자꾸만 잉겐스 얼굴을 외치니까 나도 저 얼굴에 반하겠네. 그럼 안 되지.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헤드젤이 물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지? 사비아나가 너한테 가보라고 얼마나 성화를 부리는지 귀찮아서 혼났다."

"사비아나가? 걔가 왜?"

껌뻑껌뻑 눈만 깜빡이는 게 이럴 땐 되게 꺼벙해 보이는구나. 그런데도 참 귀엽... 아니지, 내가 왜 얘한테 넘어가고 있는 거야. 헤드젤이 양 뺨을 찰싹 때리고 있자니 앞에서 잉겐스가 저를 애처롭게 보고 있었다.

나는 네가 더 애처롭구나, 잉겐스야.

사비아나가 근 300년간 저를 바라보며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 모자란 놈은 모른다. 웃긴 건 이 놈이 연애하고 싶다고 툭하면 외고 있다는 거다.

제가 대신 말해줄까 했더니 사비아나가 하도 부끄럽다고 등을 때려대서 그냥 관뒀다. 그래 놓고 또 언젠가는 잉겐스에게 말했냐고 묻기에 아니랬더니 저를 째려보는 것 아닌가.

여자의 마음은 절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 헤드젤이었다.

서로를 애잔한 눈으로 바라보던 것도 잠시, 잉겐스의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쨌든 못 먹은 건 맞다. 배고픈데 사비아나한테 가볼까?"

그들이 갈 때마다, 저희 엄마가 구해와서 보존 마법을 걸어놓은 각종 명품 먹거리들을 늘어놓는 사비아나 덕분에 잉겐스는 늘 배부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잉겐스를 낳은 화이트 드래곤은 종족을 떠나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후 돌아오지 않았다. 출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낳다 보니 잉겐스도 키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갓난 걸 로드에게 맡겼다고 한다.

헤드젤도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 잉겐스에게는 내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녀석이 차원 이동 마법에 빠진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저 그의 어깨에 팔을 걸쳤다.

"인간들은 참 편하네. 이렇게 어깨동무란 것도 할 수 있고."

종족들 중 유난히 인간에 대해 관심이 많은 드래곤이 그와 잉겐스였다. 같은 관심사가 둘을 더 친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다.

"그러게. 다음엔 인간을 위한 마법을 연구해볼까."

"그건 해서 뭐 하려고. 너 또 틀어박혀서 마법만 파다간 몇천 년이 지나도 연애 한 번 못 해볼지 모른다."

"친구란 놈이 악담하는구나. 두고 봐. 나는 아주 멋있고 건강한 여자와 뜨거운 연애를 하고 말 테니까."

사비아나 앞에서 저런 소리 잘못하면 큰일이다. 아니면 걔는 자기가 그 여자가 될 거라고 상상할 테니 괜찮을까.

여자의 마음도, 연애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구나. 순간이동으로 골드 드래곤 레어 앞에 도착했을 때 레드 드래곤인 헤드젤이 떠올린 생각이었다.

"잉겐스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대!"

헤드젤을 붙잡고 오열을 터뜨린 사비아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종족 회의에서 결정 난 것을 잉겐스만 고집을 부려 따르지 않겠다니 그렇지 않아도 로드께서 머리를 싸매고 계셨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걔가 그렇게 인간들에게 빠질 줄은 나도 몰랐어."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며 달래던 헤드젤을 사비아나가 꼬집었다.

"네가 이상한 책이나 갖다 주고 자꾸 인간에 대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건 아닌데. 걔는 원래부터 저처럼 인간을 좋아했다. 지금은 누구보다 더 많이 좋아하고 있다뿐이지. 한 번도 사비아나의 말에 토를 달아본 적 없던 헤드젤이었기에 이번에도 속으로만 생각했다.

"걔가 하도 연애 지침서를 구해달라고 조르니 그랬지. 우리는 연애 같은 데 관심 없는 종족이라 전문 서적 같은 것도 없는데 인간들은 그런 게 넘치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갖다 줬더니 너도 좋아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 녀석이 인간 문물을 너무 많이 접하는 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어."

"그게 우리가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녀석의 선택이 그렇다면 나는 그를 지지하고 싶다. 드래곤은 어느 누구보다 완전한 개체야. 그의 생각은 그대로 옳은 것일 수도 있어."

"너는, 아니다. 나도 그래야겠지? 친구의 뜻이 그렇다면."

어려운 결정을 한 잉겐스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헤드젤은 바로 앞에 있는 사비아나도 마음 쓰였다.

"그보다 나는 너도 그녀석을 따라 남을 줄로만 알았다."

"어휴, 너나 잉겐스나 참 눈치 없는 게... 친구끼리 닮는다더니 둘 다 똑같이 머저리다."

그러는 너도 우리랑 친구잖아. 그러나 이번에도 헤드젤은 슬기롭게 속내를 뱉지 않고 삼켰다.

어른스럽게 사비아나를 달래고 울음을 그치게 만든 후 헤드젤이 제안했다.

"너 요즘 새로운 술을 발견했다며? 기분 풀리게 그거라도 마실까?"

잉겐스가 마법에 빠져 지내다 인간에게로 관심을 돌렸다면, 사비아나는 술을 달고 살았다. 대개 별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종족 특성상 둘은 별난 드래곤이었다.

내 친구들은 왜 다 특이한 애들만 있는 걸까. 원래 특이한 애 옆에 특이한 애가 있다는 걸 모르고 헤드젤이 한탄했다.

그렇게 둘이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나누기를 한참.

문뜩 헤드젤이 정신을 차렸다.

"내 레어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잠들어 버렸네."

그러고 일어나 앉는데 스르륵 이불이 흘러내렸다.

응? 웬 이불? 사비아나는 잉겐스가 인간 문물을 많이 접했다고 뭐라 하더니 저도 이런 걸 갖고 있구나. 그래도 친구라고 이런 것도 덮어줬네.

어차피 드래곤은 체온 유지 마법을 상시 발동 가능하니 이런 건 필요 없지만. 그녀의 마음이 고마웠다. 일어나 옷을 입으려는데.

옷? 왜 새삼 옷을 입어야 하지?

이상한 느낌에 아래를 내려다봤다. 이런! 헤드젤은 자신의 알몸을 보고 얼음이 되어버렸다. 그제야 퍼뜩 스치는 생각에 조금씩 삐걱거리는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보고야 말았다.

사비아나의 하얀 어깨와 가... 아무튼 맨몸의 상체가 드러나 있는 것을.

"으억! 이게 뭐야?!"

그때 부스스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난 사비아나가 그를 올려다봤다. 그러더니 헤드젤의 손을 잡아채 끌어당겼다.

"어어?"

정말 어어,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사비아나의 품으로 엎어졌다. 이 무슨 달콤한 향기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사비아나가 그를 꼭 안았다.

"정신이 들어? 그럼 아까 하던 것 마저 하자."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상상해야 할까요.

어벙한 상태로 어정쩡하게 굳어 있던 헤드젤에게 사비아나가 딱 잘라 말했다.

"참고로 미리 말해두는데 이건 너도 합의한 거야. 절대 나 혼자 너를 덮친 게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딴말하기 없기다."

덮치다니,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헤드젤의 생각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사비아나가 그의 입술을 깨물어왔기 때문이다.

"넌 잉겐스를 좋아했잖아."

잠시 난 틈을 이용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그건 어릴 적 풋사랑이었고. 너를 좋아하게 된 지 오래됐지만 네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 말도 못 했잖아.

그리고 남의 과거사는 함부로 까발리는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나 좋아했으면서."

그렇긴 하다. 사비아나의 마음을 내도록 듣다 보니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예뻐 보여 어느 날 보니 제가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

더 작게 속삭이는 말을 용케도 알아듣고 그녀가 상큼하게 웃었다.

"몇천 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내가 오죽하면 너를 먼저 유혹... 언제까지 말만 할 거야?"

헤드젤이 용기를 냈다. 그래, 사비아나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정말 머저리다.

그리고 술이 깬 두 드래곤은 그야말로 진정한 열락의 밤을 맛볼 수 있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헤드젤의 말에 사비아나가 동의했다.

"잉겐스가 인간들을 위해 힘을 쓰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녀석이 큰일 나겠다."

"어떡하지? 로드께서는 그런 녀석 어떻게 되든 말든 내버려 두라고 하시니."

"로드도 진심은 아니신 것 같아. 그분의 레어를 찾을 때마다 잉겐스가 지내는 모습을 살피시는 것 같더라고.

그분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셨겠지."

"그러게 같이 오잘 때 좀 따라오지. 걔는 고집만 세서. 로드가 제약을 걸어놓으신 걸 알면서 도대체 왜 무리를 하려는 건지, 내가 미치겠다."

사비아나의 답답한 마음을 왜 모르겠나. 헤드젤의 마음도 그와 같았다.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친구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차원을 옮긴 후 기존 차원에 드래곤이라고는 오직 잉겐스 하나만 남았다. 그곳이 마나가 옅어지면서 드래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해버렸다.

로드의 말씀으로는 종족이 이동해 온 후 거기는 더 이상 드래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단다. 잉겐스도 한계에 부닥쳤을 텐데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지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다.

어쩌면 녀석은 이곳으로 오는 힘마저 남겨놓지 않고 다 써버린 게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 드래곤은 더 최선을 다해 잉겐스가 있는 차원으로 신경을 집중했다.

로드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잉겐스는 이미 종족의 뜻을 어긴 후 퇴출당한 상태였다. 이곳에 도착한 드래곤들 중에서는 그런 녀석에게 분노하여 로드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도록 약속까지 받아냈다.

로드가 은퇴하실 때가 다 되어 녀석을 돕기에는 힘에 부치실 수도 있었다. 다음 대 로드로 내정된 헤드젤이 오히려 현 로드의 실력보다 뛰어날지도 몰랐다.

그러니 지금 그를 도와줄 이들은 그들 둘뿐이다. 그쪽 차원의 마나가 부족한 것을 이쪽에서 온 힘을 쥐어짜 모으는 것으로 대체했다.

마침 잉겐스의 기운이 느껴졌다. 저대로 계속 힘을 쓰다가는 그의 몸체가 다 바스러질 터였다.

공동 안에 번개가 치듯 번쩍 빛이 나다 사라졌다.

"된 거야?"

사비아나가 조마조마한 투로 물었다.

"완전히 돕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녀석이 사라지는 건 막을 수 있었어."

"휴, 잘했어. 헤드젤."

곱게 눈웃음을 짓는 사브리나에게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녀석은 봉인된 채로 남은 것 같다. 다행히 그리 강한 봉인은 아닐 거야.

녀석을 구하는 데에만도 너무 많은 힘을 썼어. 더 단단한 결계였다면 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반대로 약한 만큼 깨고 나오기도 더 쉽겠지.

그리고... 녀석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드래곤 형상을 더는 유지하지 못할 거야. 큰 몸체를 계속 버티기에 그곳은 너무 위험해. 어차피 인간을 좋아했으니 차라리 인간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도 녀석에게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겠지.

수명도 그리 길지는 않을 거야. 우리들 드래곤 수명만큼 다 사는 건 이제 안 되겠지. 그래도 인간들이 오래 사는 정도로는 충분히 살 수 있을 테니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을지도."

"그건... 잉겐스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만큼이라도 해낸 게 어디겠어. 헤드젤, 너 정말 대단했어."

그나마 녀석을 살렸으니 기뻐해야겠지. 흐흐흐. 친구가 자주 소리 내던 것처럼 웃으려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왔다.

걔는 지금의 로드가 자신에게 힘을 쓴 거라 믿을까. 그가 알던 과거의 헤드젤이라면 이런 마법은 무리였으니까. 사브리나가 많은 힘을 보탰지만 주력은 헤드젤의 것이었다.

큰 힘을 쓴 부작용으로 졸음이 밀려왔다. 사브리나는 이미 그의 곁에서 잠에 빠진 후였다.

제 아내의 몸체에 더욱 바짝 몸을 붙이고 헤드젤도 잠이 들었다.

몇백 년 후쯤 일어나고 나면 그때에는 잉겐스가 사라지고 없을까. 그들이 다시 깨어났을 때 잠시라도 녀석을 볼 수 있도록 잉겐스도 좀 더 오래 봉인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녀석이 외롭다 발버둥 치고 있을 장면을 상상하며 헤드젤이 살짝 미소 지었다. 보고 싶었다. 그를 두고 올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방울을 떨구며 레드 드래곤이 잠시간의 안식에 빠져들었다.

아마, 나중에 깨어난 잉겐스가 어떤 오해를 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가 욕하는 로드가 자신이 될 것을 알았다면 헤드젤이 그렇게 편하게 잠들 수는 없었을 테지만.

우연의 일치일까. 잉겐스가 돌에서 나오는 때에 헤드젤도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휴식을 취한 대가인지, 마지막까지 능력의 최대한을 끌어내 쓴 영향인지 알 수는 없었다.

이전보다 일취월장한 능력에 그 자신도 깜짝 놀라는 한편. 이제 잉겐스를 잠깐은 보러 갈 수도, 도와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하필이면 녀석의 목소리를 들어버렸다.

섭섭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서로 오해가 생기기에 충분히 멀었고, 오래 지났다. 그렇지만 심술이 돋기는 했다. 여자에 정신이 팔린 건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잉겐스 그 녀석은 친구들 이름 한 번 부르지 않았다.

조금은 더 녀석이 고생하도록 두는 것도 괜찮아 보였다. 제 덕에 독거노인이 될 위험을 피한 것도 어디인가. 사비아나도 네 맘대로 하라고 말해주었다. 약간 혀 차는 소리가 들린 듯했지만 아마 오해일 것이다.

잉겐스는 모르는 친구의 사정이었다.

아버지께 교제 허락을 받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것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것이었다.

복수를 끝내고서도 성인이 되지 못했다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생일도 지났겠다, 정식으로 허락도 받았겠다, 기념으로 싱케루스를 내 방으로 잡아끌었다.

그를 깔고 엎드려 버렸다. 자리에 누워버린 그의 몸에 올라탄 자세로 그와 입맞춤을 계속했다.

싱과 입 맞추면서 목덜미를 어루만지다 그의 살갗에 더 닿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다. 급한 마음에 그의 셔츠 자락을 바지에서 빼내어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의 배에 손이 닿는 순간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랐는지 힘이 주어지며 배가 쑥 들어가 버렸다.

"아...!"

자신도 모르게 흘린 신음인지 소리를 내놓고 그가 화들짝 놀라는 게 느껴졌다. 이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윗몸을 일으켜 그를 내려다보았다.

흐트러진 셔츠를 입은 채 열꽃이 오른 얼굴로 누워있는 싱은... 이렇게 풀어진 모습은 처음이라 말문이 막혔다.

"싱...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싱의 몸이나 탐하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을 흐리는 내게 싱은 조금 탁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리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제 몸도 마음도. 만지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몸을 일으켰다. 다가오는 얼굴에 다시 입을 맞추려는 줄 알고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자 그가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웃는 얼굴을 했다. 순수해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위험해 보이는 미소였다.

내심 기대하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기다려도 닿는 느낌이 없었다. 그가 내게서 떨어지는 기척과 사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사락?

"당신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주님의 허락을 받고 진정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하고 싶었던 결혼, 더 빨리 얼른 하고 싶다. 아버지께 어떻게든 졸라봐야겠다.

"자, 허리를 좀 더 꼿꼿하게 세우시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

"옳지!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타고나셨는데요? 훌륭합니다!"

어째 저자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전생이랑 똑같이 말한다.

역시 막심 브래드 남작이 내 교사라며 찾아왔다. 왕실 승마술을 배워야 한다며 다짜고짜 나를 승마장으로 데려온 것도 같았다.

"쟤는 듣던 것보다 더 기름지구나. 그나저나 저놈의 목적이 그런 것이었다니 어이가 없구나."

"그러게요. 저를 유혹해서 뒷소문을 만들어내려 했다니. 저희를 처단한 후 나올지도 모를 동정론을 사전에 차단하려 그런 방법까지 썼다는 게 소름 끼쳐요."

지난밤 잉겐스 님은 나에게 잔소리하시다 말고 잠시 멈칫하셨다. 아네모네 궁에서 작당을 꾸미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나와 수업하기 전 브래드가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하기 위해 페르도를 방문했단다. 어떻게든 내 입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들은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다.

전생에서 내내 브래드가 하던 짓이 유혹의 몸짓이었다니.

"저렇게 머리를 쓸어 넘기다가 대머리나 되어 버려라. 아예 그런 마법도 연습해볼까?"

"나날이 하실 수 있는 가짓수가 늘어나니 마음먹으신 대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는 점점 아부만 느는 것 같구나."

"흐흐흐. 잉겐스 님 옆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귀족 영애가 '흐흐흐'가 뭐냐? 도대체 그런 건 어디에서 배웠느냐?"

"잉겐스 님이 자주 그렇게 웃으시기에 좋아 보여서 저도 해봤는데 별로인가요?"

"애들 앞에서는 찬 물도 못 마신다더니, 후... 됐다. 저놈이 너 만지려고 한다. 조심해라."

아차. 잘못하면 저 싫은 손에 닿을 뻔했다.

"걔들은 언제 온다더냐?"

"곧 도착할 거예요."

전생에서 다과회를 열었을 때 왔던 이들 중 리타 파밀리아 백작 영애와 에첸 트로 후작 영애, 인디페 렌스라 후작 영애를 오늘 릴리 궁으로 초대했다.

애초에 참석할 영애를 고르신 게 왕비 전하였다고 한다. 그분이 골라주신 영애들이었으니 다 괜찮을 거다. 뒤늦게 페르도의 입김으로 들어왔을 게 뻔한 칼리스 노벨만 빼놓는다면.

그때 만나서 특히 눈여겨본 셋이 오늘 벌어질 일의 증인으로 가장 적당해 보였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에첸 영애는 사교계에서 발이 넓었다. 그녀의 부친은 국왕과 가깝게 지내지만 에첸은 부친의 뜻만 따르는 영애가 아니다. 오히려 그녀를 아끼는 트로 후작이 늘 영애에게 지고 들어간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인디페 영애는 그날 대화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듯 평소에도 귀족 사회에서 점잖고 믿을 만한 레이디로 손꼽힌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렌스라 후작은 중립 파의 거두인 만큼 특별한 반대 세력 없이 그의 의견이 꽤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편이었다.

리타는 나와 많이 친해질 만큼 잘 맞았다. 더구나 부친인 파밀리아 백작은 국방 담당 고위 관료로서 궁내에서나 귀족 사회에서 입지가 탄탄한 인물이었다. 대표적인 국왕 파로 꼽혀서 몰랐는데 루베르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국왕에 대한 불만을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런 세 사람이니만큼 그들의 증언은 꽤 신빙성 있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들의 부친이 국왕의 명을 받고 방해를 할 우려도 적으니 안성맞춤이었다.

브래드와의 첫 수업 날짜가 잡힌 후 세 영애에게 정중히 초대장을 보냈다. 다과회에 앞서 따로 만나보고 싶다고 이유를 붙여서였다.

그리고 브래드와 승마장으로 오기 직전 미리 엔리케에게 말해두었다. 그녀들이 도착하면 양해를 구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모셔오라고 말이다.

아까부터 나와 닿기 위해 시도하는 브래드를 피해 이리저리 말을 몰고 있었다. 자꾸 피하는 나 때문에 조급증이 일었는지 브래드의 몸짓은 이제 누가 봐도 나를 추행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태도였다.

"왔다!"

브래드나 나나 닿으려 하고 피하려 하는 몸짓 속에서 그에 집중하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승마장 테두리 바깥에 엔리케가 세 영애와 그녀들의 시녀들을 데리고 와 있었다.

잉겐스 님이 말씀해주시지 않았다면 놓칠 뻔했다.

이번에는 브래드가 나를 쓰다듬어도 가만있었다. 곁눈질로 그를 보니 오호라, 하는 표정이었다. 말채찍으로 내 몸의 은밀한 부위를 쿡쿡 찔러보더니 내가 가만히 있자 드러내 놓고 팔을 뻗었다.

그가 오른손을 뻗어 내 엉덩이를 만지려는 순간 나도 오른손으로 내 왼쪽에 자리한 그를 채찍으로 세게 쳐버렸다.

"아야!"

전생과 달리 그의 얼굴을 내려쳤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한 힘으로 힘껏.

그가 얼굴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다 잘못해서 낙마해버렸다.

"악!"

사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머뭇거리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낙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 브래드 경, 괜찮소?"

나도 놀랐다는 듯 얼른 말에서 내렸다. 그를 살피려 다가가자 얼굴을 붙잡고 끙끙 앓는 와중에도 욕을 내뱉고 있었다.

걱정하는 척하던 걸 멈추고 잠시 그를 내려다봤다. 그가 손을 치우고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흘겼다.

드러난 얼굴은 채찍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얼굴을 비스듬하게 가로질러 난 상처는 이마를 찢는 것부터 시작해 콧잔등을 베어내고 입술을 터뜨려 놓았다.

"으윽!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무사할 줄 아십니까?!"

그가 고함쳤다.

그때 내 신경은 브래드보다 영애들 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녀들이 다가오려 하는 것을 엔리케가 막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녀들을 내가 보이는 곳까지 이끌고 오되 다가오지는 못하도록 막고 있으랬더니 엔리케가 말을 잘 들어주었다.

그리고 곧 그들의 모습이 사라졌다. 잉겐스 님이 브래드가 보지 못하도록 환상 마법을 걸어주신 것이다. 더해서 소리 차단 마법까지 함께 걸어주셨다.

"그대가 나를 함부로 만지려고 해서 나도 놀란 바람에 그런 것이 아니오!"

같이 소리를 높였다. 저 앞에 보이는 영애들과 그 시녀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내가 만져도 가만히 있었잖아! 너도 좋았던 거 아니야?!"

"너무 당황해서 몸이 굳어 그랬소! 이런 파렴치한 짓을 그대가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이오!"

"그까짓 몸 좀 만졌다고 비싼 척하기는! 다른 여자들이 너보다 덜 순진해서 나한테 몸을 맡긴 줄 알아? 다 같이 즐기자고 하는 걸 유난 떨고 앉아있네!"

"더 상대하지 않겠소! 엔리케, 거기 있는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크게 말해주는 그를 보다 돌아섰다. 그리고 엔리케가 있는 쪽을 향해 외쳤다.

"네 시녀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바꿔놓았다."

내가 부르는 소리에 잉겐스 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엔리케의 대답이 돌아왔다.

"네, 아가씨!"

"사람들을 불러 이 자를 처리해주게!"

엔리케의 목소리가 들리자 당황한 브래드가 그녀의 위치를 찾는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녀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확신했는지 다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겨우 시녀 하나 근처에 있었다고 의기양양했나 본데 어차피 네 궁의 시녀가 아무리 네 편을 들어봤자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걸. 오늘 이 일은 두고 보는 게 좋을 거다!"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승마장에 울려 퍼졌다. 다 꼴 보기 싫었는데 마지막은 잘해주었다. 영애들이 아주 똑똑히 들었을 테니 말이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 꼭 짐승처럼 짖고 있었다.

그놈의 근처에서 서둘러 벗어났다. 그리고 울타리 문을 열어 승마장을 빠져나왔다. 낮은 울타리를 통해 이미 영애들과 눈이 마주친 후였다.

브래드를 흘낏 돌아보았다. 욕을 하다 내가 들은 척도 않고 와버리자 제 다리를 잡고 상처를 살피느라 이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이제 너까지 마법을 걸었다."

"네, 잉겐스 님."

잉겐스 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일을 이렇게까지 꾸미지 못했다. 영애들을 증인 삼아 부르기는 했겠지만, 브래드도 그 존재를 알아챘을 테니 이 자리에서 그에게 호통치는 것이 다였을 거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리타 영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괜찮소, 첫 수업이라 짧게 끝날 줄만 알고 영애들을 불러 실례를 저질렀소. 이곳까지 걸음 하게 한 것을 사과하오."

"아닙니다. 아가씨께서도 첫 수업부터 승마장으로 오실 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아가씨야말로 큰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작정하고 이곳으로 아가씨를 모신 것이 분명합니다."

에첸 영애와 인디페 영애의 신뢰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오. 저치가 다른 영애들과의 연애담을 꺼내며 자꾸 나를 유혹할 때부터 꺼려지긴 했지만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소."

"아, 맞습니다! 이름이 귀에 익어 긴가민가했는데 이제 생각났습니다. 당한 귀족 집안에서야 쉬쉬하지만, 저자의 손버릇이 나빠서 여러 영애를 울렸다는 말이 암암리에 돌고 있습니다."

리타의 말에 나머지 두 영애도 놀란 눈을 해 보였다.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자의 소문을 듣고 제 가정교사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자를 왕실 교사로 임명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인디페 영애가 내가 하고 싶던 말을 먼저 짚어주었다.

"일레체 페르도 백작 부인의 인선이라고 하오."

"마리아 포르체 백작님과 앙숙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왕실의 일에 관여할 수 있었습니까?"

리타가 의문을 표하자 에첸 영애가 눈치를 주었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분이 국왕 전하의 정인이라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에 참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 백작님이 엄연히 아가씨의 교사로서 루베르까지 내려가신 것을 다 아는 참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사람을 바꿔 쓰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인디페 영애가 그답지 않게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내가 사람들을 잘 선택했음에 마음을 놓았다.

"손을 잡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많이 떨고 계십니다."

리타의 말에 내려다보니 정말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고생 많았다. 네 궁에서부터 따라붙었던 감시인도 브래드 쪽을 따라갔다. 다 잘 되었다."

잉겐스 님의 목소리에 눈물이 나올 뻔했다.

전생에서 겪은 일이었음에도 다시 겪지 못 할 짓이었다. 더구나 작정하고 후려친 것이었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스스로 상처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럴수록 브래드가, 이 일을 사주한 페르도가, 그 뒤에 있을 이들이 더 싫고 이가 갈렸다.

내가 거부의 답을 내놓지 않자 리타가 살포시 손을 잡아 왔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휘청이는 것을 영애들이 잡아주었다.

"너희들은 어서 아가씨를 모시는 걸 돕거라."

그녀의 시녀들까지 가세해 나를 데리고 릴리 궁으로 돌아왔다. 오는 동안에도 그녀들은 내가 놀란 것을 달래주느라 애를 썼다.

"이 일은 널리 알려 그자를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씨께 혹여 잘못된 말이 나돌 수도 있으니 아가씨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돕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것도 못 본 것으로 하라시면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인디페 영애의 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다.

약한 자가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 피해를 보았을 때,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가 되었을 때 때로는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자로서 대접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인디페 영애의 말은 그런 뜻이었다.

엔리케가 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고 있기도 했지만 아마 이들 스스로 그때 다가오지 않은 것이기도 했을 거다. 어쨌든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장면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뒷말이 무서워 입을 닫는다면 잘못한 이를 당당히 내버려 두는 꼴이 아니겠소? 내 명예가 이런 일로 더러워진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의 문제이지 나는 아니오. 오히려 내 명예를 위해 더 그들과 싸울 것이오."

세 영애가 각자 다정한 눈빛으로 동의를 표해주었다.

"오늘은 일단 편히 쉬시고 다음 날부터 아가씨께서 행동에 나서시면 저희에게도 연락을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힘을 합치겠습니다."

에첸 영애가 힘주어 말했다. 진심을 담아 그녀들에게 인사했다.

"고맙소, 영애들."

"좋은 인연을 얻었구나."

"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잉겐스 님 덕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

흐뭇한 목소리에 나도 웃음이 나왔다. 내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자 영애들도 굳은 얼굴을 풀었다. 이들에게는 내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인데 나 하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구나.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세 영애의 손을 함께 잡았다.

전생에서도 더 살았더라면 이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겠지. 리타와는 이미 우정을 쌓기 시작했었고. 이번에는 오래오래 다정한 이들을 놓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오면서 영애들과 많은 말을 나누었다. 전생보다 며칠 이르게 이름을 부르기로 약속했다. 그녀들끼리도 그리 친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네 사람이 친구가 되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증언을 부탁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당분간 비밀로 해줄 것도 덧붙였다. 다른 이가 증인에게 손을 쓰도록 두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브래드와 나갈 땐 우중충하게 느껴졌던 세상이 친구들과 돌아오는 길에는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궁으로 돌아와서 응접실에서 영애들과 간단한 다과를 즐겼다. 그러고 영애들이 돌아간 후, 왕실 법원에 내 이름으로 막심 브래드 남작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초전을 벌이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비 왕세자빈이 단정치 못하게 행동한 것도 모자라 교사를 상대로 고소라뇨!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까 봐 무섭네요."

"쟤는 뭔데 나대는 거냐?"

"그러게 말이에요."

"듣고 있는 거요? 어른이 옳은 말씀을 하시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건방진 태도요!"

페르도나 왕세자나 필요 없는 말이 많았다.

고소 소식을 들은 국왕이 나를 헬리오스 궁으로 호출했다. 나만 부른 줄 알았더니 왕세자와 페르도가 함께 자리해 있었다.

"페르도 부인은 어째서 내가 단정치 못하게 행동했다고 말씀하시오? 그 자리에 있기라도 하셨소?"

"그걸 꼭 봐야 아는 건가요? 브래드 남작은 영애들이 자신을 유혹하는 것이 싫어서 일부러 기혼이나 약혼한 여인들을 상대하려 했어요. 그러기 위해 일자리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데수르고 영애를 먼저 유혹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를 잘 알아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영애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군요. 도리어 식사 자리에서 본 영애는 철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건수를 잡았다는 듯 말을 쏟아내는 걸 듣고 있었다. 어디 대답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얼굴에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내가 왜 부인의 믿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왜 자꾸 편하게 말을 하오? 나는 그대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소. 말을 똑바로 높이시오."

"이! 할 말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은 없으십니까?"

상대할 필요도 없는 자인데 이제껏 말을 들어줬더니 주제를 모른다. 아까부터 고개만 틀어 그녀를 보고 있던 것을 다시 고개도, 몸도 국왕 쪽으로 돌려버렸다.

"전하, 이 여자가 전하의 첩이라고 하나 정식 첩지도 받지 못한 치를 데려다 저를 추궁하시는 겁니까?"

주위가 조용해진 가운데 여자의 씨근덕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너는 네가 잘했다는 것이냐?"

국왕이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물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런, 아바마마께 무례하게 따박따박 말대꾸라니!"

"너는 잠자코 있거라. 네가 잘못한 것이 무어냐고?

이런 일이 생기면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네가 교사를 유혹해서 그를 동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에게 큰 상처를 입혀놓았다. 고소까지 하는 바람에 얼마나 일이 커진 줄 아느냐?

너로 인해 왕실에 대한 추문이 늘었는데 조용히 처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제 어쩔 것이냐."

"어째서 제가 그자를 유혹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페르도의 말을 믿는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를 고소했으니 그건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저는 그만 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왕실이 더러운 소문에 휩싸이는 것은 어찌할 것이냐!"

"저하의 추문을 듣고 제가 궁으로 오기 전부터 부친께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제가 궁으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아니라고 생각되면 언제든 루베르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불명예를 안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전하의 어심이 그러시다면 제가 왕실에서 나가겠습니다. 매일 아버지가 제 안위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답장을 그렇게 쓰면 됩니다."

싱케루스가 전방위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군대를 모아놓은 곳을 발견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끝났다는 것도 파악했다.

표정을 잘 관리하던 국왕이 화를 내리누르는 게 느껴졌다.

"이만 돌아가거라. 내가 네 부친의 은혜를 입어 늘 고마운 마음을 품어왔기에 이번에는 참겠다. 기어이 네가 법정에서 망신당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이들은 세 영애의 존재를 모른다. 고로 내게 증인이 있다는 것도, 내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모르면서도 이쯤에서 일을 끝내려 안달했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내가 불리할수록 더 좋을 것도 같지만, 더는 왕실 추문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국왕과 페르도의 내연 관계가 빠르게 나라 안에 퍼지고 있었다. 더해서 왕세자의 추문은 추문대로 사교계도 모자라 평민들 사이의 술안줏거리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싱케루스가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한 결과이다. 싱케루스는 만일을 위해서 왕세자가 상대하다 버린 창녀들도 다수 확보했다.

가네오 왕세자는 변태 같은 취미가 있었고 그를 두려워한 여자들을 입막음하려 페르도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렇기에 우리 쪽에서 그녀들에게 보호 명목으로 다가갔을 때 의심하는 이들은 있었어도 거부하는 자들은 없었다.

법정으로 간다면 내가 사교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릴지언정 브래드에게 승소할 자신은 있다. 그걸 이들은 모른다. 어리고 무식한 아이를 보듯 깔보는 시선에 속으로만 웃고 말았다.

"언제 봐도 불쾌한 것들이야. 오늘은 아길리스를 더 오래 봐야겠다."

"저도 오늘 싱을 보면 좋겠어요. 더럽혀진 눈과 귀를 정화하고 싶어요."

잉겐스 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그래도 얼른 릴리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서둘러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다.

"그대는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오? 부친이 그렇게 가르쳤소이까?"

알아서 나가주겠다니까. 왜 굳이 뒤따라와 화를 돋우는지. 시비를 거는 왕세자에게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하께서 다른 이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아, 귀족들이 저하의 앞에서 직접 그런 말은 못 하겠군요. 뒤에서 많이 하는 말이겠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이오?"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어쩔 건가? 때리기라도 하게? 네가 창녀들에게 하던 것처럼.

"그대의 부친이 안 됐소. 자신의 딸이 왕비가 될 거라고 좋아하고 있을 텐데 그 딸은 이렇게 천방지축 천지 분간할 줄 모르고 날뛰고 있으니. 이 모습을 그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오!"

내 아버지를 언제 봤다고 아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 시간이 아까웠다. 아길리스가 그랬다. 왕세자가 개소리하면 보여주라고. 배운 행동을 그대로 그 앞에서 했다.

"허! 귀족의 딸이란 자가, 그것도 왕실과 혼인을 하겠다는 여자가 지금, 내 말에 귀를 후빈 것이오? 허헛, 이런 여자랑... 다행이지, 다행이야!"

줄임표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 이미 다 알고 있건만. 저 혼자 뇌까리는 중에도 비밀은 발설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상했다.

"그래서 저랑 결혼을 깨기라도 하실 겁니까?"

넌지시 물어봤다. 이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고 대답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서. 그럼 나는 할 만큼 했지만 왕세자의 뜻으로 일이 어긋났노라, 하는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다. 의심을 사지 않고 자연스레 이 궁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놈은 오히려 화들짝 놀라는 눈치이더니 곧바로 부정을 해왔다.

"그런 말이 아니잖소! 그대는 뭐 이리 극단적이오?"

그러더니 크게 선심을 쓴다는 듯 내뱉는 말이 가관이었다.

"알았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소. 그동안 내가 소홀하기는 했구려. 조만간 릴리 궁으로 찾아가 줄 테니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으시오."

"저런, 더러운 게 들러붙게 생겼다."

"어쩌죠?"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알아도 풀지 못했다.

"나는 모르겠다. 네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안 오셔도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놈이었다.

"아니오. 그대가 내 눈길을 끌고 싶어 이런 일을 벌이는 건지도 모르지. 내가 좀 무심했던 건 인정하오."

"정말 오지 마십시오."

더 말 섞기는 싫은데 억지로 뜻은 전해야 하니 길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냥 정색하며 본론만 간단히 했다.

"어허, 이 내가, 이렇게까지 손을 내미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뻣뻣하게 구는 것이오! 다른 여인들은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안달복달을 하건만, 쯧쯧. 남자를 너무 몰라 순진한 것도 자랑거리는 아니라오."

"저하의 관심이나 끌자고 저급한 짓을 하는 이들과 같은 취급 마십시오. 그런 것 아니고, 필요도 없습니다."

"허! 알겠소, 알겠어. 마음이 많이 상한 모양이구려. 내 친히 그대의 궁을 방문해줄 테니 마음 푸시오. 차라도 한잔하면서 담소나 나눕시다."

"귓구멍에 당근을 꽂았나. 들어 처먹지를 않는구나."

잉겐스 님이 혀를 차며 하시는 말씀에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걸 보고 놈이 더 오해할 줄은 몰랐지만. 그럼 그렇지, 하는 얼굴을 하기에 아차 싶어 얼른 수습하려 했다.

"절대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단호한 내 말에도 놈은 제 할 말만 했다.

"그만합시다. 더 말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테니 오늘은 그만 가보겠소. 며칠 후에 내가 들를 때 좋은 차나 준비해놓으시오."

그러고는 비식 웃더니 쌩하고 가버리는 것 아닌가. 손이라도 뻗어 잡아채려 했으나 하필이면 치마에 발이 걸릴 뻔해서 놓쳐버렸다.

"네가 어깃장 놓고 루베르로 가버릴까 봐 걱정됐나 보다. 너한테 관심 두는 척하는구나. 제 딴에는 너와 친한 척하면서 너를 이곳에 붙잡아두려는 속셈이겠지."

"그 속셈을 뒤집어줘야겠어요. 잉겐스 님을 귀찮게 해 드려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아무 걱정 말고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니까."

"저게 찾아오면 마법 좀 부려주세요. 전에 루베르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은 거로요."

"환상 마법?"

"네. 그거 보고 저랑 아버지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번에는 더 센 걸 부탁드려요. 저게 그걸 보고 놀라서 기절이라도 하게요."

"그러자꾸나. 진짜 기절시켜봐야겠다."

왕세자라는 것이 기절이야 할까만은 놀라긴 하겠지.

"그런데 그걸 보고 놀란 왕세자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네가 오고 나서부터 릴리 궁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해라."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나온다는 증거도 없는데 제 놈이 안 믿으면 어쩔 거야. 내가 마법을 부리면 그걸로 증거 삼아서 우겨대."

"그래야겠어요. 싫은 것이 귀찮게까지 하네요."

"두코가 실수했지. 저런 것들을 도와주고 혼약까지 맺다니."

"많이 자책하셨어요."

"아비에게 안 좋은 소리는 듣기 싫다는 것이지? 오냐. 얼른 아길리스나 보러 가자꾸나."

그녀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곧바로 수줍어하는 목소리가 되신다. 아길리스가 우리 잉겐스 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할 텐데. 부끄러우셨는지 바로 말씀을 돌리셨다.

"그나저나 모이카의 전시회 날 말이다."

"네."

"마법을 펼쳐두었던 그림을 원상태로 복구시켰을 때 그걸 본 싱케루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

전시회장에 걸어둔 내 그림을 들키지 않도록 전시회 날까지는 환상 마법이 걸려있다. 그걸 당일에 풀게 되면 그림이 바뀐 것에 싱케루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도 고민을 해보았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내 존재를 밝히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지."

"왜 미안해하고 그러세요. 이 모든 게 잉겐스 님의 은혜라는 걸 저도, 잉겐스 님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잉겐스 님께서는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요구하세요."

"흐흐흐, 아길리스한테 빨리 가자."

생각해 보니 잉겐스 님 혼자 아길리스를 찾아가셔도 되는데 꼭 내 어깨 위에 올라가셔서 나까지 함께 가도록 만드신다. 그게 잉겐스 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해드려야지.

지금은 아길리스가 릴리 궁의 정원을 가꾸는 척하면서 감시인의 동태를 역으로 감시하고 있을 시간이다. 서둘러 그녀를 찾아 릴리 궁으로 향했다.

왕실 법정에서 답장이 왔다. 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재판 날짜는 열흘 뒤로 잡혔다고 했다.

왕실 법원은 국왕을 최종 재판관으로 하면서 여러 고위 귀족들이 배석 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구조이다. 국왕이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면 배석 재판관들이 판결에 대해 항의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에 국왕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처음 왕실 법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국왕이 홀로 재판권을 가졌다. 그러던 것이 몇 대 전부터 왕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재판권을 나눴고 지금의 형태가 이따금 선보였다.

그리고 선 선대왕부터 자리 잡더니 현 왕에 이르러 아예 귀족들이 힘을 합쳐 국왕을 몰아붙인 결과 이런 식으로 확정된 것이다. 왕실 법정이지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소리였다.

그가 아버지를 쳤던 건 우리의 피가 마음에 들지 않은 까닭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로, 아버지가 가진 것을 빼앗아 다른 귀족들을 누르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서 뺨 맞은 것을 다른 곳에 푼 꼴이다. 더욱이 그 다른 곳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곳이었다.

더 생각해도 분노만 커질 뿐이었다.

어젯밤 다녀간 싱케루스 생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루베르에 가있던 그는 브래드와의 일을 전해 듣고 헐레벌떡 찾아왔다. 바로 그날 오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다니는 데 하루는 걸리는 거리이기에 그가 늦은 게 아님에도 그랬다. 걱정할까 봐 계획을 말하지 않았더니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응접실에 잉겐스 님의 자리를 뒀기에 이번에는 그분을 피해 침실로 싱케루스를 데려왔다. 침대까지는 우리 둘 다 차마 올라가지 못하고 침실에 있는 작은 소파에 붙어 앉았다.

놀란 그를 달랠 겸 그에게 안겨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그리고 그날 국왕이 불러 왕세자와 페르도까지 가세해 나를 몰아붙인 것을 일렀다.

내 말에 그는 나보다 더 분노해주었다. 그리고 내 얼굴 곳곳에 입을 맞춰 위로해주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 주는 듯한 포근한 입맞춤이었음에도 어쩐지 간지럽고 부끄러운 접촉이 이어졌다.

"잠 좀 자자, 이 녀석아..."

"... 잉겐스 님은 야행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귀도 밝은 분이 훨씬 늦은 시간에 주무실 걸 알기에 아직 깨어계실 걸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했다.

"오늘은 일찍 잘 거거든? 적당히 해라. 두코한테 이르는 수가 있다."

입술을 꽉 물고 말씀하시는 듯했다. 이러면 위험했다.

"조용히 할게요."

싱케루스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만해도 돼요. 나 충분히 힘이 났어요. 다시 짧게 이마에 붙었다 끊어지는 입맞춤을 끝으로 그가 떨어졌다. 그도 나도 아쉬운 표정이었다.

"왕세자가 이곳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제 여기를 찾아오다 그자가 당신의 매력을 깨달으면 어쩌죠?"

"말도 안 돼요. 전 그의 취향이 아니에요."

"그자가 푸른색이 돌 정도로 창백한 낯빛에 뼈만 남은 몸을 좋아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모든 취향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습니다. 리리 당신이 제게는 그런 사람입니다."

"음, 그 말은 싱의 취향이 따로 있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취향을 벗어나도 매력적인 존재가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장난으로 던져본 말이었는데 우리 싱은 너무 순진하다. 이게 이 사람의 매력이기도 하지.

끌어안고 있다 말고 내게 떨어져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흐뭇한 기분으로 그를 보고 있으니 그가 다시 나를 안았다.

"장난치지 마십시오."

"장난인 줄 눈치챘어요?"

"당신 얼굴에 다 보입니다."

"미안해요."

"사과도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요."

"가져다드린 그림은 보셨습니까?"

"아니오. 필요할 때 꺼내 보기 전에는 보고 싶지 않아서 내팽개쳐 놨어요."

방치했다는 말에 은근히 좋아하더니 다시 그늘이 졌다.

"그자가 당신에게 빠지기라도 하면, 그래서 당신에게 손이라도 댄다면 저는 그자를 절대 당장 내버려 두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영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에도 폐를 끼치게 될 테죠."

이 사람은 이런 것으로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그의 등을 찬찬히 쓸어주었다.

"괜찮아요. 저 이래 봬도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당신 말씀은 다 믿지만 그건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영주님은, 좋은 분이신데 당신에 관해서라면 무서운 분이 됩니다. 제가 궁을 다녀갈 때마다 확인하곤 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당신에게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았는지요. 함부로 집적거리지 말라고 경고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세요. 당신이 싫으셔서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싱이 내 말에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는 당신과 이럴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은 모르십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요."

"알고 있는걸요. 싱은 제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신 겁니까?"

잉겐스 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당신이 전생부터 나를 무지 좋아했던 걸 다 느끼고 계셨대요. 그리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아무나 업지 않는다고. 전생에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오래 업고 달렸는지 모르죠?

대답 대신 그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어떻게 이렇게 포근할 수 있을까. 그도 나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전생에서도, 지금도 그러하듯이.

요즘 투명화 상태로 몸을 감추고 계시던 분이 오늘은 답답하다고 마법을 푸셨다. 오랜만에 잉겐스 님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던 중 싱의 말이 나왔다.

간밤 생각을 하니 실실 웃음이 새어 나왔다.

"또냐?"

"우리 싱은 어쩌면 그렇게 멋있을까요?"

도마뱀 님 작은 이마가 잔뜩 쭈그러들었다.

"이런 외모지상주의자 같으니라고."

"잉겐스 님도 그러시면서요."

"아길리스가 예쁘고 멋있긴 하지만 나는 그런 것만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그래요. 싱은 마음이 외모보다 더 귀엽고 예뻐요."

잉겐스 님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곧 거만한 모양으로 턱을 앞으로 내미셨다.

"아길리스는 인간 중에서도 매우 건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다."

그건 몰랐다.

"그런가요?"

"너희들도, 아길리스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여타 인간들에 비하면 특별하게 맑은 기운을 갖고 있다. 본래 루베르에는 좋은 기운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 이곳 수도에 비할 바가 아니지."

그래서 루베르 인들을 위해 안 되는 데도 힘을 쓰려 하셨던 걸까. 애틋한 마음이 들어 잉겐스 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찌릿한 눈짓을 받고 얼른 손을 거두었다.

"애가 어릴 때 얌전한 줄 알았더니 점점 상태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어린 시절 나는 온종일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다. 아버지가 바쁜 하루를 끝내고 오시면 그제야 조곤조곤 몇 마디 하곤 했다. 전생에 궁으로 오고 나서도 필요하니 했을 뿐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던 내가 지금 참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말이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훨씬 밝고 활기차진 것을 자신도 느끼고 있다. 이것에는 싱의 역할도 크다. 그러나 제일 큰 이유는 잉겐스 님을 만나고 함께 하기 때문이었다.

"잉겐스 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 순간 하얀 도마뱀 님의 몸체가 발갛게 익어버렸다.

"너는 갑자기 그런 소리를,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았으면 나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괜히 잉겐스 님께서 티를 내시는 바람에 나까지 민망했다.

"이제부터 너를 '티티'라고 부르마."

"뜬금없이요? 그리고 틱틱 뱉는 듯한 그 이름은 뭔가요?"

침이라도 뱉는 느낌에 싫은 표현을 하자 잉겐스 님이 콧김을 뿜으셨다.

"흥! 하도 말을 툭툭 내뱉으니까 그렇지. 싱케루스에게도 나오는 대로 속엣말을 다 하더니, 나한테도 이게 뭐냐?"

"뭐 어때서 그러세요. 책에서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자주 표현해야 하는 법이래요. 이건 가족 간 정을 도탑게 하는 방법이면서 연애의 기초 지식이기도 하다고요."

부끄러움을 참고 무조건 책에서 본 거라고 우겼다. 잉겐스 님의 말문이 막힌 틈에 얼른 화제를 돌렸다..

"참, 싱이 모이카의 그림을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 그래? 뭐 별다른 게 있겠느냐."

"그러게요. 잠깐만 마법을 풀어주세요."

침대 밑에 숨겨둔 것을 꺼냈다. 싱이 포장을 야무지게도 해두었다. 낑낑거리며 포장지를 벗겼더니, 세상에!

"네 말처럼 싱케루스 그놈이 귀엽긴 하구나."

"왜 이런 걸까요?"

"네가 저 자식의 거시기를 안 보도록 그 녀석이 처치해둔 것 아니냐."

어차피 저 부분은 도려낼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성문에 전시할 예정이다. 배부른 귀족이나 왕족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며 논다는 설명과 함께.

일을 저지른 사람을 잡지 못하면 왕실에서 주목할 이는 한 사람이다. 그린 이는 모이카가 확실하니까. 그치가 자신의 그림마다 써놓는다는 사인은 미술계에서 꽤 유명한 것이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그녀가 수고스러워질 테다.

모이카가 그린 왕세자의 누드화는 실물 크기의 절반인 그림이었다. 벌거벗은 몸을 한 채로 양손으로 허리를 짚고 두 다리를 당당하게 벌리고 선 왕세자. 그리고 그의 중요 부위에 그만한 나뭇잎이 붙어있었다.

내가 저걸 볼까 봐 걱정한 건가. 우리 싱을 어쩌면 좋을까.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차올랐다. 가지가지 한다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배경음으로 삼아 예쁘지도 않은 그림 속 유일하게 예쁜 나뭇잎을 꽤 오랜 시간 바라보았다.

"단장, 정말 여기에 지점을 낼 거야?"

"왜? 너도 찬성했었잖아."

"루베르 정도면 성도보다 더 발전된 곳이니 지점 하나쯤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았지. 그런데 막상 와보니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 도저히 우리 같은 정보 단체를 이용할 사람들은 없어 보여."

"겉보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지. 여기야말로 피의 역사로 점철된 곳이야. 바로 이런 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

"그럴까? 굳이 지점을 내지 않아도 이미 벌만큼 벌어들이는데..."

다 결정 난 일을 가지고 아길리스가 구시렁거렸다. 싱케루스가 보기에 이곳은 분명히 돈이 되는 곳이다.

비록 가업을 잇기 싫어 가출한 적도 있다. 지금은 조직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이기에 묶여 있지만. 싱케루스 본인의 사유 재산이나 조직 공동의 재산이 충분함에도 조직의 수장은 언제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수입이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 갈수록 조직 살림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현상 유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아길리스는 본점에서의 수익만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싱케루스의 의견은 달랐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 하는 법. 그런 점에서 루베르 지점은 영지 규모나 전망을 봤을 때 딱 맞는 선택지였다.

"그래도 여기 인구가 많아서 좋은 점이 재능 있는 애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는 거네. 괜찮은 애들이 많았음 좋겠다. 새로 지점도 낼 텐데."

싱케루스도 속으로 동의했다.

영지가 넓고 살기 좋은 만큼 인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다. 다른 영지에 비해 고아는 별로 없지만 그만큼 여유로운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자라 신체 조건이 좋은 아이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고아들을 우선 영입하는 방침에 따라 영지에서 가장 가난한 구역을 둘러보았다. 타 영지는 그런 곳이 빈민촌인 데 비해 루베르에는 빈민촌이 아예 없다. 그만큼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없다는 건데 이곳 영주가 소문대로 꽤 괜찮은 지배자임이 틀림없었다.

"싱케루스,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

"저쪽이다. 아이 울음소리군."

이렇게 구슬프게 우는 아이의 사연은 무엇일까. 절로 발걸음을 이끄는 소리에 싱케루스와 아길리스는 그쪽으로 향했다.

"어, 상을 당했나 보네. 집에 검은 등이 걸려있어."

"일단 들어가 보자."

조그마한 집으로 들어가니 단조로운 구조의 방에서 아이 하나가 넋을 빼놓은 채 엉엉 울고 있었다.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인 듯 어른 몇이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앉아 있던 이들이 벌떡 일어서는 게 보였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서였다.

"아가씨께서 이곳까지 웬일이십니까?"

가장 연장자인 듯한 자가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라고 부르는 걸 보니 들어온 여자는 귀족인 게 확실했다.

"이곳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아가씨께서 나와보셨네.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오셨으니 그냥 하던 대로 있게나."

여자를 수행하는 시종인 듯한 자가 주민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뭐라고 대화를 나누든 상관하지 않고 여자는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순간 싱케루스와 아길리스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봤어, 봤어? 우와, 저 여자 대단하다. 귀족 같은데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아길리스의 말대로였다. 귀족 영애로 보이는 여자가 우는 아이의 콧물을 아무 거리끼는 기색 없이 자신의 손수건으로 직접 닦아주고 있었다.

아이마저 놀란 듯 대번에 울던 것을 그치고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는 시종과 달리 여자의 옆을 지키고 있던 시종도 화들짝 놀라 그녀를 말리려 했다.

그러자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여자가 쓴 면사가 움직이면서 눈만 가리고 있던 것이 들렸다. 슬쩍 감춰졌던 얼굴이 비쳤다.

싱케루스는 숨이 멎을 것 같다는 감정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저 여자다! 저 여자랑 평생을 같이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가슴속을 휘몰아쳤다.

낮은 자를 인간답게 대하는 고귀한 행동도 마음에 들었지만 그렇게 예쁘고 맑은 눈을 가진 여자는 처음 봤다.

"너... 저 여자한테 반했냐?"

멍하니 여자만 바라보고 있으려니 아길리스가 옆구리를 찔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럴 리가. 저 여자는 귀족이잖아."

말해놓고서 그제야 아차 했다. 그랬다. 여자는 분명 귀족이었다. 평민인 자신과 이뤄질 확률이 눈곱만큼은 있을까 싶은 사람.

지금까지 평민인 것이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싱케루스는 처음으로 제 신분이 싫어질 것 같았다. 여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 예감도 들었다.

여자가 아이를 달래는 듯하더니 이내 조용히 자리를 떴다. 시녀 하나 대동하지 않고 왔듯 갈 때도 시종 하나만 데리고 떠나는 소박한 움직임이었다. 다른 시종이 남아 주민들을 통솔해 장례 절차를 지휘하고 있었다.

싱케루스가 주민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갔다.

"저 영애는 누굽니까?"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대답을 꺼리는 기색이기에 슬쩍 돈 몇 푼을 꺼내주었다. 그가 싱케루스의 옷차림을 쓱 살피더니 평민인 것 같자 안심하고 말을 꺼내놓았다.

"데수르고 영애시네. 우리는 굶어 죽는 영지민이 없는데 오늘 이 집 가장이 하필이면 아사했지. 하나뿐인 아들이 며칠 외가에 다녀온 사이 그렇게 돼버렸다네.

영애가 그런 사정을 안 되게 여기신 것 같아. 장례 비용을 다 내어 주시고 아이가 살길도 마련해 주신다네. 이제 저 애는 팔자 편 것이나 마찬가지지."

차라리 돈 없는 하급 귀족의 딸이기를 바랐다. 그러면 자신의 부유한 재산을 한몫 그 부모에게 단단히 떼어주고 여자를 데리고라도 올 심산이었다.

하필이면 데수르고라니. 그건 이곳 영주의 성이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데수르고 후작의 외동딸이라는 말이었다. 더구나 왕세자빈으로 태중 혼약이 이뤄진 바로 그 여자였다.

루베르에 지점을 연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싱케루스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한 일이 있었다.

"또 나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원래는 본점에 머물렀어야 했지만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놓고 지점으로 내려와 지냈다. 어느 곳에서나 늘 단장실에 틀어박혀 사무만 보는 이가 이 시간만 되면 자리를 박차고 서둘러 나가니 단원들이 다들 궁금해했다.

눈치로는 자기들끼리 내기라도 건 듯싶었다. 요즘은 재미로나 궁금증을 못 이겨 뒤를 밟는 단원도 생겼음을 알았다.

사무실에 있다고 싱케루스의 실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길리스와 비교해 좀 떨어지는 것이지 다른 단원 정도라면 능숙하게 따돌리고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다.

넓은 벌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빠르게 주위를 돌아다니며 아래를 살폈다. 혹시 땅이 고르지 못하거나 튀어나온 돌은 없는지 샅샅이 찾았다.

어제는 없던 돌이 오늘 나올 일은 드물지만, 혹시 모르니 만반의 대비를 했다. 얼추 시간이 다 되었다. 얼른 근처 덤불 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아, 그녀다!

딱 맞춰 나타났다. 싱케루스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벌판으로 몰래 나오는 이유였다.

리벤티아 데수르고. 그녀가 바람을 가르며 말을 몰아 달려오고 있었다.

한데 묶은 갈색 머리칼이 흩날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다. 입을 꼭 다물고 상체를 말에 딱 붙인 채 빠르게 달리는 그 모습은 어느 전설 속에서 보던 달의 여신 같았다.

자유로워 보였다.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귀족, 그것도 고위 귀족 영애 치고 승마 솜씨도 수준급이었다. 싱케루스도 저만큼 잘 타지는 못했다.

사랑스러운 여자가 재능마저 뛰어남에 홀로 흐뭇한 감정이 들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빠지는 게 없구나. 탄식이 절로 나왔다.

가문, 성품, 외모, 빛나는 재능까지. 완벽한 여자였다. 저는 감히 바라서도 안 될 만큼.

말이 거의 없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는 듯해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마저 흡족한 감이 있었다. 자신만 그녀와 대화 한 마디 못 나눠본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말이 지치기 전까지 한참 달리고 그녀가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면 싱케루스도 비로소 구부리고 있던 몸을 펴고 밖으로 나왔다. 오늘도 그녀를 볼 수 있었음을 감사했다. 그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그날의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수도 소식 들었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침울해 있는 중이다.

"개자식. 데수르고 아가씨처럼 참하고 괜찮은 분이 어디 있다고 그따위 쓰레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래! 영주님은 왜 그런 놈한테 아가씨를 보내는 거야! 나이도 아가씨보다 열한 살이나 더 많은 놈한테. 우리 아가씨, 아까워서 내가 속이 터지겠다!!"

어느새 아길리스에게 리벤티아 아가씨는 '우리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지점을 내면서 데수르고 후작에게 자연적으로 보고가 들어갔는지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왔었다.

따로 가문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데수르고 후작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참에 마침 아스트룸의 지점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에 후작이 지점 개설에 많은 편의를 봐주었다.

그때 맺은 인연으로 종종 데수르고 휘하의 인물들과 술잔을 나눌 일도 많아지면서 아길리스는 리벤티아의 추종자가 되었다. 영지민들과 저택의 시중인들이 아끼고 우러러보는 아가씨.

그들과 어울리면서 감화된 데다 첫 루베르 방문 때 본 것도 있어 아길리스는 리벤티아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다른 이들이 그렇듯 리벤티아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흠모할 뿐이었지만 말이다.

리벤티아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면서 타인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묘한 기백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달릴 때면 자유롭고 건강한 기운이 잔뜩 뿜어져 나왔다.

마지막의 모습은 혼자만 아는 것 같아 싱케루스는 뿌듯함을 느꼈다. 한편 이제 그녀가 왕도로 떠나면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깊은 상실감을 겪고 있었다.

그런 여자를,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자신은 감히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녀를 왕세자는 운 좋게 타고난 혈통 덕분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아내로 맞을 수 있다.

더구나 그놈은 제가 가진 복을 알아보지도 못할 놈이다. 지점을 내느라, 아니 어쩌면 그녀에게 빠져 바쁜 사이에 미처 성도의 소식을 다 챙기지 못했더니 왕세자의 추문을 뒤늦게 알아버렸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었다. 국왕의 정부가 물어오는 창녀들과 나누는 변태 행위는 웬만한 얘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싱케루스마저 역겨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시체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취향에서 더 나아가 성행위 중 여자를 시체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놈이라니. 관계 도중 여자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해 창백한 얼굴을 만들어 그걸 보고 쾌감을 느낀단다. 세상에 저런 놈이 어떻게 왕세자란 말인가.

그놈은 리벤티아의 남자가 될 자격도 없는 놈이다.

데수르고 후작에게 그에 대한 보고서를 몇 번이나 들이밀고 싶었다.

그러나 딸이 왕가의 사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그에게 감히 뭐라고 훼방을 놓는다는 말인가. 더구나 창녀들을 데리고 와 증인으로 내세운다 한들 후작이 믿어주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혹시나 그녀가 그런 결혼이라도 만족한다면... 제까짓 게 뭐라고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나.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었지만 그때의 싱케루스는 용기 내지 못했다.

하루하루 그녀가 수도로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싱케루스는 침식을 잊을 정도로 고민에 빠졌다. 며칠 만에 살이 잔뜩 내려앉아 마른 몸에 단원들도 놀랄 정도였다.

리벤티아가 타고 가는 마차를 몰래 뒤에서 바라보는 심정은 미칠 것 같았다. 붙잡을 수도 없는데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다음 날 늘 말을 달리던 벌판으로 나가보았다. 그곳에서 결심했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고. 혹시 모르지 않는가. 그녀에게 그가 도움이 될지도.

아스트룸 본점으로 올라오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받아볼 수 있었다. 데수르고 후작으로부터 특급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마침 본점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아길리스의 귀에 이야기가 들어갈세라 조직원들에게 단단히 입조심을 시켰다. 그리고 다시 루베르로 말을 달렸다.

루베르 근방은 길을 잘 닦아놓아 말이나 마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그 반면에 성도 근처는 험한 길이 그대로였다. 그래서 보통 루베르에서는 어둑할 때 길을 나서도 성도 근처에서는 밝을 때 다니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리벤티아도 수도로 떠날 때, 어둑해지기 전에 궁에 겨우 도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출발했었다.

하지만 싱케루스는 그런 사정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밤에 전서구로 급보를 받자마자 수도 길을 나서 루베르로 향했다. 왔던 길을 돌아가도 그런 일을 헛수고라 생각할 틈도 없었다.

얼마나 급히 달렸는지 점심도 되기 전에 데수르고 후작을 만났다. 드디어 리벤티아를 만나 그녀의 사정을 알아 올 것을 의뢰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성도로 돌아와 기다렸다.

밤까지 기다려 어둠을 이용해 궁궐 담을 넘었다.

테라스에서 창문이 열리길 기다리면서 마구 뛰어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녀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그녀에게 닿고 싶은 마음에 창문으로 바짝 다가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앞에 있는 그녀를 보고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만난 리벤티아는 행복하지 않아 보였다. 싱케루스의 행복감도 순식간에 바스러져 버렸다.

지쳐 보이는 그녀를 위로할 수도, 데리고 나올 수도 없었다. 자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슴을 때리는 사실에 저의 무능력이 한탄스러웠다.

저를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몇 번을 중얼거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왕세자의 더러운 행실을 알려주어도 그녀는 의연하게 감내할 뿐 그가 희망을 느낄 만한 여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러나 점점 왕궁의 경비가 삼엄해지고 자연스레 그녀가 궁에 갇힌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궁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겠지만 혹시 잠깐이나마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궁궐 담이라도 뚫어야 할까 고민하던 참에 기적처럼 조그마한 개구멍을 발견했다. 리벤티아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그녀가 수족으로 부릴 이로 여성을 원했을 때 아길리스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자기 말고 다른 이는 없노라고. 일이 없어 심심하다며 아길리스가 루베르로 내려갈 때도 입을 꾹 닫았다.

의뢰를 핑계로 그녀를 만날 때마다 마음은 더 깊어갔다. 이렇게 아까운 여자인데 이런 사람을 그런 쓰레기의 옆에 두어도 될까. 제 주제에 감히 그녀의 앞날에 대해 고민했다.

아스트룸 본점에 비상이 걸렸다. 밖에 나가 있던 직원들이 동시에 급보를 전해왔다.

레푸스 공작의 군대와 왕실 군대가 각각의 기사단과 함께 루베르 영지 근처로 집결해 있다는 것이었다. 감쪽같은 이동이었다.

그들이 수상한 만남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더 나아가지 못했나. 더 빨리 알아챌 수도 있었을 텐데. 자책과 불안감 속에서 루베르에 대한 소식만을 기다렸다.

여러 마리가 날아왔을 텐데 단 하나의 전서구만 겨우 도착했다.

푸르스에서 다량의 폭탄을 터뜨림. 데수르고 후작 급사. 그를 돕던 아길리스 외 여러 조직원 동시 폭사.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왕궁으로 달렸다.

궁에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했을 때 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리벤티아가 감옥에 갇혔다고 했다.

서둘러 감옥으로 향하던 중 마침 홀로 도망치던 그녀를 발견했다.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둘러 달리는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화들짝 놀라는 반응에 급히 본인을 밝혔다.

저라고 하니 눈에 띄게 안도하는 그녀를 보며 기쁨을 느꼈다면 나는 나쁜 놈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싱케루스는 지금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를 업었다. 순순히 업혀주는 그녀가 고마웠다. 그녀는 모른다. 자신은 평생 단 한 여자하고만 닿을 거라 홀로 한 맹세를 말이다.

이 여자뿐이다. 내 인생에서 다른 여자는 없다. 급하게 달리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며 속으로 웃었던 것 같다.

이대로 아스트룸 조직원들이 있는 곳까지만 무사히 가면 된다. 본래는 리벤티아까지 안고 담을 넘으려면 힘들었을 테지만 다행히 개구멍이 있다.

리벤티아에게는 후작의 죽음을 곧이곧대로 밝힐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안전한 곳까지 그녀를 데리고 나간 후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자칫 잘못하다 그녀가 모든 의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후작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사실대로 알려주었다. 혹시 자신과 떨어지더라도 그녀가 제대로 알고 사후 처리를 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던가. 그녀를 무사히 빼내기 위해 미끼 역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수색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를 내려주고 비상용 칼을 챙겨주었다. 부디 그녀가 이것을 쓸 일이 없기를. 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그녀에게 신신당부했다.

하나, 둘, 셋!

그녀와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가 수색대의 이목을 끌었다. 아마 더는 그녀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아길리스를 의뢰 담당자로 보냈어야 했을까. 아니다. 그녀가 왔어도 다르지 않다.

혼자 상대하여 다 무찌르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의 적들이 눈앞에 있었다. 하나라도 더 물리쳐야 그녀가 도망하기 더 수월해진다.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싸워보겠다.

최후가 보이는 듯했다.

괜찮다. 그녀만 빼낼 수 있다면. 조직원들이 있으니 다행이다. 부디 그녀를 지켜낼 수 있길. 그녀가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길.

생의 마지막 싸움을 맞으며 싱케루스는 오직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기뻤다. 단단하게 다물린 입매가 미소를 머금었다.

밖에서 아길리스가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다. 실은 그런 척하면서 릴리 궁을 감시하는 자나 혹시 있을지 모를 새로운 방문객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마침 응접실의 테라스 창문을 통해 그녀가 아주 잘 보였다.

그리고 교묘한 구조라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는 응접실 안을 볼 수 없었다. 잉겐스 님은 이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는데 여유롭게 엎드린 채 햇볕을 쬐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왕자 놈이다!"

전음과 함께 벌떡 몸을 일으키셨다. 차를 마시며 잉겐스 님을 구경하고 있던 나도 동시에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결국 왔구나. 놈이 호위 기사와 시중인들을 끌고 온 것이 보였다. 오지 말라고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더니 만난 지 이틀 만에 릴리 궁을 찾았다.

그날 헬리오스 궁에서 돌아오자마자 릴리 궁의 시중인들 점검을 마쳤다. 놈의 취향에 맞을 만한 시녀들은 미리 숨기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시녀들은 모두 건강하고 혈색 좋은 이들뿐이었다. 안도하면서도 가능한 한 놈을 안 봤으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런데 놈이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한 곳에 멈춰 있었다.

"저놈이 왜 아길리스 앞에 서 있는 거냐?"

"그러게요. 무슨 꼬투리를 잡는 걸까요?"

마중할 필요도 못 느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더니 놈이 아길리스의 앞에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나가봐야겠어요."

"됐다. 놈이 움직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앉았다. 불안한 느낌에 차라리 빨리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으드득"

도마뱀 이빨 가는 소리였다.

"왜 그러세요?"

"지금 놈이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말이다. 혼잣말로 개소리를 지껄여 대는군. 아길리스가 제 취향이란다. 살집이야 굶기고 때려서 마르게 만들면 된다는구나."

잉겐스 님이 장탄식을 하신 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들려주셨다. 그 생각을 못 했구나. 혈색이나 체중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놈은 절대 제 발로 걸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몸을 감추신 잉겐스 님이 한 자 한 자 힘주어 말씀하셨다. 고개를 끄덕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접실의 문이 열렸다.

"저하, 오셨군요."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소. 인사가 그게 뭐요. 진작 나와서 맞을 줄도 모르고. 여자가 그렇게 뻣뻣해서는 어디에 쓰겠소."

무시했다. 내 반응에 혀를 차더니 알아서 자리에 앉았다.

"밖에서 일하는 시녀 있잖소. 저기 하얀 장갑을 끼고 있는 키 큰 아이. 못 보던 아이인데 그대가 데려왔다면서요."

"네, 제 사가에서 데려왔습니다."

다짜고짜 묻더니 놈이 침을 삼켰다. 그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경은 나가 있으시오. 너희들도 밖에 나가거라."

"하지만 저하, 저희는..."

"어허, 감히 내 말에 토를 달려 하는가. 여기에서 내게 위험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나."

데려온 호위 기사나 시중인들을 내보내려 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급기야 내 시녀들에게도 밖으로 나가라 명령했다.

"그렇게 걱정된다면 여기 리벤티아만 남고 다 내보내면 되겠지. 이 여자 하나가 나를 상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소. 하하하!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도 들어오지 말도록 하오."

우스운 농담이라도 한 듯 혼자 웃었다. 이틀 전에 봤을 때와는 달리 기분이 좋은지 너스레까지 떨었다. 그런 놈을 싸늘하게 보고 있는 동안 응접실에는 그와 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잉겐스 님만 남았다.

"단둘이 있어 보는 건 처음이군. 긴장하지 마시오. 내 말에 소리 지를 것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다름이 아니라 그대가 데려왔다는 그 시녀 말이오. 그녀를 내게 주시오."

그가 데려온 이들 중에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자가 있었나 보다. 나는 이미 그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으니 거리낄 게 없다는 건가. 그는 딴에는 친밀한 얼굴을 해 보이며 내게 아길리스를 달라고 했다.

"놀라지 말아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으로 처참하게 목이 졸린 채 창백한 얼굴로 피 흘리는 여자들이 나타났다. 하나같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눈 전체가 까맣게 번져 있어 환상임을 알고 보는데도 섬찟했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그의 옆을 보고 있자 그도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잉겐스 님이 만드신 환영을 보고 말았다.

"어어? 저게 무슨! 어? 너는! 어! 억!! 으악!!!!!!"

그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나 보다. 잉겐스 님이 그를 거쳐 간 여자들을 그대로 만드신 것도 아닐 텐데 지레 겁을 먹었다.

우당탕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을 지르던 놈이 도망치려다 의자에 발이 걸렸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는지 충격에 정신을 잃은 것인지 갑자기 조용해졌다.

"더 보여줄 게 많이 남았는데 이 새끼는 참을성도 없구나."

음산한 목소리와 함께 밖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다.

놈은 아마 제 말을 듣고 내가 화를 낼 상황만 예상했나 보다. 내 항의나 고함에도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겠지. 안에서 비명이 들리는데 받은 명령은 있으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의 사람들만 당황하고 있었다.

"엔리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게!"

엔리케가 문을 열다 왕세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를 뒤따라 들어오던 이들도 다 같이 놀라서 서둘러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의원을 불러오시오!"

놈의 호위 기사로 보이는 자가 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아까부터 놈이 쓰러지던 장면을 보고 웃음을 참고 있었다. 얼굴을 가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려니 그걸 보고 착각한 것인지 시중인들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네. 그보다 저하가 왜 저러시나?"

표정을 관리하며 손을 빼꼼히 내려 물어보자 왕세자를 살펴보던 기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이곳에는 두 분뿐이었는데 한 분은 이렇게 되시고 한 분은 멀쩡하신데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경은 누구인데 그렇게 무례한 태도이며 그런 소리를 함부로 지껄이는가."

서늘한 목소리로 정색하며 말했다. 내 시녀들마저 눈초리가 사나워지자 기사가 움찔하더니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저는 이번에 왕세자 저하의 호위로 임명받은 세베루스의 타르디입니다. 저는 백작위에 있으며 제 아버지께서 세베루스 후작이십니다."

전생에서는 이맘때 왕자의 호위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세베루스 후작이라면 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어째서 왕세자 곁에 그의 아들이 있는 걸까.

타르디 세베루스 백작이 뭐라 다시 입을 열려 할 때였다.

"으음..."

왕세자가 깨어나는 소리였다.

"저하! 괜찮으십니까?"

"으, 여기는..."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던 놈이 조금 전 상황을 생각해냈나 보다.

"귀신! 귀신이...!"

"네?"

귀신이라는 한 마디에 나를 의심하던 기사가 내게로 재빨리 미안한 눈을 하더니 다시 왕세자를 잡아 일으키려 했다.

"아악! 저거, 저거!!"

"또 뭔가를 하신 거예요?"

"응. 아까 보여줬던 거랑 몸이 터져 죽은 것, 목이 잘린 것 등 다양한 걸 만들어봤지. 저놈만 볼 수 있도록."

갈수록 마법을 다루시는 기술이 정교하고 세밀해지는구나. 놈이 꽤 길게 고함을 쳐대는 걸 보아 잉겐스 님은 여전히 분이 안 풀리셨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시중인들이 놈을 미친놈 보듯 쳐다보다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의원이 뛰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왕세자가 눈을 뒤집으며 넘어갔다.

"기절했구나. 그런데 무슨 냄새가..."

"싼 것 같아요. 그것도 큰 거로요."

"아, 참 별꼴을 다 본다."

잉겐스 님의 말씀이 맞았다. 미운 놈은 미운 짓만 골라 한다더니 악취가 풍겼다. 하필이면 흰 바지를 입고 왔다. 놈의 바짓가랑이가 노란색으로 진하게 물들고 있었다.

내 눈치를 보던 놈의 시중인들이 의원을 다그쳤다.

"저하께서는 어떠십니까?"

눈을 까뒤집어 보고 맥을 짚어보는가 싶더니 의원이 입을 열었다.

"정신을 차리셔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단순한 충격으로 기절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자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건 알려주지 않았다. 치료를 늦출수록 좋겠지.

"저희는 이만 저하를 모시고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래, 어서들 가시게. 고생들이 많네."

다정하게 그들을 위로하며 얼른 내보내게 했다.

의원이 종자를 시켜 가져온 들것에 왕세자를 싣고 떠나는 것을 보며 시녀들에게 명령했다.

"카펫을 걷어내 버리고 새것으로 깔게."

혼탁하게 물이 들어 냄새까지 풍기는 것을 두고 볼 마음은 없었다. 이해한다는 듯 시녀들이 어느 때보다 재빠르게 움직였다.

시녀들까지 다 나간 후에는 잉겐스 님께서 향기 마법으로 냄새를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그날 밤 싱케루스가 찾아왔을 때 아길리스까지 불러 낮의 일을 의논했다.

놈을 괴롭혀주다

아길리스가 오기 전 싱케루스와 먼저 만나 상의했다. 그리고 우리 사이를 밝히는 것으로 그녀가 도착할 즈음 결론 지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아길리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우리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를 놀라게 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우리가 놀랐다.

"언제부터 알았는가?"

"루베르 지점에 아가씨가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두 분이 처음 만나자마자 흐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담날 밖에 나갔다 오시더니 달달한 게 장난 아니셔서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싱케루스와 눈이 마주쳤다.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아버지와 함께 다니지 않은 것은 천우신조였다.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싱케루스는 평민입니다. 영주님께서 크게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안다고 하셨네. 당신도 본래 평민 출신이셨으니 그런 것으로 뭐라고 하실까. 이번에 왕세자 일을 겪으면서 생각하신 것도 있으실 테고."

아버지가 싱을 때리기라도 하시면 내가 대신 맞아서라도 허락을 받아낼 거다. 홀로 다짐을 새기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어진 대화에서 아길리스는 왕세자가 자신을 탐내고 있다는 말에 진저리를 쳤다. 싱케루스가 자신이 더 세심하지 못했음을 사과했지만 아길리스는 개의치 않았다.

"나도 생각 못 했는걸. 미친놈 정신세계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렇죠, 아가씨?

끔찍합니다. 놈의 성벽이 워낙 괴이해서 그쪽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저도 놓쳐버렸습니다. 굶기고 때릴 계획이었다니... 밤길 무사히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어금니를 꽉 물고 말하는 그녀에게 방법이 있느냐 물었다.

"이미 궁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상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제 실력이라면 몰래 뒤를 때리고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 경계가 강화될 것이 걱정입니다."

아길리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어 물어보자 싱케루스가 자랑스러움 반, 아쉬움 반이 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몇 년 전 왕실 기사단 입단 시험에서 아길리스가 실기에서 수석을 차지했었습니다."

놀라는 내게 그녀가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최종 면접 단계에서 평민이라는 이유로 얼굴도 보지 않고 탈락시키더군요. 마침 아길리스의 재능을 높이 사주었던 귀족의 추천으로 시험을 친 것이라 주관하는 이들이 처음 서류 심사에서는 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나마 시험이라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마운 그 귀족의 안부를 물었더니 그는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길리스의 일로 그분의 실망이 컸다면서 두 사람 다 씁쓸한 표정이었다.

"평민이라고 실력이 뛰어난 자를 쫓아낸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일이야. 아길리스, 그대의 상심이 컸겠네."

"아닙니다. 그때 시험을 봤던 건 그 귀족분의 마음도 감사했고 정확한 제 실력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됐다 하더라도 이런 답답한 곳에서 견딜 수 있는 성격이 못됩니다."

그녀의 시원스러운 웃음 뒤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녹아 있기에 그 미소가 더 빛나 보이는 걸까. 싱의 손을 놓고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러면 어떻겠나. 싱과 나는 연인 사이이고, 그대는 싱과 오랜 친구이지. 그러니 나와 그대도 친구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떤가?"

싱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기에 마주 웃어주고 아길리스를 바라봤다. 그녀는 곤란한 듯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아가씨를 많이 좋아해서 이전부터 꼭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친구 사이라니,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라네. 친구끼리는 말도 놓는 것이니 편하게 말하게나."

"네, 그럼 아가씨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아길리스."

"리벤티아, 정말 좋다!"

신난 얼굴로 내 손을 잡고 붕붕 악수하는 그녀를 보며 싱케루스가 못 말리겠다는 표정을 했다.

아길리스는 싱케루스와 동갑으로 올해 스무 살이었다. 대신 언니라고 부르라기 없다고 내가 못을 박자 그녀는 친구끼리 당연한 일이라며 흔쾌히 들어주었다.

"참,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야지. 왕세자를 골탕 먹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계가 강화되면 싱이 드나들기 안 힘들겠어요?"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아길리스가 안에 있으니 지금도 아주 쉽게 다니고 있습니다. 강화된다고 해봤자 궁내에 이미 끄나풀도 심어 놓은 상태라 당장 길이 막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 아까 여쭤본다는 걸 깜빡했는데 당신은 많이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왕자가 여기에서 발작을 일으켰다면서요. 귀신을 봤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난 건 아니겠죠?"

그거 잉겐스 님이 하신 거라 괜찮아요. 그래도 싱케루스의 염려를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다시 그와 손을 잡고 손장난을 치자 슬그머니 우리를 쳐다보고 있던 아길리스가 한탄했다.

"옆구리가 시려서 나도 연애를 하든가 해야겠어."

"컥."

조용히 우리 대화를 듣고만 계시던 잉겐스 님이 목 막히는 소리를 내셨다.

"너, 그때 루베르에서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대장간의 로이 말이야? 걔는 너무 배려심이 없어서 싫어. 술버릇도 나쁘고 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때렸다는 소문도 있어.

차라리 릴리 궁을 지키는 병사 하나가 요즘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여서 고민 중이야."

"음..."

침음을 들으니 나도 바짝 긴장됐다.

"일단 왕자 놈부터 정신 번쩍 들도록 만들어줘야지. 후훗, 리벤티아는 안에 있느라 못 봤겠지만 나는 아까 밖에서 그놈이 실려 가는 걸 봤는데 가관이었어."

"어땠기에?"

"들것 아래로 누런 물이 줄줄 흘러내렸거든. 바닥에 냄새나는 흔적이 왕자 놈 가는 길을 따라가더라. 지금 궁에서 알음알음 '똥세자'라고 소문이 파다해. 그놈이 그 얘길 들으면 한동안 울화증에 시달릴 거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화제가 전환된 김에 놈을 괴롭힐 방법을 모의했다.

내일 상황을 더 알아보고 때를 보아 아길리스가 괴롭혀주겠단다. 걱정 없이 계획을 짜는 두 사람을 보고 괜찮을까도 싶었다. 잉겐스 님이 그녀를 몰래 따라가 도와주시겠노라 말씀하셔서 한숨 놓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잉겐스 님의 걱정이 시작되었다.

"아길리스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면 어쩌지?"

"그러니까 고백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체라도 밝히시는 게 어떠세요?"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 가만히 있다가 그녀를 놓쳐버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있으려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잉겐스 님."

"응."

"아까도 소리 차단 마법을 걸어주셔서 저희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 둘은 그런 것도 모르고 조심했지만요."

"그렇지. 다 내 능력이 좋은 덕이지."

당신께 좋은 이야기가 나오니 어조가 확연히 밝아지셨다.

"싱이 왔을 때도 역시 마법을 걸어주셔서 제가 편하게 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래. 새삼스럽게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됐다. 내가 너에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럼 저랑 싱이 놀고 있을 때 잉겐스 님도 소리를 차단하시고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흠흠, 난 또 뭐라고. 너는 미성년자 아니냐. 그러니 내가 듣고 있다 적절히 막아주어야지."

"우와, 그건 아니죠! 저는 잉겐스 님께 방해될까 봐 싱이랑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얼마나 전전긍긍했게요!"

흥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험악한 표정으로 항의했다. 나를 빤히 보고 계시던 잉겐스 님이 한마디 하셨다.

"그래서 아예 마법을 다 없애주랴?"

나는 이분 앞에서 영원한 약자이리라.

"아니요. 고맙습니다."

"알면 됐다. 쯧쯧,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들이 그렇게 붙어있는 걸 좋아하면 못 써. 너 아직 미성년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 반년만 있으면 성인이에요!"

소심하게 반항해 보았다.

"그래,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지. 내가 너 기저귀 차고 뽈뽈거리며 기어 다니는 것도 다 봤으니 두코의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다. 더 자란 후에 싱이랑 이것저것 해도 늦지 않아."

돌 속에 계시느라 보이진 않으셨을 텐데. 하고 싶은 말은 입속에 맴돌았지만 잘못했다 심기를 상하게 할까 참았다.

오히려 잉겐스 님을 달래서 이중으로 소리 차단 마법이라도 쳐주신다면 싱과 마음껏... 상상만 해도 얼굴에 열이 올랐다.

"예의가 아니라 그녀에게 붙어 있지 않았는데 차라리 그 옆에 가 있을까."

혼자 생각에 빠져 계시느라 내 얼굴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잉겐스 님이 아길리스의 알몸을 몰래 훔쳐보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잖아요."

무슨 상상을 하시는지 알 것 같다. 하얀 몸이라 빨개지는 게 너무 쉽게 보였다.

"너는 역시 티티다!"

그 말씀만 남기고 투명화 마법을 펼치신 채 사라져 버리셨다. 같이 고민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침실로 돌아왔다.

다음 날 왕비 전하께서 연락을 주셨다. 같이 왕세자 병문안을 가지 않겠냐고 물어오셨다. 너무 싫었지만 왕비님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따라나섰다.

놈은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앓는 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는 걸 보니 타격이 제대로 갔나 보다.

"왕세자, 괜찮으시오?"

왕비 전하의 물음에 대답도 못 하고 끙끙거리다 반쯤 뜬 눈으로 나를 보더니 기겁했다.

"귀신, 귀신 붙은 년!"

무슨 저런 망발을. 왕비 전하도 깜짝 놀라서 놈을 말리셨다.

"이 어여쁜 사람에게 그 무슨 미안한 소리요. 어의, 왕세자의 상태가 심각한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송구하지만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머리의 상처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환각도 계속 보시는 듯하고 시력도 많이 감퇴하셨습니다."

"시력이? 그럼 어쩌나!"

왕비 전하도 기겁하셨지만 나도 놀랐다. 날마다 여자를 바꿔가며 과격한 잠자리를 즐긴다기에 체력이 좋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허약했다.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의원의 말이 이어졌다.

"시력 문제는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네. 그럼 안정을 취해야 할 테니 우리는 이만 가보겠네."

놈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의원이나 루나 궁의 시중인들이 다들 살얼음을 걷는 듯 긴장한 상태였다.

"저 새끼가 제 몸이 안 좋다고 패악질을 부리나 보다. 다들 시중들 때 말고는 옆에 가기를 꺼린단다."

잉겐스 님이 밝은 귀로 그들의 수군거림을 놓치지 않으셨다. 옳다구나. 왕비 전하와도 헤어지고 릴리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아길리스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그녀가 출동했다.

잉겐스 님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따라가셨지만 아길리스가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 기다렸다. 싱케루스는 마침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루베르로 가느라 오늘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초조한 감이 있었다.

마침내 테라스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얼른 창문을 열었다.

까만 암행 옷을 입고 눈을 가린 두건까지 쓴 사람이 응접실로 들어섰다. 나와 눈을 마주치자 두건을 벗어버린 아길리스가 씽긋,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휴, 십 년 감수한 기분이었다.

"잘 다녀와서 다행이야. 괜찮았어?"

"응. 네 말대로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약을 먹고 잠들었는지 깰 기미가 없어서 일단 몸부터 묶고 입도 틀어막은 뒤 그냥 흔들어 깨웠어."

"그래서?"

"나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다 안 되니까 비명을 지르려고 하잖아. 입을 막았어도 소리가 샐 염려가 있어서 냅다 뺨을 갈겨줬어. 겁먹고 찍소리도 못하더라."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오래간만이었다. 내가 재촉하자 더 신이 났는지 아길리스가 소리를 죽인 와중에도 흥분한 기운이 넘쳤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더라고. 우리도 그놈이 환각을 보는 걸 이용해서 짠 계획이잖아.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만져지냐고 혼자 중얼거리더니 나더러 어디서 보내서 온 누구냐는 거야.

입 다물고 있었는데 적이 많은가 보더라. 여러 이름이 나와서 다 외워왔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혼자 눈물을 질질 흘리는 것도 모자라 아래로도 실금하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는 게 보이더라. 더러워서 참느라 혼났다."

한 번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어서 말했다.

"닿기도 싫었지만 구두 굽으로 놈의 거시기를 꽈악 꽈악 몇 번이나 지르밟아줬어. 터뜨리려다 그럼 너무 티 날 것 같아서 그것까진 안 하고 한동안 기능만 못 쓰도록 만들어줬지.

마지막으로 머리를 벽에 크게 박아줬어. 자기가 자해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묶었던 것 다 풀고 침대에 원상태로 눕혀 놓고 왔어."

손뼉을 쳤다. 절로 나온 행동이었다.

"내일 궁내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고 괜찮다 싶으면 몇 번 더 해주려고. 아주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야."

나도 해보고 싶다. 잉겐스 님께 혹시 놈에게 몰래 가서 아길리스처럼 하고 오면 안 되냐고 여쭤봤다.

"안 될 게 뭐 있겠냐. 당분간은 그 새끼 말을 믿든 안 믿든 경계가 삼엄해질 수 있으니 안 될 테고, 기회를 봐서 한 번 가보자꾸나. 너야말로 그놈에게 맺힌 게 한둘이 아니잖느냐. 맺힌 건 풀어야지 아니면 화병 나느니라."

역시 우리 잉겐스 님. 아버지가 하듯 엄지손가락을 척 올려드렸다.

"오, 고맙다. 그 표현 맘에 딱 드네."

아길리스가 자기에게 한 것인 줄 알고 내 엄지손가락을 잡고 좋아했다. 그래, 뭐 겸사겸사한 것으로 치자. 아길리스에게도 또 엄지를 들어 보였다.

다음 날 점잖은 엔리케마저 흥분해서 찾아왔다. 왕세자에 대한 새로운 소문이 왕궁 내에 쫙 퍼졌단다. 환각을 보다 못해 자해해서 다친 머리가 또 깨지고 거시기까지 터졌다는 거다.

그녀가 나간 후 들어온 아길리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일부러 터뜨리진 않았는데. 내가 평소보다 힘 조절을 못 했나 보다."

잉겐스 님이 그놈 고소하다고 통쾌하게 웃으셨다. 나도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소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잘 난 것 같았다.

그때 응접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왕세자가 들어왔다. 경황이 없어 멀뚱히 보고만 있자 그가 희번덕한 눈으로 아길리스를 보며 외쳤다.

"저년이다! 저년을 어서 체포해라!"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가, 끌고 온 무리에게 그녀를 잡아들일 것을 지시했다. 나는 황급히 그 앞을 막아섰다. 뒤늦게 들어온 릴리 궁의 시녀들이 나를 붙잡고 말렸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너도 한편이지? 귀신 붙은 년! 멀쩡하던 내가 헛것을 볼 때부터 이상했어! 뭣하냐, 데수르고 년을 치우고 저년을 묶지 않고!"

아길리스는 멈칫했지만 나를 보더니 순순히 그들이 하는 대로 따랐다.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지. 그녀에게 뒷손질로 도망가라는 뜻을 보내면서 다른 손으로 병사들을 쳐내며 막았다.

내가 그러고 있으니 병사들이 멈칫거리자 세베루스 백작이 나섰다. 병사들이 나를 막고 선 사이 그가 아길리스의 팔을 잡고 끌었다.

"어서 저년의 장갑을 벗겨내 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들통난 줄 알았다.

아길리스는 검술 훈련을 심하게 하느라 손이 온통 칼에 베인 자국 투성이었다. 어릴 때 재능이 없어 그랬다며, 자신이 천재가 아닌 악바리 근성으로 노력한 인재란 증거라고 자랑스레 내보이던 흉터들이었다.

그러나 왕궁까지 따라오는 시녀의 손이 그래서는 안 됐다. 그래서 그 손을 가리기 위해 늘 흰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내가 어제 희미한 눈으로도 저년의 몸매는 제대로 봤다. 여기에서 봐 두었던 몸이 확실했지. 네년 손에 난 칼자국들도 똑똑히 확인해놓았어. 자, 어떠냐! 손이 흉터로 형편없지?"

강한 집착마저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이제 다 들킨 건가. 다리 힘이 풀려 넘어지려는데 다른 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없습니다! 이 여자의 손에 아무런 자국도 없습니다!"

한 병사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아길리스의 손을 확인하고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왕자가 정말 미친 거라는 웅성거림이 커지자 나도, 놈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뭐라고? 그럴 리 없다! 어디 보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놈이 악에 받친 듯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고 아길리스의 손을 들었을 때, 나도 같이 그녀의 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깨끗했다. 시녀 중에서도 고위 귀족들의 전속 시녀들이나 그런 것처럼 뽀얗고 보송보송해 보이기까지 하는 손이었다.

"이럴 수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정말 착각을 한 거라고?!"

제대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그때 또 갑자기 놈이 소리 질렀다.

"아니야!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놈은 버릇인 것 같았다. 또 바짓가랑이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잉겐스 님이 힘을 쓰셨나 보다. 놈이 팔을 휘저어 앞을 치다 병사의 머리를 때리든, 제 머리를 움켜잡고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든 말든 나는 어서 정신을 수습했다.

"뭣들 하는가! 왕세자 저하를 어서 루나 궁으로 모셔가게!"

허둥거리는 병사들을 보며 명령했다. 릴리 궁의 시녀들이 그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지켜만 보고 있던 세베루스 백작이 아랫사람들을 부려 놈을 데려가도록 했다.

놈은 드디어 정신을 놓은 듯 힘없이 그들에게 이끌려 갔다. 그 모습을 말없이 보고만 있던 백작이 내게로 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하께서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백작에게 차갑게 대꾸했다.

"이렇게 얼렁뚱땅 사과를 받고 넘어갈 생각은 없소. 그리고 나 말고 따로 사과할 사람이 더 있지 않소?"

그 말에 백작이 아길리스를 쳐다봤다. 그녀는 새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손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안하오. 내가 신중하지 못한 결과 그대에게 무례한 짓을 하고 말았소. 용서해 주시오."

"누구 마음대로 용서를 하라 말라 강요하시는 거요. 그만 가보시오."

대답도 못 하고 서 있는 아길리스 대신 백작에게 일갈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백작도 나가버렸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같았다. 순식간에 지친 몸으로 의자에 주저앉자 아길리스가 고개를 들었다.

"리벤티아, 왜..."

"응? 너도 좀 앉아서 쉬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기운 빠진 목소리로 그녀에게 앉으라 손짓했다. 피로감이 몰려와 의자에 머리를 댄 채 기댔다. 눈을 감고 있으려니 아길리스가 떨리는 소리로 말을 꺼냈다.

"오늘은 그만 내 방으로 돌아가 볼게. 내일 이야기하자."

눈을 뜨고 방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나보다 더 놀랐겠지. 잉겐스 님께 그녀를 따라가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아까부터 아무 말씀 없으시던 잉겐스 님은 알겠다는 대답만 남기시고 그녀를 뒤따라 가신 듯했다. 만사 귀찮게 느껴졌다. 놈을 잘 처리했다는 것도 뒤늦게 인지했다.

저놈이 이 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좋겠다. 더 바랄 것은 많지만 우선 그걸 바라고 누웠다. 내일 들려올 소식을 기대하면서.

기대했던 것처럼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놈이 미쳤다는 이야기로 궐 안이 들썩들썩한다는 것이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말을 아끼는 엔리케의 옆에서 스텔라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제 루나 궁으로 돌아간 후 왕자 놈이 시시때때로 발작을 일으켰단다.

방 안의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시중인들이나 의원들의 머리채까지 잡아 뜯고 휘둘러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데다 그들을 짓밟고 때리기까지 해 나중에는 그의 옆으로 가려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급하게 달려온 국왕에게마저 난동을 부리다 결국 부친의 명령으로 침대에 꽁꽁 묶인 채 누워만 있어야 했단다. 그리고 국왕의 분노는 페르도에게 향했다.

놈이 기가 허해져서 환각을 보게 됐는데 그게 다 여자를 너무 가까이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놈에게 여자를 대령했던 걸 꼬투리 삼아 페르도에게 크게 호통쳤다는데 그걸 못 견딘 페르도는 국왕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단다.

아직 독이 덜 가라앉아 군데군데 물집이 잡히고 벌건 얼굴로 열을 내서 울다 보니 페르도의 얼굴은 더 엉망이 되었다고 한다.

제 화를 못 이겨 자기 얼굴 상태도 잊어버리고 벅벅 긁다 다시 고름이 터지고 그러면 또 더 큰 울음이 터지고. 그녀의 입지가 강해짐에 따라 그 옆에 붙어있었던 궁인들도 그런 모습을 그다지 동정했던 건 아니었나 보다.

워낙 떠들썩하게 벌어진 일이라 목격한 궁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몰랐을 일이 이른 시간 안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국왕이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함구령을 내렸지만 늦었다.

발이나 입이 빠른 자가 이미 신나게 소식을 퍼뜨린 후였다. 발보다 말이 빠르다는 것을 나도 이번 기회에 실감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 없었다. 페르도의 얘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쾌감을 느꼈다.

다른 이들이 얼마만큼 내 반대편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다. 누가 시작이었고, 누가 가장 크게 관여하고 있는지 아직 내가 알 길은 없다.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한다.

내 생각에 제일 원흉은 국왕 놈이었다. 그다음이 그의 아들놈이었고. 물론 푸르스의 노벨 부녀도, 레푸스란 놈도, 마레인 왕족 놈들도 다 전생의 핏값을 완벽히 치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대가를 짊어져야 할 놈은 누가 뭐래도 국왕 부자였다. 그러니 오늘의 반가운 소식을 오래오래 잊지 않을 것이다. 복수가 다 끝난 후에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기쁨을 기억하고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않겠다.

비록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룰 것은 아니다.

루베르에서 아버지와 동료들, 부하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이곳에서는 잉겐스 님부터 시작해 싱케루스와 아길리스 등 많은 이들이 도와주고 있다. 아스트룸도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있다.

모두 전생에 함께 피를 흘렸던 이들이다. 그러니 나만의 복수를 하겠다 고집부리지 않는 거다. 그들 모두 이놈들에게 원한을 풀 이유가 있다.

가슴을 짓누르던 여러 개의 흉터 중 한두 개가 아문 것 같았다.

그날의 아침은 머리를 풀고 궁을 뛰어다니고 싶을 만큼 마음껏 울고 싶기도, 웃고 싶기도 했다.

왕세자에 대한 정확한 소식은 잉겐스 님께서 들려주셨다. 궁 여기저기를 다니며 소식을 가져오셨다.

어제 아침 들었던, 그의 거시기가 터졌다는 소문은 과장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은 맞았는데 그 몸을 해서는 릴리 궁으로 왔던 거다.

어기적어기적 둔하게나마 걷고 있기에 소문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최후의 발악이었던 것 같다.

오기였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와서는 아길리스를 잡아가려고 했었지. 그게 실패하고 오히려 본인이 오욕을 뒤집어쓰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한다.

의원이 안정할 것을 신신당부했는데도 여기 오느라 억지로 움직이고, 돌아가서도 행패를 부리느라 몸을 더 쓰는 바람에 더 악화할 수 없을 만큼 나빠졌단다.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그랬는지 시력은 거의 상실 위기란다. 게다가 그의 거시기는 결국 불능 판정을 받았다. 누가 퍼뜨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이 궁내 가득 퍼지면서 지금 궐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했다.

유일한 왕위 후계자가 앞도, 후손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당연하다. 오죽하면 그의 숨겨진 아이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단다.

내가 알기로 페르도가 그런 일에는 철저했다. 그러니 창녀들에게는 아이를 남길 여지가 없었다. 모이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로 그녀의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지금 그녀의 배 속에라도 아이가 있길 바라는 이들이 왜 없겠나.

모이카의 마음은 지금쯤 걱정이나 불안으로 채워져 있을까, 아니면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까. 잠시라도 즐길 테면 즐겨라. 곧 그 마음을 뿌리째 터뜨려주리라.

"조용한 곳에서 너에 대한 동정론도 일어나고 있다."

"저는 왜요?"

"그놈이 더럽게 논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네가 변태 바람둥이랑 결혼하게 됐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데다 병사들에게 너를 강제로 붙들고 있게 하고, 네 시녀인 아길리스의 장갑도 강제로 벗기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놈이 너를 핍박하는 거로 보였겠지.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주로 궁에서 하급 관료로서 실무를 맡은 하급 귀족들이나 시중인들 사이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단다. 고위 귀족들보다 힘은 떨어져도 숫자로 따지면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나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었다.

"아직 결혼도 전인데 막장 변태를 남편으로 맞을 것도 모자라 그가 고자라니. 국왕 부자가 데수르고에 대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너를 불쌍하게 보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맞는 말이네요.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요."

"그렇지. 점점 놈들의 실체를 깨닫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싸움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구나."

잉겐스 님께서 이야기를 끝내시고 머리를 바닥에 댄 채 눈을 감고 누우셨다.

"피곤하세요?"

"어제 아길리스 방 앞에서 밤을 새웠거든."

"방에는 못 들어가셨군요. 밤에 추웠을 텐데 차라리 여기로 오시지 그랬어요."

"좀 걱정돼서. 조금만 자다 일어나야겠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지만 말씀하시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편히 주무시라고 바로 응접실을 빠져나왔다.

오늘 아길리스에게 일을 쉬게 할 것을 지시했었다. 그녀가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것이려니 했다.

어제 많이 놀랐을 거다. 더욱이 궁에 들어와서 거의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느라 피곤했을 테다. 오늘은 늦잠을 자도록 내버려 둬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 있어도 계속 바빴다.

왕세자의 일로 상심이 크셨을 왕비 전하를 방문해 위로해드렸다. 어쨌든 놈이 그분의 아들인 탓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테니 전하를 생각해서 찾아뵈었다.

왕비께서는 당신의 아픔보다는 나를 걱정해주셨다.

왕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으니 희망을 품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다. 그러시며 그래도 내가 루베르로 돌아가고 싶다면 전하께서 도와주겠노라 말씀하셨다.

여전히 국왕 부자의 음모를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나중에 당신 가족의 민낯을 속속들이 알게 됐을 때 혹여나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순간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마지막 날 그분의 시녀장이 나를 탈출시킬 때 전하께서는 목숨을 거셨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라벤더 궁이 불타고 있었다. 혹시 전하께서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당장 보이는 일들만 생각하자.

릴리 궁에 돌아와서는 브래드와의 소송전을 준비했다.

전생의 일을 겪은 탓인지 귀족에 대해 별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싱케루스가 소개해 준 평민 변호사와 몰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소송 자료를 살폈다.

왕실 법정에는 귀족 변호사만 입장할 수 있기에 나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 들어서야 한다.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사라질라치면 증언을 약속해 준 친구들과 잉겐스 님, 그리고 나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싱을 떠올렸다.

배석 재판관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장인 국왕의 의견과는 달리 대체로 그들의 판단은 공정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에 승리를 믿고 노력했다.

서류를 보며 참고 법령집을 찾아보고 필요한 조문을 외우면서 과거에는 브래드를 너무 쉽게 놓아줬다는 후회도 있었다. 이번에는 순순히 빠져나가게 두지 않겠다. 굳은 다짐으로 더 준비에 몰두했다.

밖이 어두워진 것도 몰랐다. 침실 테라스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몇 시간 만에 고개를 든 것 같았다.

싱이 와 있었다. 창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얼굴에 그날따라 유독 더 기쁘고 안도감이 들었다. 그를 방 안으로 들이자마자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크게 숨을 들이켰다.

우리 싱의 냄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

왜 그랬을까. 눈물이 몇 방울 흘러나왔다. 내 눈물에 나도 놀랐지만 싱이 더 놀란 듯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우리 리리를 울린 겁니까?"

어떤 놈인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더니 내가 놀란 것처럼 보이자 대번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애타게 물어보는 그의 눈동자를 말없이 바라봤다. 애정과 염려와 온기로 가득한 그 눈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다.

그의 셔츠를 잡아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었다. 발꿈치를 들고 그의 눈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그러자 눈을 감고 내가 하는 것을 받아주던 싱케루스가 나를 안고 토닥여주었다.

"왕세자 때문에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리리의 고운 마음에 그런 놈을 상대하신 것조차 생채기를 낸 것이겠죠."

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더 파묻었다.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와 내가 가만히 체온을 나누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적당히 따뜻해졌다고 느꼈을 때 고개를 들었다. 내 말에 그가 생긋 웃어주었다.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랐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야. 싱글벙글하고 있으려니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새 또 시작한 거냐. 잠깐 한눈도 못 팔겠군."

"으악. 죄송해요."

"뭘 새삼스레 놀라느냐. 꼭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계셨어요?"

"응접실에서 계속 눈을 붙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싱케루스를 데리고 응접실로 오너라. 아길리스도 함께 부르도록 하고."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았다. 우선 밖으로 나가 시녀를 시켜 아길리스를 응접실로 부르고 다른 이들은 근처의 출입을 삼가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싱을 데리고 갔다.

우리 셋과 투명화 상태의 잉겐스 님까지 다 모였을 때 대화의 문을 연 것은 아길리스였다.

"밤잠도 못 자고 오늘도 종일 고민만 했어. 리벤티아, 너는 혹시 마법사야?"

나보고 마법사라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아길리스에게 되물으려 했다.

"아길리스, 그 얘기는 리리가 말하기 전까지 기다리기로 했잖아."

응? 싱까지?

"저기, 나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사람?"

"어제 장갑이 벗겨졌을 때 내 손은 깨끗했어. 나만 본 게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본 거야. 이게 마법이 아니면 뭐겠어?"

음. 시끄러운 일을 겪는 바람에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 되려나. 그러기에는 두 사람의 태도가 찜찜했다.

"내가 마법사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길리스가 오래 고민할 만큼 심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싱의 말은 무슨 얘기인데? 뭘 기다리겠다는 거야?"

둘을 번갈아 보며 하는 말에 싱이 작게 한숨을 쉬더니 나섰다.

"제가 당신을 찾아올 때마다 늘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아길리스와 함께 왔으니 그녀가 더 경계를 강하게 서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아길리스 말이,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노력한 이상으로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마치 마법으로 저희가 있는 공간에 결계를 쳐 소리를 다 막아버린 것처럼요.

둘이 함께 생각해본 끝에 당신이 마법사가 아닐까 추측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죠. 저희의 전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굳이 알리려 하시지 않는 일을 저희가 먼저 여쭐 필요는 없으니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필요가 있어서라는 거예요?"

"필요라기보다는..."

"그건 내가 설명할게."

듣고 있던 아길리스가 착잡한 얼굴로 이어받았다.

"아직 내 실력이 좋지 못할 때 아스트룸에 들어온 의뢰를 받고 나간 적이 있었어. 의뢰인이 마법사였는데 어린아이를 원했거든.

힘들지 않은 일이라고 그가 못을 박았어. 의뢰비도 넉넉하게 책정해서 선불로 보냈고. 마법사와 연이 닿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 그동안 거래 실적도 나쁘지 않은 자라 조직에서도 안심하고 나를 보냈지. 그런 자와의 선은 계속 유지해두는 게 유리하니까."

그쯤에서 아길리스는 떨리는 손을 잡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짓말이었어. 새로 개발한 걸 실험하려 의뢰를 넣은 것이었는데... 그게 소 폭탄이었거든. 인제 와서 생각하니까 마법사보다는 연금술사에 가까웠으려나.

아무튼 그놈이 내 몸 여기저기 작은 폭탄을 터뜨려 실험을 할 때마다 이곳저곳 남아나는 곳이 없었어. 실력은 좋은 놈이었는지 팔다리나 살점이 잘리고 터져나갈 때마다 마법으로 새살을 돋게 해 주더라. 그런 식으로 장장 일주일을 당했고.

놈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의뢰비가 절대 넉넉한 게 아니었지.

그놈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잘 견딜 줄 몰랐대. 그래서 준비해둔 식량이 떨어졌던 거야.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며 웃던 놈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난다.

놈이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한 틈에 겨우 도망쳤어. 그나마 다행인 게 놈이 나를 치료해주고 나갔거든."

늘 웃고 있던 아길리스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하자 싱케루스가 대신 받았다.

"조직원들이 모두 분노해서 단체로 찾아갔을 때 이미 실험실은 텅 빈 채였습니다. 우리가 올 줄 알고 줄행랑을 친 거겠죠. 그 후 놈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길리스는 그때 이후로... 옆에서 보기에 미쳤다 싶을 만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닌 이상 흉터로 남을지언정 절대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할 수 없었어. 그때 기억이 잊히질 않아서... 누가 내 상처에 손을 댄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거기까지 말을 마친 아길리스가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제 일을 정말 네가 한 거라면, 다 나를 위해 한 것이었을 테니 원망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고맙다고 할 거야. 그래도 나에게 마법을 쓴 거라면, 후에라도 네가 나에게 말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마법을 쓴 것인지 알고 싶어."

"그랬구나. 그런 사정도 모르고 네 맘을 몰라줘서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내가 마법사인 척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 같지만 그러면 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하지 않는 것과 거짓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해결하마."

지금까지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잉겐스 님이 말씀하시자마자 탁자 위로 하얀 도마뱀의 형체가 드러났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싱케루스였다.

"여기 웬 도마뱀이?"

그의 얼굴이 하얘진다 싶더니 슬금슬금 내게로 붙어왔다.

"내가 처리할게."

눈이 부은 채 싱케루스를 한심한 듯 쳐다본 뒤 아길리스가 도마뱀의 꼬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었다. 서둘러 말리려는데 잉겐스 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나는 일개 도마뱀 따위가 아니다."

"어어? 도마뱀이 말을 해!"

싱케루스가 이제 아예 내 등 뒤로 바짝 달라붙었다.

"아길리스, 내 꼬리를 놓아주지 않겠느냐?"

얼른 그녀가 다시 탁자 위로 내려주자 잉겐스 님이 꼬리를 몇 번 탁탁 치셨다. 몸체가 불그스름해진 게 설마 아길리스의 손길이 닿았다고 저러시는 건 아니겠지.

"리벤티아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마법을 걸었다. 아길리스, 네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서 미안하구나."

"... 아닙니다. 저, 정말 도마뱀 님이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래, 엄밀히 말하자면 도마뱀이 아니지만."

잉겐스 님의 말씀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보이는 것은 도마뱀인데 도마뱀이 도마뱀을 도마뱀이 아니라 하니 도마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하겠다.

"사실 도마뱀의 진짜 정체는 드래곤이셔. 우리 루베르의 전설에 등장하는 그 드래곤 님."

내 말에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해 있던 두 사람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리벤티아 네가 장난치고 있는 거 아냐?"

"아니, 우리 리리가 이런 장난을 할 리 없어. 그렇지만 그건 전설일 뿐이잖습니까."

"장난도 아니고, 전설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도 아니다. 아길리스, 늦었지만 너에게 사과할 것이 더 있구나."

말씀과 함께 잉겐스 님께서 변신하셨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길리스의 손이 발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싱케루스는 아까와는 달리 잉겐스 님께 가까이 가보고 있었다.

"잉겐스 님?"

그의 말에 잉겐스 님께서 고개를 주억이셨다.

"그럼, 네가 존대까지 하면서 극진히 모셨던 건 잉겐스 님이 드래곤이셔서 그랬던 거야? 정말?"

아길리스가 확인하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해주었다. 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말하자 그녀는 입술을 한 번 깨물고 나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잉겐스 님께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가 잉겐스 님의 뺨에 손을 살짝 대보았다. 잉겐스 님은 얼굴이 붉어졌을 뿐 다른 움직임이 없으셨다. 다음에는 그분의 팔을 만져보더니 손을 잡았다. 꼬물꼬물 한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던 아길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맞아. 며칠밖에 보진 못했지만 내가 아주 예뻐했던 아이의 손이야. 정말 그 아이가 드래곤이고, 아까 그 도마뱀이라고요?"

"흠, 도마뱀이라는 소리는 달갑지 않구나. 어쨌든 너를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지금의 모습으로밖에 지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단다."

초조함이 물씬 느껴졌다. 그런 잉겐스 님을 보고 있던 아길리스가 와락, 그분을 껴안았다.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이제 다 알겠어요. 이렇게 귀여운 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라니, 와! 너무 대단해요!"

이 반응이 의외이기는 나나 잉겐스 님이나 같은 모양이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잉겐스 님이 재차 확인하셨다.

"너를 속였던 건 괜찮은 거냐?"

"어쩔 수 없으셨다면서요. 그러고 보면 그동안 남모르게 저희를 도와주신 거군요. 그리고 리벤티아 옆에 계신 분이니 좋은 분이겠죠. 그렇지 않냐, 싱케루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리가 소개해 준 분인데 당연히 좋은 분이고, 사정이 있으셨을 게 틀림없습니다."

싱이 잉겐스 님께 손을 내밀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잉겐스 님의 한 손을 잡고 싱이 흔들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회할 줄은 몰랐지만 이곳에 이렇게 든든한 분이 리리와 아길리스와 함께 계셔주셔서 안심입니다."

아휴, 이 사람들은 잉겐스 님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해심이 많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잉겐스 님을 안고 있는 아길리스와, 악수를 하고 있는 싱. 셋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팔을 벌려 한꺼번에 다 끌어안았다.

"다행이야. 그리고 다들 고마워요."

그러자 서로서로 다시 옆에 있던 이들을 껴안았다. 넷이 한 몸이 된 듯 따뜻하고 든든했다.

감동의 순간이 지나자 이내 조그마한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길리스에게서 시작되어 이내 다들 큰소리로 웃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 잉겐스 님의 말투에서 노티가 났다든가, 그럼 아이인 모습도 진짜가 아니냐는 말부터, 궁금증들이 많은지 여러 말이 오고 갔다.

각자 제자리에 앉은 후에도 잉겐스 님은 아길리스의 품에 계속 안겨 계셨다. 연세가 아주 많으시다는 말씀만 하시고 구체적인 건 가르쳐주지 않으시니 아길리스도 별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다.

루베르에서 그랬던 것처럼 둘이서만 즐거운 세상에 빠진 듯했다. 아길리스에게 당신의 감정까지는 밝히지 않으셨으니 일단은 귀여운 조카를 안고 있는... 우리 드래곤 님을 위해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다.

이번에는 나도 우리 싱이 옆에 있어서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들을 흐뭇하게 보고 있던 싱에게 조그맣게 속삭였다.

"싱, 도마뱀이 무서워요?"

흠칫하는 게 닿은 몸으로 전해졌다.

"많이는 아니고요. 파충류를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방금 말하면서도 설핏 질린 기색이 지나간 것 같았는데. 뭐, 어때. 내 남자도 약점 하나쯤은 있어야겠지. 너무 완벽한 사람은 숨 막히기에 십상이다. 모른 척하고 싱의 볼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에게 숨기느라 잉겐스 님이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절대 두 사람을 기만하려던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당신의 비밀마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밀이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당신만 제 곁에 계셔주신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음. 조만간 회귀 사실도 말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얼굴이 어땠는지 싱케루스가 긴장한 얼굴을 했다.

"마치 세상의 커다란 비밀을 또 알고 계신 표정이군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요?"

"아뇨, 당신이 홀로 지고 있을 짐이 클까 봐 걱정이라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 전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도마뱀은 무서워하지만 다른 건 거뜬히 해내는 내 연인. 그를 꼭 끌어안으며 잉겐스 님과 눈이 마주쳤다.

찡긋.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 주겠다는 냥 눈을 깜빡이시더니 그분도 나처럼 아길리스의 팔을 꼭 끌어안으셨다.

아버지와 나만 알고 있던 잉겐스 님의 비밀이 두 사람에게 들킨 날 밤, 잊지 않고 싱케루스에게 세베루스 백작에 관해 물어보았다.

싱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백작이 왕세자의 호위로 옆에 있던 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공작한 것의 간접적 결과였다.

"그러니까 왕세자의 추문이 퍼져나가면서 귀족 사회에서 말이 많았고, 장차 국왕으로 모실 자의 자격을 더 엄정히 갖추도록 보호 겸 감시의 명목으로 귀족들이 요청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은 요청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추천의 형식을 띤 강요였습니다."

"세베루스 후작이 왜 그런 망나니에게 아들을 붙여주었나 했더니 한편이 된 것은 아니었네요."

"후작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엄격하고 강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알아보니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만큼 다른 귀족들이 어려워하면서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죠.

그 아들인 세베루스 백작도 그런 부친을 존경해서 닮고 싶어 안달이 난 인물입니다. 본인은 어수룩한 면이 많은 것 같지만 부친의 명성에 흠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백작을 뽑아 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눈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왕세자의 뜻을 막기에 더 쉬울 것이라 봤답니다.

그런 자를 옆에 두고 있으니 왕세자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궁 밖 출입도 그 때문에 뜸해졌었다고 합니다. 백작이 왕세자의 행동반경을 많이 줄여놓았고 그 반작용으로 아길리스에게 더 눈독을 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베루스 후작은 왕실 법원의 재판관이기도 하기에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다. 싱의 말을 들으니 그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았다.

조금씩 국왕의 목줄을 죄어가자던 전략이 빛을 보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에게 비밀을 들킨 것도 전화위복이 되었다. 복수를 완성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국왕에게 호출이 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 모이카의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는 것이었다.

"짐이 너에게 이런 말을 하기 미안하다만 네가 그 아이의 전시회장에 모습을 드러내 준다면 가네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겠느냐."

저자는 저렇게 뻔뻔스러운 놈이었지. 미안한 척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들어줄 것이라 확신하는 눈치였다.

만약 저들의 음모를 몰랐다면 아마 마지못해 그 말을 따랐을 것이다. 예비 왕세자빈으로서 왕실의 안녕과 남편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 애썼겠지

남편 될 자의 추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의 정부가 여는 전시회장에 등장하는 것. 나에 대한 조롱과 멸시, 동정쯤이야 무시하고 장차 왕이 될 이의 앞날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내 된 자의 도리라 여겼을 거다.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받았으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그런 나를 깨트렸다. 이제 와 감사의 마음은 갖지 않는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만큼 내 상처가 너무 컸다.

가만히 듣고만 있자 국왕이 안달 나는 목소리로 재촉했다.

"가네오가 심한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곳에 그 아이를 빛내줄 그림도 전시된다고 하니 기운도 북돋아 줄 겸 네가 함께 가주지 않으련?"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려는 정성이 갸륵해서 예의 바르게 답해주었다.

"소문이 워낙 지저분하게 퍼져서 제가 그런 곳에 가면 다들 뒤에서 저를 천치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아니야. 남편 될 자를 깍듯이 모시는 갸륵한 마음씨를 칭찬할 것이다. 내 말이 맞을 테니 두고 보려무나."

두고 보자는 사람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넘어갈 듯한 내색을 하자 국왕의 몸이 더 앞으로 나와 내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쉽게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다른 귀족들에게 쉬운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 같습니다."

"그럼 쉽지 않은 인상이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말입니까?"

"네가 왕세자와 처음으로 동반 참석하는 자리이다. 내 너를 위해 귀한 보석을 잔뜩 내려줄 것이니 그것들로 몸을 치장하고 나가거라.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아이를 누가 쉽게 볼 수 있겠느냐?"

꼬드기는 솜씨가 그럴듯했다. 그래도 고민하는 표정을 짓자 마지막으로 인심 쓴다는 듯 국왕이 은근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페르도에게 주었던 땅이 조금 있는데 그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나. 다녀오면 네 앞으로 돌려놓겠다."

"그녀에게 주셨던 걸 빼앗아 저한테 주실 수 있다면, 다시 다른 이에게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 말에 불쾌한 낯빛도 잠시, 나를 설득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끝까지 관대한 척이었다.

"그럼 지금 바로 땅을 네 명의로 돌려놓겠다. 처리 즉시 너에게 알려줄 터이니 부디 어서 확답을 주려무나."

"전하의 넓으신 아량에 깊이 탄복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주신다면 들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죠. 전시회에 세자 저하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내가 간다니 준 게 아까워졌는지 떨떠름한 표정이 나오려 하기에 얼른 자리를 떴다. 그가 딴말하면 나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만 더 대면하고 있기 역겨웠다.

아쉬움이 남는 표정을 모른 척하고 헬리오스 궁을 나섰다.

"네 편도 아닌 이들이 한낱 흥밋거리만 찾아 잔뜩 모여들었을 텐데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겠느냐?"

"그런 것 다 따지다가 뭘 제대로 하겠어요.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잉겐스 님도 계시잖아요."

"티티야, 용감한 것은 좋다만 네 마음이 받을 상처를 너무 무시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티티라는 말씀에 불만이 비죽이 솟아올랐다가 뒤이은 말씀에 마음이 풀렸다. 쉬운 마음이라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었다. 릴리 궁에 도착하자 아길리스가 활짝 웃는 얼굴로 앞에서 맞아주었다.

넷이 비밀을 공유한 이후로 그녀가 더 밝아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마법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할 연습도 해보겠다니 그녀의 의지가 아름다웠다.

잉겐스 님이 건강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드래곤의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아길리스와 함께 하면서 상처에 함몰되지 않는 법이나 건강한 마음을 갖는 법에 대해 나도 더 깊이 생각해볼 참이었다.

"아길리스를 알게 되었으니 제가 뒤늦게 인복이 많네요."

"걔는 네 복이기도 하고 내 복이기도 하지."

우리 잉겐스 님 수줍으시구나. 자랑스러운 듯하시면서도 목소리가 살포시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해드렸다.

엔리케에게 모레 모이카의 전시회장에 왕세자와 함께 다녀올 것이라 일러두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내비쳤지만 능숙한 시녀답게 그녀는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단단히 채비를 해두겠다고 말하며 물러갔다.

아길리스를 응접실에 불러 같은 말을 해주었더니 그녀가 대번에 흥분했다.

"아니!"

"잠깐만, 아길리스. 언제 어디서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는 항상 전음으로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자."

"아무리 해봐도 신기하네. 알았어. 그래, 왕이란 놈은 너무 하는 것 아냐?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까지 시킨다니!"

"그만큼 많이 뜯어냈잖아. 그렇게 위안으로 삼을래. 이제 그런 게 나한테 타격이나 악영향을 줄 수도 없고. 어차피 가보려고 했었잖아. 표정을 잘 감추려 더 노력만 하면 되는 거야."

잉겐스 님이 방 전체에 방음 마법을 걸어주시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늘 머릿속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두었다.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해서 이런 면으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아길리스는 전날 맛보기만 한 것 외에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데 서툴러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어색해하면서도 마법으로 말하는 데 흥미를 느끼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들떠있었다.

잉겐스 님을 보는 표정이 귀여운 도련님을 보는 것에서 능력자 도련님을 보는 쪽으로 바뀐 듯했다. 아직 도련님에 머무르고 있지만 잉겐스 님은 그래도 좋아하셨다. 아길리스가 대단한 마법이라고 한마디씩 할 때마다 흥겨우신 듯 몸을 살짝씩 흔들어주셨다.

처음 계획은 잉겐스 님과 둘이서만 몰래 전시회장에 가보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공식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왕세자 놈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아길리스를 그 옆에 데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잉겐스 님과 몸을 감춘 채 함께하기로 했다.

그날 밤 찾아온 싱케루스의 생각도 같았다. 자신도 투명화 마법을 써서 따라가고 싶다는 말에 결국 우리 넷이 함께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리가 관여한 결과일까. 전시회 날짜가 예전보다 앞당겨졌다. 왕세자의 추락한 위신을 세우려는 방법으로 하필 그런 자리를 점찍은 국왕의 안목이 웃겼다. 대신 우리가 손쓴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리라.

전생에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끝내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다. 이번에는 미리 해둔 일이 있어서 그만큼 기대되고 기다려졌다. 그날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나 궁금했다.

전시회 당일 루나 궁 앞에서 마주한 왕세자의 몰골은 반송장과 같았다. 이날을 위해 급조했는지 그를 위해 깎은 듯한 나무 의자에는 바퀴를 달아 뒤에서 시종이 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 위 고개를 기댄 채 담요에 싸여 있는 모습에 이대로 바깥에 내보내도 될까 나마저 염려할 뻔했다. 국왕이 생각보다 머리가 아주 나쁜가. 그렇다면 저렇게 머리 나쁜 인간에게 당한 우리는...

아니다. 그만큼 멍청하니 우리 같은 우군을 배신한 것이지. 사정이야 어떻든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은 달라지지 않는다.

담요 아래 얼핏 보인 왕세자의 몸은 의자에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았다. 흐리멍덩하게 풀린 눈으로 나를 힐끗 보더니 부르르 몸을 떨었다. 또 귀신 붙었다고 외치려나.

뒤에서 조용히 따르던 의원이 작게 속삭였다.

"저하께서는 강한 안정제를 드셨습니다. 몸을 가누거나 말씀하시는 데 제약이 있으십니다. 부디 아가씨께서 배려해주시기를 국왕 전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시큰둥하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내 눈치를 보더니 자신의 할 일은 마쳤다는 듯 의원이 다시 왕자의 곁으로 움직였다.

자세히 보니 턱받이까지 했다. 침도 마음대로 조절 못 할 지경인가. 되도록 그에게서 거리를 벌렸다.

의자째로 그를 기존의 마차에 태우려니 힘들어 아예 마차를 개조한 모양이었다. 무거운 의자까지 함께 싣느라 시중인들이 땀을 뻘뻘 흘렸다. 마차에 매인 말들도 평소보다 힘들어 보였다.

그의 마차에는 의원과 시중인이 함께 타야 했기에 나는 다른 마차를 탔다. 기쁜 마음으로 내 마차에 올랐다. 더구나 궁에 들어와서는 처음으로 바깥나들이를 해보는 것이었다. 전생에서는 아예 나가보지도 못했다.

썩 기분 좋은 일로 나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상쾌할지 알 수 없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바깥공기를 기분 좋게 들이마셨다.

아길리스와 싱케루스가 안 보이는 몸을 하고 함께 마차에 타고 있었다. 다들 긴장했는지 말수가 부쩍 줄었다. 옆에 앉은 싱과 손을 꼭 잡았다.

전시회장에 도착해 내리자 시중인들이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내 기분이 나쁘지 않은 듯하니 따라오는 이들도 한결 마음들이 가벼워진 듯했다.

왕세자 하나, 그의 의자를 미는 시종 하나, 그 옆을 따르는 의원 하나, 그리고 호위로 함께 한 세베루스 백작 하나, 그렇게 네 사람이 유독 우중충한 분위기 속에 잠겨 있었다. 그들이 그러건 말건 나는 점점 소풍을 나온 듯 발걸음도 빨라졌다.

시종이 내 속도에 맞추어 왕자의 의자를 미느라 고르지 않은 바닥에 걸려 덜커덩거렸다. 조금씩 약 기운에서 벗어나는지 시종을 보는 눈초리가 못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직 말까지 할 힘은 없는지 입만 뻐끔거리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속도를 늦추었다.

네 본성대로 오늘 성질을 다 부려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아도 괜찮다. 네 놈이 어떤 모습이든 나는 마음껏 오늘 네 모습을 즐겨주겠다.

시종이 우리의 도착을 알리면서 전시회장의 문이 열렸다. 이미 그곳은 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림을 보러 왔다면서 사교의 장을 열어놓고 있었다.

안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빛들을 느끼며 허리와 가슴을 더 쫙 폈다. 고개를 들고 눈은 정면을 응시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처럼 내가 걷는 앞길이 훤해졌다. 왕세자보다 앞서 걸음을 내디디며 생각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싱과 아길리스가 잘 따라오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잉겐스 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내 어깨 위에서 악당처럼 웃어주셨다.

점점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있었다. 그런 데 시선 하나 주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천천히 걸었다. 뒤에서 싱케루스가 우리의 목표인 그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림은 회장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곳에 걸려있었다. 내가 가진 그림과 같은 크기의 액자가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오른쪽의 것도 가려져 있는 걸 보아 두 사람의 야릇한 자세를 그렸다던 그림인 듯했다. 이것마저 이미 다른 내용으로 바뀐 것을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말이다.

오늘 주인공인 그림을 외면하는 척 그 왼편에 있는 그림 앞에 섰다.

아네모네를 그린 그림이었다. 제목이 '페르도'였다. 아네모네 궁에 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그림인가. 저희끼리 놀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서 있으니 왕세자의 의자를 미는 시종도 내 옆에 그를 데려다 놓았다. 그를 따르는 이들도 모두 같은 곳에 모여있자 뒤에서 또각또각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여자에게서 나는 납 냄새가 너무 역하구나."

납? 왕세자가 퍼런 낯빛을 좋아한다더니 혹시 그런 얼굴색을 만들기 위해 납이라도 처바른 건가? 향수 냄새에 가려, 나는 모르겠는데 잉겐스 님은 뛰어난 후각으로 바로 알아차리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시회를 연 모이카라고 합니다. 왕세자 저하와 예비 왕세자빈 마마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아한 귀부인의 흉내를 내는데 콧소리가 심하게 거슬렸다. 그러든 말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잠자코 그림만 봤다. 잠시 공백이 있더니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그 그림이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어느 아름다우신 분을 위해 그린 것인데 마마를 위해서도 한 점 그려드려야겠군요. 그러나 곧 더 좋은 것이 공개될 테니 너무 하나에만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아직 결혼도 전인데 벌써 '마마'라니 존경인지 조롱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자기 딴에는 농담을 했다는 듯 경박하게 웃어 젖혔다. 그러자 주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인사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풀린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너는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왕세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기대선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버릇없는 행태에 세베루스 백작이 뭐라고 하려는지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를 향해 눈빛을 쏘아주었다. 움찔거리더니 뒤로 물러나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선 그를 보며 모이카가 이를 악무는 게 보였다.

눈빛에서 반감이 읽혔다. 저자에게 맺힌 것이라도 있었나. 그가 온 후 왕세자가 함부로 밖에 나오지 못했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다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나를 보는 게 가소로운 것을 보는 듯하기도 하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얼굴이기도 했다.

"그런가요? 마마야말로 좀 더 스스로를... 아닙니다."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다 뱉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조에서 그녀의 의도가 보였지만 무시했다.

내가 화라도 낼 줄 알았던가. 도발에도 넘어가지 않자 그녀가 시종을 불렀다. 그러더니 가져온 유리잔을 들어 올렸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굳이 숟가락으로 두드려 소리를 냈다.

어차피 아무런 수런거림도 없던 공간이었다. 유리가 부딪혀 내는 투명한 소리가 안을 울렸다. 더 집중될 이목도 없어 보였건만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모이카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여기 왕세자 저하와 미래의 왕세자빈께서 친히 왕림하셨습니다. 두 분과 오늘의 주인공인 저를 위해 다 같이 잔을 들어 건배를 부탁드립니다!"

흥겨운 듯 큰소리로 외치더니 곧 제 잔을 입술에 갖다 대는 게 아닌가. 어딘가에서 헉,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잔을 기울여 그 안의 액체를 말끔히 비웠다.

그러고 나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상당히 도전적이었다.

그녀가 오늘 주인과 같은 위치라고 하나 평민일 뿐이었다. 왕세자와 내가 있는데 먼저 술을 마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보통 때라면 평민 주제에 지나친 짓을 하는 것에 호통을 칠 법한 귀족들도 흥미진진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 평민은 안돼, 무식한 평민이야, 라는 소리라도 들을 줄 알았나. 내가 그런 소리를 해서 뭘 하겠나. 우리 싱이나 아길리스도 평민이다. 평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문제인 것이고, 나는 굳이 그녀의 장난에 어울려주고픈 마음도 없었다.

소란이 일어날수록 다른 이들이 뒷말하기 더 좋았다. 그러니 그저 심드렁하게 그림만 보고 있었다. 자신에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약이 오른 걸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었을까. 모이카가 새된 목소리를 높였다.

"마마께서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럼 마마를 위해, 숨겨두었던 그림을 빨리 공개해야겠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시끌벅적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얼른 가리개를 벗겨내라고 외치는 자까지 있었다.

귀족이랍시고 거들먹거릴 때는 언제고 이런 짓거리에 좋다며 시시덕거린다. 이렇게 천박한 자들이 귀족이란다.

한심한 짓들에 그림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와 함께 화제가 된 그림 앞에 왕세자의 의자를 끌어오게 하는 모이카가 보였다.

국왕에게 언질을 받은 게 있는지 의원이 내 눈치를 보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막지 않고 보고만 있자 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왕세자의 옆으로 가 안 그런 척하며 재빨리 침을 닦아주고 있었다.

모이카가 허리를 숙여 왕세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더니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고 내 쪽으로 힐긋 시선을 주는 것 같더니 그의 뺨에 제 얼굴을 비벼댔다.

왕세자는 때맞춰 정신을 차렸는지 처져 있던 고개가 빳빳이 들렸다. 제 벗은 모습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기대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전시회장의 일꾼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가리고 있던 천을 잡아 내리기 시작했다. 시끄럽던 뒤편도 어느새 쥐 죽은 듯 고요해져 있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왕세자를 위해 시종이 조그만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 심심해서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형체가 보이지 않는 긴장과 열기 속에서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전시회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극적인 효과를 주기라도 하려는 듯 가림 천을 내리는 자의 손이 너무 느릿느릿해 기다리기 지루했다.

퉁명스럽게 말하자 잉겐스 님이 기겁을 하셨다.

"너는 또 어디에서 그런 저잣거리에서나 쓰는 말을 배워왔느냐! 도대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휴."

싱이 작게 소리 내 웃었다. 아길리스가 슬그머니 소리를 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듯했다.

"잉겐스 님,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리벤티아 앞에서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미안한 기색이 담긴 말에 잉겐스 님이 서둘러 부정하셨다.

"아니다! 거참, 친근감이 드는 말이로구나. 그래, 귀족이라고 고상한 척 어려운 말만 쓰다가는 머리에 쥐가 나고 말지. 이들 하는 짓 좀 봐라. 머리가 이상하다 못해 미친 게지."

짧은 팔로 파닥파닥 아길리스를 향해 휘젓고 계시려나. 안 봐도 보일 듯한 모습에 나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싱케루스가 내 손을 잡아 오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그림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잉겐스 님께서 특별히 마법을 부리신 것도 아닌데 마치 그림에 조명이 집중된 듯 그것만 환하게 빛나는 듯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태초의 인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림만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킥킥,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키득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그게 도화선이 된 듯 웃음소리가 크게, 넓게 퍼지기 시작했다.

왕세자가 웃음소리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시종에게 그림을 향해 턱짓했다. 얼른 제대로 설명하라는 몸짓에 시종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보였다.

잘만 그렸는데 본인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더욱이 자기애에 빠져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이기에 더 그렇겠지.

드러난 그림 속에서는 모이카가 그린 것보다 훨씬 비열한 인상에 비루한 몸매가 위풍도... 초라하게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이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인상에 남았던 표정이 신경질적이고 야비한 것이었기에 그대로 따라 그렸다.

몸매는 꼭 벗은 걸 보아야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은가. 바로 보이는 마른 광대뼈와 얇은 모가지, 옷 위로도 드러난 얇은 팔다리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초상화는 저렇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맞다. 거시기야 내 상상을 가미한 것이지만 그 정도야 애교 아니겠나.

모이카처럼 부풀릴 대로 과장해서 그리면 안 되는 거다.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착각하도록 만들고, 그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얼굴을 보고 열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화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지.

가운데에는 완두콩 알 하나만 그리자는 잉겐스 님의 말씀에 따르려다 그래도 놈의 사회적 체면을 생각해 선심을 썼다. 넓은 마음으로 땅콩 두 알을 그려주었다. 실물 크기의 절반인 그림에 실물 그대로의 땅콩 크기로 그려주었으니 나름 비율을 크게 해 준 것이었다.

"리리는 그림도 참 잘 그리십니다."

내가 놈의 거시기에 눈을 두고 있자 싱이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듯 칭찬을 해왔다. 이유가 무엇이든 내 연인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루베르에서 친구 없이 지내다 보니 여유 시간 동안 할 일이라고는 아실과 함께 밖을 달리거나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였다. 자꾸 그릴수록 실력도 좋아졌고 나도 그림 그리는 것을 꽤 좋아하게 되었다.

레스토 귀족 사회에서 미술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아버지도 그런 내 취미를 더욱 밀어주셨다. 수도에 와서 꿀리지 않으려면 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는 이유를 붙여서였다.

아버지의 칭찬은 수도 없이 받아봤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을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말이 이런 것일 테지.

그러나 다른 이들은 내 얼굴이 붉어진 것이 흉한 그림을 봐서인 줄 알았나 보다. 근처까지 다가온 부인네들이 더욱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어떻게 저런 망측한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를 초대할 수 있어요? 감히 왕세자 내외분까지 모셔 놓고!"

"그러게요. 저 여자, 자기가 왕자비나 된 듯 으스댈 때부터 알아봤어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굴더니만. 세자 저하를 저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그림은 우리 귀족들만 누리고 즐겨야 하는데 평민이라는 것들이 예술을 한다고 끼어들어 설치니 이렇게 천박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겁니다."

나에게 아부하려는지 들으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모이카도 바로 앞에 있었으니 못 들었을 리 없다.

부들부들 떠는 그 몸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으려니 왕세자가 자신의 목에 걸린 그녀의 팔을 팩하니 손으로 쳐냈다. 그 옆에서 시종이 벌벌 떨면서 오도카니 서 있었다.

"저하, 저건 제가 그린 것이..."

당황한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왕세자가 팔을 들었다. 아직 약 기운이 좀 남은 것 같았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 모이카의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제 쪽으로 콱 당겼다. 그녀의 얼굴이 나무 의자의 팔걸이에 큰소리를 내며 부딪쳤다.

"아니에요! 어서, 어서, 그 옆의 그림을 공개해요! 저하, 제 그림이 아니에요. 제 진심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마에 주르륵 피를 흘리며 내는 다급한 목소리에 아까 그림을 공개했던 자가 옆의 그림을 황급히 공개했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나 보다. 원래라면 다정한 두 사람이 따뜻한 느낌으로 끌어안고 있는 그림이니 모이카에게는 괜찮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그림이 드러나는 순간, 이번에는 건물 안을 울릴 정도로 웃음소리들이 커졌다. 다시없을 웃긴 장면이라도 본 희극 관객들처럼 다들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새로 공개된 그림 속에서 모이카는 반라 상태의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여신 같은 자태였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서 수건을 든 채 시중을 들고 있는 듯한 왕세자는... 땅콩 두 개가 달린 아래로 다리가 여덟 개였다.

위는 사람이지만 아래는 문어. 왕세자와 딱 들어맞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욕심이 많아서 그 발을 이곳저곳 뻗어대는 문어나 온갖 여자를 탐하는 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레스토에서는 문어를 먹지 않고 그물에라도 잡혀 들어오면 저주받은 물고기라 하여 작살로 죽여버린다. 그런 문어를 왕세자와 한 몸으로 만들어놓았으니 모이카가 진짜로 그렇게 그린 것이라면 이보다 더한 모욕이 없었다.

"이! 이익!"

잡고 있던 모이카의 머리채가 다 뜯겨나가는 줄 알았다. 더는 시종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는 듯 말도 듣기 전에 회장 안 분위기만으로 다 알아챈 듯했다. 왕세자가 그녀의 머리를 마구 휘두르는 대로 모이카는 반항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렸다.

"흑흑,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어엉."

말할 틈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용케도 모이카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래 봤자 왕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 년을, 어서!"

그러나 네 맘대로 정리할 시간은 주지 않겠다. 계획한 대로 잉겐스 님이 또 놈만 보이도록 환상을 펼치셨다.

"악!! 이건 뭐야, 왜 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잡고 있던 것도 놓고, 어눌한 목소리로, 앞에 나타난 것을 흩트려 없애겠다는 듯 팔을 휘젓고 있었다. 굳이 그 얼굴이 어떤지 보지 않아도 겁에 질린 모양을 뒤태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제발, 제발 이걸 치워줘! 살려줘!"

모이카와 둘이 함께 엉엉 우는소리가 회장 안을 갈랐다. 배꼽이 빠질 듯 웃고 있던 귀족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챘는지 하나둘 입을 다물었다.

조용해진 전시회장 안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한곳으로 모인 가운데 두 사람 주변만 시끄러웠다.

"어, 저건..."

"소문이 사실이었나 봐요."

당황한 목소리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잔뜩 모여들었던 귀족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왕세자가 탄 의자 아래로 누런 물이 흘러나와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또 쌌구나. 정말 조절 능력을 상실했나 보다.

"시각적 효과만 있으면 재미없지. 이럴 때 냄새까지 퍼지면 금상첨화 아니겠냐."

잉겐스 님이 말씀해주셔서 나도 코를 틀어막고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더 물러났다. 순식간에 전시회장 안에 구린내가 퍼져나갔다.

그나마 잘 교육받은 시종은 가만히 왕자 곁을 지키고 있었고 세베루스 백작은 나를 보며 도움을 호소하는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의원은 달랐다. 귀족으로서의 소양이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국왕에게 그를 잘 보살피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호들갑을 떨며 발을 동동 굴렀다.

신기한 것은 그가 그럴수록 상황이 더 우스워 보인다는 거였다. 그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척하다 몸을 돌렸다.

내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자 다시 귀족들이 하던 짓을 멈췄다. 당황하여 수군거리던 목소리도 뚝 끊겼다.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빙 둘러보았다. 귀족 연감에서 보았던 꽤 높은 작위의 귀족들도 있었고 얼굴을 모르는 하급 귀족인 듯한 자들도 있었다.

모이카는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고 있었고 왕세자만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런 이들을 말없이 보다 말문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그림을 함께 본 것만으로 그대들은 죄인이오.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시오. 왕세자의 벗은 몸을 그린 것이라는 것은 진즉에 알았을 테고 그런 걸 즐기러 온 것 자체가 그분을 모욕하는 것과 같으니."

헛소리였다. 이미 왕실에서 눈 감고 있던 일을 지금에 와서 뭐라고 이들을 탓할 것인가. 이들은 마음 놓고 즐기러 왔다 봉변만 당했을 뿐이다. 그래도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찜찜함이 내 말을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하는 것 같았다.

심약해 보이는 이들이 특히 더 우왕좌왕했다.

"다들 오늘 일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오. 저런 그림이나, 왕세자 저하의 모습을..."

말하며 슬쩍 의자 밑으로 흐르는 누런 물을 쳐다봐주었다. 자연스레 내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눈길을 따라 움직였던 이들이 못 볼 것을 본 듯 얼른 고개를 숙였다.

"밖에서 떠들고 다닐 시 왕족을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를 것이오. 귀족이란 자들이 그 정도는 알 테니 길게 말하지 않으리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다. 귀족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입이 싼지 잘 안다. 그러니 이 소문도 오늘을 넘기지 않고 널리 퍼질 것이다. 국왕이 내린 함구령도 어기는 마당에 내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고.

다만 그러면서도 이들은 절대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한다. 입이 근질거려 떠들어대면서도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 나설지 모를 왕실의 눈치를 보느라 쥐새끼처럼 돌아다니겠지.

내가 입구로 향하자 세베루스 백작이 시종을 윽박질러 뒤따라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오는 길도 들어올 때와 똑같이 바다가 갈리듯 길이 만들어졌다.

근엄한 모습을 유지하며 건물 밖으로 나오니 달라진 공기에 살 것 같았다. 안에서는 잉겐스 님이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악취가 들어차 있었다.

왕세자를 보니 이미 넋을 놓고 눈자위가 풀려있었다. 아까는 가슴 아래 몸만 묶여 있었는데 그새 팔까지 다 묶인 채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마차에 실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 마차에 올라탔다. 그제야 남들은 들을 수 없는 웃음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아길리스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나도 따라 웃다 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자세를 잡았다. 눈을 감고 크게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싱이 내 이마를 받쳐 머리를 편하게 잡아주었다.

국왕이 뭐라고 하려나. 무슨 소리를 할지 궁금한데 일단 쏟아지는 졸음이 급했다. 밤에 잠을 설쳐 그런가.

싱이 허리를 더 세우고 내가 기대기 쉽게 고쳐 앉는 게 느껴졌다. 그의 배려가 따뜻했다. 어렴풋이 잠이 드는 중에도 알 수 있었다. 내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음을.

마차에서 잠시나마 눈을 붙인 것이 효과를 보았다. 궁에 도착할 즈음에는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을 수 있었다.

왕세자의 마차는 이미 훨씬 전에 궁으로 돌아간 뒤였다. 밖에서 따라오던 호위 기사가 말하기를 마차 안에 계신 분의 상태가 위독해 먼저 가겠다 전언을 남겼단다.

잉겐스 님의 말씀으로는 놈의 아래가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의원이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다. 그러게 그 몸을 해서 왜 자꾸 밖으로 나다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싱케루스가 짧게나마 몇 가지 보고 사항을 알려주었다. 국왕과 페르도의 사이가 소원해진 낌새에 그녀에게 붙었던 무리 중 여럿이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였다.

아직 멀었다. 여전히 페르도는 아네모네 궁에서 머무르며 왕실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전생에서 그들의 끈끈했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진정으로 그들이 손을 놓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어딘가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까 모이카에게서 납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했었지. 이걸로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을까. 한 번 시도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도착지에 와 있었다. 내 마차가 궁문으로 들어서자마자 헬리오스 궁으로 오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다. 그리고 국왕의 궁 앞에 멈춰 섰을 때 빠르게 마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국왕이 대로하여 얼른 나를 들이라 했다는 것이다. 걱정하는 싱케루스와 아길리스를 달래 릴리 궁으로 돌려보내고 국왕이 기다린다는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바로 보이는 단상에 그가 올라앉아 있었다. 화가 많이 났다더니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인지 입매를 끌어올려 웃고 있었다. 그러나 볼이 푸들거리며 떨리고 있는 걸 보니 억지 미소라는 게 티 났다.

"너를 믿었거늘 오히려 일을 더 망쳐서 돌아왔구나."

송구하다는 듯 머리를 숙였다.

"뭐라 말을 해보아라. 내가 그토록 너에게 당부하지 않았더냐."

"모이카라는 여자가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굴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게 아무런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이미 사정없이 구겨진 종이가 들려있었다. 전시회장에 잠입해 그의 눈과 귀가 되었을 자가 올린 보고서가 아닐까 싶었다.

"그년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욕심이 있는 만큼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줄 알았건만... 그것이 너무 앙큼한 짓을 벌였구나."

속내를 내게 털어놓을 자가 아닌데 너무 화가 나다 보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깜빡한 걸까. 나는 당신 편이라는 듯 걱정스러운 얼굴을 해 보이며 말을 붙였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얼른 해보아라."

"그녀가 향수를 뒤집어쓴 듯 과하게 향을 쓴 것이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녀에게서 광물 냄새가 섞여 나고 있었습니다. 루베르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 제가 그런 냄새에 민감한 편인데 제 생각에는 납 내 같았습니다."

"납?"

"네. 일전에 어느 나라에서 납을 가루로 만들어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얼굴에 분칠하면 피부가 창백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 연약해 보이고픈 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요. 그러나 후에 부작용이 심해 사용이 금지되었다지요.

그러고 보니 모이카도 낯빛이 푸르죽죽한 것으로 보아 납을 몸에 썼을 때 부작용 같았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그녀와 가까이 어울리셨습니다. 어쩌다 보면 그녀의 얼굴에 몸을 대실 일도 있으셨겠죠.

그러니 그분께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왕이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을 드러내듯 그 움직임이 조급했다. 이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납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짐도 들은 적이 있다. 그래, 그랬어. 그게 정신 착란을 일으켜 환각을 보게 한다는 소리가 있었어. 가네오가 요즘 부쩍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였던 거야."

걔는 원래 폭력적이었다는데.

"설마 그녀가 알고야 그랬겠습니까. 작정하고 저하를 암살하고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 눈치였다면 저하께서 알아서 멀리하셨겠지요.

더구나 오늘 전시회장에서도 페르도 부인을 위한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있을 정도로 부인과 가까운 사이 같았습니다. 그분은 전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어울리는 여자가 그렇게 물색없이 굴었겠습니까."

"음..."

생각이 많을 거다. 듣기로 페르도가 모이카를 소개해주었다는 걸 국왕도 잘 안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어주면 그 의심을 크게 키우는 것은 이 자가 할 일이었다.

"전하의 고심이 깊으신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물러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니 모이카란 여자가 자꾸 제 심기를 건드려 일을 키우려는 듯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일단 그녀에게 휘말리지 않으려 주의했습니다.

저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을지 모르나 왕실에서 가까이하기에는 좋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 점을 전하께서도 깊이 유념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황이 꾸민 듯 맞아 들어갔다. 이쯤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았다. 그를 더 부추겼다가 오히려 나에게 의심의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 적당히 하고 빠져나가기로 했다.

홀로 머리를 굴리느라 바쁘던 왕이 내 말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이리도 생각이 깊을 줄 내 미처 알아보지 못했구나. 알겠다. 진심 어린 충고를 귀담아듣겠다. 오늘 너도 수고스러운 일을 겪어 피곤할 터이니 이만 물러가 쉬도록 하여라."

다정한 척이었다. 그래 놓고 이번에도 우리의 뒤통수를 칠 거면서. 감동 어린 얼굴을 해도 속내는 어떨지 알고 있으니 전혀 고맙지 않았다.

릴리 궁으로 돌아오면서 잉겐스 님께 꾸중을 들었다.

"표정 관리 좀 잘해라. 지금 너, 굉장히 못된 얼굴이다."

"그게 어떤 얼굴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될 얼굴."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남을 괴롭힐 생각만 하다 보니 마음이 얼굴로 드러났나 보다. 착한 생각, 착한 생각. 속으로 되뇌면서 릴리 궁 앞까지 왔다.

그곳에서는 아길리스가 다시 완벽한 시녀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업무를 보는 중이었다. 반갑게 맞아주는 걸 보며 자동으로 생각났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 나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착한 생각을 하겠다고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었다. 그러려면 어서 이 지겨운 복수를 끝내야지.

아까부터 싱이 꼬리에 불붙은 강아지처럼 응접실 안을 서성거리고 있다며 아길리스가 이르듯 말했다. 괜히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은 언제 있었냐는 듯 함박웃음이 나왔다. 흠뻑 취할 것 같은 정원의 향기를 뒤로하고 그가 기다리는 곳으로 달렸다.

다음 날 궁에 잘 드나들지 않던 귀족들까지 모조리 헬리오스 궁으로 몰려왔다. 왕궁 안이 그만큼 시끄러워졌지만 궁 밖의 소란스러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침부터 그렇게 요란했던 이유는 그림 네 점 때문이었다. 도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둘, 저잣거리 한복판에 둘, 그렇게 내걸린 그림들은 바로 모이카와 내 것이었다.

잉겐스 님의 마법 연습이 또 성취를 보였다.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만 투명 마법을 펼치실 수 있던 것이 얼마 전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유지 가능해진 것이다. 덕분에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 싱케루스는 몸을 숨긴 채 궁을 들락날락할 수 있었다.

싱이 들려준 이야기로는 평민들의 동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전시회장에서 빼돌린 원본 두 점과 리리가 더 그려놓으셨던 두 점을 한 쌍씩 붙여 걸어두었습니다.

왕세자를 찬양한 것과 풍자한 것을 동시에 보이면서 그에 대한 조롱을 극대화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면 저희 조직원들이 분위기 몰이 역할도 했습니다.

배부른 귀족들은 할 짓이 없어 이런 것이나 그리고 논다는 식으로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초반에는 그저 못 보던 게 있으니 어리둥절해 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그림을 보면서 침을 뱉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왕실에서 알아채고 모두 거둬 갔지만 이미 소문이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기존의 원본에서 모이카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 귀족들의 생활상을 과장될 만큼 번쩍거리는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부를 과시하고 싶었을까. 그들만의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사치스럽고 향락에 찌든 모습으로만 보였다.

당당하게 알몸으로 선 왕세자의 발치에는 황금을 녹여낸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각종 고급 옷감과 보석들이 뒹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림에서도 커다란 대리석 욕조에 우유를 가득 채운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잠긴 모습으로 야릇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얼마 전 도성에서 굶어 죽는 아기들이 대거 속출했었다. 가뭄이 들면서 잘 먹지 못한 엄마들의 젖이 잘 나오지 않기도 했고, 가축들마저 짜낼 수 있는 젖이 줄면서 갓난아이들이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해진 탓이었다.

전생에서는 내가 수도로 오면서 뒤따라 지참금이 왔었다. 그걸로 국왕이 도성민들에게 인심을 쓰느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나를 달래 겨우 불러들였으니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아도 왕은 아무 말 못 했다.

다만 무고한 이들이 죽어 나갈 거라는 생각은 우리도 못 한 탓에 상한 사람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 지참금 없이 그냥 넘어가려 했던 걸 생각을 고쳤다.

대신 지참금 형식이 아닌 우리가 직접 돈을 푸는 방식을 썼다. 전생처럼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나를 칭송하는 소리는 드높아지고 반대로 결혼을 앞두고 행실이 불량한 왕세자에 대한 평판은 더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 형편이니 평민들이 대다수인 일반 백성들에게 왕세자나 모이카의 행동은 더 꼴 보기 싫었던 것 같다.

모이카가 그린 그림과 함께 붙여둔 내 그림에서는 대조되는 인상의 그가 그려져 있었다. 가운데가 뻥 뚫린 채로내가 자르려고 하는 것을 싱이 말리더니 직접 해주었다 있는 그림 옆에 땅콩만 한 거시기가 달려 있으니 사람들이 더 우스워했다.

"그림을 건 지 반나절도 안 되어 뜯어졌지만 이미 도성 안에서는 '왕세자는 똥세자, 땅콩 왕자'라는 노래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가면서 싱케루스가 남긴 말이 이번 사태를 가장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나라의 국본이라는 이들의 권위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나락이었다.

당황한 귀족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왕을 찾았다. 헬리오스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많은 병사가 도성 안팎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을 막았다. 불온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잡아서 엄벌에 처한다는 방도 붙었다. 상인들의 불만이 특히 커졌지만 당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미 불씨를 살리는 데 성공했다. 겉으로만 흙을 살짝 덮어놓은들 다시 들쑤시면 그만이었다.

"모이카를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다."

잉겐스 님이 바깥 사정을 전해주셨다. 또 한 무리의 병사들이 궁을 빠져나갔단다.

네 점의 그림에는 모두 모이카의 사인이 들어있었다. 그녀만이 구할 수 있다는 특수 도료로 자신 있게 남긴 서명이 떡하니 박혀 있으니 모르는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의 그림으로 착각할 일이었다.

왕세자든 누구든 권력자가 구해다 주었을 게 틀림없는 도료를 쓰면서 그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게 어떤 것이었든 지금에 와서 그 발목을 단단히 묶을 올가미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그자의 전시회장에만 가도 수두룩하게 볼 수 있는 서명이야 . 내가 그걸 똑같이 보이도록 만드는 것쯤이야 한 끼에 10인분을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지."

잉겐스 님이 잔뜩 부른 배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끼니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거뜬히 드시니 맞는 말씀이었다.

"못 하시는 게 없군요. 접때 그 향기 마법도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아길리스가 눈을 반짝였다. 루베르에 있을 때 선물 받은 향기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뒤늦게라도 잉겐스 님의 능력이 제대로 알려줘 다행이기는 한데. 갈수록 이분의 얼굴이 거만해져서 근심도 들었다.

나중에 살짝 말씀드려야 할까. 여자들은 너무 잘난 척하는 남자 재수 없어 한다고. 아닌가. 우리 잉겐스 님은 뭘 하셔도 멋져 보이실 수 있으니. 나도 이미 이분께 콩깍지가 씌어 객관성을 잃었나 보다.

아무튼 모이카가 그것을 그릴 때만 해도 감상자로 귀족들이나 돈 많은 평민을 예정했을 터였다. 그녀가 어울리는 이들이 그 부류였으니까.

그림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기는 했다. 생활이 여유롭거나 예술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아닌 이상 당장 생계와 연관되지 않은 일을 하러 다니기는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림과 이름이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졌으니 화가로서 성공한 게 아닐까. 비록 그녀의 뜻은 달랐을지라도 말이다.

문득 그녀가 잡혀 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잉겐스 님께 말씀드렸더니 같이 가보자고 하셨다.

산책하러 나가겠다고 엔리케에게 말했다. 내 속이 시끄러울 거라 지레짐작한 것인지 그녀가 시녀들을 시켜 평상시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준 느낌이었다.

여러 사람이 나설 것까지 없다는 말로 아길리스만 데리고 나왔다. 물론 잉겐스 님도 함께였다.

궁문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다. 머리에 검은 천을 뒤집어쓰고 팔이 꽁꽁 묶인 채 한 여자가 병사들에 끌려 들어오고 있었다. 중죄인 취급이었다. 일반 죄인이었으면 평민은 왕궁까지 들일 것도 없이 아예 도성 경비대나 치안대에서 처리했겠지.

"예비 왕세자빈이신 데수르고 아가씨를 뵙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자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바쁜 중에도 정성 들여 인사했다. 시녀들이 나를 너무 예쁘게 만들었나. 나에 대한 동정 여론이 퍼졌다더니 그래서인가. 그들이 내게 너무 호의적이라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수고가 많네. 저 여자는..."

"아가씨처럼 귀하신 분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병사들이 굽신거리면서 모이카의 다리를 차는 시늉을 했다. 잠자코 있던 모이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귀하긴 뭐가 귀해! 따지고 보면 저 여자도 평민 출신인데 나랑 다른 게 뭐야!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건데!"

병사들이 화급히 천 위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우악스러운 손에 숨이 막히는지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악바리가 따로 없었다. 참지 못하고 한 병사가 강하게 머리를 내려치고서야 잠잠해졌다.

"제 주제도 모르는 것이... 저희가 미흡한 탓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시게 했습니다. 어서 끌고 가거라!"

앞장선 자가 외치자 병사들이 서둘러 사라졌다.

"아닐세. 자네들의 고생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자, 이것으로 아랫사람들과 간단히 요기라도 하게."

아길리스를 시켜 건네준 용돈 뭉치에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더니 재차 권하자 마지못한 듯 받았다. 돈주머니를 받아 든 병사가 허리를 더 깊이 숙였다.

"당신이 믿음직스럽게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아가씨께서 저 여자의 전시회장에 다녀오셨는데 그때 저자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요. 마침 이런 일이 터지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다음에 심문한 결과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아길리스가 친한 척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병사의 입이 헤벌쭉했다.

"저를 좋게 봐주셨다니 이렇게 황송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가능한 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릴리 궁에 오면 바로 앞 정원에 제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길리스라고 시녀를 찾으면 돼요. 그럼 잘 부탁할게요."

"네, 맡겨만 주십시오."

"그럼 이건 당신 혼자서만 쓰도록 해요."

아길리스가 미리 준비한 돈주머니를 하나 더 찔러주었다. 좀 전보다 더 빠른 손으로 그걸 받아 든 병사가 헤벌쭉한 얼굴을 주체하지 못하고 인사 후 서둘러 떠났다.

"이렇게 드러내 놓고 살펴도 될까?"

"감옥에서 빼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몰래 만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저자가 소식만 전해줄 뿐이야. 그 정도는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도 많이 하는 일이고 그걸로 본 수입보다 더 짭짤한 소득을 올리는 게 저들 사이의 불문율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고개를 끄덕이고 모이카가 끌려간 방향을 쳐다봤다. 억울하다고 했나. 그럼 내가 당했던 것은...

입술을 깨물고 있자 잉겐스 님이 재촉하셨다.

"돌아가자.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다. 아까 부족했었나."

아까 많이 드셨다. 루베르에서 아버지가 그러셨듯 아길리스가 잉겐스 님에게 자꾸 드시기를 권해서 더 많이 드셨다.

"잉겐스 님이 항상 아이 모습으로 계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럼 하루 내내 안고만 다닐 수 있는데."

아길리스가 아쉬운 소리를 냈다. 우리 잉겐스 님은 성인 남자가 될 날만 기다리고 계시던데. 둘의 동상이몽에 작게 한숨을 쉬었다.

"잉겐스 님 배부터 채워드리자."

아길리스가 내 어깨를 쓰다듬는 척 잉겐스 님의 몸체를 쓸었다. 손이 떨어지자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내가 만지는 것은 못 하게 하시면서 아길리스가 만져드리면 가만히 계시다 마지막은 늘 이렇다.

릴리 궁에 돌아와서 둘이 알콩달콩 식사를 드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일 있을 재판을 준비했다.

브래드를 때리면서 그 뒤에 연결된 페르도까지 쳐낼 수 있다면 좋겠다. 그걸로 왕까지 몰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다.

원고석에 앉아 있으니 방청석에 앉은 이들이 아주 잘 보였다. 왕비 전하와 제일 먼저 눈을 마주쳤다. 인자한 미소로 봐주시는 것에 고개를 살짝 숙였다.

페르도도 보였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녀를 무시하고 시선을 돌렸다.

내 친구들도 보였다. 이번 사건의 증인이 되어주기로 한 이들이었다. 긴장한 듯, 의지를 다지는 듯,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들을 보며 나도 의지를 되새겼다.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왕실 법정이었다. 사건 당사자인 내 지위도 법정에서 보기에는 흔치 않은 경우라 많은 귀족의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어제 일도 있어 오늘 재판정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다.

귀족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도 방청석이 미어터질 지경이었다. 그들을 세워둘 수 없으니 시종들이 부랴부랴 임시 의자를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게 보였다.

수많은 이들이 모였음에도 내부는 질서 정연했다.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 시종들이 늦게 의자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호통치는 귀족은 거의 없었다.

모이카의 전시회에서 본 얼굴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자리에 따라 얼굴도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이들은 완전히 다른 이들인지 궁금했다. 이 나라의 귀족들이라고 다 썩은 건 아닌가 보다고, 잠깐 생각했다.

법정에 들어오기 전 여러 귀족과 마주쳤었다. 그들 중에는 별난 일을 벌이는 나를 아니꼽게 보는 이도 있었지만, 힘을 내라고 자그맣게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들도 많았다.

전생에 비하면 크나큰 발전이었다. 시녀들이나 다과회에서 만난 친구들 외에는 귀족을 만날 일도 없던 나에게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처음이었다.

아까 본 귀족들과 눈인사를 주고받다 맞은편에 앉은 브래드와 눈이 마주쳤다. 옆에는 귀족 출신의 유명한 변호사라는 자가 앉아 있었다. 브래드가 나를 노려보자 그자가 얼른 옆구리를 찔렀다.

이곳에서는 그들이나 나나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아주 선량한 척, 억울한 척,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상대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야 한다. 그러니 브래드처럼 멋모르고 눈을 부라리다가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땅땅땅. 국왕이 재판 봉을 두드렸다.

소곤대는 소리도 사라지고 국왕의 목소리만 울렸다.

"지금부터 제2750회 왕실 재판을 연다."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났다. 처음 왕실 법원을 만든 건국 왕을 기리는 묵념을 한 뒤 착석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없으니 원고가 직접 사건의 개요를 읽는다."

자리에서 다시 몸을 일으켰다.

"9월 28일 오전 막심 브래드 남작이 개인 교사로 릴리 궁을 찾았습니다. 마리아 부인이 기존에 가르친 대로라면 다음은 왕실 전범의 후편을 배울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실 승마술이 따로 있으니 배워야 한다며 곧장 저를 승마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의뢰인인 브래드 남작은 왕실 승마술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 같은 건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게 따로 존재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의 변호사가 내 말을 끊었다. 마지막 말에 웃음소리들이 났다.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원고 진술 시간이니 이따 변호인이 나설 시간을 따로 주겠다."

인정하기는 무슨. 소리를 녹음하는 기계 같은 것은 없을까. 열을 가라앉히고 방청석을 보며 말했다.

"브래드 남작은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떨어져 있는 영지에서 자랐고 수도 사정이나 왕실 내부 규범에 대해서는 배우다가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땅땅. 국왕이 다시 재판 봉을 두드렸다.

"원고는 사실만 간단히 말한다."

"브래드 남작은 승마술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말을 타고 있는 저의 몸을 더듬고 은밀한 부위를 채찍으로 찔렀습니다. 그에 저는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고,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그에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유발한 사고였음에도 그는 제가 채찍을 쓴 것에 대해 윽박지르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쉬어줬다. 가련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자 방청석에서 부인들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소리가 들렸다.

"더구나 그를 교사로 뽑은 일레체 페르도 백작 부인은 제가 그를 유혹했다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남작이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하지 않고서야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백작 부인이 그렇게 말했을 리 없습니다."

가져온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는 척했다. 내 변호사가 서신으로 알려준 것을 밤새 연습한 모습이었다.

"저런, 백작 부인 자기가 뭐라고 왕실 인사에 관여한대요? 게다가 감히 예비 왕세자빈 전하를 꾸짖다니요!"

"국왕 전하가 그녀에게 빠졌잖소. 전하께서 여자의 말에나 휘둘리시다니..."

뒤에서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조용한 법정에서 그 소리는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왕이 내 쪽의 방청석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를 지나쳐 배석 판사들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저, 리벤티아 데수르고는 막심 브래드를 성추행과 협박,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 고소하는 바입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자그맣게 박수 소리까지 났다. 국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그럼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말할 기회를 주겠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모이신 여러 귀족분, 저는 막심 브래드 남작의 변호를 맡은 니제르 솔레반 자작입니다."

그가 멋들어진 자세로 인사했다. 썰렁한 분위기도 상관없다는 듯 빙글빙글 웃으며 그가 내게 질문했다.

"데수르고 아가씨, 외람되지만 이곳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대 원고의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례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상관없소. 질문하시오."

"그럼 아가씨, 그가 은밀한 부위를 찔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부인들이 못마땅한 소리를 냈다. 국왕이 다시 봉을 두드려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내 가슴과 엉덩이였네."

어딘가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잘도 그런 말을 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가 만족한 웃음을 짓더니 계속했다.

"브래드 남작이 원래의 진도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사가 정할 일이고 가르치는 자의 고유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남작이 몸을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마를 배우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것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접촉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분명 음흉한 얼굴이었고 즐기는 의도였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재판관들을 향해 호소 어린 목소리로 반박했다.

"그건 아가씨의 주장일 뿐이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교활한 미소를 보며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오히려 아가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브래드 남작에게 억지를 부려 채찍으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남작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바람에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몇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원래의 얼굴로는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뚜렷하게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조금 반반한 얼굴이라고 평을 듣던 과거와 달리 그 때문에 흉한 인상이 되어버렸다. 남작이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리자 변호사가 그를 진정시키는 시늉을 했다.

"브래드 남작은 그 일로 개인 교사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수업을 유지하던 부인들도 이런 얼굴을 무서워하여 계약을 끊어버렸고 더는 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인 막심 브래드 남작은 오히려 리벤티아 데수르고 아가씨를 폭행치상과 무고의 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더불어 남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마땅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다. 재판 당일 법정에서 나를 직접 고소한 것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인가.

변호사나 브래드 남작이나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 딴에는 선한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나 본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였다.

"피고인 측의 청을 받아들인다. 이제부터 이 재판은 막심 브래드에 대한 고소 사건과 리벤티아 데수르고에 대한 고소 사건을 합쳐서 다루겠다."

국왕이 선언했다. 페르도가 지긋이 웃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번씩 그들을 똑바로 봐준 뒤 말했다.

"피고인 측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증인들을 요청합니다."

국왕은 표정을 잘 갈무리했지만 페르도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브래드가 있는 곳이 시끄럽더니 변호사가 외쳤다.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증인입니다.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쪽에서 저를 고소한 것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에 국왕에게서 곤란한 얼굴이 언뜻 지나갔다. 이미 그들의 고소 건을 받아들였으니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데수르고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재판의 신속을 위해 사건을 합쳤지만 부르던 그대로 원고와 피고인으로 부르겠다."

앞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무시했다. 브래드가 열 받은 얼굴로 주먹을 쥐어 보였다. 변호사가 말리기도 전에 방청석에서 그를 향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오라."

차례로 에첸 트로 후작 영애와 인디페 렌스라 후작 영애, 리타 파밀리아 백작 영애가 내려왔다. 그들의 등장에 방청석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조용, 조용!"

증인으로 나온 영애들의 면면이 보통 아니었다. 그들의 부친 중 렌스라 후작이 배석 재판관 중 하나였기에 더 관심을 끌었다.

"이건 부당합니다! 렌스라 후작 영애는 재판관님의 따님입니다. 영애가 원고 측의 증인으로 선다면 재판의 신뢰성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렬한 눈빛을 보내며 변호사가 항의했다. 렌스라 후작이 표정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입장 상 말을 아끼는 듯했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지금 브래드 남작의 변호인은 렌스라 재판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건가?"

"그게 아니지요. 따님이신 영애가 데수르고 아가씨의 편을 드는데 후작님께서 따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그게 그것 아닌가. 아닙니까, 렌스라 재판관님."

후작이 내 말을 받았다.

"재판정에서 재판장 이외의 판관은 판결할 때 말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번은 예외로 치겠습니다. 저는 제 딸의 말에 휩쓸려 신성한 재판을 더럽힐 만큼 양심이 없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저를 그렇게 수준 낮은 인간으로 봤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듯했다. 얼른 후작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후작님의 인품을 존경해 왔는데 제가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후작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왕이 신경질적으로 봉을 두드렸다.

"증인들은 선서부터 한다. 그리고 왼쪽부터 순서대로 증언하라."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각자 가문의 이름을 걸고 선서했다. 그러고 나서 에첸부터 차례차례 그날의 일을 꺼내놓았다.

"그날 우연히 데수르고 아가씨가 승마 수업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자는 대놓고 아가씨를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아가씨가 놀라서 엉겁결에 채찍을 휘두르시자 되레 고함쳤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자가 아가씨에게 자기가 만져도 가만히 있지 않았냐고, 아가씨도 좋아했던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그런 짓을 당할 줄 몰랐기에 당황해서 몸이 굳었다고 말씀하셨고, 저자는 다시, 다른 여자들과도 많이 즐기는데 아가씨만 유난을 부린다고 소리 높여 질책했습니다."

인디페의 말이 나오자 여기저기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내가 일어났다.

"브래드 남작은 이전부터 순진한 영애들을 꼬드겨 몹쓸 짓을 하기로 유명한 자였다고 합니다. 여기 그자에 대한 소문을 모은 증거 자료와 그 자에게 농락당한 영애 중 한 명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장 앞까지 서류들을 가져갔다. 국왕이 받기를 꺼리는 듯 머뭇거리자 옆에 앉은 세베루스 후작이 손을 내밀었다. 재판관들이 서류를 나눠 살피는 걸 보고 자리로 돌아왔다.

"진술서를 작성한 영애의 신원은 재판관님들만 아시고 그 외에는 비밀로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영애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재판관님들을 따로 만나 언제든 직접 말씀드릴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싱케루스가 고생했다. 소문을 모으고 브래드에게 당한 영애들을 찾아냈다. 놈의 말처럼 물론 그자와 같이 즐긴 영애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경험이 없어 저런 무도한 자의 꾐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진술서를 준 영애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특히 그녀의 친구도 같은 경험을 했다.

안타깝게도 친구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가문에서 매장될 처지에 이르렀다. 브래드에게 결혼을 청했지만, 저자는 뻔뻔하게 비웃으며 떠나버렸다. 그러자 이 영애에게 유서를 남기고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친구의 유서를 보고 자신 또한 브래드의 노리개가 되었을 뿐임을 영애는 깨달았다. 수렁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다행히 발을 뺀 영애는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다.

그러나 귀족 사회에서 이런 일을 밝혀봤자 그녀의 손해가 더 심했기에 때만 노리고 있었다. 싱케루스가 접촉한 수많은 영애 중 그래서 오직 이 사람 하나만이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었다.

한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도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재판에서는 떠도는 소문 백 마디보다 증인 한 사람의 가치를 훨씬 중하게 다루기 때문이었다.

재판관들이 서류를 읽는 동안 국왕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막간에 볼일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귀족들이 몇몇 있어도 대부분은 제자리를 지켰다.

페르도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여인에게 뭐라 속살거리고 있었다.

"진술서를 남긴 영애가 누군지 알아보란다. 협박이라도 해서 진술을 철회시키라고 지시하는구나."

이미 안전한 곳으로 빼돌려 두었다. 영애가 먼저 그러기를 바랐다. 자신이 피해입은 사실을 알렸으나 가문에서는 위신을 생각해 미적거리기만 했던 것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부친이 반대해도 영애가 막무가내였다. 친구가 쓴 유서를 들이밀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막지 말라고 소리쳤단다. 어쩔 수 없이 그 가족은 영애가 휴양의 형태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허락했다.

밖에 다녀온 국왕이 브래드를 쏘아본 뒤 재판을 다시 열었다.

"증인들은 남은 증언을 계속하라."

리타의 차례였다. 당당하게 일어선 그녀가 브래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자가 데수르고 아가씨를 채찍으로 찌르면서 거기를 세우고 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재판정에 한바탕 소란이 들끓었다. 방청객 중에는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자도 있었다.

"조용들 하라!"

브래드를 보는 국왕의 눈빛이 벌레를 보는 듯했다. 브래드는 고개를 젓고 있었고 변호사는 답답한 듯 목을 쓸다 일어났다.

"거기라고 말씀하시면 분명치 않습니다. 파밀리아 영애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리타가 또박또박 말했다.

"성기입니다. 저자가 성기를 세웠습니다."

내 친구 리타는 그런 단어에 꺅꺅거리며 입을 다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씩씩하고 용감한 성정을 너는 몰랐겠지.

당황한 변호사는 본체도 하지 않고 리타가 재판관들을 향해 호소했다.

"여인들, 특히 귀부인들이나 귀족 영애들은 이런 일을 겪어도 다른 곳에 함부로 말도 못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탓을 하고 명예를 깎으려는 파렴치한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공론화시켜 말하지 않았을 뿐 다들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데수르고 아가씨는 당신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자들이 더는 위축되고 상처받지 않도록 앞장서신 겁니다.

이 일을 바르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믿지만 어린 마음에 간청드립니다. 부디 가해자가 나쁜 짓을 한 만큼 올바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옳소."

방청석에서 소심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걸 시작으로 여기저기에서 브래드를 욕하는 소리와 함께 제대로 벌하라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런 자를 데려온 페르도도 같다는 외침이 나왔다. 어느덧 페르도의 얼굴이 퍼레져 있었다.

브래드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채찍으로 여자의 몸을 찌르고 성기나 세우는 변태로 만들다니 이런 저질스러운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증인으로 나오신 세 영애분이 데수르고 아가씨의 사주를 받고 나오신 거라면 어떡합니까."

"선서까지 마친 증인들에 대한 의심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진술서가 있다고 하나 그것의 진실성도 의심하자면 한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판단하기 어렵다."

국왕의 말에 이번에는 재판관들마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다. 최종 판결에서 의견이 갈릴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까. 그때 번득이는 생각이 들었다.

"왕실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아도 증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깡그리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왕이 찔리는 듯 봉만 꽉 잡고 있었다.

"하지만 제게만 더 엄한 기준을 요구하신다면 재판장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재연할 것을 요청합니다."

떠들던 이들이 입을 다물었다. 고요한 법정을 한 번 둘러본 뒤 그가 물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그날 저희는 나란히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저자가 저를 채찍으로 찌르는 장면을 재연하는 겁니다.

그럼 그곳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브래드 남작의 변태성과 음흉한 의도는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다시 소음이 일었다. 무모하고 되바라졌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니 내 말에 충격을 받은 이도 있나 보다. 오죽하면 아가씨가 저런 일까지 하겠다 나선 걸까, 라며 한탄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왕의 얼굴이 굳었다가 다시 펴졌다.

"그럼 다시 잠시 휴정하겠다. 그동안 법정 한가운데에 의자를 마련해 다른 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라."

그가 몸을 일으키자 페르도가 따라 나갔다.

"페르도가 변호사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잉겐스 님의 말씀대로 그들끼리 무언의 신호가 오고 갔는지 변호사가 브래드를 데리고 일어났다. 나도 틈이 난 김에 볼일을 보고 올까 생각하다 그대로 있었다.

긴장으로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기에 갈 필요도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니 다리가 떨려 일어나기 힘들었다.

"괜찮다. 네 뜻을 알겠으니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언제 들어도 든든한 잉겐스 님의 목소리와 말씀에 힘을 얻었다. 아길리스는 더 큰 일도 극복해내고 있는데 나라고 못 할 리 없다.

브래드와 접촉하는 것이 끔찍하고 싫었지만 한 번만 더하면 끝이다. 저자를 끝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재판정의 문이 닫혔다. 그새 소문이 났는지 아까보다 더 많은 이들이 들어와 있었다. 궁에서 일하는 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도성 내 거주하는 상당수의 귀족들이 참석한 것 같았다.

내가 먼저 가운데로 나갔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려니 브래드가 변호인과 소곤대고 있었다.

"약을 먹었구나. 펄펄 뛰던 것도 가라앉을 정도로 강한 약효이니 걱정하지 말란다."

잉겐스 님이 가소롭다며 웃음소리를 내셨다. 나도 그 말씀에 같은 생각이다.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 줄 알고 얄팍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건가.

브래드가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채찍을 양손으로 잡고 우아하게 사방을 돌아가며 인사했다. 그리고 내 옆에 섰다.

"멍청한 년, 스스로 제 앞길을 막다니 다 네가 자초한 것이다."

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속삭였지만 우리 잉겐스 님도 함께 들으셨다. 어깨 위에서 으득으득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른 체하고 앉아있자 그가 옆의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 심호흡을 한 뒤 보란 듯 채찍을 들어 보였다. 그러더니 내 가슴과 엉덩이에 슬쩍 닿기만 했다.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자는 더 깊이 채찍을 눌렀고 엉덩이골에 집중해 여러 번 찔렀습니다."

이제 국왕도 법정 내 소란을 다스리는 것에 지친 듯했다. 내 말대로 해주라고 브래드에게 명령한 후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앉았다.

발버둥 쳐봤자 안 된다고, 브래드가 불쌍한 걸 보는 듯 시선을 보내더니 슬쩍 입맛을 다셨다. 그 꼴을 보니 토기가 치밀어 올라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예전처럼 채찍이 내 엉덩이골을 찌르고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법정 안이 고요해졌다.

다들 숨죽여 지켜보는 중인지 침을 삼키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잠시간의 정적이 지나고 나서였다.

"섰다!"

커다랗게 외치는 소리가 났다. 흉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더 눈을 꼭 감았다. 루베르에서 장터에 몰래 나가본 적이 있었다. 그때보다 법정이 더 시끄러워졌다.

소란에 묻혀 듣지 못했는데 누군가 가까이 와서야 기척을 느꼈다. 내 손을 잡는 따뜻한 손길에 눈을 떴다. 증인석에 있던 리타였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켰다. 뒤를 이어 에첸과 인디페까지 다가왔다. 그들이 팔을 토닥여 주며 자리로 이끌어주었다.

의연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지만 잘 안 되었다. 약한 모습을 보이자 방청석에서 빨리 판결을 내리고 나를 쉬게 해 주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퍽퍽 거리는 소음이 들려 앞을 보니 브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 앞을 때리고 있었다. 그러다 그곳을 만지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서지 않았습니다!"

잉겐스 님이 펼치시는 환상 마법의 단점이 그거였다. 만져보면 헛것인 게 들통났다.

그러나 그의 말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얼굴을 찌푸렸다. 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안 섰단 말입니다! 니제르 솔레반 자작님! 만져 보십시오, 그대롭니다. 주신 약까지 먹었는데 진짜 섰을 리 없지 않습니까!"

울부짖는 소리 중에 '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변호사의 눈이 엄청나게 커지는 게 보였다.

법정 안이 난리였다. 변호사까지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국왕을 봤다.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브래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세베루스 후작이 왕을 부르는 게 보였다. 이제 그들이 판단을 내릴 시간이 된 듯했다.

재판정의 뒤에 딸린 방으로 재판관들이 몸을 감췄다. 그곳에서 토론한 후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재판관들이 그에 불응할 시 다시 이의를 제기한 후 뒷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한 번 만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였고 두 번 이상 뒷방으로 들어가는 경우 국왕의 체면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쳤다.

그럴 경우 왕이 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었지만 귀족들이 한동안 세금 납부를 거부해도 뭐라 탓할 수 없는 것이 전통이었다.

최근에 와서야 많은 귀족이 여러 핑계를 대며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해 효과가 떨어지기는 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국왕의 망신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그가 부담을 느낄 전통의 하나인 것은 확실했다.

기다리고 있으니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그들이 나왔다. 가운데에 앉은 국왕의 손이 조금 떨렸다.

"지금부터 판결을 내리겠다. 먼저 막심 브래드가 고소한 사건은 근거 없음을 들어 기각한다. 폭행치상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리벤티아 데수르고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차마 구기지는 못하고 판결문을 꾹 잡는 손이 보였다.

"본 법원은 그녀가 제기한 성추행, 협박, 명예훼손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여지가 있겠으나 재판관들은 막심 브래드가 그녀를 고소한 것만으로도 그녀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브래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약을 써 재판을 방해한 것을 본인의 입으로 인정했다. 그러니 막심 브래드와 그의 변호인 니제르 솔레반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한다. 브래드는 예비 왕세자빈에게 끼친 해악이 크기에 20년 형에 처하고, 솔레반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조사에 들어간다."

"아닙니다! 저는 페르도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국왕의 말이 끝날세라 다급히 외쳤다. 여기에서 국왕이 폐정을 선언하면 끝이었다. 나도 얼른 일어났다.

"지금 일레체 페르도 백작 부인을 고소합니다!"

재판이 끝나는 분위기에 느슨해졌던 기운이 다시금 팽팽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욧!"

페르도가 발끈해서 외치는 소리를 질렀다. 국왕이 갈피를 잡지 못한 사이에 치고 나갔다.

"브래드 남작은 이미 귀족 사회에서 좋지 못한 소문이 퍼진 자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청석에 계신 카민 트로 후작과 마르케 파밀리아 백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에첸과 리타의 부친이 브래드의 나쁜 짓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딸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이름이 불리자 놀란 얼굴을 하던 두 귀족이 내 말이 옳다고, 증언하겠다 외쳤다.

"예비 왕세자빈을 가르칠 자를 뽑으면서 철저한 심사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페르도 부인이 이 일에 대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오히려 국왕 전하 앞에서 저자의 편을 들면서 저를 음해했습니다.

전하께서도 제게 그녀의 말을 믿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치마폭에 둘러싸인 왕'이란 소리가 나직하지만 굵은 음성으로 들렸다. 국왕의 얼굴이 질려갔다.

"그리고 브래드 남작의 변호사가 이미 진술까지 했습니다. 페르도 부인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요. 그녀가 작심하면 저에게 언제든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함께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재판이 너무 길어졌다. 일레체 페르도에 대해서는 증거가 전혀 없다. 다음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고소하도록 하라."

야유가 터지건 말건 서둘러 재판 봉을 때리려 했다. 페르도를 처벌하게 되면 국왕 본인까지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터였다. 민심도 좋지 못한데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

여기에서 그녀를 벌하지 못해도 괜찮았다. 일단 그녀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왕의 체면까지 망가트릴 수 있다면 더 좋았다.

"잠깐만요."

왕비 전하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다. 공식 행사에서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께서 앞에 나서 말씀하시니 관심이 더 쏠렸다.

국왕마저 하려던 걸 멈추고 왕비께 집중했다.

"제가 가진 귀족 처단권으로 일레체 페르도를 처벌하겠습니다. 7년 동안 그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데펙토르. 괜찮죠?"

아, 그게 있었지.

"여자의 질투는 보기 추하오."

"저를 그렇게 낮잡아 보고 계셨습니까. 서운하군요."

가녀린 몸에 애처로운 목소리로 서운함을 표하시니 그 감정이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국왕이 이전보다 더 방청석의 눈치를 살피며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질투가 아니라면 왜 갑자기 일레체를 벌하자는 것이오. 그리고 그 귀한 권리는 더 중한 일에 써야 하오."

내 아버지에게 쓰라고 또 왕비님을 협박하게? 마음이 뾰족해지려는데 왕비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반박하셨다.

"일개 여인을 함부로 만져도 크게 경을 칠 일인 것을 감히 겁도 없이 미래 왕세자빈에게 손을 댔습니다. 거기다 협박까지요.

더구나 학생을 음심의 눈으로 보는 교사를 어떻게 왕실로 들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자들은 귀족 사회에서 매장해야 합니다.

페르도 부인이 우리 리벤티아를 모욕하고 해한 사실이 다 들통난 마당에 아직도 그녀를 두둔하려 하십니까. 제 며느리를 해친 이는 저를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에게 제 권한을 쓰겠습니다."

더는 국왕도 말릴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까지 왕비께서 단호하신 모습을 보이셨다. 다른 귀족들도 보는 앞에서.

페르도가 고개를 마구 저어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전하. 저는 전하만 믿고 있다고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국왕이 멈칫하고 있었다. 가만한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던 왕비께서 오늘 처음으로 소리를 높이셨다.

"시종들은 무엇하나. 어서 페르도 부인을 체포하라!"

당신이 가지신 처단권을 직접 쓰시겠다는데 국왕도 이제 다른 소리를 하지 못했다. 이미 질질 끈 것으로 충분했다.

페르도가 비명을 지르는 속에서 피고인석으로 함께 끌려 나왔다. 차마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린 국왕이 재판의 끝을 알리고 나가버렸다.

시종들이 브래드와 변호사까지 마저 묶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시끄럽게 굴며 반항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덩치 크고 힘 좋은 시종들에게 당하지 못했다.

끌려나가는 내내 소란스러운 그들을 보며 방청객 쪽에서도 약간의 소란이 있었다. 옆에 앉은 이들끼리 뭐라 떠드는 것 같더니 하나씩 둘씩 무언가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귀족들이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었다. 어떤 이들은 장갑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자 자신이 하고 있던 커프스나 핀, 브로치 같은 것을 떼어내어 묶었다. 그러고는 힘껏 던져버렸다.

그중 몇 개가 끌려가는 이들의 머리를, 어깨를, 등을 때렸다. 방청석에 앉은 자들이 거의 다 동참하고 있었다. 악을 지르며 반항하던 이들이 우뚝 멈춰 섰다. 끌고 가던 시종들이 그들에게서 잠시 떨어졌다.

수북이 법정 안으로 떨어지는 장갑을 보며 셋의 눈이 사정없이 떨렸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마는 것을 끝으로 보고 나왔다. 친구들과 함께였다.

변호사는 더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브래드와 페르도는 형이 확정되었다. 세 사람은 바로 '암흑탑'으로 불리는 감옥에 갇힐 테다. 귀족들이라도 형을 사는 동안 깜깜한 벽만 보고 지내야 한다는 곳이었다.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저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도 일단 법적으로 깔끔하게 복수했다. 귀족들의 지지 하나 없었다면 더 많은 피를 흘릴 뻔했다. 큰 산등성이를 한고비 넘긴 기분이었다.

의도치 않았는데 왕비 전하께서 큰 도움을 주셨다. 오늘의 결과를 이루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닿을 듯 가까운 곳에 있음이 느껴졌다.

적당히 따뜻한 햇볕에, 마차를 물리고 릴리 궁까지 걸었다. 돌아오는 길이 전혀 멀지 않았다. 오늘 하루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의 뒷얘기는 싱케루스를 통해 들었다.

세 사람의 얘기와 그들에게서 등 돌린 귀족들. 초라하게 법정을 떠난 국왕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왕비님.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데수르고 아가씨와 그 친구들.

백성들이 신나게 이야기를 나르고 있단다. 통쾌하다 웃으며 떠드는 이들 속에서 자연스레 선악의 편이 갈렸다. 물론 그 속에서 우리는 선, 반대에 선 자들이 악이었다.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감사드리기 위해 다음날 왕비 전하를 찾았다. 전하께서는 페르도가 국왕의 여자였기 때문인지 말씀을 삼가셨다. 그저 은은하게 웃어주시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만 들려주셨다.

"결혼하고 8년이나 아이가 없었네. 가네오는 겨우 가진 아들이지. 그마저 건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딸을 낳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어.

그대가 내 딸과 같은 마음이 들어. 만나기 전에도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마음이 갔는데 보고 나니 더 그렇군. "

나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엄마 있는 사람들이 늘 부러웠다. 그럼 제 어머니가 되어 주시지 않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왕세자와 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나 역시 그냥 말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릴리 궁으로 돌아와 있으려니 좀 가라앉은 기분을 싱이 눈치챘나 보다. 응접실 창으로 멍하니 바깥 정원을 보고 있었는데 어깨를 주물러주었다.

누구 애인인지 손힘도 좋구나. 시원한 손길에 흠뻑 취해 있으려니 잉겐스 님이 훼방을 놓으셨다.

"티티 너 혼자 이상한 표정 짓고 있으니까 좀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야 싱케루스는 마법 때문에 안 보이니 그렇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요?"

"나도 보고 싱케루스도 보잖아."

그랬지, 참.

"싱, 나 정말 미친 사람 같아요?"

그의 얼굴이 있을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 싱도 나를 닮아가는지 잉겐스 님의 눈치부터 살피듯 뜸 들이더니 내 맘이 상할까 얼른 뒤에서 안아왔다.

"아닙니다. 당신은 늘 현명하고 아름답습니다."

"흥! 거짓말도 봐가면서 해야지. 얼굴도 안 보였으면서."

그런가. 울상을 지었더니 싱이 내 손가락을 들어 앞의 유리창을 가리켰다.

"창으로 리리의 얼굴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쁘기만 합니다."

우리 싱이 최고다. 아예 몸을 돌려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구나. 웃음이 삐져나오는 것을 참지 못했다.

싱과 서로 토닥여주고 웃었다. 같이 있기 싫으셨는지 잉겐스 님이 투덜대며 밖으로 나가셨다. 가시기 전에 심술을 부리신 건가 싱에게 걸었던 마법을 풀어버리셨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했으니 상관없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 싱은 순발력이 뛰어나서 괜찮다.

이제 둘만 남았구나. 고개를 들어 보니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눈에서 꽃이 피어나는 듯 화사하면서도 이슬이 맺힌 듯 순수했다. 이마는 또 어쩜 이렇게 반듯할까.

손을 들어 그의 이마를 살살 만졌다. 따끈한 체온이 느껴졌다. 손을 내려 잘생긴 코를 만지니 싱의 눈이 감겼다. 하는 김에 그의 눈썹도 쓸어보았다. 요기는 또 왜 이렇게 잘 생겼을까.

흐뭇하게 웃으며 차례차례 그의 얼굴을 다 만져보았다. 귀를 한번 슬쩍 만지고 아래로 내려왔다.

입술은... 음, 손보다 입으로 만져보고 싶었다. 그래서 얼굴을 앞으로 가져다 대는 순간 내 입을 막는 것이 있었다. 싱의 손바닥이었다.

"리리, 입 맞추는 건 당신이 성인이 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이런. 잉겐스 님이 싱을 잡고 협박하시는 것 같더니 내 남자가 넘어가 버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최대한 잉겐스 님의 정체를 숨겼어야 했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결혼하고 나면 법적으로 성인 취급을 받는다. 나도 결혼을 졸라볼까. 아버지 얼굴이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풀이 죽어 그에게서 떨어져 앉았다. 싱의 얼굴에 미안함이 떠올랐다. 왜 당신이 미안해해요. 이건 다 잉... 아니다. 그분도 나를 걱정하시니 그러시지.

다시 싱의 옆으로 갔더니 그가 엄지로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문질렀다. 마치 커다란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호소하는 눈빛이었다.

그게 뭐라고 기분이 금세 풀려버릴까. 내 애인이 이제는 은근슬쩍 애교도 부린다. 이걸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고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웠다.

아니지, 싱의 이런 모습은 나만 봐야 한다. 이런 건 다른 남자에게도 함부로 보여줘선 안 된다.

그때 창밖으로 아스라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원에서 아길리스가 웃고 있었다. 혼자 중얼거리는 입술만 눈에 띄는 걸 보니 잉겐스 님이 저기 가셨나 보다.

요즘 릴리 궁 시녀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슬금슬금 피한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저걸 보고 그런 건가. 내가 보기에도 아길리스는 좀 미친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밖에서 저러지 않으니까. 싱을 보니 그가 나를 보며 방그레 웃고 있었다. 입술이 참 예뻤다. 아직 5개월 하고 며칠 더 남았는데.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는데도 이번 생일은 유난히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 국왕은 하루 동안 칩거에 들어갔다. 그녀를 향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그랬을까. 아니면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 일에 화가 나서였을까. 어떻든 그의 속은 알 수 없었다.

그가 겉으로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방심할 수 없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싱은 아스트룸 본점으로 돌아갔다.

왕의 군대와 공작의 사병이 함께 주둔하고 있다는 레푸스 영지는 갈수록 염탐하기 더 어려웠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싱은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다.

영지 안의 형편까지는 몰라도 됐다. 군대가 언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었다. 어차피 우리 루베르로 올 것도 다 알고 있으니 그것만 챙기면 됐다.

그러고 보면 전생에서 싱은 궁에서 도망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마치 그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게 그 정보들이 너무나 필요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당신도 돌아온 건 아니겠지. 혼자 생각하다 피식거렸다. 나의 회귀 사실을 알릴까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병사들이 공작의 영지에 주둔하고 있는 게 확실했다. 그곳에서 루베르까지 이동하려면 말을 타고 이삼일 거리, 그건 기사나 기병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 대다수는 보병이었다. 그들이 이동하는 속도는 그보다 더 걸릴 것이다.

전생에서 그들이 본색을 드러낸 날이 10월 20일, 지금은 11일이니 며칠 남지 않았다. 그때에도 최대한 서둘러 준비를 마친 게 그날이라 했다.

이번에는 일이 많아 더 늦춰질지 몰랐다. 앞에서 일을 벌이며 그들의 가면이 되어주었던 페르도가 지금은 사라졌으니.

하지만 예상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거라 믿고 있다 또 당할지도 모른다. 그 반대의 상황도 가정하고 있어야 했다. 점점 더 촉각이 곤두세워졌다. 다행히 마리아 부인이 먼저 궁으로 와주었다.

"부인,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소."

"고맙습니다. 일단 아가씨께 사죄부터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오?"

"페르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고, 루베르를 떠나던 날 아가씨께서 운을 띄워주셨음에도 제가 미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느라 아가씨가 몹쓸 꼴을 겪으시게 했습니다."

그날 마차 안에서 부인에게 언질은 했었다. 그렇지만 사과까지 받고 싶진 않았다.

"이렇게 부인이 먼저 나서 주었잖소. 또 다른 이가 교사로 올 뻔했는데 부인이 힘을 써 내게 왔다는 얘기를 들었소. 그것으로 만족하오."

잘 웃지 않던 그 입매가 부드럽게 휘었다.

"아가씨는 그새 훌쩍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 기간으로 1년을 예정했었습니다만, 반년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아니라오. 모르는 게 너무 많소."

그렇게 말하며 혼자 정리한 종이를 내밀었다. 전생에서 모르는 내용을 써두었던 양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러나 그때 주변에서 도움을 얻지 못한 것도 있었기에 여전히 물어볼 게 남았다.

궁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래도 어차피 수업할 거라면 그동안이나마 노력하고 싶었다.

왕족으로 살지 않더라도 도움 될 만한 내용도 많았다. 그래서 열심히 적어놓았다.

또 부인에게 후한 평가를 받아 놓는 게 좋았다. 국왕이 일을 벌였을 때, 그러고 우리가 복수를 마쳤을 때 이 이가 우리 편에 서준다면 다른 귀족들의 동조를 얻어내기도 쉬울 것이었다.

전생에서는 내가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도중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눈이 마주치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그랬다. 그나마 감옥을 탈출했을 때는 비상 명령이 떨어진 듯 궁 안을 활보하는 귀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외로운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

종이를 자세하게 살펴본 부인이 바로 펜을 드는 게 보였다. 재빨리 일어나 잉크를 가져다주자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이내 빠른 필체로 무언가 적어 내려갔다.

이윽고 그녀가 되돌려준 것에는 내가 궁금하던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래서 스승은 실력 있는 분을 만나야 한다. 답답하던 게 깨끗이 씻겨나갔다.

"이대로 외우면 되겠소. 이해하지 못하니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부인 덕에 수월하게 해결할 듯싶소."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참, 이틀 뒤에 다과회를 여신다 들었습니다."

"그렇소. 부족한 게 많아 긴장하고 있다오. 혹여 그에 대해 내게 충고할 말이라도 있소?"

진작 치렀어야 할 일인데 왕세자의 상태가 너무 나빴다. 잉겐스 님의 말씀으로는 한때 사경까지 헤맸던 그가 의원들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미음을 먹고 있었다.

그대로 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길리스는 다른 말을 했다. 그런 놈은 쉽게 세상을 뜨면 안 된단다. 고통받을 만큼 받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니 그 말도 일리 있었다.

아무튼 그 일도 있고 내 소송 문제도 있어서 다과회 일정이 미뤄졌다. 국왕이 친히 불러 일정을 알려주기에 참 꼼꼼히도 수를 쓴다 싶었다.

노벨을 또 보려니 꺼려져서 그 기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에 지레 찔린 것인지 그가 변명했다. 귀족 사회에서 내 입지가 좁으니 이번 기회에 발을 넓히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였다.

지금 남의 입지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재판 이후 그런 여자와 짝짜꿍이 맞아 지낸 왕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었다.

무능력한 왕이었다. 그러나 왕비님에 대한 순애보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해 그나마 인기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왕이라면 고개부터 젓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저버리는 이가 다른 사람은 더 쉽게 배신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가 열심히 작업한 결과이기도 했다.

아들마저 장래의 배우자를 못살게 구는데 왕실을 어떻게 믿겠냐는 불온한 소리까지 새어 나왔다. 그런 얼간이 같은 왕자가 다음 보위에 오를 자라는 것에 불안을 내비치는 말도 많았다.

원래도 약하던 왕권이 점점 더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페르도는 없지만 레푸스 공작이 남아 있기 때문인가. 왕은 끝까지 나를 궁지로 몰 작정이었다. 그게 지금의 위기를 모면할 방편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의 속내를 알면서도 배려에 감사를 표한다 말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애초에 짧은 기간밖에 주지 않았지만 해본 일을 반복하는 것이니 더 잘할 수 있었다. 릴리 궁의 시녀들이나 왕비께서도 감탄하시는 걸 보면 내 자신감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마리아 부인에게도 내가 계획한 것을 말하고 조언을 구했다.

"저 모르게 어디 다른 곳에서 다과회라도 열어 보신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부인이 답지 않게 농담을 했다. 진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에 웃어 보였더니 부인이 기분 좋은 듯 수업을 일찍 마쳤다. 훌륭한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역시 수업 시간은 짧은 게 더 좋았다.

부인 덕분에 늘어난 시간은 다과회를 준비하는 데 보냈다. 꺼림칙했던 것까지 다 떠올려 철저히 대비했다. 그렇게 두 번째 맞는 다과회 날이 왔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정원으로 나갔다. 다과회를 위한 탁자는 전생보다 컸다. 그만큼 인원수가 늘어나 있었다.

"와주어 고맙소. 초대해놓고도 일정을 바로 알려주지 못하여 미안하오."

왕비 전하께 미리 부탁드렸었다. 마음 써주셔서 내 또래 영애들로 참석자를 구성하신 건 감사드리지만 더 다양한 연배의 부인들까지 함께하고 싶노라고.

전하께서는 흔쾌히 내 청을 들어주셨다. 용감하고 기특하다는 칭찬도 함께였다.

그 덕에 영애들은 물론, 갓 결혼한 부인부터 그들 모친 연배의 귀부인들까지 몇을 더해 부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년의 부인들이 참석하면서 내 교사인 마리아 부인도 동반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시간에 초대장을 전하자 그녀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내가 여는 첫 모임에 참석하는 영광과 함께 제자의 성취를 지켜보는 스승으로서의 보람도 가질 수 있겠노라 덧붙였다.

오늘 온 이들은 내가 다시 궁으로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초대장을 보냈음에도 일정이 밀리는 바람에 이제야 만난 사람들이다. 개중에는 일신상의 급한 일이 생겨 빠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해 주었다.

"아가씨께서 사과하시면 저희가 면구스럽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의젓하신 모습을 뵈니 오히려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에첸의 어머니였다.

"트로 후작 부인, 고맙소."

처음부터 화목한 분위기였다. 이미 친구가 된 영애가 셋이나 있었다. 그 모친들도 함께 참석해주었는데 또한 내게 호의적이었다. 다른 이들도 여러 일을 거치면서 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에는 다섯 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총 열한 명이 왔다. 나까지 더해 열두 명이 함께 있다 보니 조용한 분위기임에도 복작거리는 기분이었다.

"이 꽃의 향기가 참 좋습니다."

역시 에첸이 탁자 가운데 놓아둔 꽃을 가리키며 감탄했다. 가볍게 미소 지은 뒤 시녀들을 시켰다. 앉은 이들 옆에 조그맣게 포장된 화분을 놓아두도록 했다.

"'헬리오트로프'라는 꽃이오. 왕비 전하께서 타국의 사신에게 특별 선물로 받으신 걸 일부러 내 정원에 심어주셨소. 그중 일부를 그대들을 위해 나누어 선물하고 싶었소. 돌아갈 때 가져가도록 하오."

탄복하는 소리들이 나왔다. 대부분 만족한 얼굴인 데 반해 혼자 무뚝뚝하게 앉아 있는 이가 있었다. 칼리스 노벨이었다. 이전보다 좀 멀어진 자리임에도 그 밉살맞은 얼굴은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페르도가 사라졌으니 그녀가 오지 않을 가망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막판에 그녀의 이름이 추가된 것을 보면 전생에서도 진짜 손을 쓴 것은 레푸스 공작이 아니었을까 싶다.

노벨이 그 딸의 시중을 든다고 했었다. 알고 보니 최종적으로 부숴버려야 할 인간들은 왕과 공작이었다. 오늘은 먼저 저치부터 치울 작정이었다.

그녀를 흘깃 쳐다보니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양하고 있었다. 왜 안 저러겠나. 돌이켜보면 전생에서부터 작정하고 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때에는 그것도 모르고 급한 상황을 넘기느라 바빠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후에는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다 말았고. 나중에 가족들과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일의 아귀가 맞아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맘껏 날뛸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그녀가 하는 걸 보니 저 혼자 벌써 연극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시작은 마음대로였지만 끝은 그렇지 못할 것을 지금의 그녀에게는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저는 데수르고 아가씨를 뵙는 것도 영광이지만 포르체 백작님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 좋았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말씀으로만 듣다, 존경하던 백작님을 뵙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렌스라 후작 부인과 그 딸인 렌스라였다. 렌스라가 저렇게 홍조 띤 얼굴로 말하는 것은 처음 봤다.

마리아 부인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 너도나도 부인에 대한 찬사의 말을 꺼냈다. 더불어 나에 대한 호평도 함께 나왔다.

"마리아 백작님께서 데수르고 아가씨를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다 들었습니다. 저희 그이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니 아가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가씨의 행보를 더 유심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치는 어리시지만 나이 든 저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리타의 모친과 다른 귀부인의 이야기에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나를 칭찬하는 게 못마땅해서였을까. 노벨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스콘의 맛이 이상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그러게요. 저도 맛만 좋은걸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를 영애가 대화를 자르자 부인들은 일단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어린 영애들이 나서 대답하자 노벨이 흐려진 얼굴로 말했다.

"릴리 궁의 주방장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사람을 데려왔다더니 주방에서 손발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전생과 같이 노벨과 아르델 리오의 대화가 이어졌다.

"오는 길에 시녀들끼리 수군대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주방장이 갑자기 배탈이 났었소. 그래서 라벤더 궁에서 부주방장을 보내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어진 대화도 전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귀부인들이나 영애들이나 모두 라벤더 궁 사람의 솜씨를 맛볼 수 있어 좋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말과 조금 달랐다.

사고를 대비해 의원을 미리 대기시켰다. 전에는 급하게 수소문하느라 당장 시간상으로 가능한 의원이 왔지만 이번에는 여유를 갖고 실력 있는 궁의를 불러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과회 전날부터 시작해 종일 주방장 옆에서 잉겐스 님이 몰래 살펴보기도 하셨다. 혹시 그도 다른 자들과 한편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예전에 그가 어떤 식으로 배탈이 났는지 알지 못했기에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대신 주방장에게 수상한 음식을 건넨 시녀를 잡아 가둬둘 수 있었다.

덕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자마자 치료할 수 있었다. 먹은 것을 토하게 하고 의원이 배탈에 대비해 상비한 약까지 바로 먹였다.

주방장을 얼른 치료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는 곧 일을 재개할 수 있었다. 왕비께 사전에 라벤더 궁의 부주방장을 부탁드려놓았지만 그를 부를 것도 없었다.

노벨이 일이 틀어진 것을 경계하거나 눈치챌까 봐 예전처럼 말한 것이었다. 일의 흐름이 바뀌지 않았다 여기고 그녀가 마음을 놓도록 유도했다.

다들 그녀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들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불편한 티가 역력했다. 부인들도 함께 있으니 예전보다는 훨씬 자제한 모양새였지만 고약한 성질이 쉽게 감춰지는 건 아니었다.

"영애는 못 보던 이군요. 아까 이름을 들었을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문인데 혹시 더 자세한 본인의 소개를 부탁해도 될까요?"

리타의 모친인 파밀리아 백작 부인이 그런 노벨을 보는 듯하더니 그녀에 대해 언급했다.

"저는 푸르스라는 영지 출신이며 제 부친께서는 네블로 노벨 자작입니다"

"푸르스요? 거긴 어디인가요?"

"글쎄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네블로 노벨이라는 분도 처음 듣는 이름이고..."

자신 있게 소개했지만 다른 이들이 자신의 가문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노벨이 당황했다. 전생에서는 내가 그녀의 의도대로 당황을 드러내면서 그 자신감을 채워주었지. 지금은 그런 일 따위 하지 않는다.

"푸르스는 우리 루베르 영지 옆에 위치한 곳이오. 네블로 노벨 자작은 그곳 영주였소. 어릴 적 노벨 영애를 본 기억이 나오.

노벨 영애, 그대는 어떻게 이번 다과회에 참석하게 되었소? 아, 그대에게 뭐라 하는 말이 아니오.

다만, 왕비 전하께서 주신 참석자 명단에는 그제까지 그대의 이름이 없었소. 한데 수도 귀족도 아닌 그대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지 궁금하던 참이었기에 물어보는 것이라오."

그녀가 입을 떼려 하기에 내가 먼저 말했다. 머뭇거리기를 잠시, 이 정도는 말해도 상관없겠다 생각했는지 그녀의 입에서 공작의 이름이 나왔다.

"크리멘 레푸스 공작 각하의 추천으로 좋은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공작이? 그가 이 자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게... 제 아버지가 공작 각하의 봉신이 되셨습니다. 수도 근처의 영지를 내려받으셨기에 저도 같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마침 아가씨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니 좋은 기회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우리 얘기에 흥미로운 기색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었다.

"생각나는군요. 두 영지는 붙어 있는 곳이었죠. 데수르고 아가씨도 노벨 영애를 뵌 적이 있다 하시고, 영애도 아가씨와 인연이 있다고 말하니 어떤 사이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릴 적 친한 친구 같은 이였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자 노벨의 얼굴이 밝아졌다. 부인들이 있으니, 특히 마리아 부인을 보고, 전생보다 주눅 든 모습이던 게 어깨가 쫙 펴졌다. 그러더니 나를 보는 눈빛에 힘이 들어갔다.

"고향이 가까운 덕분에 어릴 때 뵀습니다. 저도 아가씨와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마침 그때 근방의 귀족 자제들이 모일 일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저희처럼 지방 출신이시니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그녀가 말을 끊자 귀부인들은 무표정으로 기다렸지만, 영애 중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가 있었다.

"그래서요?"

아르델 영애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노벨이 말했다.

"모임에 한 번 참석하시더니 다시는 안 오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재미있게 놀아드리기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아가씨가 그러시니 세가 약한 지방 중소 귀족들의 서러움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리셔서 그러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아가씨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탓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수도 귀족이 되었고, 아가씨도 이렇게 훌쩍 자라신 모습을 뵈니 어릴 때 함께 놀았던 기억만 남아 흐뭇할 뿐입니다."

씁쓸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하니 앉은 이들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과 불편한 기색이 떠오르다 사라졌다. 특히 마리아 부인은 미간을 찌푸린 채 굳은 표정으로 노벨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린 사람들끼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아가씨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렌스라 후작 부인의 말에 노벨이 이해한다는 듯 가증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까닥거렸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아가씨가 저희를 무시하셔서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럴 사정이 있기는 했었소. 그때 노벨 영애와 그 친구들의 모임에 다녀온 후 한동안 내가 말을 잃어버렸거든."

노벨의 처진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나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낼 리 없다고 여겼겠지. 그런데 말이다, 전에는 당황하고 분노하느라 그에게 모자란 대응을 보였지, 그게 내 약점이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노벨 무리와 어울렸을 때 내가 놓친 게 있다면 그들의 심보가 그렇게 고약하고 악질이라는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내게 상처를 가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아주 넓게 양보하여 평민 출신의 부모를 뒀음에도 고위 귀족 영애가 되었고 왕세자빈으로 내정된 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치자. 하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자격지심 문제이다.

내 아버지는 정당하게 귀족이 되었고 베푼 것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내가 그 딸로 태어나 혜택을 누린다 한들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살피기 위하여 그들보다 훨씬 큰 노력을 했고 남의 것을 온당치 못하게 빼앗은 적도 없다. 나는 오히려 내 아버지가 노력한 결과를 노력 없이 누리는 자식이 될까 봐 더 조심히 살았고 더 많이 나누었다.

그들에게는 나를 괴롭힐 권리 따위 없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일에서 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어야 하는가.

진짜 권리는 나에게 있었다. 억울하게 당한 만큼 갚아줄 권리. 오늘 나는 노벨에게 피해자가 진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려 한다.

"세상에, 그럼 말씀을 못 하셨다는..."

"그렇소. 어린 마음에 심하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거든."

저열한 호기심이 아닌 안타깝고 따듯한 궁금증을 담고 있는 얼굴들에 이제는 괜찮다는 듯 가볍게 웃어 보였다. 그런 후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노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자신에게 다가서는 나를 보더니 그녀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어도 손가락이 바르르 떨리는 게 보였다. 그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노벨 영애의 말에 의문점이 있어 말이오. 재미있게 놀아줬다는데 나는 왜 끔찍한 기억만 나는 걸까."

흠칫 놀란 몸을 가볍게 토닥여주는 척하면서 더 힘주어 잡았다. 아실을 끌고 다니느라 내 손아귀 힘은 센 편이다. 아플 텐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있으니 내색도 못 하고 그저 가만히 잡혀만 있는 게 우스웠다.

이렇게 남의 눈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구나.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이를. 자기보다 약자라 여긴 어린 나에게나 제힘을 휘두르던 이따위 것에게 나는 상처 입고 말았구나.

"혹시 그 못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친구가 된 후 리타와 서로 어린 시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 있었다.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귀족 아이들 제패 활극에 웃었다면, 리타는 내가 괴롭힘당했던 과거에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나를 많이 위로해주었다. 나 대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때 리타가 너무 크게 화를 내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다. 노벨에 대한 것도.

이제 내 친우는 그때 이야기 속 인물 중 하나가 오늘 참석자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다. 이를 꽉 깨물고 노벨을 노려보는 눈이 장난 아니었다.

"외람되지만 무슨 사연인지 저희도 들을 수 있을까요?"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에 파밀리아 백작 부인이 나섰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묻는 듯 둘러보다 모두 동의하는 듯하자 나를 보며 조심스레 청했다.

노벨의 눈동자가 데구루루 구르는 게 보였다. 탁자 위의 홍차를 힐끔거리는 게 차라리 배를 부여잡고 흐름을 끊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럴 줄 알고 아직 카모마일 차를 내지 않았다. 오늘의 연극은 내가 정한 순서대로이다. 같은 편인 시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있는 그녀를 보며 오래전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얘기였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처음 이야기해보았다. 그래서 괴롭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 일로 참 길게도 어두운 시절을 헤맸다. 그런데 내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얼굴들에 마음속 응어리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리타에게 이미 한 번 풀어놓았기 때문일까. 그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나름대로 담백하게 풀어놓았다고 생각했건만. 오늘은 아예 마음 깊숙한 곳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내 안에서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놀라운 감정마저 들었다.

상처가 아문다는 건 이런 건가 보다. 다른 이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키려 만든 자리에서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 어쩐지 눈물이 비칠 것 같아 얼른 몸을 돌려 제자리로 갔다.

그동안 자리한 사람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노벨을 보는 표정에서 저마다 드러낸 감상은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중 공통되는 게 있다면 경멸이었다.

"어리다고 모든 잘못에 면책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숙하기에 선악 구분에 서툴러 그릇되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애와 친구들이 행한 일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군요. 어려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징그럽고 영악합니다."

마리아 부인이 가차 없는 태도로 그녀를 꾸짖었다.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이는 노벨을 일별하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아가씨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하셨습니까?"

"나는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소. 내 부친도 마찬가지였소."

"차라리 그들의 부모를 불러 따끔히 혼이라도 내주시지 그랬습니까?"

아르델 영애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야 편히 과거를 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내 상태가 심각하였소. 부친께서는 꽤 오랫동안 나를 달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셨지.

증거도 없는 일로 하위 귀족들을 압박하려다 자칫 잘못하면 고위 귀족이 행패를 부리는 꼴이 되지 않겠소. 하여 함부로 나서지도 못했다오."

친구들이 다정한 눈으로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왕세자빈으로 내정된 가문이라 행동에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었소. 하여 내가 나은 후 그들에게 응징을 가하시려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고개를 흔들었던 기억이 나오."

"같은 또래의 영애와 영식들인데 그 처사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작님께서 하고자 하셨다면 그 아이 중 잘못을 뉘우쳐 아가씨를 위해 증언을 해주는 이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세베루스 백작 부인이었다. 그 남편이 답답한 성격인 것에 비해 부인은 슬금한 이라 했다. 그만큼 겉으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속은 슬기롭고 너그럽다는 말이었다.

그녀에게 고개를 저었다.

"나도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어 여쭤보았소. 아버지 말씀이 만일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셨다 하오. 주동자인 노벨 영애는 워낙 악질이라 제쳐두고 말이오."

다시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려 했다.

"그날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하오. 모두 한편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속에서 노벨만 푹 수그린 채였다.

"도대체 어떤 멍청이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얼굴이나 보고 싶군요. 여기 노벨 영애 말고, 또 누가 있는 겁니까?"

한 귀부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귀족 자제들의 예의범절을 따지기로 유명한 이였다. 세베루스 후작 부인이었다.

내가 가만있자 그가 노벨에게 윽박질렀다. 마지못해 그 입에서 그때 무리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하, 별 같잖지도 않은 것들이.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고만고만한 가문들을 가지고.

제가 함부로 지위고하를 따져 사람을 대하는 짓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만 그들에게는 그런 노력조차 아깝습니다."

세베루스 부인이 괄괄한 성미를 가진 이라는 것은 들었다. 꼿꼿하기로 소문난 그 남편도 한 수 접어줄 만큼 대단한 성정이라고는 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길길이 날뛰어줄 것이라고는 헤아리지 못했다.

노벨을 닦달하여 그들의 아비 이름까지 캐어낸 부인이 들은 것을 외우려는 듯 노벨에게 재차 말하게 했다.

그러다 열이 오르는지 열심히 부채질하는 모습에 옆에 있던 그의 며느리가 재바르게 움직였다. 얼른 홍차를 식히더니 그녀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노벨은 오들오들 떨면서 자리를 지켰다. 일어서려는 기색을 보이자마자 세베루스 후작 부인이 눈을 홉떴기 때문이다. 엉거주춤 다시 주저앉아서 오도 가도 못 하고 있는 모양새가 한심했다.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소.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만든 자리에서 실수한 듯해 유감이오."

주최자로서 두고 보기만 하면 안 되겠기에 적당한 시점에서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리고 벌써 공기가 과열되기에는 일렀다.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이쯤에서 진을 다 빼놓으면 안 됐다.

"아닙니다. 아가씨께서 당하신 못된 짓을 저희가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동안 가슴에만 담아두셨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이런 걸 털어내려면 잘못한 이들의 사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개를 내저었다. 세베루스 후작 부인이 뭐라 하려는 걸 손을 들어서 막았다.

"다 지난 일이오. 어릴 시절에는 그보다 큰 상처가 없어 보이더니 자라고 나서 그런 것쯤 별일 아닌 일이 되기도 하였소.

기껏 와준 노벨 영애나 그녀를 이 자리에 내보낸 레푸스 공작도 모임을 망칠 작정은 아니었을 것이오."

그쯤에서 수습하려 하자 다른 이들도 따르겠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몇몇 이들이 레푸스 공작이라는 이름에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생각에 잠긴 얼굴들 위로 미심쩍은 감정이 지나고 있었다.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가 미련이 남은 듯한 사람도 보였다. 나도 그렇게 말은 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그들의 말이 고마웠지만 아직 아니었다. 아니, 더는 아니었다. 한때는 저것의 사과를 받으면 내 화가 좀 사그라들 수 있을까 기대한 적도 있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진심 어린 사과면 괜찮을 줄 알았다.

많은 일을 겪고 돌아와 보니 그런 것 다 쓸데없었다. 한참 지나 떠밀리듯 받는 사과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과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나.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할까.

필요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였다. 저치가 나와 내 아버지가 겪은 만큼 고통을 겪는 것. 개인마다 아픔을 느끼는 수치가 다르다 한들 상관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어둠을 선사해주면 그만이니까.

더는 그들이 잘 지내는 게 싫었다. 남에게는 상처를 줘놓고 저들은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꼴을 놔두고 싶지 않았다.

꼭 내 손을 더럽혀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내 복수를 타인에게 맡겨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무책임이 아닐까 싶었다.

지금은 노벨 하나다. 그러나 그녀가 끝이 아니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전히 무리를 형성해 어울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모두 레푸스 공작가와 연결되어 있으니 함께 치워버릴 수 있었다.

엔리케에게 눈짓했다. 이윽고 시녀들이 카모마일 차와 새 식기들을 대령했다.

웨르미노 테레도도 함께 나왔다. 그걸 보는 노벨의 눈이 살길을 찾았다는 듯 휘고 있었다.

각자 앞에 놓인 도기류 다기들을 싹 치웠다. 새로 내온 것들은 은 제품 일색이었다.

"은찻잔과 받침에 금으로 무늬를 둘렀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푼에도 그래요. 모든 식기의 무늬가 다른 듯하면서도 같은 양식으로 귀결되는군요."

나이 든 부인일수록 더 마음에 들어 했다. 싱이 특별히 장인을 수소문해 소개해주었기에 더 뿌듯했다.

"왠지 차 맛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띄워진 물을 마시고 난 후 참석자들의 얼굴에 감탄이 서렸다.

"이전에 마시던 것보다 더 상큼한 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기존 카모마일보다 더 상등품 같습니다."

영애들뿐만 아니라 부인들의 입맛도 사로잡은 걸 보고 노벨에게 눈을 돌렸다. 배를 잡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 테레도가 안절부절못한 양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영애!"

적절한 시간을 재고 있던 건가. 노벨이 찻잔을 집어 던지는 것과 동시에 테레도가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무슨 일이에요?"

옆에 있던 영애가 놀라 일어났다.

"차가 상했어요!"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고는 노벨이 외쳤다.

"이런 걸 대접한답시고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배가 꼬일 것처럼 아파요!"

배를 부여잡고 씩씩거리는 게 콧김이라도 내뿜는 줄 알았다.

"저는 괜찮은데요?"

"제 것도 맛만 좋습니다."

안 좋은 인상이 박혀버려서인가 아프다는 데도 반응들이 시큰둥했다. 제 잔을 바닥으로 던져버려 찻물이 다 쏟아졌다. 다른 이들이 그 맛을 확인해보려 해도 할 수 없었다.

타인의 동감도 얻지 못하고 홀로 짜증을 부리는 이에게 무심하게 물었다.

"다른 이들은 다 괜찮은데 왜 영애 것만 문제라오?"

"그러게 말입니다."

내게 맞장구치는 리타의 얼굴이 속 시원해 보였다. 그에 노벨이 어처구니없는 표를 내더니 대뜸 뒤에 있던 테레도의 멱살을 잡았다.

"너, 바른대로 말해! 차에 뭘 탄 거야?"

"어허! 영애의 몸가짐이 저래서야, 원. 노벨 영애, 여기 식기들이 다 은제류요. 독이라도 들었으면 이미 변색하고도 남았을 거요."

트로 후작 부인이 그녀를 말리는 듯 비난했다. 그에 노벨은 더욱 요란스레 테레도를 족쳤다.

"은으로 가려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바로 말하지 못해?!"

부인들이 눈치를 주자 그 옆에 있던 영애들이 노벨을 말리려던 순간이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우는 시늉을 하며 테레도가 넙죽 엎드려 버렸다.

"응?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르델 영애의 말이 다른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사건의 전후 관계를 거의 아는 나도 테레도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긴장감 없이 오히려 흥을 느끼는 내 얼굴이 노벨을 자극한 것일까.

"이 여자가 자백하려고 합니다. 어서 왕실 경비대를 불러주세요!"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이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왕이면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겠지.

"엔리케, 어서 병사들을 부르게."

모임을 준비한 내가 강하게 나오자 다들 놀랐다. 테레도마저 그랬는데 오직 노벨만이 달랐다. 나를 보며 여봐란듯이 무섭게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당당한 꼴을 보니 무슨 속내를 품고 있을지 알 것도 같았다. 어쩌면 그녀와 나는 처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바로 지금이 연극의 절정이라는 생각을 말이다.

일단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녀들을 시켜 웨르미노 테레도를 묶었다. 그와 함께 주방장을 돌본 후에도 보내지 않았던 궁의로 하여금 노벨을 진찰하게 했다.

여인들이 제자리에 앉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은 노벨이 배탈이 났노라 진단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무얼 잘못 먹은 듯하다는 말에 그녀가 아픈 와중에도 거봐라, 하는 듯 으르렁댔다.

얼마 기다리지 않아 병사들이 왔다. 내가 있는 자리여서인지 경비 대장까지 출동했다.

전생에서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갔던 이를 다시 보며 얼굴이 굳을 것 같았지만 참았다. 노벨과 테레도를 처리하는 게 우선이었다.

"데수르고 아가씨, 저는 왕실 경비 대장 미하엘 콘체르트 준남작입니다.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오셨네. 여기 이 영애가 차에 이상이 있다 주장하고 있네. 그리고 이 시녀는 자신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고했지. 우리도 아직 자세한 정황은 듣지 못했네."

말을 나누는데 노벨이 참견했다.

"시녀를 끌고 가지 말고 여기에서 조사하도록 해요. 이 여자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경비대 병사들이 온 후로 더욱 기가 살아난 노벨이었다. 어떻게든 여러 귀족 앞에서 사건을 까발리고 싶어 하는 것이 눈에 훤했다.

마리아 부인이 그녀의 말을 막으려는 걸 저지했다.

"괜찮군. 어찌 보면 나도 관계된 일이니 이 자리에서 신문하는 것을 함께 봤으면 싶으이."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은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과회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듯 다들 간이 신문장을 향해 의자를 돌려 앉았다. 이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을 터였는데 내색하지 않고 잘 응해주었다.

"이름과 직책은?"

"웨르미노 테레도입니다. 릴리 궁의 차에 관해 전반적인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자백하려는 것은?"

"실은..."

"자백하려는 것은?"

"다과회 직전, 모임에 내놓을 차들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모마일 차통마다 벌레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테레도의 말에 세베루스 후작 부인이 얼굴을 찡그렸다. 다른 이들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닫고 있는 입매들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내올 차들이 다 그런 상태라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방장도 다른 궁의 사람을 빌려온 마당에 그런 사고까지 알려지면... 모임의 주최자이신 데수르고 아가씨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차통의 벌레들을 일일이 다 골라낸 후 카모마일 차를 그대로 내게 되었습니다."

"우웩."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르델 영애가 구역질했다. 그러곤 한순간 눈들이 집중되자 제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했다.

"그 일은 자네의 독단이었나?"

"아닙니다. 데수르고 아가씨께서 결정하신... 저도 아가씨께 상황이 급하니 그렇게 하자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제 말을 따르실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가씨처럼 고귀하신 분이 이런 형편없는 행동을 하실 줄은... 모임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 억지로 참고 있었지만 노벨 영애께서 몸까지 상하시는 걸 보니 도저히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테레도의 말이 끝나자 경비 대장이 곤란한 눈으로 나를 봤다. 의자에 앉아 지켜보던 것을 멈추고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웨르미노, 자네의 말에 의하면 내가 오염된 차를 내놨기 때문에 노벨이 해를 입었다는 것이지?"

"그, 그렇습니다."

전생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내게 맹랑하게 굴던 얼굴이 선명하건만 지금은 내가 제 목숨줄을 죄고 있다는 듯 벌벌 떨고 있었다. 릴리 궁의 시녀들이 눈을 부릅떴다.

모임 직전, 웨르미노에게는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고 믿을 만한 이들에게 따로 차통과 찻주전자를 준비시켰다. 그때에도 군말 없이 따랐던 이들이다.

당시에는 설명하지 않았기에 이제야 내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아챈 이들이 테레도를 쏘아봤다.

"엔리케, 오늘 내놓은 카모마일 차에 이상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어떠한 흠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곳의 시녀들은 모두 데수르고 아가씨와 한편입니다!"

"마치 자네는 내 편이 아니라는 소리 같군."

테레도가 흠칫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고 보고 있던 노벨이 나를 가리키며 간섭했다.

"이 일의 책임자는 저분입니다. 준 왕세자빈의 지위에 계신 분이라 하나 저분은 귀부인들과 영애들을 해칠 뻔한 장본인입니다. 실제로 저는 피해까지 보았는데 왜 가해자가 당당히 조사에 임하는 겁니까?"

일견 사리에 맞았다.

"그러하네. 왜 가해자가 당당히 나서는지 모르겠군."

노벨을 무시하듯 봐주자 어이없는 표정이 돌아왔다. 내가 적반하장의 짓이라도 벌인다는 얼굴이었다.

"스텔라, 자리에 내놓은 것 중 남은 것을 통째로 모두 내오게.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된 카모마일 차를 따로 모아 오게."

"네, 명 받듭니다."

테레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는 것을 덤덤하게 응수했다. 곧 밝혀질 일이었다. 그녀의 의문에 따로 친절하게 답해줄 일이 뭐가 있겠나.

"여기 가져왔습니다."

"참석자분들이 계시는 탁자 위에 내려놓게."

스텔라가 가져온 것들을 늘어놓았다. 경비 대장과 병사들까지 모여들었다.

"이것은..."

"두 통의 꽃들이 서로 잎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

영애들의 말대로였다.

"이것은 같은 카모마일이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이오.

원래 내려고 했던 카모마일은 '저먼'이라고 하며, 오늘 여러분께 대접한 것은 '로먼'이라 부르고 있소. 루베르에서 기존의 저먼을 개량한 것이오."

"그렇군요."

새로운 것이라는 말에 흥미를 드러내는 이들을 보다 테레도에게로 고개 돌렸다.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내 말에 놀라 일어나려 용을 쓰고 있었다. 병사가 막으려는 걸 놔두게 하고 그녀가 직접 둘의 차이를 확인토록 해주었다.

"그럴 리가... 분명 다른 차는 없다고... 그럼 나를 속이기 위해? 설마,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테레도가 혼잣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는지 노벨이 퍼뜩 머리를 들었다.

의원에게 그녀를 완전히 치료하지 말고 적당히 봐주기만 하라고 넌지시 말해두었다. 내 말을 잘 따른 것인지 노벨은 얼굴이 노래져서 아까보다 더 많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도 굳이 들어가서 쉬라는 의원 말을 무시했다. 나로서도 그녀가 이곳에 있기를 원했기에 그대로 두었다.

내온 차 재료를 볼 때부터 입술을 질근질근 씹고 있기는 했다. 그러더니 테레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배를 잡고 뒹구는 게 아닌가.

"아아! 배가 너무 아픕니다. 어서 저를 안으로 데려다주세요."

앓는 목소리로 호소하는 그녀를 보며 몇몇 병사들이 안 된 얼굴을 했다. 누군가 그녀를 부축하려 하기에 멈춰 세웠다. 몸을 웅크리는 노벨을 보며 말했다.

"궁의, 나는 노벨 영애가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했으면 싶은데 자네의 의견을 듣고 싶군. 그녀의 상태를 다시 봐주겠나?"

"알겠습니다. 음...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굳이 안으로 모실 것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눈치껏 말하는 의원에게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미래를 내다보고 나에게 줄을 대려는 그자의 처신을 나무랄 필요는 없었다. 알아서 해주니 고마울 뿐이었다.

누가 봐도 아픈 얼굴인데 의원이 다르게 말하자 사람들은 그녀보다는 의원의 말을 더 믿었다.

"노벨 영애는 연기 실력도 일품이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의 못된 품성이 어른이 되어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몸을 크게 떠는 그녀에게 들으라고 한마디 했다.

"지금 그대 옆에 있는 의원이 최고 어의 다음으로 이 궁에서 실력자라네. 그대의 말은 믿기 어렵군."

나를 보는 그녀의 얼굴에서 악귀가 드러났다. 뭐라 말하지 않았지만 온 얼굴로 드러내는 악의에 그를 본 사람들이 섬찟해서 물러났다.

경비 대장조차 입을 벌리고 쳐다만 볼 정도였다. 렌스라 후작 부인이 그녀를 보며 몸서리를 치다 말문을 열었다.

"아가씨께서는 진짜 사정을 알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도 사정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소. 거슬러 올라가면 모이카라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해야겠소."

옥에 갇힌 사람의 이름이 나오자 병사들이 얼굴을 찡그렸다. 일전에 매수해둔 자가 감옥 사정을 알려주었는데 그곳에서 모이카의 패악이 대단하다 했다.

"그녀가 페르도 부인의 주선으로 세자 저하께 접근한 것은 이제 유명한 얘기이지."

부정하지 않는 얼굴들에 노벨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그 부인과 인척 관계인 레푸스 공작가를 들락거린다는 첩보를 들었소."

그것까지는 내가 모를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페르도 부인이 모이카나 다른 여자들을 저하께 붙인 것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와 저하의 사이가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소.

부인이 나를 고깝게 보고 여러 번 해를 가하려 했다는 것은 다들 알 것이오.

레푸스 공작까지 내게 그럴 일이 있겠나 했지만 한번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더군. 형부와 처제 사이가 아주 돈독하다는 소문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소.

아니나 다를까 다과회를 앞두고 누군지도 모를 이의 힘으로 저자가 명단에 떡하니 이름을 올린 게 아니겠소."

공작에 대한 말까지 나오자 한층 긴장한 얼굴들에 다른 말을 꺼냈다.

"더 설명하기에 앞서 그대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싶소."

"무슨 일을 말씀입니까?"

파밀리아 백작 부인의 물음에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요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진 자는 라벤더 궁의 부주방장이 아니었소. 릴리 궁의 주방장이 모두 담당했다오."

놀라 커진 눈 중에서 노벨과 테레도가 제일 두드러졌다.

"노벨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도 있기에 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소. 만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싶었지.

다행히 의원을 대기시켜 놓았기에 주방장은 즉시 치료받고 일을 계속할 수 있었소."

"그런데 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주방장이 배탈을 일으킨 것도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오."

"그 말씀은..."

"그를 병들게 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손을 쓴 시녀를 잡았다오. 그녀가 다 털어놓았지. 웨르미노와 모의한 일이라고."

아니다. 시녀는 여전히 입을 꾹 닫고 갇혀 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에이미가 자백했다고요?"

테레도의 외침에 그녀에게로 시선이 쏠렸다.

"거 보시오. 내가 누군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녀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며 테레도가 낭패한 얼굴이 되었다.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웨르미노와 노벨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소. 그래서 둘 다 일이 틀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대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말았소.

그 점은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무서워서 다과회 준비도 제대로 못 했을 텐데 아가씨는 오히려 범인을 잡아내기까지 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들 말해주어 고맙소. 릴리 궁의 시녀들이 많이 도와주었소."

칭찬에 시녀들이 기쁜 티를 내지는 못하고 얼굴을 붉게 물들이는 자들은 있었다.

"차통에 벌레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도 의심부터 들었다오. 수시로 확인한 것에 모임 직전,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닌 다량의 벌레가 들끓는다는 말을 들으니 이상하지 않겠소?

더구나 웨르미노는 더러운 차를 몰래 내놓자고 하니 그들이 꾸민 일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했소.

마침 루베르에서 가져온 것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지금 돌아보아도 아찔하오."

경비 대장에게 말했다.

"멀쩡한 차를 가지고 난리를 친 노벨 영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테레도 영애와 한편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 즉답을 내놓았다. 기가 막힌 건지 놀란 건지 오도카니 서 있는한 노벨에게 세베루스 후작 부인이 버럭 호통을 쳤다.

"데수르고 아가씨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런 짓까지 벌이다니.

아까부터 멀쩡한 음식을 탓하는가 하면 근거 없는 말로 아가씨를 헐뜯으려 하는 걸 내 모를 줄 알았더냐!

네게는 진정 귀족 대우는커녕 사람 취급도 아깝다!"

다과회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노벨과 테레도를 비난했다. 이미 포박된 테레도와 달리 자유로운 몸이었던 노벨이 견디기 힘든 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물더니 곧 무슨 결심을 한 것 같았다. 어떤 결심이었는지는 바로 드러났다. 나를 향해 달려들었으니.

몸이 아픈 사람과 평소 승마를 즐기던 건강한 사람 중에 누구의 동작이 더 빠를까. 내 순발력은 어디 가서 뒤떨어질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오는 방향을 피해 옆으로 움직였다. 그마저 내게 닿지 못하고 발이 꼬였는지 앞으로 엎어지는 모양새가 처량하기까지 했다. 병사들이 쿡쿡 웃음을 참지 못하자 저도 창피한지 고개를 땅에 처박고 있었다.

마리아 부인이 엄한 목소리로 경비 대장을 불렀다.

"노벨 영애를 체포하시오. 이 정도면 상황이 명확하지 않겠소. 단순한 분탕질이 아니라 감히 왕족에 준하는 아가씨를 모함하고 모욕하려 하였소. 그러니 이유는 충분하오."

그러더니 노벨에게도 일렀다.

"뒷배를 믿고 설쳤나 본데 절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오. 설혹 재수가 좋아 그대가 빠져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필코 그대를 사교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소."

단호한 말에 노벨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알겠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부인들과 영애들께 추후 증언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겠노라 말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경비 대장이 부하들을 시켜 노벨을 포박했다. 악이라도 쓸 줄 알았는데 반항할 의욕마저 잃은 듯 노벨이 힘없이 딸려갔다. 몸이 심하게 아픈 탓일지도 몰랐다.

잠시 병사들을 멈추게 했다. 그녀에게 가까이 가자 눈빛에 불평의 빛이 반짝하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그래, 이래야 그답지.

공작과 왕의 군대, 그리고 푸르스와 루베르 경계에 묻힌 폭탄의 존재.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생에서 '더 높은 곳의 모이카' 운운한 것을 봤을 때 공작의 둘째 딸이 왕세자와 비밀 혼약을 맺은 것도 이 자는 알고 있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조용히 넘기려는 것이었나. 그녀의 꿈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당분간은 내버려 두기로 했다. 꿈이 클수록 터졌을 때의 상실감도 더 클 테니.

단지 지금 꼭 그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녀의 귀에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네가 마신 그 카모마일 차. 테레도가 너를 위해 따로 빼둔 깨끗한 차인 줄 알았겠지."

뒷말이 무슨 말인지 벌써 알아채기라도 한 건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미리 사정을 파악한 내가 너에게 멀쩡한 것을 줄 리 없지 않겠나. 그것, 너희들이 준비한 차였어. 바퀴벌레가 잔뜩 들었던 것.

거기다 시녀가 주방장에게 먹게 했던 것도 남아 있어 같이 넣었지."

입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끌려가다 말고 속에 든 것을 다 게워내는 그녀를 굳이 볼 필요는 없었다.

병사들이 두 영애를 데리고 사라진 후 비로소 마음 놓았다는 듯 영애들 틈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나왔다.

"내가 벌인 일은 아니나 그대들도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 유감이오."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나저나 레푸스 공작님은..."

그에 대한 말을 다 잇지 못하는 건 모두 같았다. 아니다. 한 사람은 예외였다.

"그 사람이 능력은 좋다지만 그 속이 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악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좋다는 게 좋은 의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릅니다. 그만큼 뒤에서 술수를 잘 부린다는 뜻입니다.

제 편인 사람들을 다 죽인 국왕 전하 치하에서도 그만은 살아남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는 오늘 잡힌 두 사람을 조사한 후 국왕 전하께 바르게 다스려 주십사 청을 넣도록 하겠소.

영애들은 모르겠으나 부인들은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 곳에 모셨으니 좀 더 다과회를 즐기는 게 어떻겠소?"

심각한 표정들을 바꿔 편한 얼굴을 해 보였지만 다들 다른 생각에 깊이 빠진 모습이었다.

다과회를 이만 접어야 할까. 사소한 고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고 문득 긴장이 풀렸다. 연극이 끝나고 난 후의 공허한 심정 같은 건 날려버렸다.

"쌀쌀해진 느낌인데 응접실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소? 주방장에게 솜씨를 발휘하여 아예 저녁까지 만들라 할 수도 있소."

내가 풀어진 걸 그들도 느꼈겠지. 기꺼운 대답들이 나오는 것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들과 저녁을 즐기기 전에 잉겐스 님 식사는 따로 마련해두어야겠다. 나만 맛있는 걸 먹으면 삐치실 게 분명하니까.

좀 전까지 옆에 계신 것 같더니 일이 끝나자마자 목소리가 사라졌다. 저쪽에서 아길리스가 웃음을 참는 듯 보이는 게 그리로 가셨나 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없어도 나도 함께 웃었다.

날이 밝자마자 헬리오스 궁으로 시녀를 보냈다. 사건을 명명백백 밝혀주십사 국왕에게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시녀가 갔을 때 이미 왕비 전하께서 궁을 다녀가신 후였다고 한다. 그분도 어제 일에 대해 말씀하러 오신 듯하다고 했다. 국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시던 분께서 움직이셨다는 얘기 뒤로 다과회 참석자들의 이야기도 들렸다.

마리아 부인은 궁정 관리들을 모아 노벨과 테레도를 엄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인들도 남편을 움직여 왕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쓰도록 만들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 모두 문제의 차를 마실 뻔했기에 사정을 들은 다른 귀족들도 그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왕에게 올라오는 서한 중 그들의 것을 제일 먼저 보고에 올려주었다고 한다.

특히 세베루스 후작 부인은 남편을 대동하여 왕에게 직접 쳐들어갔다. 말로만 들었지 그렇게 화를 내는 부인을 처음 봤다는 왕은 그녀를 보고 혼비백산하고 말았단다.

이걸로 국왕의 권위는 간데없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돌고 있었다. 귀족 부인의 호통에 당하는 왕이라니. 그를 몰아세운 부인이 아니라 그녀에게 당한 왕이 비난받았다.

"왕이 유일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세베루스 후작이라고들 했잖아. 이제 그 말이 바뀌었대. '후작'이 아니라 '후작 부부'로 말이야."

아길리스는 신이 나 있었다. 전날 내 활약에 깊은 감명을 받았단다. 궁에서 나가면 저희 조직의 고문으로 와줄 수 없겠냐며 벌써 나를 끌어들이려 했다.

"싱케루스가 단장답게 큰일을 했어.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다니. 추리 솜씨가 특히 일품이었지."

전생에서 다 알고 온 거니까. 그리고 나는 조직원으로 입단한 게 아니라 그와 연애를 하는 건데.

아길리스의 말을 듣고 싱과 한 직장에서 일하는 상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럼 결혼까지 하면 종일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지만 아직 이른 얘기였다. 더욱이 따로 하고 싶은 일도 계획해 둔 게 있었다. 어쨌든 성급히 결정할 일은 아니니 말을 돌렸다.

"안 추워?"

"응! 역시 잉겐스 님이 최고야!"

정원에 있는 아길리스와 응접실에 있는 내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잉겐스 님의 마법이 발전했다. 우리 대화를 같이 들으신다는 걸 아는 아길리스가 전음으로 다시 감사를 표했다.

"저를 위해 이런 마법을 걸어 주시다니 감동입니다, 잉겐스 님."

또다. 흰 몸체가 확 달아올랐다.

저렇게 쉽게 빨개지셔서 속마음이 아직 안 들통난 게 신기했다. 아길리스가 그렇게 눈치 없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가. 어릴 때 읽던 순정 그림책에서 여자 주인공이 다른 데서는 영리하지만 연애 문제에서만은 헛똑똑이인 걸 자주 봤다.

오, 그럼 아길리스는 바로 그 전형적인 '여주'? 그렇게 치면 우리 잉겐스 님이 '남주'?

그림에서 봤던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하며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음. 탁자 위에서 빨간 엉덩이가 흥에 겨워 씰룩거리고 있었다.

뭐, 남자가 어때야 한다는 것도 편견이니까. 게다가 아이로 변신해 계시면 활동성이 떨어진다며 지금은 도마뱀을 고집하시지만, 궁을 나가면 안 그러시겠지.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야말로 귀한 일일 테다. 지금은 잉겐스 님을 보며 웃고 놀리는 것보다 저 모습을 깊이 새겨둘 때인 것 같았다.

"밥은 언제 먹냐?"

"아직 때 되려면 멀었어요."

"허기져서 안 되겠다. 시녀들에게 간식이라도 넉넉하게 가져오라고 해라."

밤새 마법 연습을 하느라 머리를 너무 쓰셨단다. 그 탓에 아침 드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배고프시단다. 일어나자마자 뵀을 때 비늘의 윤기가 떨어져 있어 걱정스레 여쭸더니 그런 사정을 말씀해주셨다.

"밤부터 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지 않냐. 밖에서 일하는 아길리스가 마음에 걸리더라.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체온 조절 마법에 성공하셨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하는 김에 비행 마법과 순간 이동 마법까지 펼치실 수 있게 되었다니 놀라웠다.

나중에 궁에서 탈출할 때를 위해 필요할 것 같은 마법들을 연습했다고 하셨다. 대비책을 세워두었지만 잉겐스 님이 힘써주신다면 더 안심이었다. 아길리스와 싱, 그리고 나까지 세 사람은 충분히 데리고 이동하겠다고 하셨다.

그건 아주 고급 마법 아니냐고 했더니 당신께는 당연한 일인데 그저 조금 막혀 있었을 뿐이란다. 그런 잉겐스 님을 보면서 잘난 이가 잘난 척하는 건 별로 밉지 않다는 사실을 배웠다.

부쩍 쓰실 수 있는 마법이 늘어나고 있어 더 기대하고 있다. 인간으로 치면 현재 청년기이고 아길리스보다 조금 오빠라고 하셨으니 원래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얼른 돌아오시기를.

잉겐스 님이 어른으로 돌아오시기 위해 내가 도울 건 없을까. 그러다 어릴 때 많이 먹는 것은 다 키로 간다는 말이 떠올랐다.

왕비 전하께서 내가 대식가라는 것을 들으시고 염려하시면서도 주방 인원을 더 넉넉하게 늘려주셨다. 희한하게 주방장이나 식사 담당 궁인들은 내가 많이 먹어도실제로는 잉겐스 님이 거의 다 드시지만 다들 좋아했다. 요리하는 기쁨을 느낀다나.

주방에 말해 오후에 편히 쉬게 해 줄 테니 식사를 최대한 넉넉하게 다시 가져다 달라 주문했다. 그들은 웃는 얼굴로 아예 간식까지 잔뜩 준비해서 갖다 줬다. 그러면서 쉬는 건 싫으니 언제든 얘기하라고 말했다.

전생에서 릴리 궁에서는 몇몇 시녀들에게만 정을 붙였다면 이번 생에서는 고마운 마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며 잉겐스 님을 보고 있었다. 복스럽게 잘 드신 후 배를 대고 바닥에 누워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키우는 것이 이런 건가 하는 감상이 불현듯 들었다.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랬다. 그 '뭔가'가 드래곤이라는 걸 떠올리면 불손한 느낌도 들지만. 때로는 너무 깊게 파고들면 안 될 일도 있으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좋은 양육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나. 아버지가 즐겨 보시기에 나도 따라 읽었던 책의 내용을 돌이켜 보았다.

우선 양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댔지. 그리고 피 양육자의 상태를 잘 살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를 떠올리며 잉겐스 님을 보았다. 저거다! 배부른 상태로 누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때 싱이 준 편지에서 본 게 기억났다. 오늘 아침 그가 잠깐 들렀었다. 바쁘다 보니 여러 상황을 전하는 보고서만 주고 갔는데 따로 분홍색 봉투에 든 편지를 가져왔다.

잉겐스 님은 보고서만 같이 보셨다. 그런 색깔 봉투에 담긴 건 우리 둘만 보는 거라며 보지 않으셨다. 나 혼자 읽은 편지에는 그의 애틋한 마음도 담겨 있었지만 소소하게 웃을 거리도 들어 있었다.

"싱이 그러는데 루베르에서 잉겐스 님의 팬클럽이 결성됐대요."

"팬클럽? 무슨 그런 요상한 말이 다 있느냐?"

"설명하자면 잉겐스 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잉겐스 님 놀란 눈으로 벌떡 몸을 일으키셨다. 계획 성공이었다.

"누가누가 있는데?"

"일단 모임의 회장은 마이시 시종장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외왼데. 내 앞에서는 그런 내색 한 번도 않더니."

"그랬나요? 저한테는 자주 잉겐스 님 귀엽다고 말했어요."

"거, 그런 건 앞에서 직접 말해줘야지. 사람 참 괜찮다 싶더니 보는 눈도 제법이었군."

흥이 나시는지 또 몸을 흔드셨다. 저거 식후 운동으로 괜찮겠네.

"그리고 짱콜 주방장이 창단 멤버라네요."

"오, 매일 맛있는 걸 주던 멋진 사람이구나."

"또 있어요. 마르티스 경의 부인인 가릉빈가 백작 부인도 잉겐스 님의 열성 팬이랬어요."

"나 참. 이 인기는 어딜 가도 주체할 수 없구나."

그때 아길리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잉겐스 님, 저도 가입했습니다. 싱케루스가 돌아갈 때 제 가입서까지 가져갔어요."

"그런 건 빨리 말했어야지!"

웃느라 눈이 접히다 못해 감긴 채로 이제는 탁자 위에서 뱅글뱅글 돌기까지 하셨다. 어지럽지 않으시려나.

걱정대로였다. 너무 많이 도셨는지 비틀거리다 아래로 떨어지실 뻔했다. 얼른 두 손으로 받쳐드렸다.

"고맙구나. 흐흐흐. 이거 주책을 부렸구먼."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더 일찍 말씀드릴 걸. 더 일찍 만들었어야 했나.

"데수르고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스트룸에서도 가입자가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고마울 데가. 아, 그러고 보니 모임 명을 물어보지 않았구나."

호기심 가득한 도마뱀 얼굴이 유난히 앳되어 보였다.

"잉겐스 님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사람들, 줄여서 '잉돌기'래요."

"잉? 이름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잉돌사'보다는 나은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들이 만들었다니 크게 말씀하시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셨다.

"흠, 나중에 내가 더 좋은 거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돌아가길 원한다고?"

"네. 잉겐스 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 어서 이것들을 치우고 팬클럽 회원들을 보러 가자꾸나."

"잉겐스 님, 그런 걸 '팬 미팅'이라고 합니다."

아길리스의 말에 잉겐스 님이 반색하시더니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왜 그러세요?"

"음, 아스트룸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 환상 마법을 보여줘도 되겠지만 너희 저택에서는 너무 많이 써먹었어. 더 좋은 걸 구경시켜줘야 할 것 같구나."

그러시더니 다시 마법 연습에 매진하시는 게 아닌가.

어, 아이가 너무 공부에만 빠지도록 두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잉겐스 님께서 우리와의 전음 마법을 차단해버리셨기에 아길리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푸하핫! 리벤티아, 그런 엉뚱한 상상은 그만하고 그냥 아스트룸에 들어올 결심이나 하라니까."

잠시 혼자 웃는가 싶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해왔다.

"잉겐스 님을 보면 나도 그런 예쁜 아이를 길러 보고 싶다는 바람을 종종 가져.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아이가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어른이셔."

그렇지.

"너 잡념이 많은 걸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가 보다."

"어... 그런가?"

"그냥 넘겨짚은 거다. 뭘 또 그런가, 야. 싱케루스가 전해준 얘기 때문에 그래? 노벨 자작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딸이 붙잡혔으니 그 아버지가 움직일 수는 있어. 그건 예상했던 일이야.

다만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싸움도 일어날 테니까. 그날을 위해 준비해왔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고 보니 다들 괜찮을지 신경 쓰이네."

"아직 레푸스 쪽은 준비가 덜 되었다잖아. 노벨 자작 옆에 있는 공작의 비서가 감시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자작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겠지.

우리 예측보다 이른 시기에 전쟁한다 해도 너무 속 태우지 마. 루베르 쪽 준비는 이제 완벽해. 우리 아스트룸에서는 구경만 해도 될 정도라니 얼마나 든든하냐.

나도, 싱케루스도, 약하지 않아. 무엇보다 잉겐스 님이 계신다. 너까지 확실히 지켜낼 수 있어."

"고마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다.

맞다. 전생과는 다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분도 함께하신다. 옆에서 마법 삼매경에 빠지신 잉겐스 님이 보였다.

지금 내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닌 것 같다. 조용히 몸을 일으켜 응접실을 빠져나왔다. 그러고 주방으로 갔다.

마침 껍질을 까기 쉬운 것이 있었다. 쉬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려는 걸 달래서 막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과일을 옮겼다.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오니 여전히 몰두하고 계셨다. 탁자 위에 과일을 내려놓고 다시 나왔다.

아길리스도 바쁜 것 같으니 왕비 전하께 가봐야겠다. 어제 일을 듣고 많이 놀라셨겠지.

왕은 확실히 조사하겠다는 말로 후작 부인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정말 그럴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시간을 벌려는 속셈일 거다.

노벨 자작이 들썩거리고 있고 귀족들의 압박도 있으니 왕이나 공작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결벽 주의자라는 공작답게 이번에도 완벽히 하려 채비가 다 된 상태에서 실행할 테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이 터졌다. 우리가 꾸민 일이다. 그만큼 여론이 좋지 못한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어쩌면 그에 부담스러움을 느껴 예상보다 더 빨리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언제든 오기만 해라. 아길리스의 말대로이다. 아버지가 소식을 전해오셨다. 우리의 준비는 벌써 끝났다.

라벤더 궁에는 마침 마리아 부인이 들어와 있었다. 내 방문을 기뻐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눈 후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다.

왕비께서는 다과회 일을 언급하시며 나를 대견한 눈으로 봐 주셨다. 그건 마리아 부인도 같아서 새삼 내가 잘 해냈구나, 안도감이 들었다.

내 안색을 살피던 부인이 말을 꺼냈다.

“아가씨, 좋지 않은 이야기라 빠르게 넘겼던 이야기입니다. 아가씨에 대한 수도 귀족들의 평가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렇소. 나에 대해 그리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 했었지.”

부인은 ‘그리 좋지 않다’라고 말한 후 넘어갔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돌아오기 전에는 그 정도로 알았고 다과회 이후 적당히 좋은 소리를 들었겠거니 짐작만 했다. 모임에서 만난 영애들과 친구가 되었고 터졌던 일들도 그럭저럭 수습했기 때문이다.

페르도나 브래드, 노벨 등의 존재는 그들이 유독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게 귀족들의 인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계산은 하지 못했다. 모이카가 떠들었다는 말이야 우스운 여자가 지껄이고 다니는 헛소리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때는 국왕 부자마저 진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까. 뭔가 안 풀리는 기분에 불안해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괜찮아질 줄로만 알았다.

가슴에 화살까지 맞고서야 진실을 똑바로 봤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어리석은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회귀 사실을 털어놓은 후 우리가 따로 알아본 사실이나 싱이 보고해 준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다.

전생에서 싱이 그런 걸 말해주지 않은 건 내게 필요치 않은 일들이라 판단했기 때문일까. 돌아와서도 내가 궁에 오기 전 귀족들 사이에서 도는 평가는 최악에서 조금 나은 정도였다.

하루 대부분을 칩거하다 밖에 나와서는 말이나 달리는 영애. 그것 외에 달리 나에 대해 알려질 게 없던 건 맞다. 하나 더 있구나. 마리아 부인의 평가가 있었다. 그나마 그 덕분에 나에게 호의를 가진 소수의 귀족이나마 생긴 것이었다.

그래 봤자 소수였다. 왕이 평가서 내용이 퍼지는 것을 경계했단다. 따라서 그에 대해 아는 자라고 해봐야 월례 회의에 참석한 고위 귀족들에 한정되었다. 그때 부인의 평가서가 포함된 정기 보고가 있기 때문이었다.

혈통도 이상한데 성격까지 결함이 있는 듯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단다. 내게 호감을 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수도 귀족 중에서는 직접 본 사람도 없으니 뒷말 좋아하는 이들 틈에서 굳이 나를 위해 대변해줄 필요성도 못 느꼈으리라. 그나마 보고를 들은 이들이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라도 이야기를 전해주면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니 국왕은 데수르고에게 코가 끼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했다. 다 알고 있었고 각오했던 말이었다.

그럼에도 상처 입었다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던 세월이 너무 뼈아팠다. 타인은 내가 왜 그랬고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내가 밖으로 내보이는 행동이 중요했다.

아마도 전생에서 왕이 우리를 없애는 데 성공했다면 귀족들도 그러려니 했을 것 같다. 돌아온 직후에도 왕세자가 너무 아깝다는 말부터 데수르고가 왕비 가문이 되다니 가당키나 하냐는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으니까.

잠깐의 생각을 끝내고 이어 질문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오?”

“아가씨를 직접 본 귀족들이 늘어나면서 진실을 보기 시작한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진정 왕세자빈에 적합한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왕비 전하께서 당연하다고 맞장구를 치셨다. 무거운 생각에 가라앉았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부인이 말하는 것도 들어 알고 있었다. 궁으로 들어와 얻은 여러 성과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제 편협함을 뉘우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 탓하기를 더 편하게 여기고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 치들의 속은 보통 나약하지. 그리고 그 나약함을 숨기려 겉으로 강한 척하기도 해. 나쁜 점은 그걸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세.”

“전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과회 이후 급히 알아보았습니다. 레푸스 공작이 아가씨를 음해하려던 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니까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공작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공작이 우리 리벤티아에게 왜 그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아가씨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도 안심하고 있기에는 그의 세를 무시할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안타까움이 서린 눈들을 보며 결심을 내렸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게.”

“공작의 둘째 딸이 남편을 잃고서 돌아와 있습니다. 공녀를 새로운 왕세자빈으로 만들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왕비께서 그분답지 않게 큰소리를 내셨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버지께서 다 확인하셨소. 그리고.”

어디까지 말해도 좋을지 가늠했다. 왕비 전하는 확실히 믿는다.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실지언정 왕에게 나를 고변할 분은 아니었다.

마리아 부인을 봤다. 지난날 이 사람의 인품을 믿기로 했던 걸 떠올렸다.

“국왕 전하께서 레푸스 공녀와 비밀 혼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전하께 내가 모르는 아들이 있었던가…?”

마리아 부인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건, 그렇게까지 비열한 일을 전하께서 하셨을 리가...”

그녀의 말에 왕비께서 무언가 생각나신 듯 앉은 몸을 휘청하셨다.

“아... 어쩌면 좋을까.”

눈꺼풀이 마구 떨리셨다.

“그분은, 그이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구나.”

“제가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마리아 부인이 몸을 일으켰다. 왕비께서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잡으셨다.

“얼마 전에 들은 게 있었네.

레푸스를 계속 믿어도 될까 말씀하시며 그래도 사돈의 지위가 높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전하께서 무심결에 흘리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런 뜻이었군...”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걸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게 언제였느냐는 듯 마리아 부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리벤티아,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아버지는 뭐라 하시고?”

“전하와 레푸스 공작이 공동으로 꾸린 군대가 저희 루베르로 향해 곧 떠날 예정입니다. 이미 그들의 존재와 목적까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왕비께서 의자 손잡이를 내려치셨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국왕 전하께서 저희를 완전히 버리시려나 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마리아 부인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오보일 거라 믿고 싶군요. 그렇지만 군대의 존재를 확인하셨다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을 듯합니다. 두 분의 군대가 함께 있을 이유가 달리 없을 테니까요. 아가씨 말씀을 믿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놀래 드리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전하께서 손을 바르르 떨고 계셨다.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다.

"그대는 그대를 위한 생각만 하게.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울 테니."

잡힌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리아 부인, 부인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네."

"분부만 내리십시오."

"사람들을 모아주게. 믿을 만한 이들로만. 국왕 전하나 공작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밀리에 해야 하네.

되도록 세베루스 후작과 렌스라 후작을 꼭 포섭하게. 렌스라 가에는 내가 서신을 써주겠네.

반드시 레푸스가 탄핵당하도록 만들어보게. 전하께서 헛된 생각을 품으시지 못하도록 길을 다 차단해야 하네. 여러 의견을 생각해보게."

"명 받듭니다."

"서두르게."

급히 부인을 보내고 내게 말씀하셨다.

"귀한 사람을 데려와 고생만 시킨 것 같은데 또 이런 일까지 일어났군. 내가 대신 사과함세."

"아닙니다. 저는, 전하께서 중립만 지켜주셔도 감사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손을 도닥여주시는 데 이번에는 내가 힘을 얻었다.

"전하, 저도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게. 나도 내 궁의 아이들을 시켜 더 알아볼 테니 몸조심하고 또 보세."

그 길로 나와 릴리 궁에서 싱에게 연락을 보냈다. 이번에 수도로 올라오면서 성도 안에 임시로 저택을 마련했었다. 그곳으로 아버지께 보낼 서신을 부치는 척하면서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썼다.

하마터면 돌이 깨지는 줄 알았다, 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급히 들어온 싱에게 알렸다. 지금부터 왕과 공작의 행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다 퍼뜨리라고.

그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길리스가 전해왔다.

"궁내에 쫙 퍼졌다. 궁 밖 소식도 다르지 않아.

이미 왕비 전하께 후궁을 들이지 않겠노라 약조해놓고 정부를 들인 놈이야. 역시 배신자답다는 말이 들리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그와 함께 헬리오스 궁으로 여러 귀족이 들이닥쳤다. 국왕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니 저들끼리 모여 현명하고 강단 있는 데수르고 아가씨를 놔두고 뭐 하는 짓이냐는 성토가 있었다고 한다.

"세베루스 후작을 주축으로 한 레푸스 공작 탄핵안도 왕에게 긴급 발송으로 올라갔대. 렌스라 공작을 비롯해서 네 친구들의 부친도 모두 참여했다는 소문이다. 그 밖에도 무척 많은 인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단다."

모두 애써주었구나.

"방어 마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너와 아길리스, 두 사람만큼은 화살 비가 내려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단단한 보호막도 만들 수 있다.

언제든 순간 이동도 가능하니 느긋하게 이번 일을 즐기면서 기다리도록 하려무나."

궁을 먼저 빠져나가려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내 말을 믿어주신 왕비 전하와 마리아 부인,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은 귀족들이 평소 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차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아직 왕이 루베르나 나를 치려는 움직임을 딱히 드러낸 것은 없었다. 이 상황에서 확실한 구실이 필요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아침 궁문이 모두 봉쇄되었다.

왕이 밤새 내린 결정은 결국 공작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탄핵에 대한 말은 듣지 않겠노라 천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에 궁정에서 지내며 일하던 귀족들 외에도 이번 사건 때문에 궁에 들어와 있던 귀족들까지 잠시 발이 묶였다.

반발하던 귀족들이 칼을 찬 근위대 앞에서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급하게 들어오느라 맨몸으로 온 것을 후회했다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었다.

잠깐은 당하고 있겠지만 계속 이러지는 못할 것이라는 귀족의 말에 왕이 더 듣지도 않고 나가버렸단다. 그에게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일이 훗날 다른 귀족들의 원성을 달래야 하는 위험이나 수고보다 더 달콤해 보였나 보다.

자포자기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제 것으로 만들고 나면 다른 귀족들을 겁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가.

그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궁 안에 갇혔다 여기는 나? 루베르에 묻혔다 믿는 폭탄? 어느 것이든 그 머리를 갈라 열어 보고 싶었다.

"뭘 그런 걸 궁금해하냐. 욕심에 눈이 멀어 한 치 앞의 미래도 보지 못하는 놈의 머릿속 따위 알 필요도 없다. 그런 놈은 그냥 모가지를 잘라주면 되는 거다."

"잉겐스 님 말씀이 맞아. 너는 이곳에서 나간 후 펼쳐질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면 돼."

그래, 그러자. 그런 놈이 무슨 생각을 하든 일이 달라질 것도 아니었다. 그때였다.

불만이 역력한 엔리케의 등 뒤로 왕자 놈이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그 뒤에 한가득 병사들을 대동한 채였다. 저놈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두 년을 끌어내라!"

"저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내린 명령임에도 엔리케가 용감하게 앞을 막았다. 나머지 시녀들도 그랬다.

"저희 아가씨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녀들이 목소리를 높이자 놈은 기가 찬다는 듯 말했다.

"저년이 왔을 때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지. 하다 하다 궁인들 따위가 감히 내게 덤벼들다니. 허엇, 이렇게 어이없는 일도 겪어보는구나."

혼자서는 걷지도 못해 미술 전시장에 타고 갔던 의자에 앉아서 머리에는 상처 딱지가 앉아 땜빵이 나 있었다. 거기에다 앞도 안 보여 멍한 눈을 하면서도 말은 잘했다.

"왜 내가 잡혀가야 한단 말입니까."

"몰라서 묻느냐! 궁내에 이상한 소문이 잔뜩 퍼졌다. 네년은 높이면서 우리를 험담하는 내용이라면 누가 퍼뜨렸을지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의외로 머리가 좋았던가. 우리를 높인 적은 없는데 그것까지 추론해 냈다.

"귀신 붙은 년은 감옥에 쳐놓고 장갑 낀 년은 내 방에 데려다 침대에 묶어놓도록 해라."

음흉한 기름기가 잔뜩 낀 말에 아길리스의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나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라 놈에게 따졌다. 누가 듣건 말건 존대도 안 나왔다.

"고자가 됐다면서 그 몸을 하고서도 아길리스를 노리는 거냐?"

'고자'라는 말에 놈이 흥분했다.

"어서 두 년을 잡으라니까! 내가 이 몸이 돼서도 저년만은 맘껏 다뤄주마.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또 갑자기 저 혼자 키드득대더니 말을 바꾸었다.

"아니다. 귀신 붙은 년도 같이 묶어 데려다 놔라! 취향이 아니라고 제쳐두었는데 싫은 년이 당하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것이지."

"그냥 갈 생각도 없었지만 저놈 주둥이는 반드시 조져놓고 가야겠구나."

잉겐스 님이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니 비행 마법으로 놈을 띄워버리셨다.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저하! 갑자기 왜, 어서 내려드려!"

공중에 몸만 둥둥 떠 있는 놈과 그놈을 잡으려 달려드는 병사들이었다.

"악! 금방 내 다리 잡아당긴 놈 누구야? 내려가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병사들이 끌어내리려 다리를 당겼지만 마법으로 버티고 있으니 힘을 과하게 써버렸나 보다. 자기를 위해 한 일에 놈이 무서운 소리를 해대니 그들이 겁을 먹고 주춤했다.

그 사이에 놈은 더 높이 떠올랐다. 그대로 몸이 수평으로 눕혀지더니 천장까지 빠르게 직행했다.

쾅!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걸 보니 입뿐만 아니라 얼굴이 다 뭉개진 것 같았는데.

제대로 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왕비 전하, 어서 말려주십시오!"

세베루스 백작을 따라 왕비께서 들어서고 계셨다.

"왕세자! 리벤티아를 건드리면..."

말씀을 다 잇지 못하시고 놈을 발견하셨다.

"이게 무슨... 왕세자가 왜 이런가? 자네는 어서 의원을 부르게!"

눈치만 보던 병사 하나가 뛰어나갔다. 세베루스 백작이 나머지 병사들에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백작이 와줘서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얼른 말을 들었다.

정신을 잃은 왕세자는 살피지도 않고 백작이 내게 말했다.

"아버지와 마리아 부인께 아가씨를 지켜드리라는 당부를 들었음에도 제가 안일했습니다. 국왕 전하께서 궁에 든 귀족들에게 금족령만 내리셔서 소홀했습니다.

저하께서 아가씨를 체포하시려는 것을 보니 아가씨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

"다른 귀족들은 괜찮소?"

"음식 공급이나 화장실 이용 같은 편의를 최대한 받아내고 있습니다. 국왕 전하께서 하루만 기다리라고 그분들을 달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걱정할 때가 아니야. 그대 몸이 우선이네."

정신없으신 중에도 왕비께서 어서 가라고 밀어주셨다. 나를 보시는 눈동자에 눈물이 어려 있었다.

“어서 가게. 이미 그대는 참을 만큼 참았어. 가네오가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대를 보내 주었어야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듯 숨을 참으시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밖에 말을 준비해놨네. 시녀까지 같이 태우고 달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말이니 그거라도 타고 가게나. 사람을 시켜 남문 문지기를 매수해 두었어. 지체 말고 떠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사히 나갈 방법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시니 이렇게까지 하셨다.

"밖으로 나가자. 저이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을 듯싶구나. 순간 이동이야 이들 눈이 멀어졌을 때 해도 될 거다."

깊이 고개 숙였다 일어났다. 무례를 무릅쓰고 전하를 끌어안았다. 그 얼굴이 닿은 어깨에서 물기가 느껴졌다.

"얼른 가래도!"

나를 밀어내는 전하를 한 번 더 본 뒤 백작에게 작게 끄덕여 인사했다. 시녀들이 릴리 궁 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주었다. 그들에게 고맙단 말과 이렇게 떠나 미안하다는 사과를 남겼다.

궁이 조용했다. 멀리 바라보아도 백작의 말대로 궁 안을 돌아다니는 이가 하나도 없는 듯했다. 왕이 비상 명령을 내렸단다. 이 길을 달려 왕비께서는 내게 오셨구나.

"전하는 그들과 너무 다른 분이시구나. 놈이 아비가 아닌 어머니를 닮았어야 했는데."

아길리스의 얘기를 들으며 말을 보니 승마장에서 수업 시간에 타봤던 아이였다. 순하고 영리하고 마음에 꼭 들던 말이었다. 전하는 헤어지는 순간까지 아낌없이 주시기만 하셨다.

챙겨 나온 후드를 뒤집어쓰고 아길리스를 뒤에 태웠다. 걸리적거리는 것 하나 없는 길을 달렸다. 시녀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멀어졌을 때 잉겐스 님이 마법을 쓰셨다.

그렇게 궁 밖 어딘가에 있는 골목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눈 깜빡할 새에 어지럼증도 없이 이동했다.

"응? 마법이 더 늘었군."

말씀대로였다. 아길리스와 나뿐만 아니라, 말도 같이 딸려 왔다. 세 사람만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시더니 더 큰 말까지 같이 따라왔다.

"말을 버리고 가기에는 아깝다. 좋은 말인 것 같아."

"아길리스 말이 옳다. 데려가 보자."

잉겐스 님이 다시 이동 마법을 시전하셨다. 그러다 지치시는 게 보이면 땅에서 말을 달렸다.

"부족한 대로 내 마법이 범위는 넓지 않아도 누구보다 깊이는 있다고 자부했더니, 한참 멀었구나."

힘없는 목소리에 아길리스가 잉겐스 님을 위로했다.

"누가 뭐라든 이 세상에서 잉겐스 님 마법이 최고인 건 맞습니다. 그런 걸로 기운 빼지 마시고 제 어깨 위로도 좀 올라와 주세요."

오! 잉겐스 님 좋으시겠다.

"그럼 네 어깨가 무겁지 않겠느냐?"

드래곤 님, 제 어깨는요. 눈치 없이 여쭙기보다 속으로 묻어버리고 열심히 달렸다.

"지금 올라와 계신 거예요?"

"그렇단다."

아길리스의 놀란 목소리에 이어 잉겐스 님의 숫기 없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바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간 느낌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리벤티아 말고 제 어깨 위에도 자주 올라와 주세요!"

그냥 부지런히 말을 몰았다. 잉겐스 님이 마법을 더 쓰실 것도 없이 곧 수도 데수르고 저에 도착했다.

잉겐스 님이 멀리서부터 보내신 전언을 듣고 싱케루스가 나와 있었다.

"리리,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기에는 별일 없었나요."

"아직은요. 그렇지 않아도 놈들의 군대가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싱의 품에 안겨 말에서 내렸다. 이런 것쯤 혼자서도 거뜬히 할 수 있었지만 팔 벌려 안아주는 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지.

절로 지어지는 미소에 그를 꼭 안고 놓지 않았다. 뒤에서 아길리스가 말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머쓱해져서 떨어지려니 싱이 나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말했다.

"이곳도 위험할지 모르니 저희가 마련해둔 안가로 모시겠습니다. 저택에서 쉴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냥 출발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괜찮아요. 아길리스와 잉겐스 님은 어떠세요?"

모두 거뜬했다. 저택에 있던 말을 더 꺼내어 세 사람이 각자 말을 몰았다. 잉겐스 님은 아길리스와 가겠다 말씀하셨다.

미로 같은 길을 달려 어떤 집 앞에서 멈추는 싱을 따라 섰다. 구획 정리가 잘 된 루베르와 달리 구불구불한 골목에 자리해 있었다.

조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말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 맞아주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를 보며 들어가니 집 안이 훈기로 데워져 있었다.

"맛있는 걸 먹으니 살 것 같아요."

"티티 말대로 누군지 음식 솜씨가 꽤 훌륭하구나."

"허기를 면하신 듯 보이니 저희 조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비토, 이리로 와 인사드려라."

아까 눈인사만 했던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스치고 봤을 때는 키가 커서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아직 어려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스트룸 소속의 수비토라고 합니다. 아가씨를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우렁차기도 했다.

"수비토가 소원 풀었네"

아길리스가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다.

"리벤티아, 기억하니? 전에 루베르에서 너한테 말했는데. 그곳에서 지점을 내기 전에 너를 처음 봤던 때 말이야."

"응, 한 영지민의 집에서였다고 했지."

"바로 그거야, 그 영지민. 이 아이였거든."

말을 듣고 그를 보니 어렴풋이 생각났다. 울던 얼굴만 봤는데 이렇게 밝고 활기찼구나.

"반갑다. 잘 지내고 있는 듯해 기쁘구나."

"다 아가씨께서 보살펴 주신 덕입니다. 늦었지만 고맙습니다."

진심이 듬뿍 담긴 감사 인사보다 그의 웃는 얼굴이 더 고마웠다. 그리고 루베르 출신인 사람을 보니 그곳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했다.

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싱이 뒤에서 안아주었다. 소년이 이상한 소리를 내서 보니 눈이 커다래져 있었다.

"하핫, 수비토가 놀랐구나. 두 사람 연인이란다. 영주님은 모르시니 비밀 지키고."

눈을 찡긋거리며 하는 아길리스 말에 어버버 거리며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던 그가 아쉬운 듯 말했다.

"평민이라도 상관치 않으시는군요. 훌륭하신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스트룸에 안 들어오고 그때 시종님 말씀처럼 데수르고 저택에 들어갈 걸 그랬습니다."

뒤에서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다. 아길리스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야, 너 겨우 열세 살이다! 꼬맹이가 무슨 그런 앙큼한 생각을 하냐?"

"십 년만 지나 보세요. 제가 스물세 살일 때 아가씨는 스물일곱에 불과하십니다. 별로 차이도 안 난다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 싱케루스, 너 긴장해야겠다."

아길리스는 애를 데리고 별말을 다 했다. 그녀를 말리려는데 뒤에서 나를 이끄는 손이 있었다. 싱이었다. 어디 가느냐고 아길리스와 아이가 외쳐도 대꾸도 없이 나를 데리고 방을 나와버렸다.

그러고 옆방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더니 나를 침대에 앉혔다. 무릎을 꿇고 앞에 앉은 그가 눈을 들어 내 눈을 봤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다른 놈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울망울망한 눈이 장난도 못 치게 했다. 당황스럽기도 했다. 갑자기 왜 이러는지. 내가 그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 고민은 길지 않았다. 나도 같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

"아니, 이러시면..."

"싱, 내 말부터 들어요."

"네."

"당신은 내 것이 맞아요. 누가 누구의 것이고 하는 말 따위, 사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 것이에요. 이건 소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끼어들 틈도 없이요."

그가 감동한 얼굴로 내 이마에 입 맞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맹세했다.

"저 싱케루스 유바르는 리벤티아 데수르고 아가씨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지금껏 뭘 들은 거예요? 종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압니다.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여 당신에게 이어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손발이고, 당신의 마음이며, 당신의 남편이길 바랍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영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데리고 도망이라도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참,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만 일어나요."

내가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였나. 싱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놈들의 군대가 이동하는 곳에 폭탄을 묻어두었다고 했죠?"

"네, 아마 내일쯤 그들이 그곳을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식사나 더해요. 나 아직 배가 덜 불렀나 봐요. 수비토가 해주는 음식을 더 먹고 싶어요. 먹고 얼른 다시 루베르로 가요."

한층 더 어두워진 얼굴이었다. 잠긴 문을 열면서 싱에게 말했다.

"청혼은 일단 접수해둘게요. 나는 아버지 허락을 받아낼 자신 있거든요. 도망 같은 말은 하지도 말아요."

싱이 따라 나오는 기척이 없어 혼자 옆방으로 왔다. 아길리스가 나를 보더니 뭐라 하려는데 싱을 두고 온 방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단장 혼자 뭐 하는 거야?"

"글쎄요. 아가씨랑 함께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소식이 온 것도 없어요.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잉겐스 님만 입을 삐죽거리셨다. 더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감사를 드렸다.

식사하는 사이에 수비토가 편한 옷가지를 마련해두었다. 그걸로 갈아입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말에 올랐다.

올 때와 같이 루베르로 가는 길에서도 잉겐스 님이 마법으로 옮겨 주셨다. 그러다 지치시면 우리가 말을 달리는 식이었다.

모두 투명화 마법에 걸려 보이지 않으니 말들이 부딪치지 않기 위해 소리는 나야 했다. 소음 차단 마법 대신 달리는 중에 말하기가 힘드니 전음 마법만 걸어주셨다.

그 속에서 잉겐스 님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길리스의 어깨 위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게 말발굽 소리만큼이나 경쾌했다.

"못 듣던 노래입니다. 듣기 좋군요."

"네, 아주 신나는 느낌입니다."

잉겐스 님이 멈추신 사이에 싱과 아길리스가 말문을 뗐다. 나도 궁금하던 차라 대답을 기다렸다.

"오래전 루베르의 민속 노래란다. 내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널리 불렸지.

그때는 아무에게나 침략받는 곳이 아니었거든. 소박하고 즐거운 땅이었기에 사람들이 모인 곳은 자주 노래가 흘러나왔다."

노래에 어울릴 만한 루베르의 과거를 상상해봤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평화로운 장면이 떠올랐다.

머릿속에 펼쳐지는 그림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금도 살기 좋은 곳이기는 하나 더 행복한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상하는 일은 있었다. 대략적인 밑그림만 그려놓은 단계지만 일이 끝나면 아버지께도 말씀드리고 다른 이들과도 의논해 보고 싶어졌다.

"그나저나 티티 네가 탄 말 말이다."

"네."

"그 녀석이 아주 영물인 것 같구나."

"네?"

영물? 그건 말로만 듣던 존재이다. 하지만 드래곤도 실재하시는데 영물이라고 없을 리 없지.

잉겐스 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면 엄청난 녀석이겠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 녀석이 달리 보였다. 하긴, 전생에서도 처음 봤을 때부터 한눈에 들어오긴 했었다.

반듯하게 선 자세나 늠름한 자태가 마음에 들어 선택했었지. 그때 브래드 남작은 다른 말을 고르도록 유도했지만, 이 말을 타겠다고 고집부렸다.

그리고 타봤을 때 더 괜찮았다. 놀랄 만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편이었다. 이번에 빠른 속도를 내보니 달릴 때 나쁜 습관 같은 것도 없었다.

잉겐스 님의 말씀에 다른 두 사람도 솔깃했는지 달리던 속도를 늦추어 귀를 기울였다.

"보통 짐승들은 내 기운을 견디지 못하지. 지금도 우리가 타고 있는 말들에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두지 않았느냐.

한데 아까 궁에서 나올 때는 깜빡하고 말았다. 그랬는데 저 녀석은 나를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꿋꿋하게 잘 버텼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잘 돌보도록 하여라."

내가 선택했고, 왕비님께서 주신 선물이기도 했다. 그걸 떠나서라도 내게 온 생명이다. 당연히 소중히 보살필 작정이었다.

제 칭찬을 알아들은 것일까. 녀석의 몸에 더 힘이 넘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이런 좋은 말을 얻게 되어 만족스러워 갈기를 부드럽게 만져주었다. 기분 좋은 듯 푸르릉, 새 날갯짓하듯 가벼운 소리가 말의 코에서 흘러나왔다.

"드래곤도 무서워하지 않는 말이라니 굉장하군요."

아길리스가 칭찬하자 잉겐스 님의 목소리가 조금 샐쭉해졌다.

"아무리 영물이래도 말은 말일 뿐이지."

"그럼요. 드래곤에 비할 바가 못 되는 한낱 짐승일 뿐입니다."

그녀의 눈치 빠른 말에 즐거운 노랫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길리스가 귀여운 잉겐스 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나도 듣고 그분도 들으셨나 보다.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잠시 삐끗하는 구간이 있었다. 잉겐스 님이 부끄러워하시는 듯해 도와드리고 싶었다.

반복되는 음이 많아서 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입을 다물고 코로 소리를 내어 작게 불러 보았다. 예전에 '박치'라는 핀잔을 들은 게 생각났다. 방해될까 봐 아주 조그맣게, 응원하는 마음만 전할 수 있도록 소리 냈다.

내 노래에 잉겐스 님이 한 번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계속 이어 부르셨다. 아길리스도 한 번씩 동참하는 속에서 싱도 나지막하게 따라 불렀다.

말하는 목소리도 좋았지만 노래도 참 잘 부르는구나. 싱의 소리가 좋아서 달리면서도 힐끔힐끔 그쪽으로 눈이 갔다. 그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리로 신경이 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그도 나와 같을까. 혼자 부끄러워 고개를 젓다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걸 발견했다. 싱도 봤는지 그에게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말들을 멈췄다. 잉겐스 님이 마법을 풀어주셔서 몸을 드러낸 김에 잠시 말에서 내려 쉬기로 했다.

"전서구인가 봐요."

"네. 아, 폭탄이 터졌군요! 사상자가 많답니다. 행렬 앞에서 달리던 기병들이 대부분 폭사했습니다.

레푸스 공작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 공작의 기사단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말에 심경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내 가족과 영지민들을 죽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인 이상 봐줄 수 없었다.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내게 칼이나 활을 주고 그들을 향해 쓰라고 한다면 오히려 앞장서서 그래야 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내가 필요했다.

휘익. 흘러나오던 생각을 멈췄다. 싱의 고개가 들린 쪽으로 눈을 돌리니 비둘기 여러 마리가 더 날아오고 있었다.

"노벨 자작이, 공작이 도착하는 걸 못 기다려 그새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루베르 군과 대치 중인 상태에서 폭탄을 터뜨리려 했답니다."

"없는 게 터질 리 있나. 돌무더기만 묻어놨거든. 붙여둔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환상은 깨졌을 테지."

"네, 잉겐스 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시도가 불발되자 자작이 병사들을 시켜 땅을 파게 했습니다.

폭탄이 아니라는 말에 당황한 자작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에서 내려 경계선 근처로 왔답니다. 영주님께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그자를 직접 활로 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셨습니다."

후, 손에 땀이 났다. 마법을 더해 이동하는 만큼 공작보다 빨리 루베르에 닿을 터였다. 그런데 자작이 먼저 일을 저질렀다니. 그의 딸만큼이나 밉상이었다.

"폭탄만 믿고 허술한 군대를 데리고 나왔으니 자작의 사후 우왕좌왕하는 놈들을 쉽게 제압했답니다. 푸르스 영지민들도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소식이 공작에게 닿지 않도록 루베르 병사들과 저희 조직원들이 그쪽에서 뜨는 새들은 모조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쌤통이다. 칼리스 노벨 얼굴이 어떨지 궁금하네."

아길리스가 다른 비둘기 다리에 묶인 쪽지를 펼치며 말했다. 동감이다. 그녀가 읽은 내용을 전했다.

"공작이 그것도 모르고 푸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보병들만 얼른 수습해서 떠났답니다.

그 바람에 남은 자들이나 떠난 자들이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위장 잠입해서 뒤따르고 있는 조직원에 의하면 공작도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푸르스까지만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말했답니다."

"흐흐흐, 그놈이 도착해서 뭐라 할지 보고 싶구나. 그전에 도착하려면 우리도 일어나자."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던 말들을 모았다. 다시 출발이었다.

루베르다! 그리운 정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공기부터 다르네. 아! 상쾌하다. 싱케루스가 지점을 내려고 할 때 끝까지 말리지 않은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아길리스가 먼저 경계를 밟았다. 어느새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의 품에 안겨 있던 잉겐스 님도 고향에 온 느낌이라고 하셨다.

그래, 고향에 돌아온 게 이런 기분이구나. 영지 경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은 오랜만이라 소회가 남달랐다.

수도에서 이곳으로 오는 길은 푸르스와 접한 데와 반대쪽이라 그나마 조용했다. 성문을 지키는 병사들이 나를 알아보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성문 경비 대장이 달려 나왔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잘 지냈는가? 푸르스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들었네."

저쪽에서 병사들이 아가씨가 친절하게 답해 주셨다고 저들끼리 수군거렸다. 다 들렸지만 안 들은 척하고 경비 대장의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 감동이 어려 있었다.

가끔 말을 달려 여기까지 올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조용히 인사만 받고 지나던 걸 오늘은 대답을 좀 길게 했더니 그런 건가.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음을 느꼈다.

"노고가 많네."

부끄럽지만 인사말을 한 마디 더 남기고 얼른 들어왔다. 저택으로 말을 달리며 생각했다. 사비로 저들에게 수고비라도 더 줘야겠다.

다른 영지에 비해 많은 월봉을 받고 있는데도 경비 대장의 가죽 갑옷이 낡아 보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 준 갑옷을 버리지 못했던 거란다. 튼튼하고 얇은 갑옷 위에 또 그것을 걸치고 있었단다.

후에 새 갑옷을 살 비용과 짧은 격려 편지를 보내며 수고비도 부쳐 주었다. 그랬더니 그가 저택까지 찾아와 들려준 이야기였다. 액수가 너무 크다는 말로 극구 반납하려는 그에게 아예 갑옷을 새로 하사해버렸다.

그건 훗날의 일이고 지금은 저택을 들어서고 있었다.

입구에 선 경비 중 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더니 전갈을 받은 듯했다. 시종장을 비롯하여 저택의 시중인들이 대부분 나와 있었다. 그 맨 앞에는 아버지가 계셨다.

"아버지!"

달려가 안겼다. 다시 뵐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크흡.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아버지도 눈이 젖은 채 코가 빨개져 있었다.

"고맙다. 잉겐스 님도 잘 돌아오셨습니다. 자네들도 고생했네."

"두코, 너도 수고했다. 옆 영지 자작 놈을 해치웠다지?"

"네,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활을 쏘시는 시늉을 하며 설명하셨다. 다들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중 나와 싱케루스만이 감탄사를 섞어 가며 호응해 드리고 있었다. 조금 지루해졌다 싶을 때였다.

"두코, 배가 고프구나."

"아, 제가 이야기에 빠져서 그만. 진작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나가봐야 하니 시종장을 따라 주방으로 가시죠."

"레푸스 공작을 기다리시려는 거예요?"

"그래, 아랫사람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지. 먼 길 오느라 고생했으니 너도 푹 쉬어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서둘러 밖으로 나가시는 걸 보니 우리가 올 때를 맞춰 기다리신 듯했다. 마르티스 부관은 성문에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다. 시종장에게 물었다.

"우리 영지민 중 다친 사람은 얼마 정도인가?"

"다행스럽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잘해주었군."

안도하고 있으려니 잉겐스 님이 아길리스의 품을 빠져나와 내려서고 계셨다. 그러시더니 시종장 옆으로 붙어 서셨다.

"마이시, 자네가 내 팬클럽 회장이라면서?"

시종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셨습니까?"

"그래, 고마워.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르겠군. 조만간 회원들을 모아 보게. 내가 크게 한턱 쏘지."

와아! 뒤에서 시중인들의 함성이 들렸다. 저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줄 오늘 처음 알았다.

주방에 가서도 잉겐스 님의 치하는 이어졌다. 짱콜 주방장을 불러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부터 시작해 팬클럽 가입을 잘했다는 격려까지 하셨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돌아와 집에서 하는 식사가 제일 좋았다. 궁에서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렇지만 익숙한 곳에서 편한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는 시간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었다.

식사를 마칠 즈음이었다. 시종장이 급히 들어왔다.

"아가씨, 전령이 왔습니다. 놈들의 군대가 푸르스 영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푸르스 영지민들은 놈들이 오는 곳과는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 몰아두었다고 한다.

텅 빈 영지를 마주한 공작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못 본 이였다.

"나는 놈들을 보고 싶은데 티티 너는 어떠냐?"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싱과 아길리스도 같이 가겠노라 해서 넷이 다시 저택을 나섰다. 시종장이 불안한 얼굴로 사람들을 더 데려가라고 했지만 잉겐스 님이 보호하기에는 우리만 가는 게 적당했다.

미리 보호 마법을 건 채 성문으로 움직였다. 지나는 길마다 나를 본 병사들이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했다. 그에 잉겐스 님이 아예 마법을 더 걸어주셨다.

넷이서 공중에 뜬 채 이동하려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나온 뒤로 '마법사가 합류했다, 우리가 이겼다!'는 기쁨에 찬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안 사실이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이길 예정이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꽉 막힌 해피 엔딩이기 때문이다.

푸르스를 둘러보는 동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루베르에 붙어있는 영지인데도 이렇게 후진 곳이었다니.

우리보다 몇십 년은 뒤진 듯한 거리나 집을 보면서 노벨의 영지 경영 능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할 수 있었다.

"저기 영주님이 계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딴생각을 하느라 알지 못했다. 싱이 상기시켜 줘서야 제대로 앞을 봤다.

동시에 아버지도 옆 사람에게 우리가 온 것을 들으셨는지 뒤돌아보셨다. 눈이 마주치자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이셨다.

"티아, 네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내가 가자고 했다. 안전하게 돌볼 테니 걱정 마라."

꾸짖음 들을 뻔한 걸 잉겐스 님이 막아주셨다. 걱정을 끼친 건 죄송했지만 잉겐스 님 옆으로 더 가까이 붙었다.

그러자 애꿎은 싱을 나무라실 작정이신지 그에게 못마땅한 눈을 돌리셨다. 차라리 내가 꾸중을 듣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맞게 누군가 싱에게 다가왔다.

"단장님, 오셨습니까?"

"상황은 어때?"

"팩타모가 잠입해 들어간 용병단 말입니다.

공작이 고용한 용병단 중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그곳 대장이 용병답지 않게 인품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병들 사이에서도 제법 신뢰받는 자입니다"

"누군지 알 것 같군. 붉은 독수리 용병단의 제리탈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푸르스에 도착한 공작 군이 처음에는 영지가 텅 빈 것을 보고 당황했답니다. 그러다 숨어 있던 공작 비서를 만났나 봅니다."

아버지도 모르시는 일이었는지 당황하며 물어보셨다.

"어쩐지 그놈을 찾아도 없더라니. 그래서 공작은 무얼 하고 있다는가?"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저희가 단장님 명령으로 놈들 보급 부대에 장난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끼니도 거르고 푸르스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 그들을 반겨주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죠.

공작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푸르스 영지민들의 집을 약탈하라고 명령했답니다."

"빈집털이만큼 쉬운 일도 없겠지. 그래도 이곳 형편에 안 봐도 뻔하다. 민가를 털어봐야 나오는 것도 없을 거다.

흠, 싱케루스 자네가 기특한 일을 했군."

"아닙니다. 곁에서 뵙다 보니 영주님께서 일 처리 하시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하시는 그대로 따라 했을 뿐입니다."

싱이 저런 아부도 할 줄 아는구나. 아버지의 입꼬리가 기분 좋게 올라갔다면 잉겐스 님의 것은 비뚜름하게 움직였다. 괜히 이분이 비뚤어지셔서 뭐라 하실까 봐 얼른 말을 돌렸다.

"용병대 대장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래, 모스 네가 처음에 하려던 말이 뭐지?"

"제리탈이 약탈을 거부했답니다. 자기들은 싸움꾼이지 도둑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가 그러자 다른 용병단 소속 용병들도 약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지. 공작이 그의 유명세를 이용해보려 했던 것 같은데 도리어 역효과를 불러왔군."

"네. 팩타모가 전하길, 오는 길에 왕궁 사정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용병들도 이미 많이 흔들렸답니다. 그런 마음에 제리탈의 행동이 쐐기를 박아주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돌아가는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들이야말로 눈치가 빠른 이들이니까."

"제리탈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이 계약금의 50배라 고민하는 눈치랍니다.

다른 용병들보다 계약금을 많이 받은 대신 위약금도 훨씬 높게 책정했나 봅니다."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모스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잠입해 있다던 조직원과 지금 연락이 닿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용병 대장에게 전하라 하게. 내가 위약금을 모두 물어주겠다고. 그리고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자는 말도 하게. 계약금은 공작이 부른 대로 하지."

조직원이 입을 벙긋거리려다 싱의 눈짓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무엇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와 공작이 싸울 때 그들도 우리 편을 드는 것으로. 만약 싫다고 해도 위약금은 내가 물어주겠네."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모스가 급한 필체로 암호문을 적더니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놓았다. 아까부터 뭘 저렇게 애지중지 감싸고 있나 했다. 뚜껑을 여는 걸 자세히 보니 아기 주먹만큼 작은 동물들이 들어있었다.

'푸카'라는 이름을 가진 그것들은 평민들의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주로 해충을 잡아먹기에 눈에 띄어도 그러려니 하고 놔주는 게 보통인 동물이었다.

모스는 제가 적은 걸 돌돌 말더니 한 마리의 입을 벌려 이빨에 끼워 넣었다. 그러더니 놓아주는 게 아닌가.

아버지도 신기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저런 걸 연락책으로 쓰다니 신통하군."

"네, 돌아가신 제 부친께서 고안해내셨습니다."

싱을 물끄러미 보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자네가 부친을 닮아 머리가 좋은가 보군."

싱도, 나도, 아길리스도, 심지어 잉겐스 님마저 놀랐다.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싱을 칭찬하시다니 이거, 좋은 징조겠지?

싱의 얼굴이 발그름했다. 내 얼굴은 왜 같이 발개지는 거야. 아버지가 보셨으면 이상하게 여기셨을 테지만 마침 다른 기사와 대화를 나누셨다.

"전선을 앞으로 이동한다!"

아버지 옆에 있던 기사가 크게 외쳤다.

아까부터 마르티스 부관이 보이지 않았다. 저택에서는 이곳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없었다. 그는 평시에 행정 업무를 보지만 군사 면에서도 해박해서 이런 일에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

"마르티스 경이 안 보이네요."

"그는 기사단 중 일부를 데리고 뒤쪽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놈 뒤통수를 쳐줘야지."

"공성전이 될 줄 알았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회전을 치르려는 것이냐?"

"회전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놈들은 식량도 끊기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까 봐 저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레푸스 놈을 잡아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던 잉겐스 님이 급히 어딘가를 쳐다보셨다.

"두코, 누가 너를 암살할 계획이란다."

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옅은 초록색 머리 사내 있지 않으냐. 그자 앞에 있는 게 아들인가 보군. 공작에게 포섭되어 있었구나. 부자가 같이 모의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루베르 독립운동을 함께 한 아버지의 친우 부자였다.

독립운동에 늦게 가담하고 역할도 작아서 작위는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섭섭지 않게 재물을 챙겨주셨다 들었다. 또 지위에 상관없이 아버지와 오래 가까운 사이였다.

내가 놀란 만큼 아버지도 그러셨다. 잠시 후 허탈한 목소리가 들렸다.

"한 길 사람 속을 몰랐군요."

"전투가 일어나면 네가 그리로 신경이 몰린 틈에 부자가 뒤로 다가올 거란다."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음, 그것까지는 모르겠구나."

"그러면 저도 때를 노려 잡아야겠군요. 안 그럼 귀족이 되더니 오랜 동지를 이유도 없이 내쳤다는 소리를 듣겠죠. 허, 참."

"내가 너에게도 보호 마법을 걸어주마."

"고맙습니다."

전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때는 놈들의 군대도 온전한 병력을 유지한 채 쳐들어왔겠지. 나는 궁에 잡혀있기까지 하고. 아버지가 빠져나갈 틈이 없으셨겠구나.

잉겐스 님이 아버지에게 보호 마법을 펼치고 계셨다. 다수를 지키기 위한 방어 마법을 전개하실 수 있게 되면서 개인별로 보호 마법도 거실 수 있게 되셨다. 그게 이렇게 다행일 수 없었다.

우리 생에서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나. 받은 만큼 다 돌려드릴 수 없다 해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다.

"아!"

아버지가 갑작스레 탄성을 내지르셨다.

"왜 그러느냐?"

"저를 암살하려는 자가 공작과 한 편이라고 하셨죠? 저 자식도 그 사실을 압니다. 마르티스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 인원으로 뒤에서 치는 것은 정보가 새지 않았을 때 주효했다. 다 알려진 마당에 역습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마르티스 경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 푸카를 이용해 연락을 전하면 제때 맞춰 그에게 닿을 수 있나?

"단장님!"

고함소리가 생각을 깨뜨렸다. 조직원 모스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빠르게 다가가는 싱에게 그가 쪽지를 내밀었다.

"음..."

싱이 근심에 잠겨 신음을 흘렸다. 그러고 바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적 편에 유능한 마법사가 있답니다! 아마도 마레인에서 폭탄을 제조한 자인 듯 보입니다."

"폭탄이 터졌을 때 기사단장도 팔다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랬던 이가 이곳에 와서 감쪽같이 멀쩡해진 채 돌아다녔답니다.

그걸 발견한 병사들이 놀라 난리 치자 공작이 발표했습니다.

자기네 진영에 마법사가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흐음."

어딘가에서 신음이 들렸다. 나는 왜 모스의 말을 듣고 위화감이 느껴질까.

"전투를 위해 힘을 아끼느라 지금은 기사단장만 치료한 거라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이들도 흉터 하나 없이 고쳐주겠노라 공작이 장담했답니다.

그쪽은 잔치 분위기입니다. 마법사라는 존재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잉겐스 님을 봤다. 이분이 그 마법사를 이길 수 있을지 따져 보는 것 같았다.

"용병 대장이 마법사를 먼저 해결해주면 우리 편을 들겠답니다. 계약금 없이 위약금만 일부 도와주시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마르티스 경도 구해야 하고, 유능한 마법사가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한 변수였다. 일단 마법사의 공격에 대비하여 아버지가 병사들의 위치를 변경하려 하셨다.

"두코, 잠시만 기다려봐라."

아버지가 멈칫하신 사이 잉겐스 님께서 나와 아길리스를 보며 말씀하셨다.

"리벤티아, 네 승마 솜씨가 무척 뛰어난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아길리스는 매우 훌륭한 검술 실력을 지녔지."

왜 갑자기 우리를 칭찬하시는 걸까.

"그리고 나는... 순간 이동은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보호 마법만은 드래곤이 오지 않는 이상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버지가 굳은 얼굴을 하셨다.

"두코, 아무래도 그 마법사가 일전에 들은 이인 것 같다.

아길리스, 나는 어릴 때 너를 괴롭혔다던 그 마법사라는 느낌이 드는구나. 아니라면 좋겠지만 인간 중에서 그만한 실력의 마법사는 더 없다고 본다."

그렇구나! 아까부터 느껴지던 위화감의 정체가 이것이었다. 마법사에 대한 소개 내용이 낯설지 않더라니.

폭탄 제조에다 인간의 신체를 재생하는 데 능통한 자. 궁정 마법사에 대해 잉겐스 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만한 능력을 지닌 자는 없었다.

아길리스의 입술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다. 손을 잡았더니 싸늘했다. 잉겐스 님이 얼른 체온 조절 마법을 걸어주셔서 온기는 돌아왔다. 그러나 그 몸이 계속 조금씩 떨렸다.

그녀를 꼭 안고 있었다. 떨림이 멎을 때까지.

"아길리스, 리벤티아, 우리가 놈을 해치우고 돌아오자."

""안 됩니다!""

아버지와 싱이 동시에 거부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잉겐스 님을 믿습니다만 리벤티아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싱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그놈을 없애겠습니다."

싱의 말에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리셨다.

"꼭 리벤티아가 함께 가야 합니까? 저와 잉겐스 님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

"아니, 아길리스 너는 놈을 공격하는 데 성공할 수는 있어도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자칫 잘못해 순간 이동 마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자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럴 때 말만 한 기동력이 없지.

이곳에서 리벤티아보다 승마 실력이 더 뛰어난 자가 있느냐. 그러니 이 아이가 너를 태우고 가는 게 최선일 테다."

"그래도..."

"우리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두코의 부관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 고민할 것도 없었다. 잉겐스 님이 계시다. 아길리스도 함께이다. 또한 나 자신을 믿는다. 말을 타는 것만은 무슨 일보다 자신할 수 있었다.

"할게요. 아버지, 허락해주세요. 저, 할 수 있어요."

고개를 저으려다 마시는 몸짓이 아버지의 괴로움을 짐작케 했다.

"마르티스 경과 기사들을 구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요. 왕궁도 잘 다녀왔잖아요. 잉겐스 님과 아길리스가 같이 있으면 못 할 일이 없었어요."

단호한 내 눈빛을 믿어주신 걸까. 결심을 마치신 듯 아버지가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셨다.

"위험할 때 쓰거라. 너에게 이런 것은 주고 싶지 않았다만 필요할 때에는 써야지. 쓸 때 망설이지 말고 찔러라."

전생에서 싱에게 받았던 칼이 생각났다. 그때도 이만한 단도였다.

내게 칼을 건네는 이들의 마음은 같았겠지만 상황은 예전과 달랐다. 이번에는 죽지 않는다. 칼을 잘 챙겼다.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녀올게요."

싱을 돌아보자 그가 이를 악물고 있었다.

아버지 몰래 눈인사를 보냈지만 주먹 쥔 손이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이대로 그를 두고 갔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없어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그냥 그를 껴안아 버렸다.

"무슨?"

육성으로 터진 아버지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싱에게 속삭였다.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빠져서 아쉬워요. 대신 우리 셋이 완벽한 삼인조라는 걸 보여주고 올게요."

그의 숨이 떨리고 있었다. 그럴수록 더 강하게 안았다.

닿은 온기 덕이었을까. 그도 나를 믿어준 걸 테지. 잠시 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싱의 팔이 나를 꽉 껴안았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우리 둘을 떼어내셨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아련하게 물들어 있던 눈빛이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싱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주려나.

"아버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화내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죄송하지만 협박을 좀 드렸다.

"알겠다. 갔다 와서 보자꾸나."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싱이 결연한 얼굴을 했다. 그가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내게 염려 말라고 말해주었다. 손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참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더 불을 지필 것 같아서 말았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척 말에 올랐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첩자가 모르도록 해야 했다.

궁에서부터 데리고 온 말이 이번 일에도 제격이었다. 아실과 이름을 맞춰 '아셀'이라 부르기로 한 녀석의 강심장과 체력을 믿기로 했다.

"싱, 조심하고 아버지를 지켜줘요.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떠나는 우리보다 두 사람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암살자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싱, 괜찮겠지? 불안한 시선이 자꾸 싱과 아버지를 넘나들었다.

아버지가 못 보시겠는지 싱의 어깨를 어색하게 두드리셨다.

"싱케루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으마. 어서 출발하거라."

뒤에 아길리스를 태우는 것과 동시에 잉겐스 님이 우리에게 투명화 마법을 거셨다.

두 남자의 배웅을 뒤로하고 이동 마법이 실행되었다.

순식간에 먼 거리를 뛰어넘었다. 마르티스 경을 구하려 서둘렀다. 그리고 얼마 후 잉겐스 님이 신호를 보내셨다.

"마르티스와 전음 마법이 통하는 구간까지 왔다. 그에게 작전이 들켰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기다리라 했다."

"그가 많이 놀랐겠네요."

마르티스 경이 잉겐스 님과 마법으로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일 거다. 머릿속으로 누가 말을 걸어왔으니 그가 어땠을지 미뤄볼 수 있었다.

그래서 말하는 이가 우리 편인 걸 잘 믿더냐고 질문드렸다. 잉겐스 님은 그 부인이 팬클럽 회원임을 안다는 걸로 당신임을 인증하셨단다.

부인이 바깥활동을 자주 하지 않아 팬클럽에 속한 사실을 일부만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경이 워낙 애처가라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냥 믿는 눈치였단다.

잉겐스 님이 경을 두고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고 혀를 차셨다. 음, 그 사람이 참 사리 밝고 총명한 이인데.

가릉빈가 부인이 경의 약점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나중에 부인에게 남편을 좀 자제시킬 것을 당부해야겠다.

"여기서부터는 티티 네게 달렸다."

지금도 소음 차단 마법과 투명화, 보호 마법을 두르고 있었다. 뜻밖의 상황을 대비하여 이제 이동 마법은 아끼기로 했다.

그때부터 말을 달렸다.

"왔다."

적의 진지가 드러났다. 경계를 서고 있는 자들이 보였다. 우리 군과 떨어져 있어 그런지 지친 티를 역력하게 내며 풀어진 자세였다.

"지금부터 나와 아길리스만 들어가겠다. 너는 말을 탄 채 기다려라."

"네, 잘하고 오세요. 아길리스, 평소처럼 하고 돌아와. 응원할게."

아길리스의 숨소리가 조금 딱딱했다. 얼마쯤 경직된 것 같지만 잘 해낼 거다. 그녀에 대한 신뢰를 아낌없이 드러내려 소리 내 웃었다.

아길리스가 크게 숨을 마시더니 이내 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른 돌아올게."

언제 떠났나 싶게 빠른 속도로 자취가 사라졌다. 언제든 출발할 수 있도록 나도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경비병들이나 진지 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을 때였다. 급작스럽게 그들이 날래게 행동했다.

"티티, 빨리 이리로 오너라! 직진으로 달려 가장 큰 막사 오른쪽이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지체 없이 나아갔다. 놈들이 세워둔 말뚝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비상 종이 울리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볼 겨를도 없었다. 말씀하신 곳을 찾으며 달렸다.

잉겐스 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막사란 공작의 것이겠지. 흔히 높은 자가 지내는 곳은 병영 한가운데 위치했다. 거리를 계산해 더 속도를 높였다.

오가는 사람들을 피해 이리저리 말을 몰았다. 저 앞에 높이 솟은 게 보였다. 그것의 오른쪽 막사는 이미 여러 병사에게 둘러싸인 채였다.

이제 사람들에게 부딪치는 걸 상관하지 않았다. 내달려 나가는 순간 여기저기 비명이 쏟아졌다.

"악! 이게 뭐야!"

"나도 공격받았어!"

"뭔가가 있다! 창을 앞으로 찔러라!"

나는 그들을 말발굽으로 밟고 지나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나와 말을 건드릴 수 없었다.

내키는 대로 밀치고 들어가니 막사 안에는 피 묻은 채 널브러진 세 사람이 있었다.

둘은 모르는 남자였고 하나는 아길리스였다. 방어 마법으로 둘러싸여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잉겐스 님이 그녀를 지키고 계셨다.

"출혈이 너무 심해. 이걸 막느라 이동 마법을 쓰지 못했다. 아길리스를 태울 테니 어서 빠져나가자. 시간이 없구나."

잉겐스 님이 횡설수설하셨다. 아길리스는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침대보를 칼로 잘라 어깨에 멨다. 그러고 아셀에 올라 재빨리 앞으로 자리를 당겨 안장 끝까지 걸터앉았다.

비행 마법으로 띄워 올려진 그녀를 받아 등 뒤로 고정했다. 잘라낸 천으로 평민들이 아이를 업듯 그녀를 둘둘 말아 묶었다.

"출발하자."

침통한 목소리에 가슴이 떨렸다. 아직은 괜찮다. 몸이 식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서둘러야 했다.

아셀도 상황을 아는 걸까. 얼른 달리고 싶다는 듯 발로 땅을 차는 시늉을 했다. 그래, 죽을힘을 다해 달려보자.

막사를 무너뜨릴 기세로 나갔다. 맨 앞에서 창을 내지르고 있던 이부터 쓰러뜨렸다.

"마법사가 있는 것 같다! 조심해라!"

"공격이 먹히지 않습니다!"

"물러서라! 우리들 상대가 아니다!"

시끄러운 고함들을 무시하고 받히는 대로 부딪쳤다. 우수수 떨어져 나가더니 그들도 포기했는지 뒤로 거리를 물렸다.

진지를 가로질러 나오면서 놈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마법사님이 돌아가셨다!"

"기사단장 님도 당하셨다! 놈들을 잡아라!"

요란한 발소리들이 땅을 울렸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으니 종잡지 못하고 있었다.

줄곧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곧 정신들을 차렸다. 이내 활을 장전한 채 기다리는 것이었다.

앞에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밟고 지나갔더니 비명이 수시로 터졌다. 그때마다 소리가 난 쪽을 향해 화살이 날아왔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잉겐스 님이 확신하신 대로 더는 그 누구도 우리를 상처 입히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저 울타리만 넘으면 됐다.

소식이 빨리도 퍼졌다. 우리가 말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그들도 알아서인지 울타리 앞에 큰 대형으로 사람들이 벽을 쌓고 있었다.

"넘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아길리스를 건사하는 것만으로 힘을 다 쓰고 있구나."

"해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숨을 골랐다. 아셀도 제가 뛰어오를 높이를 가늠하듯 땅을 고르고 있었다. 뒤로 약간 녀석을 물렸다.

가자!

앞으로 힘껏 도약했다. 뛰어오른 후부터는 고삐를 다루지 않았다. 아셀이 스스로 뛰도록 맡겨두었다.

조금 아슬아슬하다 싶었는데 이 녀석이 막아선 병사들을 도움판 삼아 발로 박차고 다시 날아올랐다.

"으악!"

"여기 머리가 터졌습니다!!"

해냈다. 나보다 아셀이 다 했다.

"너 정말 멋진 녀석이구나."

히히힝. 녀석이 제 자랑을 드러내듯 소리를 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일만 남았다. 모두의 몸에서 열이 식기 전에 다시 박차를 가했다.

전음 마법을 듣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아길리스를 들것에 내린 후 의원이 바로 처치를 시작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싱이 가라앉은 눈을 그녀에게 고정하고 물었다. 나도 모르는 일이라 잉겐스 님께 답을 구했다.

"용케 한 번 만에 마법사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갔다. 내 예상대로였다. 아길리스에게 심한 후유증을 남긴 자가 맞았어.

불행한 것은 그곳에 기사단장도 있었다는 점이었다. 투명화 상태로 아길리스가 마법사를 찔렀음에도 그가 알아차렸지. 실력이 아주 좋은 자였다. "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들었다.

"보이지 않는 이를 상대로 대단한 기량을 보이더구나. 아길리스가 더 대단했지만 말이다.

마법사를 먼저 해치운 덕분에 아길리스가 검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 그곳에서 나는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구나.

잠깐 한눈을 파는 바람에 보호 마법도 틈이 생기고. 마법사 놈이 죽기 전에 틈을 만들어 버렸어.

너무 자만했다. 힘들어도 회복 마법을 익혀둘 걸 그랬어. 아니, 그보다 아길리스를 다치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정신이 빠져서는..."

지금은 아이로 돌아오신 잉겐스 님이 어깨가 축 내려앉아 말씀하셨다. 눈가에 눈물이 떨어질 듯 고여있었다.

"잉겐스 님, 자책하지 마세요. 아길리스는 반드시 건강을 되찾을 거예요."

뭐라 위로해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바라는 것만 말씀드렸다.

그 눈에서 눈물이 굴러 내렸다. 소리도 못 내시고 어깨만 들썩여 우시는데 잉겐스 님을 원망하듯 서 있던 싱도 당황해서 달래려 들었다.

"잉겐스 님, 잘못했습니다. 추궁하려던 게 아니라, 저도 마음이 아파서... 울지 마십시오."

잉겐스 님이 설명하시는 걸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그분을 안아 들었다. 톡톡,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리며 진짜 어린아이를 달래듯 도닥이셨다.

"으... 잉겐스 님, 저 괜찮습니다."

희미했지만 다들 아길리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잉겐스 님을 내려드렸다.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시더니 그녀의 손을 잡으셨다.

"나는, 네가 다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내가 있으면 너를 충분히 지켜줄 거라고... 내가 어리석었다."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잉겐스 님 답지 않습니다. 저는 잉겐스 님이 웃으시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빨리 낫도록 즐거운 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아길리스의 말이 제일 좋은 약이었나 보다. 잉겐스 님의 얼굴에 예쁜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둘만 남기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왔다. 의원이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천운도 이런 운이 없습니다. 가슴의 중요 혈관을 한 끗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출혈도 조금만 더 심했으면 저 환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응급처치가 좋았고 제시간에 맞춰 도착하셨습니다."

의원이 밝은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내일까지 다른 이상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정양에 힘쓰면 두 달 후쯤 거뜬히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다. 싱을 보니 그의 눈에도 눈물이 아롱졌다. 안도감에 그의 손을 잡으려 할 때였다.

"그럼 급한 일은 해결됐으니 이제 네 얘기를 들어야겠구나."

아, 사고 수습이 남았구나. 아까 나는 왜 그랬을까. 싱도 눈물이 쏙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 암살자는 잡으셨어요?"

"그래, 다 해결됐으니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야지. 더 기다려야 하느냐?"

그날 차라리 공작이 쳐들어왔으면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뺄 건 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버지가 싱을 쥐잡듯 몰아세우셨다. 그를 돕겠다고 앞을 막다 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넘어갈 뻔하시기도 했다.

싱과 함께 무릎 꿇고 빌었다. 왕세자 놈보다야 훨씬 낫지 않냐고 울며 사정했다.

가네오 놈 이야기를 드린 게 효과가 있었을까. 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그런 놈에게 너를 줄 뻔했지. 내 잘못으로 너를 불구덩이에 밀어 넣어놓고 내가 이럴 게 아니었구나.

싱케루스,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다. 너 같은 아들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으니까.

너도 딸을 낳아보면 내 마음을 알겠지.

아길리스는 사람을 시켜 지키도록 하겠다. 잉겐스 님께서 계실 것 같다만.

오늘 고생들 했다. 푹 쉬어라."

돌아서는 아버지의 등이 쓸쓸해 보였다. 그 뒤로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오늘은 그만해야 할 것 같았다.

큰 잘못을 저지른 느낌이었다. 너울거리는 노을 아래 아버지의 뒷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허락하신 것 같아 행복했지만 마음에 허전함도 느꼈다.

궁으로 떠날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선 모습을 못 봐서 그런가. 결혼해서 떠나는 것도 아닌데 싱숭생숭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옮겨온 듯했다.

싱이 옆에 서서 손을 잡아주었다.

"영주님께 잘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해드려야지. 지금보다 더 잘하면 아버지도 만족하실 거다. 이렇게 든든한 자식이 하나 더 생기지 않았나.

조금씩 실감이 들었다. 이제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정받은 사이가 됐다.

싱을 보며 살며시 미소지었다. 그가 얼굴을 붉혔다.

"지금 당신에게 입 맞추고 싶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더 기다려요."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참을 수 있다. 그럴 거다.

그래, 그러고 결혼도 하면... 단꿈에 젖어 장밋빛 미래를 떠올렸다.

우울했던 게 언제냐는 듯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다면. 인생이란 다 그런 거라고 말하련다. 행복한 길은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것.

싱의 어깨에 기대어 이 사람이 옆에 있음을 가슴 가득 느꼈다. 애처롭게 보이던 노을빛이 결혼한 신부의 화관처럼 곱게 빛나고 있었다.

노을 아래에서 싱은 말했다.

"꿈만 같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 것을 영주님께 인정까지 받다니요. 제가 전생에서 아주 큰 일을 했나 봅니다."

네, 전생에서 저를 구했어요.

이제 싱에게 털어놓을 때임을 직감했다.

"싱,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에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생에서 내가 그와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이번 생으로 돌아왔는지까지.

싱은 놀라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했다. 모두 나를 위해 느껴준 감정들이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운 일이군요. 잉겐스 님의 존재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 그 모든 일을 겪으신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분 같습니다."

"겪은 일은 대단한 게 맞지만 그건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잉겐스 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이 있어서예요. 전생부터 지금까지 주욱 그랬어요."

"영광입니다. 저도 당신의 전생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쉽군요."

"내가 두고두고, 당신이 지겹다고 말릴 때까지 들려줄게요."

싱과 평생을 두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저는 당신 말씀이라면 영원히 지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장담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가요. 그럼 장담 대신 바람으로 하죠."

"그게 뭐예요. 그러나저러나 성인이 되자마자 혼인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성인이 되기 전에도 할 수 있긴 합니다. 욕심을 부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을래요. 아버지 등이 쓸쓸해 보였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요."

"네, 당신이 원하신다면 평생을 기다리라고 하셔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싱, 아까부터 느낀 건데 아부가 너무 늘었어요."

머쓱하게 웃는 얼굴도 좋았다.

"잉겐스 님 말이에요."

"네."

"아길리스에게만 집중하셨다면 훨씬 더 빨리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까지 보호 마법을 걸어주시고 챙기시느라 그만큼 늦어졌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제가 잉겐스 님과 아길리스에게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마십시오. 당신이 아길리스를 구한 겁니다. 애초에 셋이 함께 간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제 몫을 다해내셨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완벽... 까지는 아니지만 멋진 삼인조가 활동하는 모습을 잘 봤습니다."

이 사람, 아부가 늘었어도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었나 보다. 입바른 소리를 그대로 하는구나.

"아가씨!"

싱과 소곤소곤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데 멀리서 한 병사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왜 그러는가?"

"영주님께서 아가씨께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 얼른 안으로 들어가거라.'

저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심기를 잘못 거스르면 안 되겠다. 다 된 수프에 코를 빠뜨릴 수는 없지.

아길리스를 보고 올까 했더니 그녀의 막사 안은 불빛이 비치지 않았다. 환자에게는 휴식이 필수이니 벌써 잠자리에 든 듯했다.

임시로 마련된 막사에 들어와 오늘 일에 대해 생각했다. 아길리스가 무사해서 감사했다. 또 싱케루스가 편하게 이야기를 받아주어 안심이었다.

망설이고 기회를 재던 것에 비해 고백하는 순간은 그저 편안하고 즐거웠다. 돌아와 맞이하는 경험들이 모두 소중했는데 그 순간 역시 따사롭고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잉겐스 님. 그분을 위해 기도드렸다.

"드래곤 로드 님,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희 잉겐스 님을 도와주세요. 그분이 다시 제 모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해서 마음속으로 바랐다. 내일 일어나면 아길리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길. 공작의 잔당들도 모조리 소탕할 수 있기를. 그렇게 잠이 들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총공격이 이루어졌다. 공작이 도망치려는 낌새를 우리 쪽에서 알아챘기 때문이다.

막사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 보니 싱도 이미 옷을 다 갖춰 입은 채 나와 있었다.

"당신은 이곳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길리스에게 가 있을게요."

아버지 곁에서 싸우겠다는 그를 보냈다. 이 싸움에서 나도 한몫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나 있을 차례였다.

아길리스의 막사에서도 잉겐스 님이 나올 준비를 하고 계셨다. 포동포동하던 볼이 하루 사이에 홀쭉해지셨다.

"저 아이를 잘 부탁한다."

"네, 잉겐스 님."

"티티야."

"네."

"내가 아길리스에게 다른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너도 내게는 소중한 아이이다. 너 때문에 늦어진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오직 나 혼자만의 잘못이었다. 아길리스를 구해줘 고맙다."

싱에게 한 말을 들으셨구나. 로드 님께 드린 기도는 주무시느라 못 들으셨을 테지. 어색해서 어설프게 웃었더니 잉겐스 님도 피식 웃고 나가셨다.

진심을 전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한 게 나였으면서 내가 그분의 진심을 들으니 왜 이렇게 민망한 걸까. 얼굴이 홧홧해서 볼만 두드렸다.

멀리서 거대한 함성이 들렸다. 무슨 상황인지 알고 싶어 답답하던 때였다.

"리벤티아, 잉겐스 님의 '다른 마음'이라는 건 뭐야?"

얘는 왜 매번 가슴 철렁한 질문만 하는 걸까. 이번에는 잉겐스 님도 안 계시는걸.

"무슨 소리야?"

아길리스가 웃으려다 가슴을 잡고 얼굴을 찌푸렸다.

"야, 너 거짓말 못 하니까 애쓰지 말고 그냥 바른대로 말해."

"몸도 안 좋은데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말하자."

"너 그러고 도망가려는 거 다 안다."

곤란한 상황을 넘기려 쩔쩔매고 있으려니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아길리스, 그건 내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잉겐스 님께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다."

"밤새 궁금해서 잠 못 잘 것 같은데... 알았다. 그리고 구해줘서 고맙다."

고개를 저었다. 낯이 부끄러워서 웃기만 하자 그녀도 시원스럽게 웃어주었다.

"아길리스, 기분이 어때?"

통증 때문에 힘겨워 보였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짓는 미소가 개운하기만 했다.

"날아갈 듯한데 보다시피 날 수가 없다."

그녀의 농담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등 뒤에 매달고 있을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했다.

내 친구 아길리스, 너를 절대 잃고 싶지 않았어. 잘 견뎌줘서 고맙다.

우리가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는 전투가 이어졌다.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루베르 군은 훈련받은 대로 체계적인 싸움을 했다. 반대로 놈들의 군대는 마구잡이 식으로 대항했단다.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공작이 왕의 군대까지 한꺼번에 통솔하는 것도 괜찮았겠지. 하지만 여러 일이 있었던 만큼 그들 사이도 삐걱거렸고 그에 지휘체계가 엉망이었단다.

용병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붉은 독수리 용병단이 우리 쪽에 가담하면서 다른 용병들도 돌아섰다.

신뢰로 먹고사는 그들마저 공작을 따르지 않자 놈의 병사들도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 항복하는 자가 속출했다.

새벽에 싱이 찾아왔다. 전투가 끝난 것이다. 공작과 그 비서를 잡았다며 아침에 그들에 대한 심문이 있을 거란다.

아길리스가 마법사를 처리할 때 그놈들은 자리를 비웠다. 그래서 일을 벌이고 시끄러운 와중에도 공작은 못 봤었다. 어떤 놈인지 드디어 그 면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티아, 이런 안 좋은 꼴은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자의 꼴을 보고 싶어요. 국왕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중 하나잖아요."

내키지 않으신 게 역력했지만 그러라고 허락해주셨다. 아버지가 앉으신 자리 뒤에 서서 놈이 끌려 나오는 걸 지켜봤다.

공작과 그의 비서, 아버지를 암살하려 한 부자까지, 줄줄이 밧줄에 몸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였다. 다른 이들은 자포자기한 얼굴이었는데 공작만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셨다. 공작이 뭐라 웅얼거리며 몸부림쳤다.

"저놈의 재갈을 풀어주어라."

병사가 그의 입을 풀어주자 악다구니가 쏟아졌다.

"이 원수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를. 아버지도 기가 막히신 지 헛웃음을 치셨다.

"가만있는데 쳐들어온 게 누구냐? 너야말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다."

모인 루베르 인들이 하나같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를 표했다. 김빠진 웃음소리도 나오는 와중에 공작만이 분노에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봤다.

"가만있기는 누가 가만있었느냐! 네 놈이 국왕을 도와 왕위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내 세력들도 그만큼 죽지 않았을 거다."

나직하게 뇌까리는 목소리에 격렬한 열기가 뻗쳐있었다. 공작이 제 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뻘게진 얼굴로 외쳤다.

"네 놈만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내 발아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도 네 놈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냐?!"

"이런 미친새끼가 있나! 데펙토르 놈에게는 찍소리도 못해놓고 애먼 사람에게 화풀이한 거라고?"

"그놈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일이 되도록 기껏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튀어나온 줄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다 그르치고... 항상 네가 모든 일을 다 망쳐놓았다!

천한 놈이 제 주제를 모르고 귀족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는 감히 누구의 앞길을 막은 줄 아느냐!"

침착한 자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심하게 흥분한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씀하셨다.

"네 놈도 데펙토르의 뒤통수를 칠 거였다는 말이지? 결국 배신자 두 놈이 붙어먹은 거였구나. 더 들을 것도 없겠다. 저놈 입을 다시 막아라."

병사들이 다가서는 걸 막으려던 공작이 발길질에 차여 나동그라졌다. 거세게 저항해봐야 병사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놈 때문에 고생한 것들이 많은 만큼 그들의 행동이 과격했다.

너덜너덜해진 몸이 되어서야 놈도 지친 건지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시더니 암살에 가담하려 한 친우를 향해 말씀하셨다.

"델로, 자네 말도 들어볼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물어나 보겠네. 왜 그랬나?"

"공작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랑 똑같이 천한 놈인 주제에 누구는 떵떵거리면서 영주 대접을 받고 누구는 그 밑에서 기면서 사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지금껏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옆에 있었던 건가?"

허탈한 목소리였다. 반면 놈은 기운을 차렸는지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그를 알고 지내던 루베르 인들이 놈을 향해 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셨다.

"됐다. 다시 묶어라."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버지가 판단을 내리셨다.

"여기 있는 놈들은 전부 지금부터 산 채로 진흙 속에 파묻는다. 다음으로 놈들의 숨이 끊어지면 목을 잘라 성문 앞에 건다. 남은 몸은 들판에 버려 짐승이 뜯어먹도록 둔다.

혹여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처벌한다.

놈들의 잔당은 몸값을 낸다고 해도 필요 없다. 모두 평생 루베르 산맥에서 강제 노역할 것을 명한다."

판결을 들은 놈들이 다 끝났음을 체감했는지 망연자실한 얼굴이 되었다. 아버지의 옛 친우만은 표정을 바꾸어 사정하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러나 병사들이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자 결국 체념한 몰골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로 끝인가. 더 오래 잔인하게 괴롭혀 주고 싶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고개를 저었다. 나도 저들처럼 악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하자. 그것이 우리를 침략해온 이들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정당한 처벌이었다.

그 순간 국왕을 떠올렸다. 이제 그놈만 남았다. 왕세자나 다른 것들은 이미 힘을 잃어 그를 처단하면 곁가지로 따라 처리될 터였다.

내가 도망 나온 후 왕은 귀족들을 궁 밖으로 내몬 채 궁궐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한다. 궁정 귀족들마저 내보내는 바람에 현재 국정은 모두 정지된 상태였다.

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흉흉한 기운이 넘실대고 있었다. 어디에서 먼저 터지는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심지를 붙일 생각이었다. 이제야말로 데펙토르 면상에 진짜 폭탄을 던져줄 때였다.

아버지는 대규모 루베르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격할 것이라 선언하셨다. 복수에 대한 정당성은 넘치게 갖췄다.

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병사들이 먼저 바로 쳐들어가자고 성화였다. 공작과 함께 침입해왔던 용병들도 합류했다. 의뢰일 뿐이었지만 명분 없는 싸움에 참여한 걸 사과하는 의미로 계약 없이 돕겠다고 말해왔다.

다들 힘이 넘쳐서 싸우지 못해 안달이었다. 그래서 이르게 출발하기로 했다. 루베르에서 후처리는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마르티스 경이 맡기로 했다.

잠시간 채비할 시간이 주어졌다. 그 사이 아길리스를 찾아갔다.

"잘 잤어?"

"응, 꿈도 안 꾸고 푹 잤다. 잠들기 전에 고민스러운 시간은 있었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모른 척 넘기고 그녀의 곁에 앉았다.

"어제 많이 힘들었지?"

"안 그럴 줄 알았더니만 그렇데. 상상 속에서 그놈을 만나게 되면 가슴도 찌르고 목도 찌르고 눈도 찌르고,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나 찔러 죽였거든.

그런데 막상 진짜 그놈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손이 선뜻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원한을 너무 오래 묵혀둬서 그랬나 봐.

잉겐스 님은 당신만의 잘못이라고 하셨지만 실은 내 잘못이었어. 마법사 놈을 단번에 죽였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잉겐스 님도 실수하신 거야."

말을 하면서 아길리스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살며시 비벼주었다. 차가워진 손에 온기가 돌았다. 한참 말없이 앉아있으려니 아길리스가 손에 힘을 주어 꾹 움켜잡았다 놓았다.

"고맙다."

"우리가 다녀올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다 나아있어야 해."

"그게 내 맘대로 되면 지금 당장 털고 일어나겠다. 너희들이 수도로 가 있는 동안 나는 뭐하지?"

"쉬어야지."

"나도 따라가고 싶은데. 너는 가지 말고 여기 있자고 하려니 너도 네 복수를 해야 하니까.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 복수는 허망한 거라는 둥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내가 잘 살기만 하면 그게 진정한 복수라는 둥, 그런 건 다 개소리였어.

물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건 맞지. 그래도 세상이 그놈을 그냥 둔다면 내가 나서서 없애주는 것도 맞는 거야."

말하면서 뺨 위로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씩씩하게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 닦더니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나는... 내 스스로도 미친년 같았거든.

마법이나 폭탄 이야기가 나오면 벌벌 떨고, 그놈 말고도 마법사란 족속들을 만나게 될까 봐 피해 다니고. 그러다 보니 임무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

만나는 남자마다 그래서 다 떠나버리더라. 이렇게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여자는 피곤하다나 뭐라나.

어떤 놈한테서는 정신병자라는 말도 들었다. 나도 내가 병이라는 걸 아니까 그 말에 반박하지도 못했고."

자기 머리를 헤집더니 곧바로 웃으며 말했다.

"너한테도 미안했다. 궁에서도 릴리 궁 주변만 맴도느라... 미안하고 고마워."

"그런 말은 하지 마. 네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나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진짜 속이 다 풀리는 기분이네, 후후.

그러니 너도 꼭 성공하고 돌아와. 적을 다 쓸어버리고 오는 거다."

"있잖아."

"응."

"잉겐스 님이 그러셨어. 너는 아주 건강한 기운을 지닌 사람이래. 인간 중에서도 특출하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 내 생각도 같아. 너는 상처를 입었고, 그 기억에 괴로워했을 뿐이야.

그게 뭐 어때서? 그것만으로 너를 다 정의할 수는 없잖아.

네가 마음의 병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네가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말일 뿐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네 몫을 다하고 살았다는 거야. 네가 애꿎은 사람을 괴롭혔다면 싱케루스부터 너를 그냥 두지 않았겠지.

너는 있는 그대로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이니까. 너도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웃으며 듣는 줄 알았는데 아길리스가 눈살을 찌그러트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두 손에 파묻고 숙인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울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곁에는 싱도, 나도, 잉겐스 님도 함께 있으니까 그깟 거지 같은 놈들은 잊어버리고. 여차하면 내가 진짜 거지로 만들어줄 테니까 누군지 목록이나 작성해놔."

"흐흐흐, 울다 웃으면 안 되는데 얘가 자꾸 사람을 웃기네."

안 된다면서 한참 울다 웃다 반복했다. 그러려니 하고 지켜만 봤다.

"됐다, 그만 울어야겠어. 잉겐스 님에 대해서나 더 말해줘."

"뭘?"

"그분은 어떤 분이셔?"

"너도 알잖아. 네가 느끼는 그대로의 분이 아닐까.

내가 그분에 대해 말하자면... 잉겐스 님을 만난 건 내 평생 최고의 운 중 하나였어.

그분께 입은 은혜를 갚자면 내 몸속의 피를 다 뽑아서 그분께 바쳐도 모자랄 거야."

"헉, 너는 무섭게 예를 들어도 그런 걸 드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다."

말간 웃음이 예쁘기만 했다. 앞으로 이 친구는 이런 미소만 지었으면 좋겠다.

이제 필요 없으니 가보라는 말에 툴툴거리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출발이 머지않아서 그녀가 배려해 준 걸 알았다.

그렇지만 할 일이 더 있었다. 돌아다니며 잉겐스 님을 찾았다. 조금 지친 모습으로 아길리스를 찾아가고 계신 걸 겨우 붙잡았다.

"잉겐스 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아길리스를 보고 나서 들으면 안 되냐?"

"그 애 얘기예요. 보시기 전에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아길리스에 관한 말이라고 하니 잉겐스 님이 자세를 가다듬어 진지하게 들을 준비를 하셨다.

"말해 보아라."

"전투에 나가시기 전 저와 나누신 이야기를 걔가 들었어요."

잉겐스 님의 동공이 확장됐다.

"이런... 깨어있었던 거냐. 내가 아길리스의 피를 보고 흥분하는 바람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구나."

"저한테 잉겐스 님의 마음을 묻는 건 답하지 않았어요.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오냐, 미리 알려줘 고맙다."

애써 미소 지으시면서도 어깨가 딱딱해지는 게 보였다.

오늘 심기일전하시고 전투에서 방대한 방어 마법을 펼치셨다 들었다. 안 그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분이 돌아오자마자 어려운 순간을 맞으시게 됐다.

들어가기 전에 용기를 다져야겠다며 쓰게 웃는데 억지웃음인 게 다 티 났다. 어린아이로 있으시면서 그런 표정을 지으니 더 안쓰러웠다. 그렇지만 혼자 있고 싶다는 말씀에 그분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를 향해 동시에 만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운 좋게 그것을 경험했지만 모든 이에게 그런 축복이 내려지진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그래서 더 절실히 소망했다. 우리 잉겐스 님께도 꼭 그런 기적이 다가오기를. 아길리스도 이렇게 좋은 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비록 이분의 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둘이 잘 될 수 있기를.

그들을 두고 오는 길에 바라고 또 바랐다.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싸우러 나가는 길임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자주 읽던 전쟁 소설에서는 이럴 때 비장함이 감돌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가벼운 대화들이 오가는 흥겨운 느낌이 강했다.

공작을 수월하게 해치우고 병력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라 그럴지도 몰랐다. 그리고 잉겐스 님이라는 존재가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미 치른 전투에서 그분의 활약을 목격한 병사들은 '전쟁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떠들어댔다.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 행군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에서 피로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잉겐스 님은 어디에 가셨는지 안 보이셨다. 아길리스와 대화가 끝나면 따라오실 거라셔서 먼저 출발한 중이었다.

이야기가 잘 이뤄져 아픈 그녀 곁에 더 계시고 싶어 늦으시는 건가. 아니면 잘 안 되셔서 낙담하시느라 안 오시는 건가.

알 수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이 일었다.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계시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리리, 그렇게 말을 몰다가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란히 달리고 있던 싱이 경고해 주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 잉겐스 님이 언제 오시나 해서..."

"아길리스와 나누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걔랑 계시느라 시간 가는 걸 잊으셨나 봅니다. 잉겐스 님이 그 애와 죽이 잘 맞으시더군요."

"둘 성격이 더할 나위 없이 딱 맞긴 해요. 잉겐스 님이 본모습을 되찾으시면 외모로 봤을 때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텐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걔가 늘 말하던 이상형이 잉겐스 님과 근접합니다. 음, 생각지 못했던 조합인데 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당신 사람들에게는 정 많고 배려 깊고, 또 능력도 좋으시잖아요. 지금 모습만 봐도 외모는 더 설명할 게 없을 테고.

그러고 보니 모든 여자의 이상형이네요.

재물은 얼마만큼 가지신 지 모르지만... 레어에 가면 보물이 넘쳐나는데 저희가 잘 대접해 드리니 찾으러 갈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길리스는 그런 걸 따질 애도 아니지만요."

"..."

말하다 말고 대답이 없어 옆을 쳐다봤다. 앞만 보고 있는 싱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어딘가 심란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앞에 못 볼 게 있나 싶어 주의해서 봤지만, 별것도 없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그가 슬쩍 나를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 미심쩍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눈치라 억지로 꺼내게 하지 못했다.

"잉겐스 님이 성인 남자로 돌아오시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런 얼굴을 했는지 다음에라도 듣고 싶다 바라던 참이었다. 말없이 말만 몰고 있으니 내가 화난 줄 알았던 걸까. 그가 말을 꺼냈다.

착잡한 목소리였다. 그를 보니 미안한 눈으로 말을 계속했다.

"그분이 당신과는 각별한 사이 아닙니까.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멋진 남자가 되어 나타났는데 당신께 잘해주시기까지 하니...

어쩌면 당신 마음이 그분께 끌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말하려다 다른 소리에 기회를 놓쳤다.

"으하하핫! 이 녀석이 엉뚱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있을 줄은. 크크큭, 티티 너는 꼭 너 같은 애랑 사귀는구나."

잉겐스 님이 도마뱀으로 나타나셨다. 싱이 못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는 한 식구이다. 가족한테 그런 감정을 가질 리 없지 않으냐."

기분이 과도하게 좋으신 것 같았다. 잘 되신 걸까. 한숨 놓으면서도 들리는 단어에 가슴이 찡해지는 걸 느꼈다.

식구... 가족이라니.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잉겐스 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그러고 있자 잉겐스 님이 더 크게 웃으셨다.

"너는 또 무슨 그런 말에 감동하고 그러느냐. 애들이 착한 건 좋은데 어리바리해서 손이 많이 가. 나나 되니 돌봐주고 있는 거다."

"맞아요."

싱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웃고 말았다. 그가 있는데 아길리스와의 일을 여쭤도 괜찮을까. 분위기가 풀린 김에 호기심이 커졌다.

"궁금하지? 흠, 나는 잘 해결됐다고 본다."

"그럼 아길리스와 사귀기로 하신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내 모습이 성장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그때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약속했다."

"되돌리실 방법을 찾으셨어요?"

"실은 말이다. 아까 아길리스와 말하고 있는데 매우 짧은 시간, 내 모습으로 돌아왔었다. 그걸 보더니 아길리스가 꼭 사귀어 줄 테니 반드시 되돌려 놓으라고 하더구나."

"세상에! 잘됐어요!"

"그래, 그때는 내 힘으로 이룬 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지만. 그걸로 실마리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 몸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한순간이나마 느꼈으니."

머잖아 달라지신 걸 볼 수 있으려나. 잉겐스 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당신 몸을 공중에 띄워 이리저리 날고 계셨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로드 님께서 해주신 일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하늘을 보며 말했다.

"무슨 기도 말입니까?"

"잉겐스 님이 몸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네. 저도 같이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알죠. 당신 마음을 제가 모르면 누가 알아주나요."

수줍게 웃는 싱의 얼굴 위로 잉겐스 님이 둥둥 떠다니시는 게 보였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날고 계시니 주위의 병사들까지 기분 좋게 웃어댔다.

좋은 기운은 옆 사람까지 즐겁게 한다. 왁자지껄 웃음을 터뜨리는 무리가 궁금해 이쪽을 보던 이들이 다시 잉겐스 님을 보며 웃고 있었다.

옆으로, 옆으로, 즐거움이 퍼져나갔다. 선선한 바람이 콧잔등을 간지럽혔는지 아셀이 푸푸, 바람을 쫓는 소리를 냈다. 전쟁하러 가는 이들답지 않게 평화스러운 오후 풍경이었다.

후작가 문장과 루베르 영지 군을 상징하는 깃발들을 달고 이동하다 보니 지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깃발을 알아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처 알지 못해도 옆에서 하는 말을 듣고 공감을 표했다.

갈수록 우리는 시위하듯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군대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왕도에 다다랐을 때는 이것이 루베르 군인지 농민군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만큼 많은 백성이 함께였다.

평민뿐만 아니었다. 오는 도중 중소 귀족 몇몇도 합류해 있었다. 그리고 신분을 개의치 않고 똑같이 어울렸다.

통솔하는 그대로 많은 이들이 소란 떨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도성 문을 넘었다.

처음에는 문지기 병사들이 놀라서 화살을 겨누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용히 앞을 지키고 있자 자기네들끼리 의논하는 듯하더니 성문을 활짝 열었다.

말 그대로 무혈입성이었다.

따르는 백성들은 신기했는지 약간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시가지를 지나면서 다시 침묵시위가 이어졌다.

성도 주민들은 나라 사정에 더 민감한 이들이 많았기에 우리 얘기를 모르는 이들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소문을 퍼뜨렸으니 당연하기도 했다.

뒤를 따르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살면서 이런 일을 보는 것도 모자라 직접 동참하고 있다니. 자손 대대로 물려줄 이야기입니다."

붉은 독수리 용병단의 제리탈 단장이었다. 처음에 싱이 말 위에서 칼을 뽑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인 걸 알고 싱을 멈추게 했지만. 곁으로 다가오는 솜씨가 감쪽같았다. 그래서 속으로 혀를 내둘렀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의 수다에 감탄하는 중이다. 인품이 좋기로 소문난 이라더니 친화성은 더 좋았다.

"역사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싱은 제리탈이 마음에 든 듯했다. 그가 싱보다 한참 형뻘인데도 넉살을 부리며 친하게 다가오니 두 사람이 곧잘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용병단이 새롭게 정착할 곳을 찾고 있다며 루베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내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았다. 아스트룸이 있지만 영지의 힘을 더 키울 생각이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그에 대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무렵이었다. 큰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정지!"

차례로 전달되어 오는 소리에 대군이 서서히 멈춰 섰다. 어느새 왕궁 앞에 도착해 있었다.

"저기, 낯익은 얼굴들이구나."

잉겐스 님이 내 어깨로 내려오셨다. 저만치 마리아 부인과 세베루스 후작, 그리고 리타와 그의 부친 등 귀족들이 모여 있다고 전해주셨다.

싱과 함께 앞으로 말을 달려나갔다. 맨 앞에 계시던 아버지와 수도 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굳은 얼굴을 하고 있던 마리아 부인이 나와 눈을 마주치자 부드럽게 인상을 폈다. 다른 귀족들도 나를 보고서 반가운 얼굴로 알은체했다. 친구들의 기쁜 얼굴도 보였다.

이제 왕세자빈 같은 게 될 리 없는데도. 다들 일개 귀족 영애가 아닌, 고위 귀족 부인을 대하듯 인사해주었다. 나는 예전과 다르게 귀족 영애로서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다.

"무사하셔서 기쁩니다."

마리아 부인이 먼저 다가왔다. 그의 말투에 대해서도 말을 나누기 적절한 상황이 아니었다.

"공작이 저지른 만행을 듣고 도우러 가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해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곳으로 오고 계신다는 말에 저희도 힘을 보태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이 와주실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가씨가 인심을 쌓으신 게지요."

"상황은 어떻소?"

"수도에 남아 있던 공작가의 식솔들을 잡으러 갔더니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저희는 후작님께서 도착하시기 전까지 국왕을 편드는 귀족들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전하는... 이제 이런 호칭도 무의미하군요. 그는 궁궐 문을 걸어 잠근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양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듯했다. 마리아 부인이나 귀족들의 표정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도망친 이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기사단장이 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쫓고 있으니 조만간 소식이 올 것이오.

그보다 궁금한 게 있소.

나는 나와 내 딸의 복수를 하려 하오. 그러나 그대들은 반역자라는 멍에를 쓸지도 모르는 일에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오?"

세베루스 후작이 아버지의 물음에 답했다.

"우리는 왕의 신하이기 전에 국정 운영에 동참하는 귀족 중추들이기도 하오. 그런데 국왕 부자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도 몰랐소. 그들의 사생활이었다 하고 넘기기에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지."

꼬장꼬장한 사람의 풀이 좀 죽어 있었다.

"페르도라는 여자가 뒤에서 국정을 쥐락펴락할 동안, 레푸스 공작이 사병을 함부로 움직이고 왕의 군대까지 손아귀에 쥐는 동안, 그들이 무고한 이를 침범할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동안,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제지하지 못했소."

후작은 말을 할수록 비통에 잠겨 들었다.

"그들이 감쪽같이 속였다 한들 몰랐다는 말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오. 우리는 신하로서도, 귀족으로서도 그 어느 하나 책무를 다하지 못했소.

후작과 아가씨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나왔지만, 실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오. 그러하니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않겠소."

그의 말에 다른 귀족들도 고개를 떨궜다. 면목이 없다는 몸짓들이었다.

그러는 도중 한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궁을 등지고 버티던 이들이 이리로 오고 있었다.

양쪽이 마주하고 있던 분위기가 자못 살벌했는데 우리가 온 후 그게 깨져 있었다. 워낙 압도적인 수의 군대를 끌고 오다 보니 양쪽 다 질린 듯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은 기세등등해졌고 반대편은 주눅 든 게 확연했다. 그랬는데 그동안 눈치만 보느라 적막에 싸여 있던 측에서 행동에 나서기로 했나 보다.

마주 오는 이들 중에는 모이카의 전시회장에서 시시덕거리며 돌아다니던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보통은 이럴 때 국왕파 대 귀족파의 대립일 텐데 이 자리는 성실한 귀족 대 방탕한 귀족의 구도였던가.

"앞에 선 자가 가르통 백작입니다. 선왕의 방계 쪽 먼 인척으로 왕족도 아닌 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속셈인지 지금 국왕의 편을 들며 저러고 있습니다."

마리아 부인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귀족 연감에서 본 인물이었다. 엄청난 거부라 들었다. 귀족 사회 일에 별 참견하지 않는 자라더니 앞장선 꼴을 봐서는 의외였다.

"저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다. 국왕이 저놈을 왕세자 자리에 앉혀 주기로 했다는구나."

잉겐스 님은 레스토 귀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기를 꺼리셨다. 그래서 모습을 숨긴 채 전음만 쓰셨다. 하여튼 그 말씀을 들으니 더 뜻밖이었다.

"왕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내 보기에도 그렇구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군요. 데수르고 후작님과 영애를 뵙습니다. 저는 사보 가르통 백작이라 합니다."

비위를 맞추듯 말하고 있어도 자세에는 거드름이 배어 있었다. 평소 몸에 익은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듯했다.

"그대는 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나?"

질문 형식이었지만 아버지는 꾸짖고 계셨다. 덩치도 큰 분이 위엄을 갖춰 말씀하시니 위압감이 강했다. 가르통이 아버지에게 지지 않겠다는 듯 배를 내밀었다.

"국왕 전하의 사돈까지 될 뻔하신 분이 이러셔서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귀족이나 되는 이들이 나라를 이토록 시끄럽게 만들면 어찌합니까."

이 자 또한 국왕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사돈이 될 뻔한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 너도 잘 알 텐데? 그래 놓고 왕이라는 자는 비열하게 공작과 손을 잡고 뒤에서 수작질을 벌였다.

나는 원수에게 마땅한 복수를 하러 왔다. 내 앞길을 막는다면 너 역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 저, 무식하게 반말이라니!"

백작 옆에 있던 이가 아버지 말씀에 토를 달았다. 아버지가 그를 노려보셨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지금부터 한 마디라도 더 입을 열거나 내 앞을 얼쩡거리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에잇!"

아버지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가르통을 호위하고 있던 기사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칼이 들어오기도 전에 튕겨 나갔다. 잉겐스 님이 보호 마법을 펼치고 계셨으므로 당연했다.

기사가 당황한 사이 아버지가 검을 휘두르셨다. 그가 가슴을 시뻘겋게 물들이며 쓰러졌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 뒤에서 쿵, 쿵, 소리가 들렸다.

점점 땅이 진동했다. 세상이 울리는 것 같았다. 병사들도, 백성들도, 가리지 않고 선 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땅을 차고 있었다.

건방지게 다가왔던 떼거리가 궁문을 향해 줄행랑을 쳤다. 기사가 죽었을 때부터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수많은 이들이 내리는 경고를 견디지 못했다.

그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으려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데수르고 이 무식한 놈아! 네 놈이 정녕 주제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구나!"

궁정 마법사가 도와준 건지 확성 마법으로 왕이 지껄이고 있었다.

"안에서 마법사가 공격 마법을 날리는 걸 내가 다 막았다."

"감사합니다."

놈이 떠들든 말든 아버지는 관계치 않으셨다.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더니."

병사를 시켜 상자를 옮겨 오게 하셨다. 뭔가 봤더니 폭탄이었다.

"노벨 새끼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놨던지 써도 써도 남아도는구나. 이렇게 좋은 건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지."

아버지가 미소를 띤 채 이를 가셨다.

궁수들이 앞으로 나왔다. 대열을 정비한 채 활을 들어 쏠 준비를 했다.

가르통 백작이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는 게 보였다.

"전하,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그자의 비명이 잘 들렸다. 왕은 꿈쩍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신호를 내리셨다.

"한 마디라도 더 입을 열거나 내 앞을 얼쩡거리는 놈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가르통 백작 무리 위로 화살 비가 새까맣게 내리고 있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마리아 부인의 말대로였다. 처절한 비명을 남기고 가르통 백작과 그 일파는 짧은 등장을 마쳤다.

고슴도치 같은 모습을 보고 있었더니 회귀하기 전이 떠올랐다. 구토감이 밀려왔다.

"리리, 괜찮으십니까?"

"예전에 겪었던 게 생각나서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저런 건 보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려무나. 예를 들어..."

무슨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 경청했다.

"아길리스 얼굴이라든가, 그녀의 목소리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느냐."

말씀하시고 쑥스러우셨는지 꼬리가 까딱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 아길리스를 생각하는 것도 옳았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바로 옆에 싱도 있었다.

"그럼 전 우리 싱을 볼게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만지셔도 됩니다."

싱과 잉겐스 님 덕분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다. 역한 기분을 가라앉히고 보니 버티고 있는 놈에게 더 화가 났다.

놈은 지겹도록 뻔뻔했다. 자기 옆에 나름대로 실력 있는 마법사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나오면 될 걸 쓸데없이 힘을 쓰게 하는구나."

우리가 떠난 후 궁궐에 결계 마법이 걸려 있었다. 잉겐스 님께서 보시기에 궁정 마법사 넷이 힘을 모아 만든 듯하다고 하셨다. 당신께서 파훼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힘을 소비하시다 방어 마법에 구멍이 뚫릴지도 모른다셨다.

싱이 쉽게 담을 넘기도 했고, 우리도 수월하게 빠져나온 감이 있어 처음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좌절하지만은 않았다. 우리에게는 놈들이 만들어놓은 폭탄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고마운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덕분에 놈들의 대책은 무의미해졌다. 화살받이가 된 이들은 그냥 두고, 병사들이 궁궐 문과 담을 따라 폭탄을 설치했다. 그러고 모인 이들을 폭탄 사정권에서 한참 벗어나도록 뒤로 물렸다.

이렇게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했다.

왕비께서 어쩌고 계실지 답답했다. 전생 마지막 날 불타고 있다던 라벤더 궁. 우리가 가기 전까지 딴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할 텐데 당장은 방법이 없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병사들이 물러난 채 불화살을 당겼다. 폭탄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꽝! 꽝! 꽝! 천지간을 진동시키는 굉음이 울렸다.

실제로 본 그 위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 탄탄하게만 보이던 궁궐 담이 통째 내려앉았다. 저걸 전생에서는 루베르 인들에게 썼다니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궁궐 문이 있던 자리를 맨 앞에서 넘으셨다. 일부 기사들과 병사들, 귀족들이 그 뒤를 따르는 속에서 우리 셋도 움직였다.

문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거리가 먼 곳까지 까맣게 조각난 신체 일부들이 흩어져 있었다. 왕도 이렇게 돼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극악무도한 것들아! 너희들은 반역자다! 역사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흥! 저 놈 입을 지져버리고 싶구나. 제 아들놈 면상을 봤으면 느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져버릴 겁니다."

떨어져서도 아버지의 형형한 눈빛이 생생하게 보였다. 이번에는 수도 귀족들이 앞장서서 길잡이 노릇을 했다. 덕택에 아버지도 헬리오스 궁까지 한달음에 찾아가셨다.

궁 안으로 다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밖에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

"왕은 물러나라!"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외치는 말은 특이한 기운을 느끼게 했다. 듣고만 있어도 세뇌되는 기분이었다.

데펙토르는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용한 걸 보니 그도 뭔가 느낀 게 있지 않을까 했다.

그랬는데. 역시 저런 놈에게 뭘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놈의 궁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만난 것은 고개를 빤빤히 쳐들고 있는 면상이었다. 그 옆에는 마법사들이, 다른 쪽에는 기사인 듯한 놈들이 있었다. 그러한 데다 놈의 앞을 근위대가 막고 있었다.

겹겹이 놈을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었다. 문제는 한 기사 놈이 감히 왕비님의 입을 틀어막은 채 강제로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왕비 전하!"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눈이 번쩍 뜨였다. 목에서 피가 올라오도록 외쳤다. 목소리를 들으시곤 전하의 눈길이 내게 닿았다. 절절한 눈빛에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 같았다.

"이 여자가 저년을 놓아주었다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되지 않으려면 썩 물러나라!"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전체 방어 마법을 거둬들이겠다. 티티, 저 이를 구하러 가자."

잉겐스 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셨다. 싱과 눈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들었다. 그가 자신의 말 위에서 뛰어올라 아셀에게로 옮겨 탔다.

"엇?"

우리가 투명화 마법으로 사라지는 순간 왕이 바보 같은 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동 마법으로 왕비님 옆까지 다가갔을 때 마법사 중 한 놈이 소리 질렀다.

"마법임이 분명합니다! 적들에게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늦었다. 잉겐스 님이 마법사들을 한꺼번에 공중으로 띄워 아버지 앞으로 패대기치셨다.

"허억! 몸이 너무 뜨거워!"

"놈들의 체온을 확 끌어올려 버렸다. 저 이가 다칠까 봐 기사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구나."

아길리스를 위해 연구하신 체온 마법을 이렇게도 사용하셨다. 혼비백산한 놈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사람들이 달려드는 게 보였다.

왕이 놀라 기겁한 사이 기사 놈이 검을 든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어땠든 용서할 수 없다는 건 같았다.

"안 돼요!"

도리어 왕비께서 당신의 목을 검에 가져다 대시려 했다.

"전하! 제발 기다려 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내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시선을 주셨다. 멈칫하고 계시지만 처연하면서도 결연했던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심하느라 머뭇거리다 늦을 것 같았다.

"아셀, 가자!"

그대로 아셀이 머리로 기사를 들이받았다. 그와 함께 싱이 놈의 칼을 쳐냈다. 기사가 넘어지면서 왕비님의 몸도 무너져 내렸다. 싱이 재게 뛰어내려 왕비님을 끌어안았다.

얼른 말에서 내려 전하를 살폈다. 목에 칼이 살짝 스친 자국 말고 보이는 상처는 없었는데 정신을 잃고 계셨다.

"조금 충격을 받은 듯하다."

근위대 기사들이 왕비 전하를 붙잡으려 했지만 잉겐스 님께서 먼저 싱과 왕비님을 마리아 부인 쪽으로 옮겨 주셨다. 여러 사람이 그 모습에 놀라면서도 의원을 찾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울화가 치밀어 올라 심호흡을 했다. 그런 뒤 왕비님을 위협하던 기사를 아셀로 하여금 콱 밟게 했다. 그러고 있자니 왕이 헐레벌떡 도망치는 게 보였다.

근위대가 그 뒤를 따르며 추격하는 이들을 쳐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들이 그자들을 다 이기고 왕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대로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았다. 내가 당할 때보다 아버지가, 왕비 전하가 나쁜 일을 겪으신 게 더 참을 수 없었다.

잉겐스 님께서 기꺼이 왕을 들어 아셀 앞으로 옮겨 주셨다. 달려가다 말고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놈이 당황했나 보다. 파닥거리는 모양새가 전의를 북돋아 주었다.

왕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자 놀랐던 사람들이 나와 아셀이 모습을 드러내자 재차 놀란 소리를 냈다. 그들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귀족 영애의 교양 같은 게 이 순간 내게 무슨 소용 있을까.

아래에서 땅바닥에 붙은 채 팔다리만 애타게 움직이고 있는 놈을 내려다봤다. 참 오래도 끌고 왔구나.

"아셀, 네게 이런 일을 하게 해 미안하다만 부탁한다."

고삐를 당겨 아셀이 앞발을 들도록 했다. 그러고는 녀석이 발을 내릴 때마다 놈의 입에서 컥컥, 비명이 터져 나왔다. 놈의 팔다리만 골라서 밟아주었다. 배 같은 데를 잘못 눌렀다 놈이 죽기라도 하면 아까워서 어쩔 텐가.

그래서 죽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콱콱 눌렀다. 전생의 한만 모아 풀어도 모자랄 것을 이생에서까지 쌓인 걸 다 풀려면 놈이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자랐다.

"티티, 그러다 놈이 죽겠다."

잉겐스 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만둘 수 있었다. 어느덧 비명은 사그라들고 놈이 흰자위만 드러낸 채 거품을 물고 있었다. 밟기를 멈췄는데도 놈의 몸이 한 번씩 홀로 꿈틀댔다.

"네, 자제할게요."

고개를 들었다. 왕실 근위대는 이미 제압되어 있었다. 제압한 이들이나 당한 자들이나 멍하니 입만 벌린 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 곁으로 가자 잡힌 기사 중 어떤 이가 시퍼런 입술을 벌벌 떨었다. 우리 편인 귀족 중에서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는 이가 보였다.

아버지와 싱만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다. 내 사람들이 내 아픔을 알고 내 보복을 응원해주니 부족할 게 없었다.

사람들이 달려나가 왕을 질질 끌고 왔다. 다른 이들이 흩어져 궁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어디에 있었던지 모를 궁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일전에 다과회에서 도움을 주었던 궁의가 나타나 이미 왕비님을 돌보고 있었다. 저분만 챙겨나가면 될 것 같았다. 뒷일은 다른 이들에게 맡길 터였다.

"왕세자는 어디에 있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마리아 부인이 마른침을 삼켰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때였다.

라벤더 궁의 시녀장, 피델라 마이어스가 초췌한 몰골로 나타났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있는 왕비님을 보더니 애통한 얼굴로 말했다.

"저하께서는 방금 목을 매어 운명하셨습니다. 마마께서 제게 저하를 돌보라 부탁하셨지만,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꺼끌꺼끌한 질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그녀의 손등이 손톱으로 할퀸 자국으로 그득했다. 이번에는 나도 말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사람에게 그녀를 돌봐주길 청할 뿐이었다.

멀리서부터 만세 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백성들이 지르는 환호인 것 같았다. 그 소리에 앞에 있는 귀족들의 얼굴도 조금씩 펴졌다.

근처에서 서성대던 시종을 불러 왕실 마차를 가져오게 했다. 알아서 마부까지 데려온 그를 칭찬하며 왕비 전하를 마차에 태웠다. 더해서 기절한 왕까지 같이 실었다. 궁의도 함께 태웠다.

왕비께서는 온전하게 깨어나시도록, 왕은 목숨만 붙여두도록, 주문했더니 의원이 고개를 조아렸다.

다른 시종에게는 감옥에 있던 자들이 그대로 붙어 있는지 알아 오도록 시켰다. 그가 전해준 소식은 만족스러웠다. 왕에게 이간질한 보람이 있었는지 놈은 그들 중 아무도 꺼내 주지 않은 채 가둬두고 있었다.

남은 귀족들을 둘러봤다. 그들도 승리의 환희를 즐겨야겠지. 다만 그러기 전에 할 말이 있었다.

"저는 이제 루베르로 돌아갑니다. 저 두 분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리 정도는 제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반대하셔도... 그것만은 저도 양보하지 못하겠군요.

더불어 감옥에 갇힌 일레체 페르도와 막심 브래드, 칼리스 노벨, 웨르미노 테레도를 루베르로 송환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귀족들이 알겠노라, 답했다.

"그 외에 당분간은 뵐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루베르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결심이니까요. 다시 뵙게 될 때는 웃는 얼굴로 뵀으면 합니다."

"비록 몇 달 동안만 아가씨의 교사 노릇을 한 것에 지나지 않으나 제게는 아가씨가 아주 가까운 분입니다.

그러니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왕비 전하도 뵙고 싶으니까요."

내 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이는 없었다. 다만 아쉬움을 표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리아 부인도, 친구들도, 안면을 익힌 여러 귀족도, 그랬다.

"이대로 가시면 어쩌십니까. 국왕 자리가 비었습니다. 데수르고 후작님과 아가씨도 문제 해결에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의무이기도 하지만 두 분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야말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싫소. 왕위에 관한 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보다 딸의 말 말고도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소.

이번 일에 데펙토르 레스토의 편을 들었던 귀족들의 처리에 대해서요.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 처리해 주길 바라오."

아버지가 나를 보셨다.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스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로 족할 겁니다."

입을 열려는 자들이 있었지만, 더 듣지 않았다. 혈통 우월주의에만 빠진 자들은 이번 기회에 대거 갈려 나갈 테다. 그들 대다수가 왕의 편에 선 이들이기 때문이다.

레스토 귀족 사회를 뒤엎어버리겠다 결심했는데. 이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밖에 모여있는 백성들도 봤으니 이들도 멋대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몸을 돌려 마차에 올랐다.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같이 갈 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

마이어스 시녀장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아버지가 내 뜻대로 하라고 해주셔서 그녀도 동행하게 했다.

아버지와 싱이 말에 타는 것까지 보고 문을 닫았다. 아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마부에게 출발할 것을 지시했다.

창문을 통해 좋아하는 남자 둘과 아셀까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환자 둘을 살피고 의원이 내 기색마저 살피는 걸 느꼈다.

"전하는 어떠시오?"

왕도 있었는데 의원은 바로 왕비 전하의 신상을 고했다. 다과회 때도 느꼈지만 눈치가 좋은 자였다.

"조만간 깨어나실 듯합니다. 머리를 부딪힌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잠시 정신을 잃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더 잘 쉬시고 잘 드시면 건강도 문제없으실 겁니다."

마이어스가 왕비님을 그러안으며 안도한 티를 냈다. 그럼 이제 쉬어도 될까.

"내가 이들을 잘 보고 있을 테니 눈이라도 붙이려무나."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긴 여정을 마친 듯 피로가 몰려왔다. 잉겐스 님의 배려를 감사히 받아들였다. 다시 눈을 뜨면 루베르에 도착해 있기를. 눈을 감으며 오랜만에 다른 걱정 없이 귀향할 꿈만 꿨다.

"제가 안고 옮겨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걸 왜 자네가 해? 아비인 내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그렇지만 영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젊은 제가 하는 게..."

"뭐? 너 지금, 내가 늙었다고 돌려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20년은 더 티아를 안고 다닐 수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저도 같이 말을 타고 와놓고서."

"그래도 제가..."

아, 시끄럽다.

"아버지, 그만 내려주세요."

"응? 더 자도 되는데 왜 벌써 깼어?"

투덜대시는 분을 졸라 자리에 내려섰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탓에 잠이 다 깨버렸다. 멀쩡한 정신으로 아버지께 안겨 가기에는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다.

루베르 저택 시중인들이 정렬로 기다리고 있었다. 눈짓으로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안 보이는 얼굴들을 찾았다. 물어보려던 차에 마이시 시종장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손님들은 별채에 조용히 머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분들이 계셨는데 동석한 이가 의원이라 하여 우선은 맡겨놓았습니다. 루베르 저의 주치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네. 우리 주치의에게 여성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남자는 정성스럽게 보살필 필요 없네. 몸을 묶어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살피면 되네."

"그렇지 않아도 영주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말입니다. 의원도 아가씨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겠다며 그놈을 막 다루고 있었습니다."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참견하셨다.

"식량도 아까우니 물만 줘. 운신이 가능할 정도가 되면 지하 감옥에 넣어버리고."

"알겠습니다. 두 분, 늦었지만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종장의 말에 다른 이들도 손뼉까지 치며 맞아주었다. 이 사람들이 민망하게 왜 이러는지.

그렇지만 기분이 꽤 괜찮았다. 가족들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것을 체감했다.

"고맙네. 오늘은 비상 인력만 남기고 다들 휴가를 보내도록 하게."

"잉겐스 님께서 오늘 저택 사람들에게 한턱 쓰신다는구나. 그러니 이들에게는 내일 휴가를 보내주마."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니 잉겐스 님이 눈에 띄지 않았다. 싱이 내 표정을 보고 알려주었다.

"아길리스에게 먼저 가보시겠다더군요."

"그럼 저는 전하를 뵙고 올게요."

나도 아길리스를 보고 싶었지만. 괜스레 둘 사이를 방해할 것 같아 관뒀다. 왕비께서 여태 깨어나지 않으셨다니 걱정이 되어서라도 뵙고 싶었다.

"그럼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셨으나 당신은 바쁘게 처리하실 일이 많았다. 우리와 여유를 부릴 틈이 없으시니 더 심통이 나셨나 보다.

나는 한발 비켜서서 게으름을 피울 생각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만 따로 보내드려야 했다.

마르티스 부관이 제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저를 믿으라는 뜻 같았다.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는 걸 봐서 내 추측이 맞았나 보다. 경도 전에 겪어보니 못 미더운 구석이 있던데. 이번에는 그의 부인 일과 엮인 게 없으니 믿어보기로 했다.

간단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싱과 함께 별채로 갔다. 귀빈들을 모시기 위한 건물답게 별채로 들어서는 길은 조경이 잘 되어 있었다.

알록달록 곱게 단풍 진 나무들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렇게 향기로울 수 없었다.

"나무만 보이는데 꽃향기처럼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나란히 손을 잡고 말없이 걷고 있던 싱이 감탄을 토해냈다. 같은 걸 느끼고 있었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다. 머리를 덜 말렸는지 그의 젖은 머리칼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 아래로 말끔한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누구 애인이 이렇게 잘 생겼을까. 그의 팔을 당겨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슬그머니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고마워요."

"인사를 들을 만한 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다 알면서. 내숭쟁이."

손사래를 치며 당황하는 그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모른대도 나는 그냥 고마워할래요."

"저는 제가 고마운 일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당신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럼 대가로 당신께 요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말만 해요."

"여기에 입 한 번만 맞춰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자기 볼을 검지로 두드렸다. 밝은 빛 아래 수줍게 그러고 있는 모양이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다.

"이런 건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을 보며 아쉽지만 그의 뺨에 몇 번이나 하는 입맞춤으로 만족했다. 붉어진 얼굴을 보며 놀렸더니 나도 그렇단다. 둘이 서로를 보며 웃었다.

전하를 뵙기 전에 무거웠던 마음이 얼마쯤 덜어졌다. 깨어계시든 그렇지 않든 울상인 얼굴로 뵙고 싶지는 않았다. 싱이 있어 주어 언제나 다행이었다.

별채 앞까지 왔을 때 그가 손을 놓아주었다.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에 그를 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인지 복도에까지 약 냄새가 흘러나왔다.

전하를 뵙게 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호흡을 정리하고 문을 두드리려 손을 뻗었다.

"들어오십시오."

인기척이 났나 보다. 마이어스 시녀장이 먼저 문을 열어 주었다. 오고 가는 시선 속에서 그녀가 어렵게 웃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 퀭해진 눈이 현실을 깨닫게 했다. 전하의 다치신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까.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다.

어쩌면 전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으셔서 운이 좋은 건지도 몰랐다. 지금 전하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짧은 시간 동안 주무시는 얼굴만 뵙고 일어났다. 마이어스가 뒤따라 나왔다.

"손은 왜 치료받지 않았소?"

의원을 시켜 연고를 전해주었는데 그녀의 손등은 다친 그대로였다.

"알아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치료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기는 했다. 그녀의 말로 확실해진 것이었고.

"그대가 왕세자를 보낸 걸까 짐작하기만 했소."

제 손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할퀸 상처가 뚜렷한 위로 물방울이 닿고 있었다. 쓰라릴 텐데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울고만 있었다.

말없이 기다렸다. 왕비께서 들으실까 숨죽여 우는 걸 알면서도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도 못 했다. 그녀가 다 울 때까지 같이 있어 줄 뿐이었다.

"저는 저하가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느냐고, 저는 어른인데 그분을 이해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도통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전하께서 그분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 손으로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와 달리 두 손을 모아 쥐는 몸짓은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내색하지 않으려는 속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듯했다.

"알체스테 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젖 동무로 자라났습니다. 같이 궁으로 오고 알체스테 님께서 힘든 시절 끝에 자식을 낳으셨을 때 그분을 제 아들처럼 돌보겠다, 혼자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분을 제 손으로 목 졸랐습니다. 가지 않으시려 손톱으로 제 손을 쥐어뜯으시더군요. 그런 분을..."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대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잘했다고 한다면 왕비님께 못 할 짓이 될 수 있음인데.

그래도 나는 그대에게 고맙다 하겠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이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되기를 바랄 수밖에. 아마 왕비 마마께도 해당하는 말일지 모르겠다. 내게는 원수 놈이었지만 당신께는 자식이었으니.

"그대에게 꼭 부탁하고 싶소. 부디 전하의 곁에 오래오래 남아주시오.

나도 그분을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대가 하는 것만 못할 게 분명하오.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대로, 책임감을 느껴도 좋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전하를 위하는 그대의 마음을 알고 있다오.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 이에게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전하를 잘 보살펴주시오."

쉼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라벤더 궁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다.

다른 이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한 일에 돌을 던지지 못한다. 무거운 짐을 대신 내려준 것에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다.

궁에서 따라온 이를 불러 그녀의 손을 돌보게 했다. 의원의 손길을 받으며 가만히 눈물만 흘리는 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고운 손에 흉이 지지 않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돌보겠습니다."

의원이 눈치 좋게 한마디 했다. 그의 말로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마이어스의 눈물을 거두는 것에는 성공했다.

저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그녀나 전하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내가 아는 이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의원이라 무작정 데려온 것인데. 저자를 이곳에 눌러살도록 회유해야겠다.

밖으로 나오니 싱이 꽃향기를 맡느라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다.

그의 등에 가슴을 기대고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가 번쩍 나를 들어 업어주었다.

"어맛!"

"놀라셨습니까?"

"조금요. 제가 당신을 먼저 놀라게 했지만요."

싱이 조그맣게 웃는 소리를 냈다. 그림자가 비쳐 다 알고 있었단다. 살금살금 조심해서 다가간 보람도 없었다.

"이대로 본채까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내려주기예요."

"네,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될 겁니다."

싱의 말이 주문처럼, 기도처럼 귓가로 스며들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그의 등에서 포근한 향이 났다. 목을 끌어안는 나를 그가 가볍게 추켜올렸다.

나도, 싱도, 아버지도, 잉겐스 님도, 아길리스도, 왕비님도, 마이어스도, 모든 이들이 걱정 없이 행복했으면. 그게 내 뜻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싱의 목덜미에 입술을 눌렀다. 주문을 외듯, 도장을 찍듯.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향기로운 내음이 답을 주듯 흩날렸다.

"자, 얼른 모여보세요! 잉겐스 님께서 재미난 걸 보여주신대요."

시녀들이 재잘거리며 종종걸음으로 모여들었다. 아길리스가 턱을 한 손으로 받치고 그 모양을 보고 있었다.

잉겐스 님 덕택에 저택에서 작은 파티를 열게 되었다. 한턱내신다더니 예쁜 보석을 투척하셨다. 그걸 산 사람이 의외였는데 싱케루스였다.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자기 돈 쓰는 일을 내가 뭐라 하기 그랬다. 그래도 내 남자가 과소비하는 걸 보는 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아스트룸에서 볼일을 보고 시간에 맞춰 오겠다더니 싱은 온데간데없다. 뚱하게 앉아 있으려니 잉겐스 님이 아길리스를 마법으로 데려오신 거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아길리스도 잉겐스 님을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여자들만 상대하고 계시니 그럴 만했다.

"앉아 있기 힘들지 않아?"

"누워 있는 것도 지겨워서. 잉겐스 님께서 회복 마법이라며 애써주시기도 했고."

"그런 마법을 익히셨대?"

"완전한 건 아니고 연습하고 계시대. 나를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셨다니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말을 하며 기분이 좋아진 건가. 얘가 귀 끝이 붉어져서는 딴청을 부린다.

"너는 잉겐스 님의 본모습을 봤다며? 어때?"

연애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만 잠깐 나눴을 뿐 마법 구경이 시작되면서 뒷얘기는 듣지 못했다. 생각난 김에 물었을 뿐인데 아길리스가 홱 고개를 돌렸다.

나를 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뭔데 이러지?

"충격이었어!"

그때부터 못마땅하던 기색은 어디로 가고 잉겐스 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졌다.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느낌인데, 악마도 꼴 보기 싫은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애간장을 태워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것 있잖아?

천상의 신이 내려와 손짓하는 듯하다 지하의 악마가 발목을 잡고 끌어당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둘 다 그냥 정신을 놓고 따라가고 싶은 거야. 설명을 못 하겠다, 야."

그런 말을 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어휴! 생각만 해도 후끈해진다. 걱정인 게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도 될까, 하는 거야. 그래서 잉겐스 님의 실제 모습을 뵙고 나니까 무섭기도 하네.

"지금도 귀엽기는 하시잖아."

"아니야, 저기 가져다 댈 게 아니라니까."

제 이마를 거칠게 비비면서 속 태우는 꼴을 보자니 나도 답답했다.

"우리 싱만큼 잘 생기셨겠지?"

갑자기 아길리스의 행동이 딱 멈췄다. 의아한 점은 저쪽에서 시녀들을 웃기고 계시던 잉겐스 님도 똑같이 행동하셨다는 거다.

그녀가 나한테 콧김을 내뿜는 건 처음 봤다.

"걔가 내 친구이기는 하다만 말은 바로 해야지. 싱케루스는 인간, 잉겐스 님은 신!"

그분은 드래곤이시지. 나한테도 신과 같은 분이라는 건 맞지만 그녀가 이렇게 싱과 비교해서 말하니 반박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저쪽에서 아길리스의 말에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짓고 계시는 걸 보니 의욕이 떨어졌다. 그제야 자기 말을 그분이 듣고 계신 걸 안 친구는 더 붉어질 데도 없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파닥파닥 부채질했다.

좋을 때구나.

어린 후배들을 보는 심정으로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잉겐스 님의 마법도 흥미로웠지만 아길리스의 얼굴이 시시각각 질투와 감동을 오가는 것도 재미있었다.

구경이 지겨워질 무렵 짱콜 주방장이 식사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렸다. 그때쯤 되어서야 싱도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다.

오늘을 위해 개방한 소 연회실이 사람들로 복작거렸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들 맘껏 먹고 떠들고 즐겼다.

나도 아까 일은 잊어버렸다. 춤추고 노래하며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중 싱과 셀 수 없이 춤추었다. 형식을 갖출 것도 없이 서로의 허리를 잡고,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 그게 다 춤이 되었다.

아버지가 바쁘셔서 얼굴만 비추고 가신 게 아까웠다. 같이 춤을 춰본 지도 오래되었으니까.

한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던 길에서 비켜 나왔을 뿐인데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 길만이 정답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길이 존재했다.

이 길도 맞는 답이 아닐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처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숨 막히거나 가슴에 병이 들 것 같지는 않았다.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싱도 그래 보여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음료수만 마셨는데 알딸딸했다. 분위기와 사람에 취한 것이 이런 기분이려나. 싱도 나를 위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나처럼 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잠깐 바람을 쐬고 오시겠습니까?"

"좋아요."

정원으로 나왔다. 별채 근처로 아스라이 빛이 보였다. 전하께서는 아직 소식이 없으셨다. 마이어스 시녀장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

마음이 썼다. 싱이 알아차리고 내 손을 잡았다. 나와 눈을 맞추며 그가 천천히 말했다.

"삶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는 않더군요. 어떤 이는 남보다 더 수월하게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슴앓이를 반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나마 그런 삶들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앞머리를 쓸어준 뒤 계속했다.

"힘든 구간이 남보다 길고, 행복한 시간이 유난히 짧다 해도, 모든 삶은 불행과 행이 번갈아 가며 오더라는 겁니다. 불행한 시간을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상황이 변하는 때가 있더군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버틴 만큼 행복한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전하께서도 다시 웃으실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분이 힘을 잃지 않으시도록 같이 돕도록 하지요."

그의 다정함이 엉뚱한 곳까지 뻗어 있지 않으면서도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아 더 좋았다. 내가 마음 쓰는 이들에게만 이 사람도 마음을 두는 걸 알기에 더 고마웠다.

"기분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그럼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주는데 그의 손이 떨렸다. 뭘 주기에 이러는지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내 손바닥에 주의해서 올려놓았다. 반지를 말이다.

"이건..."

"링은 진작 만들어놨지만 마땅한 보석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잉겐스 님께서 가져오신 걸 보고 저거다, 싶었죠. 당신께 어서 드리고 싶어서 세공업자를 닦달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한 그의 얼굴을 보면서 바로 말하지 못했다. 그의 걱정을 풀어주어야 함을 알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을 뗐다 붙였다, 겨우 말을 꺼냈다.

"이런 건 직접 끼워줘야죠."

손을 내밀자 그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알이 반짝, 빛을 뿜어냈다.

"고마워요. 그리고 난 이런 것 준비 못 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필요 없는 일에 사과가 잦으십니다."

"그런가요. 그럼 그냥 고맙게 끼고 다닐게요."

"네, 받아주셔서 저도 고맙습니다."

다시 손을 펴고 봤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싱을 오해했다.

"싱,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이 반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줄래요? 그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더 생각해서 행동할게요."

"당신이 언제 그러시는 걸 볼 수 있어야죠."

"역시 당신은 아부가 심해요."

인정하는 얼굴을 보고 눈을 흘겼다. 그가 빠르게 내 머리에 입 맞췄다.

"영주님께서 반지를 보시고 뭐라 하시지 않겠죠?"

"아버지 걸로 제가 하나 마련할까요?"

"리리 당신도 준비하시고, 저도 하나 더 제작해 놓겠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서운해하시는 듯해 그냥 내가 선물로 드리려 준비하겠다 말한 건데. 싱도 같이 드리면 더 좋아하시려나.

"아버지 손가락 둘레를 알아놓을게요."

내 부모님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분이 묘하면서도 들떴다.

"싱, 당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물어봐도 될까요?"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될까 궁금해도 참던 걸 지금은 듣고 싶었다.

싱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 얼굴로 그의 가족과 추억,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그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귀뚜라미가 우는 가락에 맞추어 자그맣게 콧노래를 불렀다. 전에 잉겐스 님께서 들려주셨던 루베르의 옛 민요였다.

"춥지 않으십니까?"

"서늘한 게 마음에 들어요. 싱,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걸 들어볼래요?''

그날 밤 싱에게 내가 갖고 있던 청사진을 공유했다. 루베르의 미래에 대해 도란도란 대화했다.

싱은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며 놀라워했다. 그러다 점점 내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급기야 자신이 내 지지자가 되어 주겠노라 약속했다.

싱만 공감하는 생각이라 해도 그것으로 괜찮았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사랑하는 이와 꿈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다 느꼈다.

수도에서 죄인들이 송환되어 왔다. 소식을 듣고 나왔을 때 이미 많은 루베르 인들이 모여 있었다.

줄줄이 묶인 채 굵은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꼴들이 초라했다. 덜거덕거리던 호송 마차가 멈추는 순간 잠시 주위가 고요해졌다.

웨르미노 테레도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내렸다. 잠잠하던 영지민들이 그때부터 분노를 발산했다. 온갖 것들을 그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토마토를 맞고 터진 육즙에 엉망이 된 테레도는 약과였다. 돌을 처맞은 칼리스 노벨의 머리가 깨졌다. 푸카의 사체를 정면으로 맞은 페르도와 브래드는 기겁하며 난리 치다 제풀에 넘어져 뒹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모를 기괴한 것들이 다 등장했다. 그러나 불변의 진리는 역시 그것이었다. 페르도의 얼굴을 아직도 독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바가지째로 퍼와서 뒤집어씌우니 묶인 치들은 피할 도리가 없었다. 초반에는 두들겨 맞을 때마다 호들갑을 떨더니 지금은 진이 다 빠졌는지 흐느낌만 들렸다. 그마저 입을 벌리다 잘못해서 들어간 후로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노벨이 나를 보고 달려들려 했다.

"저 죽일 년! 아가씨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먼!"

누군가 꾸짖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에요! 리벤티아, 잘못했어. 나는 이 사람들과 달라! 너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나는 이제 아버지도 잃었잖아.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줘, 리벤티아!"

그러자 테레도가 바락바락 악을 썼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과회 때도 다 네가 계획한 거잖아. 어디서 아가씨께 친한 척이야! 아가씨,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랫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페르도와 브래드는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들처럼 입을 열려 하고 있었다.

"헛소리하지 마라!"

"개소리하는 것들한텐 개똥이나 먹여라!"

내가 입을 뗄 것도 없었다. 영지민들이 알아서 대답해주었다. 그리고 더 많은 오물이 날아들었다.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 몸을 웅크리는 꼴들에 더 볼일도 없어 몸을 돌렸다.

"저것들의 처리는 너에게 맡기마."

언제 나오셨는지 아버지가 옆에서 걷고 계셨다.

"잉겐스 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들은 무거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남은 평생을 뜨거운 체온과 싸워야 할 거예요. 그 상태로 루베르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모으면서요.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채찍질을 당할 테고요."

"벌이 너무 약하지 않으냐?"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약하다 싶으면 처벌 내용이야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놈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네 분이 풀리는 대로 해야지. 데펙토르 놈은 살려두지 않을 작정이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들은 게 있다. 내가 이미 안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다.

어젯밤 데펙토르가 갇힌 지하 감옥으로 찾아갔었다. 마르티스 경과 집사장은 못 볼 꼴을 보게 될 거라 말렸지만 잉겐스 님이 거들어 주셨다. 속에 든 걸 이 기회에 다 풀고 잊어버리라는 뜻이라 하셨다.

놈은 손가락이 다 잘리고 눈이 지져진 상태였다. 인두로 찍힌 자국이 낙인처럼 놈의 얼굴에 남아있었다.

간수가 내 눈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다음 순서로 발가락을 자르고 귀와 입을 지질 거란다. 그러기 전에 놈을 만나러 오길 잘했다 싶었다.

저 지경이 되어서도 놈은 근엄한 척,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

"리벤티아지? 이게 무슨 짓인 줄 알고서 하는 것이냐!"

"너란 놈은 여기까지 와서 호통이구나."

"뭐? 너? 놈? 허, 내 이 꼴이 되었다만 너는 못 배운 티를 그대로 드러내는구나."

"너야말로 그렇지 않더냐.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했는지 모르지는 않을 거다. 그런 너는 뭐 잘 배웠으려고."

열이 올라 얼굴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놈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다. 이놈에게 해줄 말만 하고 떠날 생각이었다.

"공작이 말하더군. 너를 꼬드겨 일을 벌인 후 끝나고 나면 너도 없애버릴 심산이었다고. 그놈의 둘째 딸을 한 번이라도 보긴 했는지 묻고 싶구나."

"레푸스 놈... 그래서 어쩌라고?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우습고 하찮아서 그렇지. 공녀는 전남편이 죽은 충격으로 백치가 되어 있었거든.

그런 사람을 꼭꼭 숨겨놓고 장기짝으로 이용한 공작도 그렇고, 굳은 약속을 한 동맹을 그따위 수작질에 놀아나 배신한 네까짓 놈도 그렇고.

다들 귀족의 피를 타고나면 뭐해. 본질은 천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걸."

루베르 기사단장이 잡아 온 둘째 공녀는 엉망이었다. 공작부인은 스스로 목을 매달았고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진 걸 잡아 왔다. 그러나 공녀만은 죄를 묻지 못할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른 이의 도움이 없으면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었다. 처치 곤란한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세베루스 후작 부인이 연락을 해왔다.

내가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 전한 것이다. 도움의 손길을 거절할 까닭이 없었다. 이것으로 부인과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너는 조금씩 지져지고 잘려나갈 예정이라지. 그전에 죽지 않도록 우리 마법사가 회복 마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숨만 붙어 있는 몸뚱이는 벌판에 장대를 세워 그 위에 걸어 놓는다더군.

까마귀 떼가 쪼아 먹도록 할 거라니 너도 느껴보도록 해. 다른 이에게 가슴이 할퀴어지는 고통을 말이야. 그런다고 네 놈이 죽기 전에 후회하고 반성할 것 같지는 않다만."

내용과 달리 목소리는 담담하게 나왔다. 말이 이어질수록 놈은 손가락도 없는 손으로, 묶인 의자 팔걸이를 내려쳤다. 씩씩대며 욕을 지껄이던 놈이 볼을 씰룩거렸다.

"그래, 내 마지막까지 알려주다니 친절하기도 하구나. 그렇다면 어디 말해보아라.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어떻게 우리 계획을 모두 사전에 안 것처럼 다 막은 거냐?

당시에는 몰랐다만 갇혀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이 되지 않더구나. 도대체 누구냐? 우리 중에 진짜 배신자가 말이다."

그게 궁금했구나. 그렇다고 네 놈에게 내 회귀 사실을 알려줄 친절은 베풀지 않겠다.

"말하지 않았더냐. 처음부터 네 편은 하나도 없었다고.

레푸스도, 페르도도, 노벨도, 심지어 가네오조차 모두 제 꿍꿍이가 따로 있었다는 걸 너는 몰랐지. 그들이 조금씩 흘린 정보들을 우리는 취합해서 결론 내린 것밖에 없었다.

다 네 놈이 모자라고 부덕한 덕이었지."

숨이 막히는지 놈이 호흡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컥컥거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감옥을 빠져나왔다.

여러 가지 것들 중 이게 제일 못된 놈이었다. 믿음도 기대도 컸던 만큼 우리에게 제일 큰 배신감을 안겨 준 것이 이놈이었으니.

놈은 우리와 약속을 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걸 저버리고 우리의 목숨까지 노린 놈만은 죽여버리면서도, 절대 편히 죽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심전심이었다. 놈이 죽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끔 몰아가면서도 쉽게 그를 놔주지 않으실 것 같았다.

더는 이놈에 관해 내가 관여할 게 없을 터였다. 긴 악연이 끝나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마이어스가 급한 호출을 보내왔다. 전하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이었다.

한달음에 달려간 곳에서 마이어스부터 만나게 되었다. 별채 입구에서 그녀가 나를 잡더니 일러주었다.

"알체스테 님께 제가 한 짓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아직 심신도 추스르지 못한 분께 충격을 드린 것이오?"

"도저히 그분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야 이마저 제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짓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대로 알체스테 님을 뵙는 것이 그분을 기만하는 것만 같아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떠시오?"

"당분간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도 식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영지 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해둘 테니 그곳에 나가 있으시오. 그대도 고생이 많았으니 이번 참에 쉬는 게 좋겠소."

"저는, 그분께서 깨어나신 걸 봤으니 됐습니다. 이제 떠나야지요. 제가 무슨 염치로 이곳에 있겠습니까."

"그대가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네오를 죽여버렸을 거요. 그런 논리라면 나 역시 전하의 곁에 있을 수 없겠지.

전하께 그대는 형제와 같은 이라 들었소. 성급하게 굴지 말고 잠시 밖에 있다 보면 전하께서 그대를 찾으실 날이 오지 않겠소?"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듯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눈 안에는 희망이 담겨있기도 하였다. 안된 마음이 들어 시녀를 시켜 그녀를 보살피게 했다. 그러고 나서 전하를 뵈러 갔다.

홀로 들어간 방에서 전하는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계셨다. 이분을 지키고 있던 시녀를 내보내고 그 발치에 꿇어앉았다. 올려다보이는 얼굴은 모든 힘을 잃은 듯 지쳐 보였다.

"전하,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면서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호칭으로 불릴 이가 아니라오. 그대도 더는 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호칭은... 허락하신다면 '어머니'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알체스테 님의 미간과 눈가에 주름이 졌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대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오. 이곳은 루베르라고 들었소. 신세 지는 것도 못 할 짓이니 곧 짐을 싸 나가리다."

"전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지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나가야 할 이를 내보내 준 것밖에 없었소. 거창한 일도 아니었지."

회귀 전 도와주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왕세자 이야기가 나오면 상처를 들쑤시는 일이 될까 봐 참았다. 오늘 들으신 진실만으로도 벅차실 수 있을 터였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딸처럼 느껴지셨다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다면 전하와 같지 않을까, 줄곧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분이 정말 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지요.

제가 돌아가신 분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어찌 내가 그대의 어미가 될 수 있겠소. 나는 내 자식도 건사하지 못한 이라오."

"저는 그런 어머니조차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살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곁에만 계셔주세요.

짐승도 그렇답니다. 어미 잃은 어린 짐승을 다른 짐승이 대신 거둬준다지요. 저도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엄마를 만난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다. 그중에서 엄마에게 조를 일이 있다면 꼭 지어보고 싶었던 표정을 했다. 내가 부리는 어리광을 지켜보시던 전하께서 입술을 깨무셨다. 고개를 가로젓다 멈추고 계신 분께 손을 내민 지 한참. 망설이던 분이 드디어 내 손을 잡아주셨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눈을 커다랗게 뜨시고 입술을 파르르 떠시는 게 보였다.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아 주셨다.

어머니의 손등에 볼을 가져다 댔다. 그 손에 얼굴을 비비고 있으려니 머리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가만히 그대로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눈물도 그치신 듯해 고개를 들려던 차였다. 내 몸을 덮는 것이 있었다.

어머니가 몸을 숙여 나를 안아주고 계셨다. 처음으로 느껴본 그것은 눈물이 날 만큼 보드랍고 따뜻했다. 진실로 어머니의 품이었다.

마리아 백작이 편지를 보냈다. 바빠서 오지 못하는 대신 수도 사정을 알려주었다.

왕위 계승권자를 찾아 헤매던 귀족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20여 년 만에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 비슷한 것이 벌어질 기미가 보였단다.

그에 불길함을 느낀 세베루스 후작 외 몇몇 이들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귀족 연립 정권이었다.

백작이 평하기를 여전히 불안의 씨앗은 존재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도 미봉책에 가까워 보였다. 그래도 그럭저럭 혼란스러운 정세가 수습되고 있다니 지금으로서는 괜찮은 결론이었다.

새로운 정권하에서는 평민들의 지위가 이전보다 대폭 올라갔다. 데펙토르를 쫓아내는 시위에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저력을 보여준 게 계기가 되었단다.

자신의 힘을 확인한 평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들을 외면하지 못한 귀족들의 사정도 있었다. 어쨌거나 복합적인 이유로 소수 평민 대표단이 국정 운영에 참여키로 했다.

그와 더불어 여성 지위 향상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가령 마리아 '부인'을 더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됐다. 이전까지 사석에서는 '백작님'이라든가 편한 대로 부를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 그는 그냥 '부인'이었다.

대표적인 남녀 차별 사례 중 하나였는데 나는 특히 왕족으로서 언행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며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도록 교육받았다. 그녀에게 교습받을 당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다가 본인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인제 보니 백작도 그렇게 가르쳐야 했으니 그랬던 것이지 내심은 별로였던 듯했다. 호칭이 바뀐 것을 알리는 문구에 벅찬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더 바빠졌다고 한다. 새 정권 출범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됐단다.

그래서 직접 보고 자랑하려다 할 수 없이 서신으로 알렸다. 답장을 보내면서 내게 어머니가 생긴 사연을 동봉했더니 무척이나 놀라면서도 같이 기뻐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나누면서 싱과 했던 이야기도 들려드렸다.

"루베르 공국을 선포하자고?".

"네, 기존 영지만으로도 공국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더구나 푸르스와 레푸스 영지까지 우리가 합병하면서 루베르 면적은 레스토나 마레인의 절반이 넘게 되었어요.

재력은 이미 그들을 넘어섰고 군사력으로 따져도 그럴 거라 추산돼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지가 넓어지면서 마르티스 경의 일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앓는 소리를 하는 그를 위해 새로 들인 부관 대리, 히스가 열성적인 목소리로 찬성했다.

"많은 루베르 인들의 염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진즉에 우리는 다른 왕국들과 어깨를 견줄 정도가 됐음에도 그동안 너무 미적거렸습니다."

"영지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더 모아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가 덧붙여 말씀하셨다.

"티아가 말한 공화 정치 체제라는 것도 의견을 모아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왕이니 왕자니, 그런 것도 이제 지겹구나. 우수한 평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한 사람의 공감자가 더 는 것만으로도 조금 흥분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있었다. 마르티스 부관이었다.

"공국 체제로 가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공화정은 안 됩니다.

섣부른 변화는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루베르에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점진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때가 무르익기만을 기다리기보다 그런 때를 당기는 겁니다.

이곳 권력의 최정점에 계시는 영주님께서 마음 잡수신 이상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히스가 반박하자 마르티스는 뜸 들이는 듯하더니 생각을 말했다.

"루베르는 다른 곳과 달리 귀족 위를 받은 자의 수가 적은 편이네. 개중에 텃세를 부리는 이도 없어. 영주님부터 솔선수범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어쨌든 기득권 세력이지. 그들이 손아귀에 들어온 권력을 쉽게 내놓을 거라 보는가?"

"그래서 아버지와 경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오. 루베르에서 가장 지위 높은 두 분이 힘을 합해 준다면 그들을 설득하기 더 여의치 않겠소?"

내 말에 경은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라 했다. 나도 그것에 동의했다. 아버지는 다른 이들과 의논해보겠다고 하셨다.

히스만이 대화가 그렇게 끝남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추종자가 되었다.

아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직 싱만은 그를 견제했다. 작고 우스운 소동에 불과한 일이었다.

잉겐스 님과 아길리스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 관심을 나타냈다.

"머나먼 대륙에서 그런 통치 구조를 취한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곳도 다시 왕정으로 복귀했다더구나.

두코와 네가 귀족 위를 포기한다 해도 너희 후손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욕심이란 끝이 없으니.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함께해야 한다.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게야."

"잉겐스 님의 말씀이 맞아. 나 같은 사람이야 좋지. 계급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라니! 꿈만 같은 이야기네.

하지만 귀족들만이 아니라 평민들도 전부가 그것에 동의할지는 모르겠다. 지배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도,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법이거든."

"단기간에 끝낼 수 없으리란 걸 알아.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어.

이런 건 다른 이가 아닌, 가장 기득권에 가까운 아버지나 내가 나서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공국은 나도 대찬성!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그냥 일개 영지로 머물러 있기에는 여기가 너무 아까워.

양 왕국 사이에 끼여서 치이는 건 그만해야지. 레스토에 세금 갖다 바친 것만 해도 얼마냐.

그럼 아스트룸 지부도 더 확장해야겠네. 이참에 본부를 이곳으로 바꿔버릴까."

잉겐스 님께서 매일 회복 마법을 걸어주신다더니 아길리스의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다. 의원이 몇 달을 정양해야 할 거라더니 며칠 만에 쌩쌩해 보였다.

활기 넘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흐뭇했다. 잉겐스 님도 그러셨는지 인자하신 얼굴로 그녀를 보고 계셨다. 그러시고는 나를 힐끗 보시며 손을 내저으셨다.

나가라는 말씀이었다. 안 그래도 자리를 피해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잉겐스 님의 몸이 빛나더니 순식간에 빛무리에 휩싸이셨다. 그러다 빛이 은은해지면서 그분의 몸이 희미해져 갔다.

외마디 소리를 지른 후 놓치지 않으려 손을 내뻗었다. 아길리스도 같이 달려들었다.

"잉겐스 님!"

그녀가 나보다 한발 빨랐다. 그분을 감싸 안았는데 둘 다 사라질 뻔했다. 내 손이 닿기 직전 잉겐스 님께서 손을 들어 막으셨다.

"호들갑 떨 것 없다. 몸이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단다."

그러고 보니 투명에 가까웠던 몸이 다시 선명해지면서 크기를 훌쩍 키우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다봐야 했던 꼬맹이가 어느덧 싱만큼 커졌다.

아길리스의 허리를 한쪽 팔로 안고 계신 모습이... 설명으로 들었던 건 비할 바 못 되는구나.

"와우!"

뒤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아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다. 그중 우리가 내지르는 비명을 듣고 온 누군가가 내는 소리였다.

"코피 터질 것 같아요."

그런가. 저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신체 기관도 제멋대로 작동하기 마련인가 보다. 나도 주책맞게 침이 나올 뻔했으니. 이런 걸 싱이 못 봤으니 망정이다.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입고 있던 옷이 맞을 리 없었다. 몸이 급격하게 자라면서 자연스레 걸치고 계시던 옷도 찢어져 버렸다. 첫날 뵈었을 때 당신의 근육을 목놓아 찾으신 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보다.

저런 걸 복근이라 한다지. 배에 실금처럼 새겨진 근육이 탐스러웠다. 어깨도, 다른 곳도... 계속 묘사하고 싶지만. 더 나가다가는 성희롱이 될 수 있으니 참으련다.

"우리 잉겐스 님, 운동 열심히 하셨구나."

절로 튀어나온 말에 뒤에서 더 난리였다.

"저분이 잉겐스 님?"

"우리 마법사님이요? 오, 신이시여!"

그들이 다른 이들을 부르고, 새로 들어온 이들은 다시 놀라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둘만은 조용했다. 잉겐스 님이 아길리스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녀도 그분의 등을 끌어안고 마주 보는 자세였다.

움직임도 없이 서로를 응시하고 있는 둘의 분위기가 주변 반응과 대조적이었다. 눈치 없는 자들은 아니었는지 떠들던 이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었다.

"금방 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서 말이야. 어젯밤 로드께 한바탕 하소연을 쏟아부었더니 나를 가엽게 여기신 모양이다.

먼 곳에서 힘이 전해져 오는 걸 느꼈어. 그 도움을 받아 완전한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럼 이대로 변함없이 계실 수 있는 겁니까?"

아길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다. 잉겐스 님이 귀여운 것을 보듯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셨다.

환상의 미소란 저것을 말함인가. 분명 두 사람이 주고받는 표정인데 나에게 내린 축복처럼 가슴이 뛰었다. 뒤에서 툭,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예상에는 그렇지 않을까 한다. 너를 이렇게 안을 수 있다니 꿈만 같구나."

아길리스가 뭐라 속삭였다. 잘 들리지 않아 나도 모르게 앞으로 발을 떼려 했다. 뒤에서도 움직이는 소리가 난 걸 보면 다들 같은 심정이었을 거다.

잉겐스 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아직도 거기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그 얼굴마저 눈이 부셨다.

"너희는 다음에 얘기하자꾸나."

이동 마법이 몸에 전개됐음을 알 수 있었다. 방에 있던 이들이 하나 같이 어어, 하며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 통에 놓칠 뻔했지만 닫히는 문틈으로 봤다.

둘이 열렬하게 입술을 부딪치는 걸. 흠, 어른의 입맞춤이란 저런 것이구나.

복도에서 얼떨떨한 얼굴들과 시선이 마주쳤다. 아가씨는 이르다는 소리를 어떤 이가 했다. 얼굴을 기억해뒀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귀를 기울여 방 안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그것이 허사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분께는 소리 차단 마법도 있단 말이다.

"귀여운 아이가 화려한 남자로 변신하는 마법이었을까."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었잖아. 난 저렇게 청수하면서도 요염한 얼굴은 처음 봐."

"저런 얼굴은 처음이자 마지막일걸."

아쉬움의 탄식들이 번갈아 나왔다. 싱에게 미안하지만 비교할 데가 아니었구나. 전에 아길리스의 대응은 점잖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저분이 저택에 머무시는 동안 더 뵐 수 있는 게 어디야.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그날 저택이 온통 술렁거렸다. 늦게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그분을 뵙고자 앞을 서성거렸음에도 닫힌 문은 열릴 줄 몰랐다.

형편을 모르는 이들은 왜 방문이 안 열리냐고 불평했다. 재미있는 건 그들에게 그 이유까지 말해주는 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 방에 든 연인이 종일 무엇을 할지는 성인들만의 상상 속에서나 남겨둘 일이었다. 그걸 다들 모르지 않았겠지.

물론 가끔 나 같은 미성년도... 생각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들 또한 입을 다물 줄 아는 지성인이기에. 쉿!

감상이 궁금한데 차마 묻지는 못하고 지긋이 보기만 했다. 차를 마시다 말고 아길리스가 고개를 들더니 그런 나를 쳐다봤다.

"큼큼, 성인이 되면 뜨겁고 불타는 밤들을 많이 보내니까 조금만 참아."

글쎄, 과연 그럴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 또한 그런 줄 알았다. 그러나 방 밖으로 쫓겨나온 후 시녀들이 소곤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른들의 사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다.

아무튼 기분 좋은 듯한 그녀의 말을 끊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때였다.

"아가씨, 트루피 영감이 뵙기를 청합니다. 어떡할까요?"

시녀의 말에 아길리스에게 동의를 구했다.

트루피는 40년 경력의 마구간지기였다. 아버지가 영주에 오르신 후 루베르 저에서 죽 같이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아실과 어울려 지내다 보니 그와도 자주 보는 편이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못생겨서 이름도 그런 뜻으로 부모가 지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외모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그 스스로 다른 이들과 만나기를 꺼렸는데 그가 나만은 스스럼없이 대해주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찾아올 만큼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들어오다 아길리스를 보고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사연을 털어놓는 게 더 급해 보였다. 그때부터 딱한 하소연이 시작되었다.

"글쎄, 아셀 그놈이 말입니다. 제가 주는 여물을 입에도 대지 않는 겁니다. 궁에 있던 놈이라기에 아실보다 더 챙겨서 살펴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디 안 좋은가 싶어 수의사에게도 보였습니다."

"콧수염이 멋들어진 그 사람 말인가?"

"그렇습죠. 그런데 이놈이 수의사의 손이 닿자마자 발광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 녀석을 보러 가려 했다.

"가보시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가 손을 펴서 휘저었다. 엉거주춤 자리에 다시 앉았다. 얼굴에 웬 멍을 시퍼렇게 달고 와서 죽상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었다.

"하루 꼬박 물도 안 먹는 놈을 어쩌지 못해 아가씨께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페리나가 근처를 지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압니다. 예쁘장하기로 소문난 시녀 맞죠?"

아길리스가 거들어주자 그가 제 무릎을 손바닥으로 쳤다. 낯선 이를 의식하는 듯하더니 그녀 특유의 편한 분위기에 동화되어갔다.

"바로 그겁니다! 예쁘장한 거요! 네, 예쁜 게 중요했더란 말입니다."

맥락이 없는 말 같았지만 듣고 있었다.

"아셀이 속을 썩여서 제가 아실까지 돌보기에 힘에 부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페리나에게 아실을 부탁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놈을 맡겨놓고 아가씨를 만나러 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늙은 마구간지기는 세상 다 산 것 같은 얼굴을 해 보였다.

"제가 곁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발광... 을 하더니 페리나가 다가오자 얌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애가 신기하다며 녀석에게 시험 삼아 당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요?"

"날름 받아먹더란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렇게라도 일이 풀려 한시름 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아길리스가 호응해주자 그가 더 슬픈 표정을 지었다.

"페리나가 가버리니 이번에는 더 시끄럽게 굴더군요. 얼른 그 아이를 찾아와 달라, 부탁하려 지나고 있던 세레피를 불렀습니다."

세레피는 페리나와 막상막하, 예쁜 시녀로 꼽히는 아이였다.

"놈이 또 얌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번개처럼 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레피에게 여물을 주어 놈에게 먹이게 해 봤습니다."

왠지 다음 말을 알 것 같았다.

"잘 받아먹었겠군."

마구간지기의 눈에 눈물에 매달렸다. 아길리스도 알아차렸는지 안타까운 소리를 냈다.

"실험해봤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보니 꽤 많은 이들이 도와주더군요. 놈은 기준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예쁘고 젊은 이, 그거면 다 됐습죠."

트루피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었다.

어쩐지 기가 빠지는 느낌이었다. 돌이켜보니 싱도, 수비토도 다 잘생기고 젊은 사람들이었다. 궁에 있는 마구간 담당자도 그랬던 것 같고. 브래드 놈마저 그랬으니 이때까지 그런 줄 몰랐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아실 말입니다."

"우리 아실에게도 무슨 일이 있나?"

어제도 보고 왔지만 괜찮던데.

"아셀이 제 우리를 뛰어넘었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놈이 없어져서 다 찾아봤더니 아실이 있는 방에 가 있더란 말입니다. 밤마다 그랬나 봅니다. 감쪽같이 몰랐던 걸 저한테 들킨 이후부터 놈이 대놓고 아실 옆에 있습니다."

"아실은 암말이라지 않았냐?"

"응. 아실이 가만히 있던가?"

아실은 성질이 순한데도 수말만 근처에 오면 견디지 못했다. 하도 날뛰니 아직 교배도 한 번 못 시켜주고 있었는데.

"그게 참말로... 말끼리도 천생연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얼마나 붙어먹는지..."

"음, 음."

아길리스가 그에게 눈치를 주었다.

"아이고, 저런. 제가 헛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됐네. 아실이 발정기도 아닐 텐데 그게 걱정이군."

"수의사 선생에게 보였더니 괜찮답니다. 살이 조금 빠진 것 말고는요. 휴... 아셀은 온몸에 광택이 번지르르하게 돌고 있습니다만. 제 얼굴 보이시죠?"

"그래, 묻고 싶었지만 곤란한 사정이 있을까 참고 있었네."

"이것도 아셀한테 받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실에게서 떼어내려다 당했습니다. 이만하면 그놈이 많이 봐준 거겠죠."

무슨 슬픈 전설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면 나에게까지 왔겠나.

"수고가 많았군."

"그래요, 영감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트루피는 털어놓으니 후련해졌다며 인사를 전하고 갔다. 그가 나가고서도 둘 다 마땅히 할 말이 없었다. 다른 이를 시켜 그에게 챙겨 줄 만한 선물을 딸려 보낸 후 멀뚱히 앉아만 있었다. 그러다 아길리스가 겨우 한마디 내놓았다.

"잉겐스 님이 영물이라더니, 이런 의미인 줄은 몰랐다."

나도 그래. 이건 영물이 아니라 요물 수준이 아닐까. 트루피가 그 녀석들에게 가보는 걸 극구 말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보내주었다.

아실이 새끼를 뱄다고. 발정기를 뛰어넘는 아셀의 능력에 감탄한 수의사가 다른 암말을 밀어 넣어봤다고 한다. 그러나 녀석은 아실 말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단다.

루베르에서 전해오던 드래곤 전설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고 있었다.

루베르 공국 선포식 날이 다가왔다. 레스토에서 온 축하 사절단을 맞느라 오전부터 밖에 나와 있었다. 가볍게 기침을 하자 싱이 근심에 찬 얼굴로 물었다.

"실내로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다 쉬었더니 마르티스 경이 뭐라 그러네요."

"그가 당신께 무섭게 굽니까?"

싱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그런 모습도 귀여워서 그의 손가락을 살살 간질여 주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일이 바빠 고생하는 사람 말을 그냥 넘기기에는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

"부관 대리 말고도 인력을 더 뽑았다고 들었습니다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스트룸에서 인재를 다 채갔다면서요. 마르티스 경이나 히스 씨가 저한테 하소연하던데요."

멈칫하는 것이 우리 부관들의 말이 맞았나 보다.

"제리탈 씨가 의욕이 넘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루베르를 위한 마음은 같은걸요. 다만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더군요. 마르티스 경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네."

겨울로 들어서면서 루베르의 미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변했다.

그 하나로 아스트룸을 루베르 공식 정보 단체로 섭외했다. 그들 소속을 루베르 공국 하에 두어 직원들의 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면서 루베르는 필요한 인력을 힘들이지 않고 충원할 수 있었다.

"제리탈 단장에게 자리를 넘겨준 걸 후회하지 않아요?"

"네, 물론입니다. 저보다 일도 더 잘하더군요. 저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단원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물려받은 감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 꿈은 모험가라고요."

"네, 세상 곳곳을 돌아다녀 보고 싶댔죠."

"그렇습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당신과 같이 떠나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단장이 일을 아주 잘 해내니 저도 안심하고 당신을 데려갈 수 있겠어요."

제리탈이 아스트룸 단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한 일은 마레인의 정세를 휘젓는 것이었다. 레푸스 공작의 첫째 딸과 그녀의 남편이 폭탄을 공급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였다.

그쪽도 왕위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공녀의 남편이 득세하는 왕족에 속했다. 공작이 죽은 후 조금 주춤하던 그에게 우리가 폭탄을 떨어뜨려 준 거다.

정보 조작을 통해 그들의 세를 약하게 만들면서 진짜 폭탄까지 그들 영지에 터뜨렸다. 여분의 폭탄을 모아뒀다기에 거기를 알아내서 같이 날렸다. 연쇄 폭발이 엄청났다고 들었다.

우리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들을, 마레인 왕족들이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틈에 공녀와 그 남편은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

"그도 만족하더군요. 용병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것보다 정보를 다루면서 막후에서 움직이는 게 더 취향에 맞는다고 합니다.

그보다 당신을 염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들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래요. 뭐 그런 일로 내가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건지."

내가 냈던 의견에 대해서 주민 투표까지 열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묻고 다니기에 번거로움이 많아서 공론화시켜 의견을 모으기로 한 거다.

결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투표한 끝에 공국으로 바꾸는 안에는 찬성, 공화정으로 가는 것에는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제안한 사람이 나라는 걸 안 주민들은 미안해했다. 볼 때마다 나를 위로하려 드는데 속마음을 다 보여 줄 수도 없고.

전혀 기분 상하지 않았다. 그런 꿈을 꿔볼 수 있는 것 자체로 행복했기 때문이다. 회귀 전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아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루베르 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도 보람찼다.

정치 체제를 바꾸는 안은 부결됐지만 대신 평민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로 했다. 잉겐스 님의 조언을 수용하여 사람들의 의식 수준부터 끌어올리기로 한 일환이었다.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서로의 혈통을 따지지 않고 어울려 놀 수도 있을 테다. 꼭 체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이런 일을 계기로 귀족이나 평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

도리어 내가 어리석어서 성급한 물결을 일으킨 게 아닌가 했다. 잉겐스 님께서는 그저 흐름에 맡겨두라 하셨다. 내 미약한 돌멩이가 큰 파도를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면서.

요즘 잉겐스 님은 아길리스와 같이 학교 건물 공사 터에 다니신다. 그곳에서 인부들을 돕는 게 즐겁다고 하셨다. 지금도 그곳에 가 계시는 중이었다.

"어머님께서 오시는군요."

"저더러 먼저 가라고 하시더니 뒤처리를 혼자 하고 오셨나 봐요."

"요즘 어머님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지금도 힘든 기색은 없으십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매진 중이시다. 고아들, 아픈 아이들, 부모가 일하느라 낮 동안 혼자 남은 아이들. 가리지 않고 성심성의껏 봐주셨다.

그 일을 함께한다고 나 역시 바빴고. 내가 없어도 여기 일은 잘만 돌아가건만. 마르티스 경이 엄살을 부리는 바람에 혼자 온 게 후회됐다. 어머니가 이렇게 늦게 오실 줄 알았더라면 더 있다가 오는 건데.

그때 마리아 백작 일행을 태운 마차가 도착했다. 백작이 가장 앞서 내리고 있었다. 때마침 그녀가 보는 쪽으로 어머니가 오고 계셨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게 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도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가 곱게 접혀 들어갔다. 반가운 얼굴이었으니 왜 안 그렇겠나.

백작이 정중하게 인사한 후 어머니께 달려갔다. 그녀가 뛰는 모습을 처음 봤다. 놀라 우두커니 서 있다 보니 다른 귀족들도 마차에서 내리다 말고 놀라는 걸 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안내하려 다가가자 머쓱한 웃음들이 터졌다. 각자 선 자리에서 환하게들 웃고 있었다.

왠지 덩달아 가슴이 뿌듯했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구나.

찬바람이 멎고 푸른 하늘로 해가 쨍하게 나왔다. 눈이 부신 척 손으로 쓸어 눈 끝을 닦아냈다. 싱이 다 안다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마주친 눈길에 알 수 있었다. 행복이 바로 옆에 와있었다.